

# 여성학연구

## 2025년 제35권 2호

### 논문

- 다층적 불안정성을 거슬러 살아내기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젠더화된 행로 | 김현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사례와 시사점 | 이수정  
2024~2025년 탄핵 광장의 청년 여성들 - 프레카리티와 출현의 정치 | 이은아 · 신경아  
동아시아 '위안부' 서사의 탈민족주의적 재현과 화해 전략 연구  
- 『춘자의 남경』과 『벚꽃』을 중심으로 | 타이페이한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의 내면화 양상 | 전지원  
청년 레즈비언 '부치' 수행의 해석 | 송우인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관계  
-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 신현우 · 양난미  
횡단하는 물질과 여성의 몸 궤적  
- 초기 성인기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 | 추지현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 김민혜 · 유순화 · 정애리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 오유라



# 여성학연구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35권 제2호 | 2025. 10.

Vol.35. No.2. | 2025. 10.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목차 |

특집 논문

김현미 | 다층적 불안정성을 거슬러 살아내기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젠더화된 행로 ..... 7

이수정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사례와 시사점 ..... 39

일반 논문

이은아·신경아 | 2024-25년 탄핵 광장의 청년 여성들  
- 프레카리티와 출현의 정치 ..... 71

타이페이한 | 동아시아 ‘위안부’ 서사의 탈민족주의적 재현과  
화해 전략 연구  
- 『춘자의 남경』과 『벚꽃』을 중심으로 ..... 115

전지원 |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의 내면화 양상 .... 149

송우인 | 청년 레즈비언 ‘부치’ 수행의 해석 ..... 175

신현우·양난미 |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관계  
-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 209

추지현 | 횡단하는 물질과 여성의 몸 궤적  
- 초기 성인기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 ... 251

김민혜·유순화·정애리 |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 287

오유라 |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 321



김현미 | 다층적 불안정성을 거슬러 살아내기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젠더화된 행로

이수정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사례와 시사점



# 다층적 불안정성을 거슬러 살아내기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젠더화된 행로\*

김현미\*\*

## | 목차 |

- |                          |                 |
|--------------------------|-----------------|
| 1. 문제 제기과 연구 목적          | 4. 성적 위협과 성적 교환 |
| 2. 이주여성의 법적 불안정성과<br>체류권 | 1) 친족 성폭력의 위협   |
| 3. 모성과 제한적 시민권           | 2) 여정 남편의 존재    |
|                          | 5. 결론           |

## | 초록 |

대규모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일정한 변화를 겪었으나, 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법적 위상은 여전하다. 또한,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 한 '모성' 실천은 여성의 체류 자격과 시민권 획득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성적·경제적·문화적 불안정성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젠더화된 불안정성(gendered precarity)이 여성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생존 전략을 촉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수집한 결혼이주여성의 면접 사례와 2019년 베트남에서 수행한 귀환 여성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했다. 법적 불안정성, 모성 시민권,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거래라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억압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4년 12월 14일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주최한 정기학술대회 <젠더, 모빌리티, 그리고 공존(불)가능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유익한 논평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hmkim2@yonsei.ac.kr

**주제어:** 국제결혼, 법적 불안정성, 모성, 성폭력, 신원보증제도, 이주여성

##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98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은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 중심 경제에서 재생산 중심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촉진되었다. 특히 돌봄, 가사, 친밀성 관리와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하던 영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위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이동하는 초국적 노동 흐름이 구조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경제적 참여를 넘어 돌봄, 감정노동, 가사 서비스와 같은 재생산 노동 전반에 여성을 핵심 주체로 위치시키는 글로벌 분업 체제를 형성하였다. 국제결혼 역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대표하는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결혼과 가족 구성을 목적으로 한 여성들의 초국적 이동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가족 전략을 넘어, 국가 정책, 인구 구조, 노동시장의 재편과 맞물려 구조적으로 촉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돌봄 제공자, 재생산의 매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젠더화된 이주 체제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한국 사회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족 내혼(endogamy)’을 이상적 결혼 형태로 간주하던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조선족 동포와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 여성들이 농촌 지역 미혼 남성의 잠재적 배우자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여성들의 결혼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결혼 시장과 가족 구조는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이혜경, 2005).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결혼의 형태를

다양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인구정책, 시민권 체계, 젠더 질서 전반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인종, 국적, 지역을 초월한 결합으로 한국사회의 폐쇄적인 단일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열린 개방성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결혼이주자는 반-이민 국가인 한국에서 정착형 이민이 허용된 이주자로 이들의 대규모 유입은 한국사회의 혈연주의 국적 체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대규모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일정한 변화를 겪었으나, 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법적 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 한 ‘모성’ 실천은 여성의 체류 자격과 시민권 획득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법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이들에게 어떤 성적, 경제적, 문화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주민의 입국, 거주, 그리고 근로 상태는 시민권에 대한 공식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강요되는 취약성과 의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이주자에 부여된 다양한 제한과 구속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불안정성으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결혼이민 정책과 사회통합의 방향은 결혼이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여성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고, 규율하며, 조절하는 권력과 지식의 체제이다. 결혼이주여성 ‘다움’의 사회적 규율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임의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들어, 선주민과의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을 특정한 젠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빠지게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억압을 신원보증 시스템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모성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거래라는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억압의 다중적 층위를 조명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주요한 분석 개념인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을 통해 젠더,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차별의 축이 겹쳐지는 현상을 보는 것이다(Crenshaw, 1991). 교차성 관점은 젠더 억압을 단선적 범주로 분석하는 전통적 페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고, 젠더·인종·계급·시민권·섹슈얼리티·이주 배경 등 다차원적 권력 축이 '교차'하여 구성하는 억압 구조를 드러내는데 유효하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 시민권 접근성,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단선적인 '젠더 억압'으로 환원되지 않고, 비국민, 인종화된 타자성과 계급 등과 서로 얽히고 중첩되는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조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차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새롭게 촉발되는 삶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과 삶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며, 여성, 소수자, 이주민을 포함한 "타자들"에 대한 극단적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더욱 유연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조건을 전면적으로 가용하여 적응력을 발휘해야 한다(Casas-Cortés, 2014).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화된 불안정성(gendered precarity)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된다. 이들에게 불안정성은 단지 노동시장 접근이나 체류 자격의 불안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성 수행의 의무,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거래, 관계적 의존 구조 속에서의 취약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젠더화된 방식으로 배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은 단순히 피해 서사로 고정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 재구성된다.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감수하거나 불안정한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안정성을 새로운 경험과 전략의 장으로 전환한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결혼이주여성이 어떠한 구조적 조건 속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젠더화된 불안정성(gendered precarity)은 그 구조적 조건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조명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려는 이주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상

치 못한 법적 취약성,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에 노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 개인적 문제로 환원되어 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더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선택과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젠더화된 불안정성은 한편으로 여성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이를 거스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역설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이주여성이 마주하는 불안정성이 왜 구조적으로 지속되며 그 취약성이 어떻게 가중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이주여성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조건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경험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다층적인 위협과 불안정성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불안정성, 출산과 양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국적 부여와 체류권, 친족 성폭력 피해와 성적 친밀성의 욕망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젠더화된 불안정성을 가속화 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과 기존 학술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심층 면접 자료는 한국에 정주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자료와 몽골과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집한 사례를 포함한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귀환한 베트남 여성의 사례는 2019년에 수행한 베트남 거주(체류)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의 일부이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으며, 최종 연구 결과는 2021년 3월 2일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7001988-202103-HR-705-03). 본 논문은 국민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법·제도 및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행로를 “다층적 불안정성을 거슬러 살아내기”라는 개념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 2. 이주여성의 법적 불안정성과 체류권

이주여성은 ‘체류권’ 여부로 삶의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정부는 저출산과 가족 구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이들의 주변적 위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에 중점을 둔 반면, 이주여성들의 법적 지위는 취약한 편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이주민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신원 보증제는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외국인 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만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신원보증)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3).

- ① 법무부 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의 신원보증제도는 외국인을 고용 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책무와 보증만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신원보증제도가 국제결혼에 작동하는 방식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체류권과 국적 획득 전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유사 사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국적자의 신원보증은 이주민의 유입-체류-귀화의 전 과정에 개입한다. 외국인 여성이 본국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남편은 신원보증인이 되어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최초 입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신원보증서는 최소 2년, 최대 4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보통 4년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신원보증서 기한 내에 최소 1회 이상 기한 연장이 필요하게 되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거나 보증기간 만료 후 다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김유정, 2021: 64). 보증인인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및 거주 권리를 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연구자가 몽골에서 면접한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결혼 비자를 받고 입국하려다 인천 공항에서 남편의 보증 철회로 몽골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 이 여성은 몽골을 방문한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10일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여성은 몽골로 되돌아갔지만,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는 몽골의 시민청에 등록된 결혼을 파기하려 남편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결혼 생활도 해 보지 못한 채 몇 년간 결혼 상태에 있었다. 당시 몽골을 방문한 본 연구자와 활동가가 위임장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혼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2019년 베트남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은 남편이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이 임신했으니 잠시 설 겸 친정에 다녀오라며 비행기 표를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한다. 이후, 한국에 다시 돌아

오려 했으나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 재입국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잠적했고, 여성은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 기르고 있다. 이렇듯,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의 유입 및 체류 자격 등 한국 내 법적 성원권 획득의 전 과정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행사하는 권력은 막강하다. 이주자의 경우 체류권은 이들의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여성들은 체류권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과 착취, 무시 등을 견디는 경향이 크다. 신원보증제는 부부관계를 매우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하게 만들어 여성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이탈자’로 신고하면, 신원보증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권은 박탈된다.

체류권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원보증은 여성들을 경제적 취약성을 증폭시킨다. 한국에 온 지 3년째인 필리핀 여성 A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영어 보조교사로 일했고, 이후 공장 근로, 통·번역, 무역회사 직원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어느 날 남편이 체류권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통장을 달라고 했고, 각종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했던 A 씨는 별 의심 없이 모든 서류에 사인했다. 나중에 A 씨는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며, 자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다. A 씨는 저축한 모든 돈을 잃었고, 결혼 8년째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다. 남편의 신원보증은 종종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로 이어진다.

한국인 배우자의 영향력은 이혼 과정과 이후에도 지속된다. 2019년 베트남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주여성은 최종적으로 법적인 이혼이 이뤄졌는지 알지 못하거나 법정 이혼으로 이혼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현미 외, 2019).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 판결문과 이혼의사확인서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하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마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관련 서류를 공증한 뒤, 이를 베트남 행정당국에 제출해야 양국에서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 서류를 여성에게 직접 보내 주는 예도 있으나, 여성 대부분은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해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완결하지 못했다(Kim et al. 2017).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편이 자녀를 빼앗을까 두려워하거나, 이혼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급히 본국으로 귀환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혼이주여성이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혼 절차에서조차 남성 배우자의 협조와 서류 제공이 필수적인 구조는, 여성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타인의 행위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제도적 경계 속에서 ‘법적 미완의 존재’로 남게 되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화된 불안정성의 대표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결혼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법적 이혼 절차를 완결하지 못한 여성은 본국에서 새로 만난 배우자와 법적으로 재혼할 수 없으며, 새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또한 할 수 없었다. 법적 이혼 서류가 없으면, 귀환 여성은 재혼은 물론 해외 취업이나 이주노동을 위한 비자 발급 또한 불가능하다.

어머니와 함께 귀환한 한국 국적 자녀의 체류권 역시 아버지의 신원보증에 좌우된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간 여성들의 경우,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하게 된다(김현미 외, 2019). 한 배 자녀가 베트남에서 체류 불안정성을 겪는 주요 원인은 두 나라의 국적법 구조와 제도 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방식은 다르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인 모의 단독 출생신고도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은 부모의 서면 동의

나 출생지가 베트남일 경우에만 국적을 인정하며,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한다. 법적으로는 예외적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실제 행정 절차에서는 단일국적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한-베 자녀는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여성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유학하거나 취업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여권으로 신원을 증명하고, 사증을 통해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여권 및 비자 갱신, 학교 입학, 의료 보험 가입 등 일상적인 절차에서 다양한 제약을 겪는다. 특히 여권 재발급에는 한국인 아버지의 서류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여권을 발급받고, 베트남 내 거주 허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비자는 지역 행정구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만료 전 갱신 시에도 아버지의 동의가 요구된다. 결혼이 법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이 절차는 동일하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양육자인 어머니의 법적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인 아버지의 동의서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이주여성과 그 가족은 자녀의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많은 경우 한국인 아버지와 연락이 끊겨 여권과 비자를 제때 갱신하지 못하고, 베트남 어머니들이 생계나 육아로 바빠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 결과 자녀가 ‘미등록 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 공동친권을 이유로 양측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이미 해외에 거주 중인 아동을 불법체류 상태로 내몰고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더라도 모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법적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하더라도 제도적 장벽과 행정 현실 때문에 한-베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안정적인 거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체류 불안정성과 법적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김현미 외, 2019).

신원보증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0월 3일, “위장결혼 방지라는 명목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신원보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부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계기로 법령 일부가 개정되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첨부 의무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최초 입국 후 체류자격 부여를 포함) 절차에서는 여전히 재정입증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 보증기간 2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체류 연장을 신청한 이주여성이 방문할 경우 출입국관리 직원이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관행은 제도적 개선의 효과를 약화하며, 결과적으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여전히 남편의 의사와 통제에 종속되는 구조를 강화한다. 따라서 다수의 인권단체와 연구자들(김유정, 2021: 90)이 지적하듯이, 최초 체류자격 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

### 3. 모성과 제한적 시민권

Hsia(2021)는 대만으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을 ‘모-자 관계적 시민권(Mother - Child Dyadic Citizenship)’ 개념으로 분석한다. 이 개념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의 시민권 형성에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가 두 사람의 법적·사회적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시민권은 개인 단위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니라, ‘모자(母子) 관계’라는 단위를 통해 구성되고 작동하는 제도적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저소득

층 남성들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여성을 이주시켜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자 관계적 시민권’은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담론이 이들의 시민적 지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분석하는 핵심 개념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언어 능력 부족과 문화 차이로 인해 ‘문제아’ 혹은 ‘사회적 부담’으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 속에서 이들은 ‘다문화 역량’, ‘언어 자본’, ‘문화 외교의 자원’으로 재평가되었다. 시아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사회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신남방정책 등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반영이라고 지적한다.

‘아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변화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대만 사회는 국제결혼 자녀를 열등하거나 불완전한 대만인으로 바라보았고, 이러한 시선은 외국인 어머니에게도 부정적이고 엄격한 시민권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대로 자녀가 ‘사회적 자산’으로 재구성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는 새로운 인정과 기회를 얻었으나, 동시에 모성과 가족 역할에 대한 성별화된 기대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시민권은 여전히 자녀의 존재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자녀의 존재는 대만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 지위는 자녀의 권리와 사회적 인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자녀는 어머니의 시민권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대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은 체류 자격과 시민권 취득 기회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독립된 시민 주체로 인정받기보다, ‘어머니’라는 위치를 통해서만 제도적 보호와 인정을 받는 구조 속에 머물게 된다.

결국 ‘모-자 관계적 시민권’ 개념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각각 독립된 시민권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담론과 제도적 규범 속에서

상호 연동된 방식으로 시민권이 구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개념은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이 자녀의 존재와 밀접히 얽혀 있음을 밝히며, 젠더·재생산·시민권이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 - 자 관계적 시민권(Mother - Child Dyadic Citizenship)’ 모델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시민권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 출산, 양육은 이제 ‘선택 가능한 삶의 과정’이 되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여전히 ‘모성’을 통해서만 시민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력하게 작동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지속되어야 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신은주, 2012; 김유정, 2021: 99).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는 체류와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이자 제도적 보호의 근거가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는 독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 자격을 통해 복지·교육·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성인 시민이자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과 국적 취득이 자녀의 존재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결혼이주자’란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으로 규정되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체류 연장과 귀화를 용이하게 인정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출산하지 않은 중국 출신 여성들은 국적 취득에 더 긴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 ‘위장결혼’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많았다(문경연, 2011). 즉, 부부간의 친밀성보다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모성 수행’이 체류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은 한국의 국제결혼이 단지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중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농촌 총각 결혼난, 지역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해 왔다. 전남 고흥군, 전북 임실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등은 35~50세 농어촌 미혼 남성에게 300만~8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며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는 국제결혼을 ‘인구 재생산 전략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였다. 또한, 2007년에는 남성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 법안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정착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국제결혼을 제도화했음을 보여준다(김희정, 2007: 67). 20여 년이 지난 2025년에서야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확정하였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5).

현재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부서가 저출산 대응 부서와 통합되어 있다. 허오영숙(2018)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당수가 ‘출산다문화팀’, ‘출산장려다문화팀’, ‘저출산대책팀’ 등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존재 근거를 ‘저출산 해결’로 전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시민권을 여전히 ‘한국 아이의 어머니’라는 생물학적·재생산적 위치에 종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을 독립적 사회 구성원이 아닌 ‘출산하는 어머니’로 한정하여 상상하며, 이들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여를 여전히 비가시화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인구 재생산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실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지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유삼현(2017)의 분석에 따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입국한 여성들은 이주 직후 단기간 내에 결혼과 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30대 중반 이후 입국하거나 재혼한 여성들의 경우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정책적 관점이 실제 여성들의 나이, 국적, 결혼 경험, 이주 동기, 노동시장 참여 여부 등에서 나타나는

삶의 다양성과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모성 역할에 대한 강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체류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주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F-6-2(자녀양육)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격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유효하며,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 사유가 소멸한다. 한부모이거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김유정, 2021: 57). 즉,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에 도달했거나, 이혼 후 양육권을 얻지 못하고 면접교섭권만 가진 여성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김유정, 202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체류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소라미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자식 관계를 단절하는 잔인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이상서, 2020).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21일, 「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민자(F-6)가 아닌 자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을 전제로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거주(F-2)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건강한 가정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 능력을 유지하고,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기본 소양(예: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

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대 3년의 체류를 허용하며, 요건 미충족 시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추가 노력을 요구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심사 기준은 국가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수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통제하는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다. 나아가 국가는 ‘한국 사회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어머니’를 선별하는 심사자로서, 여성의 체류권을 모성의 수행 정도와 도덕적 적합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가족 내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체류 자격을 끊임없이 심사하고 의심하는 국가의 통제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어머니와 자녀는 여전히 가족이며, 함께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바라는 가족의 안정성과 결속을 제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소수자로서 생존을 위해 심리적 의존과 강한 유대감 속에서 가족을 유지하지만, 출입국관리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성들의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 결과, 많은 여성은 자녀와 영구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보장받지 못한 채, 언젠가 닥칠 이별을 예감하며 지속적인 불안정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4. 성적 위협과 성적 교환

호주 시드니와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한 169명의 이주 및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실천 경험을 연구한 우셔(Ussher)와 동료들(2017)은, 여성들이 안전한 성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은 월경에 대한 수치심, 성 경험을

죄로 인식하는 태도, 성병 감염 및 계획되지 않은 임신 문제 등에서 선주민 여성보다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많은 여성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감내하거나, 성과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성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무례하다”라고 여겨질까 두려워했다. 문화적 수치심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보를 탐색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회피했다. 이로 인해 이주여성들의 성적 경험은 ‘수치심’, ‘비밀’, ‘침묵’이라는 정서적 스펙트럼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성관계에 대해 남편과 동등한 협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으며, 성적 접근을 거부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 우셔와 동료들의 연구는 이처럼 이주여성들의 성적 경험이 수치심과 침묵의 문화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결과 성적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한 남편 혹은 가까운 관계의 남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조차 두려워하게 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류 불안정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폭력을 침묵 속에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고기숙, 2010; 조숙정·조일윤, 2024; 황정미, 2009; 김유정, 2021; Luibhéid, 2008). 특히 이들이 겪는 가정 내 성폭력은 남편뿐 아니라 남성 친족 구성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친족 성폭력은 공동체 내부의 금기를 건드리는 문제로 여겨져 공론화되기 어렵고, ‘공공연한 비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 친족 성폭력의 위협

가정 내 성적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체로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성폭력 또한 빈번하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공동체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다. 젠더, 인종, 계급, 나이가 교차하여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구조적 취약성은 남편에 의한 폭력뿐 아니라 남성 친족 집단이나 친구 네트워크에 의한 친족 성폭력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친족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입국한 여성의 어머니나 자매가 친족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백소운, 2023).

베트남 여성 푸엥 씨의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의 소수민족 출신인 푸엥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저항하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엄마(아내), ㄱ(아들) 집에 없다.”, “괜찮다”, “돈” 등의 말을 반복하며 위협했다. 재판 과정에서 푸엥이 출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녀는 13세 때 ‘뺏버혼’이라 불리는 소수민족의 아동 약탈혼으로 출산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은 푸엥이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푸엥은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형사 재판에서 남편의 가족은 푸엥이 돈을 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주장했고, 강간이 아니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푸엥은 ‘친족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결혼 피고인’으로 낙인찍힌 채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다(이문영, 2018).

필리핀 여성 B 씨의 사건 또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B 씨는 언니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한국을 방문

했으며, 가족은 언니의 집에 머물렀다. 결혼식 3일 전, 형부는 B 씨를 성폭행했다. 사건 당일 형부는 아내에게 “친구와 즐겁게 보내라”라며 호텔을 예약해주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언니가 신혼 여행을 떠난 직후 언니의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충분했고, 가해자가 동의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17). 이후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B 씨가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언니와 주변 여성들의 지지와 연대 덕분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캄보디아 여성 깐냐 씨는 형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언니의 요청으로 조키를 돌보고 가사를 돕기 위해 형부의 초청으로 방문동거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형부의 폭력은 언니가 남편의 폭행으로 입원한 뒤부터 시작되었다. 깐냐 씨는 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키지 않겠다”라거나 “언니를 캄보디아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깐냐 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화, 2017).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장벽과 다중적인 폭력 노출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근친에 의한 성폭력은 한국 사회의 성적 금기를 위반한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침묵을 선택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어 수업에 갈 때 시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거나 뽀뽀를 한다.,” “남편의 친구가 불을 잡아당긴다.”라는 진술이 빈번히 등장한다. 나이가 어린 결혼이주여성은 종종 집안의 ‘아이’로 취급되며, 성적 주체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돈을 주고 데려온 여성’이라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남성 친족에게 공유되는 성적 대상이 된다. 결국, 여성의 몸은 ‘돈’과 교환 가능한 존재로 간주되어 탈인격화된다.

결혼이주여성이 성폭력에 취약한 이유는 개인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이주·젠더·친족제도의 구조적 조건이 교차하며 형성된 결과이다.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며느리는 남편뿐 아니라 시부와 시형제 등 남성 친족에게 종속된 지위로 위치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집안의 ‘아이’ 혹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성적 경계가 쉽게 무너진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을 통해 여성이 ‘돈을 주고 데려온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가족 내에 공유되면서, 여성의 몸은 성적 자원으로 대상화되고 상품화된다. 이러한 인식은 시부, 시동생, 형부 등 남성 친족과 주변 이웃 남성에 의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근친 성폭력은 한국 사회의 강한 성적 금기를 위반하는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침묵하게 된다. 법적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저항 부족이나 ‘합의 가능성’이 문제시되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남편이나 이웃 남성의 폭력을 신고한 여성 중 상당수는 경찰로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먼저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반응은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보다 결혼 관계의 유지와 귀환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남편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젠더, 국적, 계급, 나이가 교차하는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법적·제도적 한계, 사회문화적 낙인, 신고 및 보호 시스템의 미비가 결합하면서 피해자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구조적 조건은 결혼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제도적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체류권 보장,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가부장제 친족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은 베트남 귀환 여성 후이(가명)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후이는 2016년, 스무 살의 나이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했다.

남편은 부모가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자주 입원했다. 후이는 모든 가사와 간병을 맡아 시어머니를 돌보았으며, 남편은 새벽 늦게 귀가해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반복적으로 후이를 성추행했다. 후이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후 곧바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 다른 베트남 여성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후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온 베트남 남성을 만나 3개월간 동거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연락을 끊고 떠났다. 후이는 임신한 채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출산한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 호적에 등록했다. 후이의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친족 성폭력, 남편의 방관, 본국 남성과의 단기적 동거, 가족 구성의 좌절이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모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조는 결혼과 친족 관계 안에서 여성을 무임의 성적·가사 노동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결혼 제도는 표면적으로 이주여성을 남성 친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며 ‘가족’의 보호를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위계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남성 친족 사이에서 침해되고 교환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후이가 다른 베트남 남성과 관계를 맺은 것도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 법적·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생존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섹슈얼리티를 관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임시적이고 불안정하다. 동거 남성 또한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노동이주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결합은 안정적 가족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국 남편과의 결혼이 파탄된 이후,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새로운 가족 형태를 구성하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법적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안정한 체류와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 2) 여정 남편의 존재

후이는 취약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정 남편(journey husband)’을 선택했다. ‘여정 남편’은 이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주로 같은 출신지나 국가 출신의 남성(혹은 한국 남성)을 가리킨다. 이들은 여성 이주자와 임시로 혹은 의도적으로 동거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이동과 정착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원래 여정 남편은 여성 이주자가 이동 중 혹은 도착지에서 생존과 정착을 돕는 존재를 의미한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들은 여성의 이동을 지원하거나 보호자로서 동행하기도 한다(Women’s Link Worldwide, 2009:13). 그러나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속한 인신 매매업자나 후원자가 ‘남편’을 자처하며 여성을 통제하는 예도 많다. 한국 사회에서 ‘여정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거 후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중요한 생존 자원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관계 역시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내포한다.

연구자가 면접한 또 다른 베트남 여성 호티(가명)의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취약성과 생존 전략을 잘 보여준다. 호티는 2006년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2년 만에 자신을 확대하고 돌보지 않았던 한국인 남편을 떠났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로 향했으나, 기술도 정보도 부족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때 한 베트남 남성이 공장 일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곧 그와 함

게 살게 되었다. 2010년, 한국인 남편은 호티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해 그녀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다. 동거 중이던 베트남 남성 또한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곧 호티가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베트남에서 데려와, 한국에서 4년간 함께 살았다. 그러나 2012년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남성이 구속되어 베트남으로 추방되었다. 그는 호티에게 “베트남으로 돌아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인터뷰에서 호티는 “그와 함께 살았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또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역시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호티는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사랑의 부재’로 해석했고, 다음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연구자는 호티가 다시 한국인 남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 남편과의 결혼이 파탄이 난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많은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성적 위협과 거래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관계를 통해 불안정한 삶에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동시에 그들은 대화가 통하고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같은 출신지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오랜 억압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회복하고 사랑과 친밀성을 다시 경험하려는 심리적 안정의 공간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역시 가족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법적 지위가 없는 여성은 여전히 추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남성과 후견적 동거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른바 ‘여정 남편(journey husband)’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상호의존적이지만, 권력의 비대칭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여정 남편은 여성 이주자가 노동, 주거, 정보 접근, 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돕는 대신, 성적·가사 서비

스를 기대한다. 이러한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며, 그 속에서 성적 착취, 경제적 통제, 갈취, 그리고 유기와 같은 폭력적 상황이 발생한다. 결혼이주 여성은 법적 남편, 여정 남편, 연인 등 다양한 관계를 연속적 혹은 단절적으로 거치며, 성적·경제적 종속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낙인과 긴밀히 연결된다. 여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거나 ‘한국 남편과 위장 결혼을 한 뒤 본국 애인을 불러들였다’라는 뜬소문과 추측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받는다.

한국 남편, 남성 친족, 여정 남편 모두 여성의 성을 교환·공유·도구로 인식하며,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지속적으로 위태로워진다. 결혼이주여성의 성적 경험은 친밀성, 성폭력, 젠더 불균형, 종족, 경제적 위계, 나이 등 복합적인 교차 권력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이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와 지속적인 이동의 조건은 성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행 결혼이주 제도는 본질적으로 가부장제, 이성애 중심 결합, 문화적·종교적·가족적 권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성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이주여성의 성적 경험과 실천은 체류권의 불안정, 노동 및 정보 접근의 제약, 심리적 위축,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는 맥락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들은 성적 주체의 권리에 접근하기 어렵고, 성적 쾌락과 안전, 적극적 성적 선택, 임신과 출산의 자기 결정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다.

## 5. 결론

지난 30년간 한국의 국제결혼 장려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 이주민을 철저히 도구적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국가는 이들을 저임금 노동력이나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성역할 수행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인간적 삶과 일상적 경험을 사유의 영역 밖으로 밀어냈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여

성 이주민은 ‘필요한 타자’로 호출되지만, 여전히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혐오 사회의 주류는 이주민이 권리를 요구할 때 오히려 노골적인 적대감과 증오를 드러낸다(엠케, 2017).

그동안의 이주 및 노동 연구는 생산과 임금 노동, 즉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결혼이주여성 연구 역시 사회통합이나 가족 내 역할 수행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 이주자가 경험하는 구조적 젠더 불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물론 언어적 장벽과 낮은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혼이민자는 어느 정도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인선영, 2019). 그러나 여성이민자가 직면하는 법적·사회적·성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구성하는 다층적 불안정성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나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불안정성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구조적 권력의 산물이다. 가부장제적 가족관계, 성별 위계, 돌봄과 재생산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교차하며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상품화한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법적 권리는 언제나 불안정한 조건 위에 놓인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단순히 억압의 피해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을 인식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때로는 생존을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동조하는 전략을 택한다. 이주여성은 트라우마, 친밀성, 성폭력, 젠더 불균형, 종족, 경제적 위계, 나이 등 교차하는 권력의 장속에서 자신의 이동과 정착의 조건을 협상한다. 그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모성과 문화적 실천을 통해 가족의 분열을 메우고, 문화적 재생산과 사회적 결속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문화적 실천은 출신국과 수용사회를 연결하며, 정체성 협상과 심리적 안정의 토대가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성별화된 불안정성이 여성의 친밀성, 돌봄의 수행, 그리고 노동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주여성의 열망과 선택이 젠더 불안정을 어떻게 재생산하거나 극복하는지를 탐구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의 재생산 위기를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지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한국을 선택한 주체적 행위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장소를 부여받지 못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 집행자인 한국인의 시혜와 재량에 의해 위치가 결정된다. 주류 사회가 이주민을 기획하고 선별적으로 배치하는 구조(한건수, 2011)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생산과 재생산의 회로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다층적 불안정성을 견뎌야 한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며(Goldring and Landolt, 2013), ‘국민’과 대비되는 다양한 비시민 상태를 지속해서 재생산한다.

‘거슬러 살아가기’는 이러한 젠더화된 불안정성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장소를 모색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 전략을 의미한다. 그들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이주의 복잡성과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교섭하고 재구성하며 저항하는 행위 주체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불안정성은 개인의 취약성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이주 제도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낳은 산물이다(황정미, 2015; 이윤영, 2024). 이주여성의 삶을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차적 억압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들의 삶의 가능성과 한계는 수용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포용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 관련 법과 시민권 제도가 개방적이고 성평등을 지향할수록 이들의 불안정성은 완화되며, 사회의 민주화 수준과 다양성 수용 능력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주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젠더·국적·계급·나이 등 교차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다층적 불안정성을 집단적 목소리로 조직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비국민 모두의 권리를 동시에 확장하는 양방향적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의 실천을 통해서만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기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29-259.
- 김유정, 2021.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강원법학』 63: 35-85.
- 김현미·서선영·이은혜·정진성, 2019. 『베트남 거주(체류)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 재외동포재단.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올아카데미.
- 문경연, 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2): 71-112.
- 신은주, 2012.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4): 325-342.
- 유삼현, 2017.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 얽힌 실타래 풀기.” 『한국인구학』 40(1): 29-55.
- 엠펜, 카롤린 . 2017. 『혐오사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하는가』. 정지인(역). 파주: 다산초당.
- 이운영, 202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징폭력으로서의 차별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문화적 유형의 관계에서 차별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7(2):157-179.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2017.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2017.12.18.).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인선영, 2019.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매개 효과 분석.” 『한국이민학』 6(2):35-85.
- 조숙정·조일윤, 202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요인과 법적 제재.” 『동아법학』 103: 67-95.
- 한건수, 2011. “한국의 다문화 사회 이행과 이주노동자.” 『철학과 현실』 91: 21-31.
- 허오영숙, 2018. “결혼이주여성고 인종차별.” 2018년 UN인종차별철폐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

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자료집(2018.7.20.).

황정미. 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성별 위계와 문화적 편견.”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사회를 만든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5-78.

\_\_\_\_\_. 2015.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재고찰: ‘취약성’ 프레임에서 인간안보 관점으로.” 『한국여성학』 31(4): 1-39.

## (2) 국외문헌

Casas-Cortés, Maribel. 2014. “A Genealogy of Precarity: A Toolbox for Rearticulating Fragmented Social Realities in and out of the Workplace.” *Rethinking Marxism* 26(2): 206-226.

Crenshaw, Kimberle.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 - 99.

Goldring, Luin and Patricia Landolt, eds. 2013. *Producing and Negotiating Non-citizenship: Precarious Legal Status in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Hsia, H.-C. 2021. “From ‘social problems’ to ‘social assets’: geopolitics, discursive shifts in children of Southeast Asian marriage migrants, and mother-child dyadic citizenship in Taiwan.” *Citizenship Studies* 25(7): 955-974.

Kim, Hyun Mee, Shinhye Park and Ariun Shukhertei. 2017. “Returning home: Marriage migrants’ legal precarity and the experience of divorce.” *Critical Asian Studies* 49(1): 38-53. DOI: 10.1080/14672715.2016.1266679

Luibhéid, Eithne. 2008. “Sexuality, Migration, and the Shifting Line between Legal and Illegal Status.”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4(2/3): 289 - 315.

Ussher, Jane M., Janette Perz, Christine Metusela, Alexandra J. Hawkey, Marina Morrow, Renu Narchal and Jane Estoesta. 2017. “Negotiating Discourses of Shame, Secrecy, and Silence: Migrant and Refugee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Embodiment.” *Arch Sex Behav* 46: 1901 - 1921. DOI 10.1007/s10508-016-0898-9

Women’s Link Worldwide. 2009. Migrant Women’s Rights: An Invisible Reality. Migration Link 2009, 13.

## (3)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김영화. 2019. “들리지 않는 목소리, 이주여성의 ‘미투’.” 〈시사인〉. 2019.3.12.

- 백소윤. 2023. “이주여성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들.” 〈일다〉. 2023.8.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 5월. 〈통계 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출입국관리법. [https://law.go.kr/법령/출입국  
관리법](https://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검색일: 2024.11.25.]
- 이문영. 2018. “친족성폭행·혼인취소…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약탈 14년.’” 〈한겨레신문〉. 2018.1.20.
- 이상서. 2020. “다문화가정 부모-자식 생이별하게 만든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2020.8.25.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5. “이주여성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걸음 -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면 폐지를 환영하며”. 보도자료. 2025.7.22. [http://www.wmigrant.org/  
wp/성명-이주여성의-존엄과-평등을-위한-걸음-국제결혼/](http://www.wmigrant.org/wp/성명-이주여성의-존엄과-평등을-위한-걸음-국제결혼/) [검색일: 2025.7.25.]

Abstract

Navigating Layered Precarities  
– Legal Status and Gendered Pathways  
of Marriage Migrant Women

Kim, Hyun Mee  
(Yonsei University)

Thirty years after the emergence of large-scale cross-border marriages, the social status and right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have evolved to some extent. Yet, the legal authority of South Korean husbands, who continue to exert decisive influence over their spouses' residency and nationality, remains largely intact. "Motherhood," defined through childbirth and childrearing, still functions as a key condition for women's residence status and citizenship.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structural denial of marriage migrant women as independent legal subjects generates sexual, economic, and cultural insecurities, and how such gendered precarity simultaneously deepens vulnerability and stimulates diverse survival strategies.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and with returnee women in Vietnam in 2019, the analysis reveals how women's narratives and practices expose the intersection of law, gender, and citizenship. Focusing on three interrelated dimensions—legal insecurity, maternal citizenship, and the repression and commodification of sexuality—the article Through the three analytical dimensions of legal insecurity, maternal citizenship, and the repression and commodification of sexuality, the article seeks to elucidate the structural mechanisms of gendered oppression experienced by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cross-border marriage, legal precarity,  
maternal citizenship, sexual violence,  
Korean guarantee system, marriage migrant women

- Ⅰ 투 고 일 : 2025년 8월 31일
- Ⅰ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Ⅰ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7일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사례와 시사점\*

이수정\*\*

## | 목차 |

- |                  |                 |
|------------------|-----------------|
| 1. 들어가며          | 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
| 2. 문헌 검토와 이론적 배경 | 여성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
| 1) 난민 여성에 대한 논의  | 표출된 문제점         |
| 2) 선행연구 분석       | 2)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
| 3. 연구 설계         |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와   |
| 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 변화 양상           |
| 여성의 이주 여정과 정착    | 5. 결론           |

## | 초록 |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전반과 그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 세대가 한국 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와 그 원인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2024년 4회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면담과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긴급 수용은 빠른 초기 정착을 유도해 냈지만, 사회 적응 과정은 남성 가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여성의 취업 의사와 경력 전환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초반 취업 연계는 남성에 집중되고 여성은 한국어, 사회화 교육에 편중되면서 남성과 달리, 이주 여성은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7320)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sooislam86@gmail.com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는 ‘무슬림 여성은 가정에 머문다는 전제가 정착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세대와 달리, 아동, 청소년은 성별과 무관하게 공교육에 빠르게 편입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언어장벽, 돌봄의 책임이라는 제약 속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였고, 딸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활용 가능한 진로를 선호하며 사회에 적응하였다.

**주제어** : 이주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주민 여성, 난민 적응, 이슬람

## 1. 들어가며

2021년 8월,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과 협력해온 현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아래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Miracle Operation)’을 수행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당시 탈레반의 급속한 재집권과 정세 불안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이들을 무사히 입국시켜 전국 각지에 분산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391명이 정식 체류 자격(F-2 비자)을 부여받아 난민 심사 없이 입국하였고, 울산 등 주요 지역 사회에 정착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이처럼 정부 주도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이주와 정착은 일반적인 난민 유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형태의 이주 정책 사례로 주목받았다(이수정, 2022). 그러나 이들의 정착 과정은 단지 물리적 안전의 확보에 머무르지 않았고, 언어, 문화, 종교, 젠더, 교육, 생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와의 접점에서 갈등과 마찰을 드러냈다(이수정, 2022). 특히 이들 집단 속에는 기존의 난민 담론이나 이주 정책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가족 단위로 입국한 여성 구성원’,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와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난민 여성이 존재한다. 이들 역시 현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있

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착 유형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정착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은 미비하다. 기존의 이주민 연구는 남성 중심의 경제적 이주자에 초점이 맞춰졌거나, 여성 이주민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 또는 노동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최운선, 2007; 김현숙, 2010; 양정혜, 2007; 황정미, 2009). 그에 반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같이 정치적 위협을 피해 가족 단위로 입국한 난민 지위의 여성들, 특히 종교적 정체성과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경험해 온 이슬람 여성의 정착 과정은 한국 내에서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젠더 위치성과 세대 간 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적응의 양상과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특히 입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의 취업 소개 및 제안, 일자리 취득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과정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배제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하에 입국한 아프간 여성들은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은 어떤 과정과 양상을 띠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구조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가? 둘째, 동일한 여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적응하며,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울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과정에 있었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여성이라는 젠더를 고려하지 않고, 남성 중심의 사회 정착과 여성은 부차적 존재가 되는 현실을 되짚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총 4차례에 걸친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과 이슬람적 가치관, 언어 장벽 속에서 가정 내 경제 활동 가능성을 모색한 반면, 딸 세대는 비교적 빠르게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접근하면서 미래의 직업적 비전을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과 실천의

차이, 그리고 그 변화의 맥락을 세밀히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 2. 문헌 검토와 이론적 배경

### 1) 난민 여성에 대한 논의

난민 여성이 이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고, 남성의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주를 선택한다는 기본 통념에서 벗어나 특정 정책 대상이자 뚜렷한 조사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Callamard, 2002). 1990년대 난민 여성에 대한 연구적 접근은 개발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난민 여성의 자기 개발과 인권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서로 접점을 찾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난민 여성에 대한 시각은 불완전해질 수 밖에 없었다(Tuitt, 1996; Hathaway, 1991).

국제 난민 보호 체계는 2000년대 들어 성별 관련 박해를 난민성 심사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했고(UNHCR 2002), 성폭력/젠더 기반 폭력의 예방, 위험 경감, 대응을 전(全) 프로그램 주기에 통합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UNHCR, 2020). 이 관점에 따르면, 경유지와 수용시설에서의 안전 문제, 보육과 가사노동으로 대표되는 여성 활동이 언어 교육, 구직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문제, 임신 및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서비스 및 노동시장 접근을 지연시키는 문제, 종교나 복장과 같은 가시적 표식이 공공공간 접근과 행정 상호작용에서 불리하게 작동하는 문제 등이 서로 얽혀, 난민 여성에게는 이동의 영역, 정보의 습득, 권리의 행사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IOM, 2024).

이때 도착지의 제도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출신 사회의 규범과 관습이 남기는 흔적이다.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일상적 생존을 위해 감내하고 협상해 온 규범적 체계는 도착지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 노동시장, 공동체라는 장(field) 속에서 재배치된다(Shourbaji, 2017). 이러한 ‘가부장적 협상’은 단지 문화적 잔존이 아니라, 제도 인센티브와 사회적 기대, 종교·가족 네트워크의 재구성 속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짜여지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Kandiyoti, 1988).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이 특정 지역의 여성을 본질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도착지에서 여성들은 기존 규범에 도전하거나 재해석 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부하기도 한다. 더하여, 언어 교육, 직업 전환, 보육 인프라 같은 사회 제도적 조건이 뒷받침 될 수록 이러한 전통적 관습의 재해석 여지가 넓어진다. 다시 말해 출신 사회의 규범은 결정론적 변수가 아니라, 도착지의 제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 가능한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난민 여성의 삶을 획일화하지 않으려면, 성별뿐 아니라 법적 지위, 인종 및 종족, 종교, 계급, 양육자 여부, 언어 자본 등이 교차하며 불평등을 증폭, 변형시킨다는 교차성의 통찰을 연구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Crenshaw, 1989; 1991). 동시에 여성이 선택하고 행하는 행위를 저항, 자유라는 획일적이고 이분법적 틀에 가두기보다,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종교, 돌봄의 실천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어야 한다(Mahmood,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별 여성의 교육, 노동시장 참여, 지역사회 조직화, 종교공동체 내 역할 재배치는 가족과 공동체의 규범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미시적 동력으로 작동한다. 즉,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체의 미세한 재배치가 개인의 선택 공간을 넓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통해 세부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

한국 정부는 이른바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과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 391명을 긴급 이송했고, 이들을 난민 신청자 대신 ‘특별기여자’로 분류하여 장기체류를 전제로 한 정착 지원을 진행했다. 입국 직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방역 및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지역사회로 분산 정착했다. 이 사례는 긴급상황에서 제도의 신속한 유연화(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등)와 ‘국가 협력자’라는 자격 서사가 결합할 때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추진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예멘인 난민 논쟁과 비교하면, ‘특별기여자’ 프레임은 ‘여성과 아동 보호’라는 이미지와 맞물려 수용 담론을 가속한 측면이 있다(Sheikh, 2022). 동시에 이 사례는 정착의 경로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확인시킨다. 난민 여성의 이주와 정착을 둘러싼 젠더 불평등은 도착지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출신 사회의 규범과 도착지의 제도, 그리고 개인의 행위성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장 속에서 구성되는 결과이며, 한국의 ‘특별기여자’ 사례는 이 세계적 담론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을 또렷이 보여주는 경험적 창이라 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분석

2021년 한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기존의 난민 수용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 집단이다(이수정, 2022). 이들은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하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지 않고, F-2 비자를 통해 난민 심사 절차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난민 정책과 이주 정책 사이에 위치하는 독특한 유형으로, 학계에서도 사례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특별기여자’라는 호명 방식과 명칭의 정치성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 내 난민 인식의 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다(백일순, 2022; 전의령, 2022; 문미리, 2022). 이들은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이 난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저항을 피해가며, 정부의 수용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난민 및 이주 정책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특별기여자의 지위와 권리, 복지 구조를 검토하는 연구가 있다(이지원·조정현, 2024). 셋째, 실제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적응 과정에 주목한 사례연구가 등장하고 있다(이수정, 2022; 구기연·백일순, 2023; 허숙 외, 2023; 최현정·김현숙, 2023).

이러한 연구들은 특별기여자의 수용과정, 행정적 대응, 사회적 갈등 등을 조망하고 있으나, 대체로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특별기여자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내부 구성과 세대, 젠더에 따른 적응 차이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특히 여성, 더 나아가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 정착 경험은 아직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주민 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결혼 이주, 돌봄노동, 여성 노동 이주와 같은 주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최운선, 2007; 김현숙, 2010; 양정혜, 2007; 황정미, 2009). 그러나 난민 상황에서 정치적 위협을 피해 가족과 함께 이동한 여성, 특히 무슬림 배경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 이주민에 대한 주류 담론은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다(이수정, 최두영, 2020). 이에 비해 가족 단위 난민 여성, 특히 어머니로서의 위치성과 역할 변화,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의 젠더화된 경험은 학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는 이주민 여성의 적응 과정을 초국가적 정체성, 젠더 권력의 재편, 이주 공간에서의 젠더 역할 전환과 같은 키워드로 분석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Phizacklea, 1998; Al-Ali, 2002). 예컨대 아랍 및 무

슬림 배경의 여성들은 이주 사회에서 젠더 규범의 충돌 속에서 기존의 종교적 정체성과 새로운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긴장된 적응 과정을 경험한다(Shourbaji, 2017). 한국 사회 역시 종교적 복장, 여성의 노동 참여,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에서 이슬람 문화권 출신 여성과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이주민 여성이 겪는 적응과 변화는 단순한 수동적 내면화가 아니라, 이주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전략과 의미망의 재구성 과정이다. 본 연구는 특별기여자 여성들이 한국 사회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주체로 재구성되어 가는지를 그들의 언어와 경험을 통해 추적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세대 경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교육, 언어, 가치관, 사회 진출 등의 측면에서 세대 간 불일치를 주목한다. 특히 부모 세대가 종종 이주 전 경험(모국의 정치·문화적 조건)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반면, 자녀 세대는 이주 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상이한 정체성과 경로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Parekh, 2000).

무슬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 연구들에서는 종종 딸의 위치가 특별히 주목된다. 부모 세대가 이슬람 규범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반면, 자녀 세대 여성은 공교육을 통해 보다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사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며, 종교성과 사회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겪는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한국 사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슬람 문화권 출신의 자녀 세대는 부모의 가치관과 한국 사회의 규범 사이에서 정체성의 이중성 혹은 혼종성을 경험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히잡 착용, 라마단 관행 등 종교적 표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수정, 2022).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어머니와 딸이라는 동일한 여성 정체성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인식의 간극과 변화를 추적한다.

###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여성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울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 과정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청취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정착과정 속에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배제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별기여자의 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층위의 사례를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하는 사회에 내재된 젠더에 관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하여,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가족 단위 이주자 내에서도 세대와 젠더,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적응 방식과 전략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동일한 여성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사회 인식 방법의 차이와 자기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질적 접근은 이주 여성들이 경험하는 적응의 감정적·사회문화적 층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며, 응답자의 언어와 서사를 통해 경험의 내면성과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여성 이주자의 적응 과정을 단순한 정책 수혜나 언어 교육 여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주체적인 의미 재구성과 실천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연구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는 2022년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특별기여자 가구 중 어머니 세대 10명을 대상으로 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 방식을 혼

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중 3가구의 딸 세대와는 별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인터뷰는 2023년 5월, 동일 가구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여 1차 인터뷰로부터 1년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3차 인터뷰는 2023년 8월, 서울 서강대학교를 방문한 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울산 지역 외에서 교육적·문화적 경험을 축적한 사례로서 분석에 중요한 비교점을 제공하였다. 4차 인터뷰는 2024년 8월, 울산에 정착 중인 3가구의 딸 세대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성인이 된 이주 2세 여성들의 사회 진입 양상을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는 매 차수 별로 동일한 인물들을 반복하여 인터뷰 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모녀 세대의 인식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식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연령, 교육 수준, 종교적 신념, 경제 참여 여부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사례 간 비교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연구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는 한국어 또는 통역을 통한 이중 언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문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집약하여, 문장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표 1〉 인터뷰 관련 정보 정리

	주요 대상	시기	인원
1차 인터뷰	어머니 세대 / 딸 세대	2022년 3월	13
2차 인터뷰	동일 가구 어머니 세대	2023년 5월	10
3차 인터뷰	딸 세대	2023년 8월	12
4차 인터뷰	성인이 된 딸 세대	2024년 8월	3
추가 인터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교육청 관계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2023년 3월~ 2024년 8월	4

또한 현장의 제도적 맥락과 정착 지원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을 지원한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병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2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2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학교 배정, 언어·급식 문제 대응, 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정착 초기의 실무를 담당한 핵심 인물들이었다. 더하여 여성과 함께 동행한 남편 배우자 1인의 인터뷰도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 역시 논문에 인용하였다. 이들의 증언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경험의 제도적 배경을 보완하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정착 경험, 삶의 지향, 사회 진입 전략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정착 경험 파트에서는 한국 도착 당시의 심리 상태, 문화적 충격, 공공 공간에서의 경험을 묻고, 삶의 지향 파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대와 꿈, 현재의 목표와 생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진입 전략에서는 한국어 학습, 진로 계획, 경제 활동 의지 등을 통해 자율성과 실천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어떻게 자신을 구성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동일한 질문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 모두에게 제시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에 따라 수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전사 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와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 간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세대별로 주된 관심사와 전략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여성 이주자의 정착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연령, 배경, 기대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은 반복 인터뷰와 기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삼각검증(triangulation) 방식으로 확보하였으며 (Campbell and Fiske, 1959),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후 의견 확인을 실

시하여 분석 해석의 정합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서사성과 해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사회 적응을 다각도로 조망하였으며, 특히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그 내면의 경험과 실천을 조명함으로써 이주민 연구의 젠더화, 세대화된 접근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이주 여정과 정착

### 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분류하며 긴급 정착 지원과 체류 합법화를 병행한 사례로 기록된다. 정부는 총리훈령 제794호(2021.11.1.)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해 주거, 교육, 취업 연계를 밀도 있게 추진했고, 법무부 보도에 따르면 거주(F 2) 부여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빠르게 가동되었다. 동시에 언론은 ‘특별공로’ 서사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음을 지적했다(한국일보, 2021).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과 담론의 결합은 한국 맥락에서 보기 드문 속도의 초기정착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젠더 차원의 설계 결여와 성(性)역할 전제가, 특히 여성의 행위성과 생애 주기 설계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주, 정착을 둘러싼 정책 설계와 실행 담론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초기 프로그램 소개에서는 가구 단위(가장 중심)의 서술과 운영이 두드러졌고, 여성 본인의 취업 의사·경력 전환 계획을 전면에 두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젠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가족은 남성 부양자와 피부양

자로 구성'이라는 전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성(性)인지 접근과 간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정착 과정에서 여성에게 직업 소개를 하거나 취업 의사를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 A씨(50대 주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우리 여자들에게 일을 하겠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혹시 선생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여성들은 초기 정착 단계부터 취업과 관련한 권유를 받거나, 방법을 교육 받지 못하였다. 물론, 정착 초기 단계로 한국어를 비롯한 어학 능력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었지만, 남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제안 받은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상황임은 분명하였다. 남성들은 실행 단계에서도 남성의 사회, 경제 활동을 우선하는 지원이 구조적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 울산 정착 당시 보도는 ‘29가구 157명’이 집단 이주했고, ‘가장 29명’이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우선 취업했다고 전했다(Korea Joonang Daily, 2021). 당시 KBS나 경향신문 등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울산에서 ‘거의 절반’ 수준의 대규모 취업 연계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지만, 성별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인터뷰에 따르면, 취업한 29명 중 28명이 남성이었고, 한 명만 여성이었다. 이 여성의 경우, 남편의 나이가 이미 63세를 넘겼기 때문에 노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여성이 대신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 여성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로 설립한 기관에서 근무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써 취업이 가능했었다. 이러한 흐름을 연결해 보면, 초기의 취업 연계가 가구 대표(통상 남성)를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고,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여성은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남성은 취업 연계라는 성별분업적 경로를 제도적으로 고착화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무슬림 여성은 당연히 가정에 머무른다’는 문화주의적 전제가 정책, 실무 담론에 스며든 흔적도 보인다. 이는 출신 사회의 젠더 규범을 있는 그대로 ‘정책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로서, 여성의 경력, 의사, 역량 전환 가능성을 제도적 설계 단계에서 축소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로 실무담당자들은 왜 여성이 초기 취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여성은 우선 가정을 돌보며 집안에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여성의 취업까지 맞춰줄 수 있는 시간이나, 상황적 여력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관련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가부장적 규범과의 ‘협상’은 도착지에서 재구성되며, 제도 설계는 그러한 협상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된다. 따라서 문화주의적 전제를 정책이 직접 인식하는 접근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개별 여성의 이력, 의지, 제약을 묻고 지원을 맞춤형하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법대를 다니던 부인을 둔 B씨(20대 남성)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제 아내가 더 많이 일하고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었던 아내인데, 탈레반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진술은 가부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착 초기 진행된 획일적 취업 의사 확인과 여성의 배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시도 자체를 막아버린 상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제는 여성에게 더 많은 ‘사회화 및 적응 교육’의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남성이 조기 취업 연제로 한국어 및 적응 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강도로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에 투입하는 양상이 나타

났다. 교육 접근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을 노동시장 전환으로 연결하는 경로 설계가 결여되면 '교육의 여성화가 곧장 '무급/저임금 돌봄과 가사'의 연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영역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한국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관찰된다. 울산 교육청은 별도의 한국어 집중반 제도로 초기 언어 장벽을 완화했고, 실제로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한국식 교육과정(일반학급과 한국어 보충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의 반대 집회와 '자원 배분' 논쟁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필요를 환기시켰다(Korea herald, 2021). 그럼에도 현장 교사 및 행정의 조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편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점은, 여성 청소년에게도 교육권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창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정착 1~3년 차로 접어들면서 모녀 간에 한국 사회, 자문화 이해에 대한 관점 차가 커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청소년은 학교, 또래 관계를 바탕으로 언어, 규범, 기대치를 빠르게 습득하는 반면, 성인 여성은 활동 영역이 가정에 한정됨에 따라, 대체로 공적 영역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이주하면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이미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와 같은 공동체의 암묵적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 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이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 문화적 적응 격차는 반드시 갈등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가족 내 의사결정과 가치관 조정의 '마찰면'을 넓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연구는 부모-자녀 간 문화적응 불일치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감정노동을 증가시키며, 맥락에 따라 갈등 또는 상호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례에서도 모녀가 서로 다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종교, 복장, 교우 관계, 진로를 둘러싼 협상이 일상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경험은 한국의 신속한 제도적 유연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도, 이주와 정착의 젠더화 된 경로가 얼마나 쉽게 재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의 주체성과 취업 의사를 사전 파악하고, 문화주의적 전제를 정책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교육에서 취업의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성인지 관점에서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모녀 세대의 적응 속도 차이를 가족, 학교, 지역 차원의 동시 개입으로 완충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성은 가정, 남성은 노동’이라는 구도를 넘어, 여성 자신이 노동, 시민, 종교, 가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출 때, 특별기여자 정책은 비로소 ‘긴급 수용’에서 ‘사회 정착’으로 나아갈 것이다.

## 2)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와 변화 양상

2022년 3월에 진행된 1차 심층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들, 특히 어머니 세대의 정착 초기 경험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탈레반 정권의 복귀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표했지만, 그 안도감은 급격히 변화한 생활 환경과 낯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곧 두려움과 단절의 감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언어 장벽, 종교적 실천에 대한 제약, 생활의 자율성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들은 초기 한국 사회와의 관계 맺음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세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어머니 세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둘째,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어떤 꿈이 있었고, 지금은 그 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생활 만

족도나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착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는 자아 정체성의 전환, 기억과 기대의 균열, 그리고 실질적 욕망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매우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언어 소통에 적극적이었던 세 명의 응답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C씨(50대, 가정주부)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을 살리던 손으로 지금 기계를 만지고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이 발화는 한국 사회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직업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응답으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사회적 위상 하락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수치감을 담고 있다. 남편이 이전에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손을 가졌지만, 지금은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이상의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는 이주 이전의 직업적 자부심이 이주 이후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치 없는 노동으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하는 계층적 박탈감을 보여주며, 이주 과정에서의 위계적 경험이 젠더와 가족 단위에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드러낸다.

D씨(40대, 가정주부)의 진술은 더욱 극단적으로 내면화된 체념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였어요. 탈레반이 존재한 순간부터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이 응답은 희망이 사라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절망적 증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꿈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은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의 삶에 대한 자율성의 부재를 드러낸다. 탈레반이라는 정치 체제는 단지 여성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주체로서의 자격마저 박탈해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진술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회고적 통찰이자 절제된 분노로 해석할 수 있다.

E씨(40대, 가정주부)는 정치적 시간성과 세대의 단절을 명확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탈레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었지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미국이 있었고, 탈레반이 없어졌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야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탈레반이 왔어요. 한국에 오지 못한 제 큰 아이는 다시 부르카를 입고 다니고, 집 안에 있어야 해요.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이 진술은 한 여성의 생애사적 경험이 어떻게 반복적인 억압과 회복, 그리고 다시 퇴행의 역사로 구성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탈레반의 재집권은 단지 국가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을 단절시키는 역사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 오지 못한 큰딸에 대한 언급은, 이주가 가족 전체를 구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이주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박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불완전한 구원의 서사를 보여준다.

이들 응답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여성 이주자가 살아온 경험과 감정을 통해 이주 이후의 정착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귀중한 증언이다. 특히 여성의 입에서 나온 ‘꿈’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는 정치적 환경, 젠더 권력, 교육 기회의 유무, 그리고 가족 구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그들에게 ‘꿈’은 곧 사회적 자율성과 직결된 단어이며,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현이 제한된 또 다른 시스템이기도 하다.

요컨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어머니 세대의 정착 초기 경험은 단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위에 갑작스럽게 놓인 불확실성의 증위였으며, 이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기 위한 감정적, 문화적, 실천적 자원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는 딸 세대의 진술을 통해, 동일한 가족 단위 안에서 구성되는 세대 간 경험과 적응 전략의 차이를 이어서 분석할 것이다.

어머니 세대가 한국 사회 정착 초기에서 감정적 상실감과 현실적 좌절감을 중심으로 반응하였다면, 딸 세대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도 상이한 전략과 태도를 보이며,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적응 경험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딸 세대의 경우,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 환경과 점진적으로 접촉하며,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자기 기획(self-projection)을 구체화해 나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나 언어 습득 속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대의 정치적 기억, 교육적 자원, 사회적 기회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복합적 현상이다(김은정, 2009).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진행된 3차, 4차 인터뷰에서 딸 세대 응답자들에게는 어머니들과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즉,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딸 세대가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사회 진입 전략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응답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실용적 직업 선택에 집중된 계획이었다. 12명의 여학생 중 8명이 간호대학 진학을 희망하였으며, 그 이유는 “간호 기술은 한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직업 선호의 문제를 넘어, 이동 가능성과 국가 간 통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일부 학생은 컴퓨터 공학을 희망하였고, 이 역시 기술직이라는 특

성이 강하며, 지역적 제한 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로 설정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경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기 확립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딸 세대의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정체성과의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초기에는 히잡 착용, 라마단 중 급식 거부, 예배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이 학교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성을 완화하거나 융통성 있게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보는 히잡 착용의 완화, 학교 생활 중 예배를 진행하지 않는 것, 취업, 진학 활동의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공간 내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천 방식을 조정하거나, 일부 규범을 내면화된 신념으로 환원시켜 사회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단순히 '통합'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과 사회적 관계성 사이에서 협상하는 새로운 정체성 실천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별 인식과 직업 선택의 연관성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학생들이 의사를 장래희망으로 언급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 아이들은 간호사를 꿈꾸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족 내에서도 간호사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더해,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승된 젠더 질서와 직업적 기대가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시간이 지나며 일부 딸 세대는 교육을 넘어 실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더 넓은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4차 인터뷰 당시에는 이미 성인이 되어 다문화센터에서 통역 및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F씨(21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통역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여기 다문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도 자꾸 저한테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저도 더 많이 공부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통역을 돕고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발언은 정착 이후 자율성과 진로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당장의 생계와 직업 경험, 그리고 장기적 학습과 전문성 추구가 긴장과 보완 관계 속에서 병존하고 있으며, 이는 딸 세대가 단지 한국 사회에 ‘순응’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목표와 실천을 조정하며 사회적 가능성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딸 세대의 적응 양상은 베리(1997)의 문화적응이론에서 말하는 ‘통합’ 혹은 ‘동화’ 범주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다 섬세한 차원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들은 모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특정 국가나 문화에만 고정시키지 않고, ‘이동 가능한 주체’로서의 자기 상상을 전제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화 적응을 넘어서는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 세대가 생활 속 제한과 실망, 그리고 낮은 자율성 속에서 점진적 통합을 실천하고 있다면, 딸 세대는 교육과 언어, 또래 관계를 통해 빠르게 사회로 진입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지 연령이나 세대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역사적 경험의 간극, 문화 자원의 접근성,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서 주체가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딸 세대의 실천은 단일한 ‘정착’의 모델이 아니라, 복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체성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운데 여성 구성원을 중심으로, 울산 지역을 사례로 하여 정착 초기부터 3~4년 차에 이르는 경험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 ‘특별기여자’라는 명칭과 긴급 수용이라는 제도적 프레임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착 계획 수립과 진행 단계 전반에서 남성 가장 중심의 가구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며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초기 취업 연계는 가구 대표(대체로 남성)를 축으로 조직되었고, 여성은 한국어·적용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깊이 편성되면서 교육은 ‘여성의 몫’, 고용은 ‘남성의 몫’으로 분절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은 가정에 머문다’는 문화주의적 전제가 일부 정책과 실무 담론에 스며들며 여성 개인의 경력, 의사, 역량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동시에 정착의 실제 양상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출신 사회의 젠더 규범과 도착지 제도의 교차, 그리고 개인의 행위성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경로가 형성되었다. 어머니 세대는 언어 장벽, 돌봄 책임 속에서 일상적 생존과 가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종교적 실천과 공적 공간 참여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딸 세대는 공교육과 또래 네트워크를 매개로 사회 규범과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며, 간호 및 정보기술 등 ‘이동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전략적으로 선호하는 등 자기 삶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설계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복장, 급식, 예배 공간 등)은 시간이 흐르며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통역이나 지역 실무 등으로 사회 참여의 발판을 넓혀 갔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가능한 제도적 자원과 사회 진출 및 정착 방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가족 내부 협상 구조의 재편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문화 적응을 ‘수용/거부’의 이분법이나 특정 범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실천과 경로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 개인도 공적(학교·노동)과 사적(가족·종교) 영역에서 상이한 전략을 병용하며, 그 조합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입국 및 초기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여성의 취업 의사, 경력, 제약을 정밀 파악하고, 상담과 사례관리 체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시민과의 교류, 취업을 통한 사회 안착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적 실천과 교육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표준 운영 지침을 정비하되, 모녀(또는 부모-자녀) 동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문화 적응 격차를 완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슬림 여성은 가정적’이라는 전제가 암묵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종합하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경험은 한국 사회가 ‘수용의 신속성’에 이어 ‘정착의 공정성과 ‘권리의 보편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놓는다. 긴급 상황에서 시작된 제도적 유연성은 이제 여성 개인의 행위성과 선택을 중심에 놓는 상시적 정착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격’의 서사를 넘어 ‘존엄’과 ‘권리’의 언어로 정책을 재구성할 때, 그리고 여성 스스로 노동, 시민, 종교, 가족의 각 영역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공정하게 배분할 때, 특별기여자 정책은 예외적 사건의 관리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성숙한 이행을 견인하는 공공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4. World Migration Report 2024, Chapter 6 “Gender and Migration: Trends, Gaps and Urgent Action.” Geneva: IOM. (eds, Marie McAuliffe & L. A. Ouchou)
- UNHCR. 2002.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 Gender Related Persecution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Its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02/01), 7 May 2002.
- UNHCR. 2020. UNHCR Policy on the Prevention of, Risk Mitigation, and Response to Gender Based Violence (GBV). Geneva: UNHCR.
- Korea JoongAng Daily. 2021. “‘Operation Miracle’ Complete with 390 Afghan Arrivals.” 27 Aug 2021.
- The Korea Times. 2021. “Afghan ‘Special Contributors’ in Korea.” 29 Aug 2021.
- Reuters. 2021. “In South Korea, Afghan Evacuees Find Hope in Their New ‘Special Merit’ Status.” 2 Sep 2021.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 “군,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 ‘미라클 작전’ 성공적 수행”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92246&pageIndex=&startDate=2024-03-10&endDate=2025-03-10&srchWord> [검색일: 2025.03.15.]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 “아프간 특별기여자 격리해제…정착준비 시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92955&tongYeog=Y&pageIndex=&startDate=2024-04-07&endDate=2025-04-07&srchWord=#policyBriefing>
-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2022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 190-192  
<https://www.korea.kr/fcatalog/access/ecatalogt.jsp?callmode=normal&catimage=&eclang=ko&Dir=1115&um=s&start=189> [검색일: 2025.03.15.]
- 한국일보 2021 “‘조력자’ ‘특별공로자’ ‘특별기여자’ 아프간 입국자는 왜 이름이 많을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715030000606>
- Al-Ali, Nadje. 2002. *Gender Writing - Writing Gender: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 Selection of Modern Egyptian Literatur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 5 - 34.
- Callamard, Agnès. 2002. "Refugee Women: a Gendered and Political Analysis of the Refugee Experience." In *Global Changes in Asylum Regimes*, ed. Danièle Joly, 137 - 153. London: Palgrave Macmillan.
- Campbell, Donald T., and Donald W. Fiske.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2): pp. 81 - 105.
- Crenshaw, Kimberlé.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 - 167.
- Crenshaw, Kimberlé.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 - 1299.
- Hathaway, James C. 1991. *The Law of Refugee Status*. Toronto & Vancouver: Butterworths Canada.
- Phizacklea, Annie. 1998. "Migration and globalization: A feminist perspective." *The new migration in Europe: Social constructions and social realit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pp. 21-38.
- Kandiyoti, Deniz. 1988. "Bargaining with Patriarchy." *Gender & Society* 2(3): 274 - 290. <https://doi.org/10.1177/089124388002003004>
- Kofman, Eleonore, et al.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and Politics*. Routledge.
-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pp. 1002 - 1039.
- Mohanty, Abhijit. 2023. "The Hijab Controversy: The Conflicting Nature of Right to Religion." *Indian Journal of Law & Legal Research*, 5(2).
- Parekh, Bhikhu.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ikh, Farrah, Jin-han Jeong, and Kangsuk Kim. 2022. "From Sex Offenders to National Heroes: Comparing Yemeni and Afghan Refugees in South Korea." *Social*

*Inclusion* 10(4): 200 - 210.

- Shourbaji, Amira A. 2017. "We Are The Hyphen In-between" Muslim Arab-American Women and Education: Intersecting Gender, Culture, and Religion. Diss.
- Tuitt, Patricia. 1996. *False Images: Law's Construction of the Refugee*. London: Pluto Press.
- 구기연, 백일순. 2023. "환대의 관점으로 본 한국 사회의 무슬림 난민: 예멘 난민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례 비교연구." 『공간과 사회』 33(3): 8-49.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문미리. 2022.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3(4): 5-39.
- 박보라, 이수정. 2022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한국 사례 모색: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4): 101-116.
- 백일순. 2022.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관한 국내 신문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4(2): 151-169.
- 양정혜. 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 47-77.
- 이수정. 2022. "한국 사회의 무슬림 이주 동의와 수용-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출신 교육현장 정착과정과 갈등." 『디아스포라연구』 16(1): 265-299.
- 이수정, 최두영. 2020.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 마이닝: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118-127.
- 이지원, 조정환. 2024. "국내 재정착난민 제도와 특별기여자 제도에 대한 고찰 - 미국의 특별이민비자(SIV)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국제법무』 16(1): 1-37
- 전의령. 2022. "'위험한 무슬림 남성'과 '특별기여자': 전 지구적 인도주의 담론과 포스트 9.11체제의 공모." 『아시아 리뷰』 12(1): 3-31.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차유진, 정지수. 202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한국사회 정착 경험에 관한 연구: 부적응 경험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3(3): 37-72.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 141-181.
- 최현정, 김영순. 2023. “한국어교사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9(5): 205 - 229.
- 허숙 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의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6(2): 119-142.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1-37.

Abstract

## Social Adaptation of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in South Korea

### – Cases and Implications of Women

Yi, Soojeong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rocess of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for female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ho entered Korea through ‘Operation Miracle’ in 2021, along with the social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is process. It particularly sought to trace the changes in attitudes and perspectives toward Korean society between the mother and child generations and their underlying causes. To this end, interviews with Afghan Special Contributors and stakeholder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across four sessions from 2022 to 2024. The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the emergency reception of Afghan Special Contributors facilitated rapid initial settlement,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was male-headed household-centered, neglecting women's employment intentions and career transitions. Specifically, initial employment linkage focused on men, while women were concentrated in Korean language and socialization education. Unlike men, migrant women thus had reduced access to opportunities enabling active social participation.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assumption that ‘Muslim women stay at home’ being reflected in the settlement program design. Unlike the limitations faced by the mother generation, children and adolescents adapted to Korean society quickly upon being integrated into public education, regardless of gender. Consequently, mothers adapted to Korean society within the constraints

of language barriers and caregiving responsibilities, while daughters adapted in a more liberated environment, preferring career paths applicabl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Migrant Muslim,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Migrant Women, Refugee Adaptation, Islam

- Ⅰ 투 고 일 : 2025년 9월 14일
- Ⅰ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1일
- Ⅰ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4일



이은아 · 신경아 | 2024~2025년 탄핵 광장의 청년 여성들  
- 프레카리티와 출현의 정치

타이페이한 | 동아시아 '위안부' 서사의 탈민족주의적 재현과  
화해 전략 연구  
- 『춘자의 남경』과 『벚꽃』을 중심으로

전지원 |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의 내면화 양상

송우인 | 청년 레즈비언 '부치' 수행의 해석

신현우 · 양난미 |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관계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추지현 | 횡단하는 물질과 여성의 몸 궤적  
- 초기 성인기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

김민혜 · 유순화 · 정애리 |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오유라 |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알·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 2024-25년 탄핵 광장의 청년 여성들

## - 프레카리티와 출현의 정치\*

이은아\* · 신경아\*\*

### | 목차 |

1. 탄핵 광장을 밝힌 청년 여성들
2. 이론적 논의: 아렌트와 버틀러의 '광장'과 '출현할 권리'
3. '안전한 광장'과 출현의 정치
4. 페미니스트 연대와 복수(複數)의 광장
5. 청년 여성의 주체화와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 | 초록 |

본 연구는 늘 광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이 2024년 비상계엄 이후, 어떻게 탄핵 광장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출현했는지 그 조건과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언론 매체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광장에 있었던 청년 여성들의 광장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청년 여성들은 지난 10년간 구조적 불안정성과 젠더화된 폭력의 경험을 공유하며 일상에서 프레카리티를 체화하고 있었으며, 이는 광장 민주주의를 위한 출현의 조건이 되었다. 이들의 출현은 혐오와 배제의 광장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으로 전환해내고, '광장식 자기소개', 즉 소수자 정체성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특히 남태령 대첩은 청년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끝나지 않는 복수의 광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2024-25년 탄핵 광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구조적 불안정과 프레카리티에 맞서 청년 여성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광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 출현했다는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euna1441@ewha.ac.kr

\*\* 교신저자: 한림대학교 shina@hallym.ac.kr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탄핵 광장, 청년 여성, 프레카리티, 출현의 정치, 페미니즘

## 1. 탄핵 광장을 밝힌 청년 여성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충격과 분노,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한밤중 여의도로 모여든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을 향해가던 장갑차와 군인들을 막아섰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거리에서 밤을 새웠다. 그때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때까지 4개월에 걸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대장정이 계속되었다. 이 긴 싸움은 ‘광장(공간)’에서 열렸고, ‘광장(정치적 공론장)’을 열었고, ‘광장(시민들의 연대)’을 구축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으로, 한강진으로, 그리고 광화문까지 서울 도심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수많은 민주주의의 ‘광장’이 펼쳐졌다.

광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고’ ‘만나고’ ‘말하고’ ‘듣는’ 수행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주체와 의미가 만들어지는 장이다. 한국 사회에서 ‘광장’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함께 정치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 들어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16-17년 박근혜 탄핵 집회가 광장을 열었고, 디지털 광장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광장 민주주의도 등장했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3년 이태원 참사 이후 광장은 추모와 기억의 공간이자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 이후 국가가 열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탄핵을 선고해 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탄핵은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긴 싸움이 되었다. 2024년 겨울부터 2025

년 봄 사이 탄핵 광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렸다. 시민들은 일상을 멈추고 주말은 물론 평일 퇴근 후에도 광장에 참여했다. 머지않아 현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리라는 예상은 자주 반복되었고 판결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쫄쫄 얼어붙었다.

한겨울 광장을 열정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물들인 이들은 바로 20-30대 청년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응원봉으로 광장의 어둠을 밝히고 K-POP 노래로 추위를 몰아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가장 돋보였고 주목 받았다. 수적으로 많았을 뿐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선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집회 참가자 중 20-30대 여성은 29.7%(20대 여성 18.9%, 30대 여성 10.8%)로 많았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3-5%와 대조되었다.<sup>1)</sup> 이후에도 청년 여성들은 남태령 트랙터 행진, 한강진 밤샘 집회 등 곳곳의 광장을 주도해 갔다. 언론과 학계는 앞다투어 청년 여성들의 ‘출현’을 칭찬했고 청년 남성의 ‘부재’를 걱정했다.

청년 여성들은 ‘응원봉 시위’, ‘빛의 혁명’, ‘짧어진 광장’으로 호명되며 새로운 정치 주체로 주목받았지만, 사실 이들은 이미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럼에도 남성 정치인과 지식인 등이 주도했던 광장에서 여성의 참여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지만, 2024-25년 탄핵 광장은 청년 여성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고 광장의 정치를 주도해 간 집단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이해정(2025)의 지적처럼 여성들이 처음 광장에 출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광장에서 상상하고 실천했던 민주주의가 이전과는 다른 감각과 감응을 불러 일으켰다는 데 있다(이해정, 2025: 55).

2024-25년 청년 여성들은 왜 광장에 나왔는가?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

1) 이해리. 2025.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의 광장에 보이지 않았을까.” (경향신문). 2025.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40900031> [검색일: 2025.5.30.]

난 세계를 부른 청년 여성들에게 광장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청년 여성들은 광장에서 호명되고 제도 정치에서 배제되는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본 연구는 광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이 탄핵 광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고 민주주의 광장을 만들어갔는지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이다. 청년 여성들이 광장을 바꾸고 광장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출현하는지 분석하며, 그 ‘출현’의 과정과 의미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선포 후, 청년 여성들은 어떤 정동적 경험을 통해 광장에 나왔는가? 둘째, 청년 여성들은 과거의 광장을 어떻게 기억하며, 그 기억은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실천을 구성하는가? 셋째, 청년 여성들은 광장의 시민들, 소수자들, 비주류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응답하며 페미니스트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으로 나아갔는가?

본 연구는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반추하며, 지금 이곳의 정치에 응답하는 정치적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한다. 그들의 광장 경험을 일회적인 사건이나 물리적 등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광장의 기억과 지금 여기의 정동이 결합된 연속적 정치 행위로 이해하며, 그들의 ‘출현’을 젠더 정치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탄핵 광장에 출현한 청년 여성들의 행위성과 주체성, 그리고 이들의 정동, 기억, 응답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나온 청년 여성<sup>2)</sup>들의 경험과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하였다. 특히

2) 언론에서 ‘청년 여성’은 주로 ‘2030 여성’과 같은 연령 범주로 표기되거나 혹은 스스로를 ‘청년 여성’으로 호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 여성’을 ‘2030 여성’이라는 연령 구분과 ‘청년 여성’이라는 자기 호명을 모두 포

불법 계엄 이후, 주요 언론은 광장에 나온 청년 여성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다수 보도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는 청년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2차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일간지에 실린 청년 여성 인터뷰 기사를 분석하였다. 2차 자료는 보도형 인터뷰 기사와 청년 여성이 직접 작성하거나 참여한 서사형·참여형 기사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해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청년 여성’, ‘탄핵’, ‘광장’을 주제로 주요 일간지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1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으며,<sup>3)</sup> 이 중 청년 여성의 발화나 경험이 담긴 인터뷰 기사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여성주의 성향의 언론(여성신문, 일다 등)과 진보적 독립언론(오마이뉴스, 플랫폼c 등)의 기사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매체는 젠더와 광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청년 여성의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다.

내러티브 분석은 시간과 구조(플롯)를 가진 이야기들을 역사와 담론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으로 청년 여성들이 광장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sup>4)</sup> 특히 이 연구는 한국 사회 광장의 역사와 그 속에서 청년 여성들이 형성해 온 행위의 계보를 배경으로 2024-25년 탄핵 광장에 나타난 청년 여성들의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메시지를

---

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두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3) 월별 기사 분포는 2024년 12월 21건, 2025년 1월 18건, 2월 16건, 3월 23건, 4월 13건, 5월 14건, 6월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별로는 경향신문(53건)과 한겨레(34건)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한국일보(6건), 중앙일보·아시아투데이(각 5건), 세계일보·조선일보(각 3건), 국민일보·서울일보·내일신문(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 청년 여성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4) 내러티브 분석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story)’ 형식으로 구성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 화자의 경험과 이야기가 발화되고 들리는 사회적 맥락, 그 속에서 재구성되는 정체성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신경아, 2018).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읽어내고자 하였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질적이면서도 공통된 정치적 감각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응원봉, 깃발, 퍼포먼스 등 상징적 실천을 담은 기록물들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2024-25년 탄핵 광장에 선 청년 여성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주체화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아렌트와 버틀러의 ‘광장’과 ‘출현할 권리’

여성주의 실천에서 ‘광장’이 갖는 의미는 공적 영역과 출현의 정치에 관한 페미니스트 이론으로 정립되어 왔다. ‘광장’에 주목하고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운동에 갖는 의미와 기여를 고민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있다. 아렌트는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의 부재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버틀러나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 등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민주주의적 통찰성과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토대로 한 아렌트의 광장과 주체화 이론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그의 이론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아렌트와 버틀러를 중심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실천의 공간으로서 광장의 의미와 정치적 주체화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를 살펴본다.

### 1) 공적 영역의 복수성과 출현할 권리

근대 시민혁명의 전리품으로 등장한 공적 영역은 부르주아 계급 남성에게 의해 점유된 공간이 되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이에

대한 이론적 해석으로 그것이 지닌 남성중심성의 오류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아렌트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인간이 지닌 차이와 그것이 드러나는 장소로서 공적 영역의 의미는 이후 페미니스트들의 연구에서 재해석되어 왔다.

아렌트의 이론에서 ‘공적 영역’의 의미는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곳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아렌트, 2019/1958).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고 동등하지 않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갖는다. 공적 영역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말과 행위로 공동의 관심사를 소통하고 판단을 내리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구성된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 구성해 가는 공간이다. 아렌트는 행위(action)를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하고 고유한 활동이며, 공적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교제라고 정의했다(아렌트, 2019/1958). 그리고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아렌트에 따르면,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공적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행위가 ‘출현(appearance)’이다. 아렌트는 사람들이 함께 출현해서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창조하며, 모든 사람은 공적 영역에서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자격, 즉 ‘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이란 출현의 공간이며 출현을 통해 사람들은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인간 관계망은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결사체가 될 수도 있다. 이 관계망들의 세계가 바로 공적 영역이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서 출현을 통한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 획득 과정

을 ‘두 번째 탄생(the second birth)’이라고 불렀다(김민수, 2025: 41). 인간의 생물학적 탄생이 첫 번째 탄생이라면,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집단적 개별적 정체성의 획득은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탄생(natality)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과 행위를 통해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탄생은 정치적인 탄생이며,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실존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공병해, 2017; 2019).

공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복수성(plurality)이다(박병준, 2014; 김선욱, 2001). 인간은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과 행위로 동등하게 관계 맺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정의했다(아렌트, 2019/1958).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며, 공적 영역은 의견을 표명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는 복수의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사실”과, 각자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일이야말로 사람들이 상호이해와 세계 이해를 이뤄내는 인식의 방법이자 인간적 세계를 구축하는 실천이라는 것이다(양창아, 2021: 221).

또한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공동의 탁자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탁자를 둘러싸고 앉은 사람들 사이에는 사이 공간(in-between)이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을 연결시키거나 분리시킨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를 형성하며 다른 관점과 의견을 형성한다(김희정, 2008: 173-174).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 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듣는 행위를 포함한다. 비판적 거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의 확장, 즉 확장된 마음(the enlarged mind)을 갖게 된다(박은주, 2023).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의 차이와 세계의 실재성(reality)에 대한 인식을 획득한다.

공적 영역도 복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세계는 인종, 민족, 젠더, 계급

등 여러 가지 차이를 지닌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각기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과 지위,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서 공적 영역은 헤게모니를 가진 다수 집단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배제되기 쉽다. 그러므로 차별받는 소수 집단에게는 대항적인 공적 영역이 필요하다. 낸시 프레이저는 하버마스의 단일한 공론장 개념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대항적 하부 공적 영역(subaltern counter-publics)’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희정, 2008: 165; Fraser, 1999). 이를 아렌트의 논의와 연결해 보면, 아렌트는 복수의 공적 영역과 전체를 아우르는 공적 영역을 포함해 ‘공동 세계’라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또 아렌트의 공적 영역은 의견 형성 공적 영역(opinion-making public sphere)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비해 정책 결정 공적 영역(policy-making public sphere)은 국가로, 아이리스 영은 이 두 층위의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가 페미니스트 실천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Young, 2000).

## 2) 프레카리티(precaarity)와 관계성의 사유

공적 영역의 복수성과 출현 개념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킨 주디스 버틀러는 공적 영역에 출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들의 조건에 관심을 두었다. 버틀러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에는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인간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프레카리티(precaarity)’라고 정의되는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조현준, 2017: 368). 프레카리티란 특정 인구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어 고통받고, 상해와 폭력·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결정된 조건이며, 이런 상태에 놓인 인구 집단은 질병과 빈곤, 기근, 해고와 폭력의 위협에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되어 있다(Butler, 2009: 25).

버틀러는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프레카리티’를 구분하면서 전자

를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론적 조건으로, 후자를 정치경제적 권력관계의 산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이 같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은 인간을 취약하게 만든다. 버틀러는 이러한 실존적 취약성(existential vulnerability)이란 타인에게 노출되는 순간 폭력의 위협에도 노출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회경제적 조건의 취약성은 각 사회 내 인구 집단 사이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정치사회적 권력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은 달라지는데, 프레카리티란 이 같은 취약성의 차별적 분배구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프레카리티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과 메카니즘에 의해 출현한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가 ‘불안정화(precairization)’이다. 버틀러는 프레카리티는 “국가와 경제 제도에 의해 도입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Butler, 2011).

어느 누구도 사회의 실패 없이는 은신처의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사회체제나 정치경제의 실패가 없다면 실업으로 고통받을 이유도 없다. 인간 삶의 취약성은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정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실패와 불평등성에 원인이 있다(Butler, 2011).

버틀러는 프레카리티, 즉 사회적 불안정성이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해석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보수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져 온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은 사람들의 삶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불안정성이 21세기 사회에서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인구의 일부가 불필요한 노동력으로 지속적으로 해고되는 시대, 노동인구의 대체가능성(replacementability)과 처분가능성(disposability)을 높여가는 노동유연화 시대, 임시 노동이 확산되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구조적으로 침해받는 시기에 생계유지

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확산되는 모순"을 통찰하며 불평등의 심화를 비판한다(Butler, 2004; Butler, 2009; Butler, 2011). 버틀리의 이 같은 주장은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주변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해석이다. 그리고 “여성은 존재론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착종하여 나타난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협을 가장 깊게 경험하는 집단”이다(신경아, 2019: 187).

불안정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모이는 곳이 광장이다. 차별적으로 할당된 인간의 소모가능성 내지 폐기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리적·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공공 집회에 참여한다.

나는 신체들이 거리에, 광장에, 혹은 (가상공간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공적 공간에 모일 때, 그들이 복수적이고 수행적인 출현할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 이 출현할 권리는 신체를 정치의 장 한가운데로 내세우고 자리매김하며, 그 표현과 의미화 기능을 통해 더 이상 불안정성에 의해 야기된 조건들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는, 좀 더 살 만한(livable) 수준의 경제·사회적·정치적 조건들을 신체적인 차원에서 요구한다(버틀러, 2020: 20).

버틀러는 배제당한 자들의 출현 행위 모델을 젠더 관계에서 찾는다. 여성은 불평등한 젠더 규범과 젠더 관계에 의해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 왔지만, 바로 그 불안정성에 맞서는 수행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레카리티는 수행적 정치의 조건이 된다.

헤게모니적 담론 안에서 “주체”로서 출현하지 않고, 출현할 수도 없는 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이에 대한 응수는 이 질문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다. 배제당한 이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들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들은 어떤 관습을 통해 출현하는가? 그들은 당연시되는 논리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지배 담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출현하는가? 비록 젠더가 인간의 규범적 구성에 저항하는 모든 존재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지만, 젠더

는 우리에게 권력, 행위성, 저항에 대한 사유의 출발점을 제공해준다(버틀러, 2020: 57).

광장에서 소수집단의 출현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 프레카리티와 함께, 버틀러는 그들의 사유 양식으로서 ‘관계성의 사유’를 제시한다. 관계성의 사유란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사유이다. 인간은 모두 파괴에 취약한 몸으로 살고 있기에 서로에게 의존하며, 그러한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서로를 지켜나가야 한다. 버틀러는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unchosen cohabitation) 개념을 받아들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공거는 파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가 선택하지 않은 타자에게 묶여 있으며, ‘나는 ‘우리’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우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복수의 존재들’이다(양창아, 2023: 147; 버틀러, 2020: 35). 서로 다른 우리가 소통하려면 자기중심성(solipsism)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버틀러와 아렌트의 사유 개념은 이처럼 타자화된 인간 존재들을 향하는 관계성의 사유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유는 복수성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되 복수성을 지속하는 사고이며, 타자와의 이질성을 사유함으로써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음으로써 사유를 지속하는 양식이다.

관계성의 사유가 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광장에서의 출현이다. 출현은 ‘이야기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진다.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권리와 공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양창아, 2021: 230) 광장에 나선다. 버틀러에 따르면,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공적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규범, 사회적으로 존속할 수 없게 만드는 규범이 지배적일 때, ‘도무지 산다고 할 수 없는 삶(unlivable

life)’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오히려 규범과 거리를 두고 그것과 비판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Butler & Worms, 2023; 양창아, 2021: 231). 또한 “이들이 박탈당한 자격은 ‘정치적 자유’와 직결되기에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 것이 기존의 법적 테두리를 문제 삼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양창아, 2021: 231). 그리고 공적 영역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 공적 영역에 나와 허락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면서 바로 그 요구로 자신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임을 드러낼 때, 그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 속에서 공동체 내의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의미가 재고된다. 정치적 ‘새로움’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시작된다(버틀러, 2024; 권순정, 2013).

차별받는 집단도 ‘복수’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말하기의 두 번째 조건은 ‘복수성과의 연결’이다(양창아, 2021: 232). 삶을 지키기 위한 말하기일지라도 다른 차별을 낳는 동일화의 폭력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말하기는 또 다른 차별받는 집단과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 특수성을 지닌 인종, 민족, 젠더, 계급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저항은 주변화된 존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때만 또 다른 차별을 낳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성의 지속과 연대는 광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 3. ‘안전한 광장’과 출현의 정치

#### 1) 청년 여성과 광장: 계보와 동학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다.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여학생과 여성 노동자들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다양한 이

름으로 광장에 나섰다. 2024-25년 탄핵 광장의 청년 여성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고, 광장을 지켜왔다. 민주화 이후, ‘촛불집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효순·미순 추모 집회에서였다. 교복을 입은 10대 여성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촛불소녀’로 명명되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광장에도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처음 시작된 촛불집회는 10대 여학생들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심이 되었고,<sup>5)</sup> 이후 10대부터 50대까지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청년 여성들이 시위대의 주축이 되었고, 유아차를 끌고 온 여성들은 ‘유모차 부대’로 불렸다. 그러나 저항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모습은 의미 있는 기억으로 기록되지 못했다. 집회가 마무리되면 광장의 여성들은 ‘민중’과 ‘시민’이라는 이름 속에 묻혔고 기억에서 지워졌다. 이처럼 청년 여성들은 늘 광장에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했음에도 예외적이거나 계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함께 청년 여성들은 또다시 광장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상의 불안과 구조적 폭력을 가시화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지 않았던 여성들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거리에 나와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분노하고 저항하였다. 그리고 ‘검은 시위’, ‘촛불집회’, ‘혜화역 시위’ 등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 형성된 페미니즘 담론은 거리와 광장의 저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광장’은 청년 여성들이 광장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한 집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광장의 문화를 형성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광장의 경험은 페미니스트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구

5) 임현지. 2008. “촛불 시위의 순수성(?)의 아이콘이 된 여성들.” 〈한국여성민우회〉. 2008.9.18. <https://womenlink.or.kr/archives/?bmode=view&idx=85744425&utm> [검색일: 2025.10.15.]

축하고, 광장의 정치적 동학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은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취약성, 즉 프레카리티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정동이자 정치적 언어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여성 대 상 폭력 범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로 보고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과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스토킹 살인, 뱃페이크, 교제 살인 등 ‘삶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누적되었지만, 예방도 사후 대처에서도 국가는 무력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오며 청년 여성들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법과 제도, 정치에 대해 관심을 확대해 왔다. 이는 여성들이 직면해 온 실존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확장되었다.

김보명(2018)은 ‘혐오’의 정동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의 재부상이 바로 “청년세대 여성들이 살아내는 위태롭고 불안한( precarious) 삶의 조건들을 반영”하며, “페미니즘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었고 말한다. 광장은 취약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여성 주위의 의제를 만들어 가는 장이 되었으며, 시민권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정치적 공간이 되었다. 뱃페이크·혐오폭력·국가의 무능·성차별 부정담론이 교차하는 프레카리티의 국면에서 청년 여성들은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공적 영역에 맞서 여성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듣고 토론하는 새로운 광장을 만들었다. 이는 버틀러가 말한 ‘버려지는 몸들의 연대’를 구체적 정치로 전환하는 현장이자, 취약성의 윤리를 프레카리티 정치로 바꾸어 가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2024-25년 청년 여성들이 만들어 간 탄핵 광장도 단순한 정권 교체 요구를 넘어, 프레카리티의 차별적 분배에 맞선 평등하고 안전한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향한 실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청년 여성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 주체로 다시금 ‘출현’했다.

## 2) 청년 여성과 프레카리티

청년 여성들은 왜 광장에 나왔는가?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폭력 앞에서 그것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 폭력임을 직감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여성이 죽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성평등을 정치적 금기어로 만들고, 성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했다. 지난 3년간 청년 여성들은 불안과 무력감, 두려움을 느꼈다. 게다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목격한 이들은 국가가 ‘안전’을 방치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부정함으로써 불평등과 폭력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각하였다. 계엄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며, 이는 청년 여성들의 ‘출현의 조건’이 되었다.

청년 여성들은 공포와 분노를 느끼며 자신들의 상황 정의(definition of situation)를 공유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했다. 집회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들’, 즉 계엄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서였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광장에 나왔다. 이들이 계엄이라는 국가 폭력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집회에 참여한 한 인터뷰 참여자는 “이번 탄핵 광장에 여성이 많았던 이유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집회에도 이삼십 대 여성이 많이 온 이유는 그동안 쌓인 울분이 터졌기 때문”,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는 평소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혐오범죄랄지 차별,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살해)와 같은 죽음이 내 일상에서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세대여서 그런지 그런 감각이 더하다.” (2024.12.20., <한겨레21>, 서울 집회 참여자, 21세 여자 대학생)<sup>6)</sup>

6) 오세진·손고은. 2025. “2024 탄핵 광장, 다양한 동료시민 목소리 쏟아져.” <한겨레21>.

청년 여성들은 광장에 나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불법계엄 뿐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해 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공적 영역에서 성평등 의제가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하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낙담하고 피로감을 느낀 페미니스트가 많았을 거예요. 여성 운동가로서 윤석열 당선 이후 그 영향을 많이 느꼈어요.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자가 줄어드는 게 보였거든요. ‘왜 그럴까, 다들 피곤한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여성들이 집회에 등장했죠. 그러니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광장에 쿨어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죠.” (2025.3.15., <일다>, 비상행동 활동가 은사자)<sup>8)</sup>

그러나 이들에게 광장은 충분히 민주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않았다. 한 사회에 뿌리내린 차별과 혐오는 광장에서도 드러나며, 때로는 그것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2016-17년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혐오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다. 언론은 당시 촛불집회를 “평화로운 분위기”라고 묘사했지만, 여성에게 광장은 민주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않았다.

---

2024. 12. 2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  
[검색일: 2025. 6. 15.]

7) 본 연구는 광장의 경험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 참여자가 집회에 참여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집회 참여 지역을 함께 명시하였다.

8) 박주연. 200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광장은 모두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었으며, 누가 발언하는가 혹은 누가 침묵하는가는 광장의 위계와 권력을 드러낸다. 누가 광장의 승인을 받는가, 반대로 누가 보이지 않게 되는가. 이러한 승인과 배제의 정치 속에서 청년 여성을 포함한 많은 여성과 단체들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드러난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광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해일의 조개’처럼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된다. 더 나아가 보수기독교 세력, 남성중심적 정당과 정치세력, 주요 정부 관료들에게 여성과 성소수자의 요구는 ‘민주주의 문제’로, ‘정치적 문제’로도 읽히지 못했다.

2024년 탄핵 광장에서도 청년 여성들은 혐오와 차별을 경험했다. ‘줄리게엄이다’처럼 김진희에 대한 성차별적인 발언과 혐오적 표현이 난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광장에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20-30대 남성들에게 정보를 준다. 여자들이 집회 많이 나온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여성도, 탄핵 집회에 참여한 여성도 모두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되며, 광장의 주체로 기대되지 않았다. 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2008년 촛불소녀였던 여성들이 이제 2030 여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여성들은 광장의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한다.

“‘명박산성’이 설치된 2008년 광화문이 떠올랐다. 교복을 입고 나갔는데, 어른들이 “기특하다”고 했다. 칭찬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동등한 시민 취급을 못 받는다고 느껴서다. ‘촛불소녀’라고 명명된 우리는, 광장의 마스크트로 여겨질지 언정 주인이 되지는 못했다. 이제 ‘2030 여성’이 되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24.12.9., <경향신문>, 페미당당 활동가 심미섭)<sup>9)</sup>

탄핵 광장 초기에는 페미니스트들의 침묵도 강요되었다. “페미니스트

9) 심미섭, 2024. “촛불소녀가 돌아왔다, 광장의 주인이 되려.” <경향신문>, 2024.12.9.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2037035> [검색일: 2025.6.10.]

는 말하지 말라”, “흐리지 말라”, “해일이 이는데 조개를 줍지 말라” 같은 표현들은 성평등 의제를 사소화하고 주변화한다. 서울여성회의 기자회견 영상에 달린 “여러분들의 주장을 윤석열 퇴진과 섞지 말라”는 댓글은, 광장과 공론장에서 젠더나 소수자 문제가 언제나 ‘대의’ 앞에서 덜 중요한 것 혹은 나중에 미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자유발언에 야유가 나오기도 했고, 소수자들의 발언이 ‘묻히지’ 않도록 통제되기도 했다. 여성들은 비상계엄 때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광장에 모인 많은 여성들을 보며 힘을 얻는 동시에, 광장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 특히 페미니스트에 대한 차가운 반응을 보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청년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 의식이 단순한 정체성 표명이 아니라, 광장에 출현하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취약성의 표식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광장에 모인 시민이 백만 명이고, 시대정신이 같은 젊은 여자들이 모여 있으니 한국의 미래는 아직 젊으며 곧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회 현장에서 마주한 면면의 젊은 여성 동지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집회 주최자가 성범죄 2차 가해자고, 집회 참여 가수가 여혐 가사를 쓴 사람이라는 걸 시위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고 절망했습니다. 7일 서울집회에서도 페미니스트 운동가분이 자유발언 하시러 무대에 올라왔을 때 주위의 반응이 냉담했던 것까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미래가 없구나, 여자는 여기서 또 지워지는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계엄령 상황을 TV로 지켜본 그 155분, 그리고 해제되는 새벽 4시까지 느꼈던 것보다 더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서브컬처에서 피겨나가는 (말도 안 되는) 손가락 논란에 정지권, 노동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 인터넷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여성 범죄, 지지부진한 딥페이크 조사, 일상이 되어버린 화장실 몰카(불법촬영),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 여자란 이유로 겪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계엄령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할 거란 공포였어요. 혼란스러웠고, 그럼에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2025.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2030 여성)<sup>10)</sup>

### 3) 평등 약속문과 ‘안전한 광장’

민주주의를 위한 광장조차도 오랫동안 남성의 공간으로 작동해 왔으며, 여성과 소수자는 ‘대의’를 위해 주변화되거나 침묵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탄핵 광장에서도 반복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페미X들 찾아 죽이지”는 댓글 테러가 이어졌고, 오프라인에서도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안적 민주주의의 실천 공간으로서 광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청년 여성들은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았다.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은 광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으며, 광장을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체가 되었다(이혜정, 2025).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퇴진 광장을 위한 ‘시민촛불’을 만들었다. 이어 2024년 12월 7일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 공개되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24)(〈그림 1〉 참조).<sup>11)</sup> 이 약속문에는 ‘모두가 평등한 집회 참여’라는 광장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었으며,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연령·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였다. 광장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를 광장의 주체로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대상화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약속문에는 그동안 광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시화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지 않고,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 및 젠더폭

10)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11)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12.9.

<https://women21.or.kr/notice/25793>. [검색일: 2025.10.15.]

력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직 모두의 약속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청년 여성은 12월 7일 집회에 참여하면서 “집회 문화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여전히 페미니스트의 출현에 침묵과 야유를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며 그날을 기억했다. 그리고 시위의 주축임에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한다.

“12·7 국회 앞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서로 질서를 잘 지키면서 동시에 엄숙하고 한편으론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집회 문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가 단상에서 발언하자 싸늘한 침묵과 야유를 보이는 시민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철도노조나 금속노조원분들이 발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를 크게 외쳤지만 제 주변에선 저 말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혼자 간 것도 아니었는데... 아 그리고 혹시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김민웅씨가 단상에 오르는 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핵 시위의 주축인 여성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목소리가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점차 줄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탄핵 및 국민의힘 당 해체, 그리고 내란 주도 세력들을 끌어내릴 때까지 여성으로써 목소리를 내겠습니다.”(2025.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2030 여성)<sup>12)</sup>

2024년 12월 11일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1,500여 개가 함께 모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하였다. 「발족 선언문」은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는 발족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자료, 2024.12.11.). 이후 2024년 12월 13일 비상행동은 “우리 모두의 광장입

12)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니다”라는 제목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을 발표하였다(한국여성노동자회, 2024)(〈그림 2〉 참조).<sup>13)14)</sup> 이 약속문은 ‘민주적인’ 가치와 지향을 포함하여 광장의 원칙을 한층 확장하였다. 약속문은 민주주의 광장의 원칙으로서 “광장의 주체가 바로 서로이며, ‘안전하고 평등하게’가 민주주의의 원칙”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민주주의 근본 원칙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차별 금지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할 원칙임을 선언하였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분명하게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금지를 명확히 했으며, 이러한 호명은 그동안 광장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존재들의 ‘출현할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차별과 혐오 금지를 광장의 즉각적 실천으로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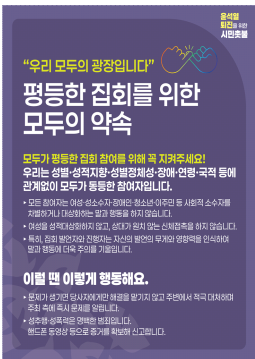
이처럼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를 연기될 수 없는 현재의 정치적 실천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선언문은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운 청년 여성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행동 지침은 모든 참여자가 연루되고 연결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약속문은 “참여자 중 누군가 아유, 욕설, 비하, 배제·차별·혐오 발언 및 행동을 할 경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목격자 또한 침묵하지 않고 행위 중단

13)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12.13.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검색일: 2025.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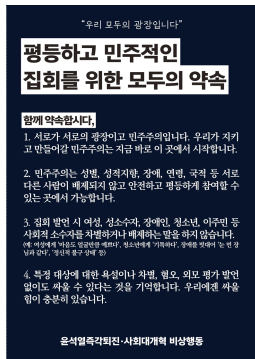
14) 2024년 12월 13일 비상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전국 긴급행동’을 열었는데, 서울(여의도), 경기(수원, 시흥, 양주, 오산, 광주, 하남), 제주, 광주, 경남(거제, 김해, 밀양, 진주, 창원, 통영, 함양, 함안), 대전, 강원(춘천, 속초, 철원), 충남(천안, 서산, 당진, 보령), 세종, 전남(고흥, 구례, 광양, 여수, 영암, 진도), 부산, 울산, 충북(청주), 대구, 경북(포항, 성주, 구미), 전북(전주, 남원, 익산, 고창, 순창, 진안)에서 광장이 열렸다(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내란법 윤석열 탄핵 전국 긴급행동(12/3).” 2024. 12. 13. <https://kwwnet.org/recent/?q=YToxOntzOjEyOjIj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I9&bmode=view&idx=133152952&t=board> [검색일: 2025. 10. 28.]).

을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그림 2〉 참조). 이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과 혐오 앞에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들의 ‘출현할 권리’에 응답하고 책임지는 시민의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은 단순한 명시적 선언을 넘어 서로의 존재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정치적·실천적 과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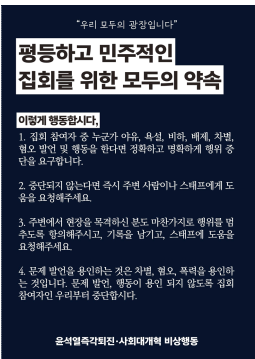
출처:  
<https://women21.or.kr/notice/25793>

〈그림 1〉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2024.12.7.,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민촛불)



출처:  
<https://kwv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그림 2〉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2024.12.1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 비상행동)



출처:  
<https://kwv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그림 3〉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2024.12.1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 비상행동)

#### 4) 페미니스트와 출현의 의미

평등 약속문을 만드는 과정에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다. 비상행동에 참여한 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박근혜 퇴진 촛불광장에서 페미니스트로서 느꼈던 답답함을 기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활동가 역시 비상행동에 참여하면서 평등 약속문을 만드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고 했다. 이처럼 이전 광장의 경험과 계보 위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비상행동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등한 광장을 요구할 수 있었다.

“집회를 기획하는 회의, 구호를 정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 등 곳곳에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개입할 수 있다면 이전과 조금 다른 광장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비상행동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물론 ‘평등약속문’이 있다고 해서 한 순간에 집회 현장이 평등해질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주최 측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비상행동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고, 집회할 때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이 약속문이 우리 집회의 가치이고, 공동의 감각이라는 걸 계속 전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존재하는데, 광장만 그런 게 없는 공간으로 만들 순 없다고 봐요. 다만 평등의 감각을 넓히고자 하는 거죠.”(2025.3.15., <일다>, 서울집회 참여자, 비상행동 활동가 은사자)<sup>15)</sup>

“‘평등 약속문’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소수자가 대상화되거나 그들에 대한 혐오발언이 나올 때, 김건희 씨에 대해 말하며 여성혐오적인 말들을 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좀 정돈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무언가를 비판하면서 혐오표현이 나오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다, 광장에 모인 모두와 함께 약속을 만들 수 없더라도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평등약속문’을 제안하게 됐죠.” (2025.3.15., <일다> 서울집회 참여자, 비상행동 활동가 여경)<sup>16)</sup>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서울에서 진행된 광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약속문이 광장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약속문을 반복해서 안내하고, 광장의 시민들에게 평등의 원칙을 상기시키려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광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전과 평등에 대한 시민사회와 참가자들의 요구가 모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5) 박주연. 202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16) 박주연. 202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준비단에서는 안전하고 평등한 집회를 만들기 위한 수칙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집회에서도 항상 시작할 때와 중간마다 화면으로 띄우는 등 노력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이 견인한 측면도 있다. 케이팝을 부르는 등 문화적 변화도 있었지만, 이 공간이 안전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회를 준비하는 측과 참가자 모두에게 있었고 맞아떨어졌다.” (2025.1.9., <NEWS&JOY>, 서울집회 참여자,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sup>17)</sup>

약속문 하나로 광장이 저절로 평등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퇴진을 우선시하며 다른 의제들을 역시 말라는 목소리도 존재하며, 실제로 게시된 약속문에는 “시민 발언에 나와서 성정체성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음”<sup>18)</sup>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광장의 정치는 단일하지도, 평평하지도 않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들이 광장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혐오와 차별을 둘러싼 긴장과 충돌 속에서 ‘평등’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약속문은 적어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을 위한 공통의 원칙과 시민의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 광장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 여성과 페미니스트, 사회적 소수자들은 평등하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 자유발언자는 “살기 위해 존재를 숨겨야 했던 존재들이 살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고 말한다. 청년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이제 광장에 응답하고 광장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살기 위해 존재를 숨겨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살기 위해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2025.1.3. 저녁 8시 10분경 자유발언)(권창규, 2025: 632에서 재인용)

17) 나수진. 2025. “20대 여성이 주도한 탄핵집회, 20대 여성이 외면한 10·27 집회.” <NEWS&JOY>. 2025.1.9.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42> [검색일: 2025.6.15.]

18)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12.13.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검색일: 2025.10.15.]

청년 여성 또한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프레카리티 경험은 이들을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라는 정치적 정체성으로 연결한다. <매일노동뉴스>는 광장에서 주목받은 2030 여성을 ‘미조직 여성노동자’로 규정하며, 이들의 경험을 분석한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대형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차별적인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이제 어디에서도 수용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광장을 지키기 위해 나온다고 말했다. 청년 여성들의 프레카리티는 새로운 정치적 출현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조건인 것이다.

“광장으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 응원봉을 들고 가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낀다”, “우리 세대의 여성은 무엇을 주장했을 때 수용된 경험이 일터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없다”, “이번 광장에서 거의 처음으로 우리의 역할과 주체성을 인정받고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은 언제나 거리에 있었고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경찰의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2018년 혜화역 집회 등에서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았다”, “광장이 안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2030 여성이 다른 대상과 연대하는 감각을 얻었듯 다양한 의제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응답할 것으로 믿는다.” (2025.2.17., <매일노동뉴스>, 서울집회 참여자, 31세 여성 전 학원강사)<sup>19)</sup>

#### 4. 페미니스트 연대와 복수(複數)의 광장

##### 1) 소수자 정체성과 말하기-듣기

버틀러에게 ‘위태로운 삶’이란 “배제되고 버려진 존재를 단순히 기존의

19) 이 재. 2025. “광장 지키는 미조직 여성 ① 밀리고 밀려도 “안전한 광장을 위해 집회에 가요.” <매일노동뉴스>. 2025.2.1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65> [검색일: 2025.6.15.]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의 차원에 반란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버틀러, 2018: 33). 지금까지 광장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시민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성적 지향, 장애, 직업, 가족관계 등을 드러내며 차이를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광장의 다양한 얼굴과 이야기들은 존재의 불평등을 감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강진 집회에서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밝히는 참여자들이 유독 많았는데, 이들의 커밍아웃에 대해 불만도 없지 않았지만 광장에는 적어도 이들이 저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남 응, 2025: 314).

한편, 소속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광장식 자기소개’ 또는 ‘광장식 인사’는 기존의 ‘보편 시민’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실천은 광장에서 존재의 위기를 경험해 온 여성과 소수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들었다. 광장을 기록한 한 저자는 광장의 출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광장은 버틀러가 말한 ‘위태로운 삶’의 존재론적 반란의 장이자, 민주주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안 맞는다는 생각, 나와 다른 소리를 하면 아예 안보는 태도보다 ‘이야기를 섞어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광장으로 향했다”, “이번엔(혐오 표현은) 광장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선이 생겼다”, “그게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역할을 한 것 같다.”(2025.4.28., <경향신문>),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롤링다이스, 2025). 공동저자 엄지효)<sup>20)</sup>

20) 오동욱. 2025. “‘화합은 원래 ‘얼룩덜룩한 풍경’...광장을 만들고, 지키고, 기록한 2030 여성 4인의 이야기.” <경향신문>. 2025.4.2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80600091> [검색일: 2025.6.20.]

“박근혜 퇴진 집회 때는 저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갖고 광장에 나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12월14일 집회 때 제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 나왔어요. 불안하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성소수자인 우리도 ‘시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촛불집회 이후 8년이 지났잖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페미니즘 백래시, 성소수자 혐오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나를 더 드러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2024.12.20., <한겨레21>, 서울집회 참여자, 30대 성소수자 남성)<sup>21)</sup>

광장의 자유 발언문을 분석한 유현미 외(2025)는 발화 양식이 “어디에서 온 누구”를 넘어 비주류와 취약성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호명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30대 여성 페미니스트 참여자의 말처럼 “페미니스트”와 같은 “자신의 소수자성과 약자성을 밝히”는 말하기가 가능해진 조건이자 “안전과 평등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유현미 외, 2025: 170). 또한 자신의 소속이 아닌 발언자의 특성,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나 ‘성소수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광장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하다(이혜리, 2025: 87). 퀴어 정체성을 가진 한 서울집회 참여자는 광장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여성이야말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존재입니다. 저만 해도 법적 지정 성별은 여성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피메일바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있기도 해서 고 변희수 하사의 추모 행동에 종종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냥 퀴어 때 보던 사람들 다 모였더라고요. 저는 오타쿠 깃발 만들어 갔는데 원정 공연 때 뵈었던 동지분을 만나서 기쁘고 씩씩했습니다. (중략) 그래도 많은 여성들, 퀴어동지들을 광장에서 만나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민주주의

21) 오세진·손고은. 2024. “2024 탄핵 광장, 다양한 동료시민 목소리 쏟아져.” <한겨레21>. 2024.12.2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 [검색일: 2025.7.15.]

쟁취하고 행복한 퀴어로 늙어서 이 광경을 증언하고 싶어요.” (2024.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2030 여성)<sup>22)</sup>

자신을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밝힌 한 인터뷰 참여자는 광장이 “밀려난 사람들의 공간”이었으며, 그들로부터 “용기를 빌려” 광장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자들의 존재가 ‘나중’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처럼 소수자 정체성의 말하기와 듣기는 자기 표현을 넘어, 다양한 차별과 혐오의 고통에 대한 고백이자 치유의 과정이며,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다. 광장은 이러한 관계적 이해를 통해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장이 된다.

“나란 사람이 사회에서 늘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하고 싶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늘 ‘덜 중요한 사람’과 ‘더 중요한 사람’ 간의 위계는 공고했다”, “광장에서 발언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긴 쉽지만 실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란 힘든 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나중’이라는 말로 선이 그어진다”, “배달 노동자, 이주 노동자, 성 노동자의 발언도 터져 나왔지만 역시 ‘나중’이라는 말로 밀리고 있다... ‘나중’에 밀려누군가 더 죽어가기 전에 같이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2025.4.11., <경향신문>, 서울집회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29세 여성)<sup>23)</sup>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는 자신이 어떤 구조적 위치에 있으며, 한국 사회에 어떤 혐오와 차별이 있는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위치성의

22)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23) 우혜림·박채연. 2025. “광장이 말했다 “고립·은둔 청년도 괜찮아”... “나중에 가 없는 세상 바라.” <경향신문>. 2025.4.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10600021> [검색일: 2025.6.15.]

정치(politics of positionality)’의 의미를 갖는다. ‘나는 여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특정 세대와 계층, 지역적 배경 등 다양한 곳에 있다’라는 구조적 위치를 드러내며 교차하는 타자들과 만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나’를 선언하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성이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황정미(2017: 45)의 지적처럼 “페미니스트 정치가 소수자의 정체성을 정치화하고 주류의 억압을 폭로하는 저항의 기획”이라면, 광장식 인사와 소수자 정체성의 출현은 곧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저항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 2) 복수의 광장과 ‘다시 만난 세계’

2024년 12월 21일 밤, SNS 등을 통해 농민의 트랙터 행진이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을 들은 청년 여성들과 시민들은 바로 남태령으로 향했다. 추운 겨울 밤을 함께 지새우기 위해 이들은 준비한 물품을 나누고, 캐롤을 개사한 ‘탄핵 가요’를 부르며 춤과 울동으로 몸을 녹였다. 청년 여성들에게 ‘응원봉 집회’는 사실 낯선 것이 아니다. ‘훤걸’의 집회 참여 경험을 분석한 정고은(2025: 119)은 “길바닥에서 지나간 시간을 견뎌내고, 소송사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근조화환과 트럭을 보내는 등이 나눔과 저항의 양식에 수상하리만치 익숙한 ‘훤걸’들에게, ‘응원봉 집회’의 형식과 내용은 낯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청년 여성들의 팬덤 문화가 보여준 선결제와 나눔 문화는 2024년 12월 21일 남태령에 다시 등장했다. 남태령 집회에 참석한 청년 여성은 12월 28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집담회에서 나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공동의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는 트랙터가 통과하는 장면도 좋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저와 같은 시민들이 같이 핫팩을 나누고 음식 나누는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시위 나온 사람들을 절대 굶게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고요. 덕분에 하나도 춥거나 배고프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계속 눈물이 났어요.” (2024.12.28., <한겨레21>, 서울집회 참여자, 청년 여성)<sup>24)</sup>

남태령 집회는 이전의 여의도 집회와 달리 서로 연결된 존재이자 지키는 존재로서 시민성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청년 여성들은 “교대할 사람들과 달라라”는 트위터 글을 보고 남태령으로 향했고, 리트윗을 통해 동료 시민들을 조직했다. 남태령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지키는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청년 여성들은 남태령을 특히 이전의 집회와 다르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남태령 집회는 이제껏 참여한 그 어떤 집회보다 분위기가 좋았다. 배제되고 공격당할 것 같은 사람(트랙터 시위자들)의 편에 서기 위해 왔는데, 그 이유가 나도 이렇게 배제당하고 공격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민들과 연결감·동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남태령에서의 자유발언들은 대규모 여의도 집회의 발언과는 느낌이 달랐다. 수많은 대중 속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공간이었다.”(2025.3.25., <시사IN>, 서울집회 참여자, 30대 여성)<sup>25)</sup>

청년 여성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지만, 광장 이후 제도 정치에서 그들은 쉽게 잊혀졌다.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자각하게 된 청년 여성들은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요구하며, “무력해지고 싶지 않아서”,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을까봐” 다시 광장으로 나아갔

24) 신다은. 2024. “10인10색 ‘남태령 대첩’ 출전 동기”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한겨레21>. 2024.12.28.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632.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632.html) [검색일: 2025.9.15.]

25) 박성민. 2025. “우리 안의 모든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시사IN>. 2025.3.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28> [검색일: 2025.7.15.]

다. 청년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광장은 탄핵과 정권 교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다. 광장은 지금까지 지워지고 고립된 파편화된 존재들과 연대할 방법을 모색하고, 끝나지 않는 복수의 광장으로 확장되는 곳이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 탄핵 집회에서 한 여성참여자는 광장 이후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2025.4.21., 〈FLAT〉, 부산집회 참여자, 20대 여성)<sup>26)</sup>

남태령 광장 이후, 광장의 청년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연대가 필요한 곳에 존재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즉, 특정 의제나 정체성에 묶이지 않고, 시민으로서 ‘존재’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청년 여성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갖게 된 것임을 기억하며, 부채감과 함께 민주주의 실천에 응답해야 한다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그때,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농민들은 시민들의 말을, 시민들은 농민들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몰라왔던 농민들의 아픔을 돌아보겠다는 외침에, 농민들은 동지라 불러도 되겠냐는 물음과 감동어린 눈물로 화답

26) 플랫폼. 2025. “‘매일 비상계엄같은 삶 사는 사람들 아직도...’ ‘술집 여자’ 시민의 호소.” 〈FLAT〉. 2025.4.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1521001> [검색일: 2025.7.15.]

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겪는 성차별을 소리높여 외쳤고, 청년 여성들은 연대를 약속하는 공감의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였던 두 세계가 그날 밤 ‘다시 만난 세계’로 거듭났습니다.” (2025.2.9., <플랫폼.c>, 서울집회 참여자, 향연)<sup>27)</sup>

### 3) 광장의 ‘결’과 페미니스트 시민되기

광장은 더 이상 특정한 의제나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실천과 행위들로 이어진다. 남태령 대첩 이후 이어진 다양한 연대의 실천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말벌 동지’들은 “정치적 진영이나 입장을 정한 후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하고 감응하는 사람들과 장소를 찾아가거나 거기에 물질적인 지원품을 보냄으로써 그 실천과 함께 하고, 그 신체적 실천을 통해 입장을 생성”하고 있다(이혜정, 2025: 76).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기금 기부자 중 2030 여성 기부자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sup>28)</sup>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향한 연대 투쟁, 여성 해고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지지,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회원 증가 등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 집회에 참여한 한 20대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회운동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농성장까지 가 보게 됐고요.” “집회를 다니며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내 얘기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또 무엇보다도 불의를 보면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탄핵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여러 시위에 최대한 참여해보자 싶어요. 지난 수년 간 해결 안 됐던 각자의 투쟁이 있었더라고요. 저 스스로 ‘내가 연대 활동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사

27) 향연. 2025. “남태령 투쟁을 겪으며 느꼈던 점 |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넓히는 사람들.” <플랫폼.c>. 2025.2.9. <https://platformc.kr/2025/02/review-of-the-nantaeryeong-struggle> [검색일: 2025.5.15.]

28) 박소영. 2025. “‘남태령 대첩’ 2030 여성의 힘”...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50억 채웠다.” <한국일보>. 2025.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813480005286?did=NA> [검색일: 2025.8.15.]

람이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2025.2.3., <오마이뉴스>, 서울·전장연 집회 참여자, 20대 고졸 생산직 여성)<sup>29)</sup>

청년 여성들은 광장을 통해 다른 사회운동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하고,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청년 여성들은 농민, 노동, 장애 등 여러 의제에 관심을 확장하며, 선결재나 물품 나눔을 넘어 ‘함께-존재하기’의 정치적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대학 내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며 대학생들의 집회 참여가 적다고 느꼈지만, 탄핵 광장을 경험하며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탄핵이 부결되었지만, 그것보다 광장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성들이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촛불집회에 다녀와서 앞으로의 사회를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 순히 2030 여성들이 촛불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외에도, 2030 여성과 기성세대 운동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략) 민주노총과 2030 여성들은 분명 다르지만, 달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보여요. 여전히 성평등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함께 투쟁할 동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4.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여자 대학생)

청년 여성들과 소수자들은 스스로 출현하며 광장을 넘어 국가와 제도 정치에 대한 요구로 나아간다. 그리고 복수의 광장을 통해 새로운 제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며, 남성중심적인 시민사회의 전환과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광장은 모든 비인간 존재들에게까지 확장된다.

29) 최나현. 2025. “탄핵 집회 참가자가 전장연 시위에도 열심히 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25.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530](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530) [검색일: 2025.6.15.]

“우리는 권력에 의해 주저앉혀지고 싶지 않아 투쟁합니다. 이젠 당연하게도 파시즘을 앞세운 지도자를 거부하는 일과 같습니다.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끊임 없이 외면당한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결정 아래 배움터를 위협당하고 있는 여대 학생들, 자신을 입증할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벌 받게 할 수도 없는 여성 폭력의 피해자들, 미미한 지원금만이 쥐어진 채 삶의 터전을 철거당한 용주골 사람들, (중략) 국제 사회의 외면 아래 학살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죽어가고 있다고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비인간과 생태계,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 타자화되고 비인간화된 채로 착취당하는 모든 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5.3.20., 〈한겨레〉, 서울집회 참여자·한강진역 발언자, 30세 익명의 청년)<sup>30)</sup>

권창규(2025: 637)는 “정치 집회가 열리는 광장은 신념과 생각 이상으로 경험과 상상, 정동이 맞부딪히는 역동적인 현실 공간이자 가상의 공간”이라고 보았다. 차별과 혐오, 위계와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연대와 출현은 계속될 것이며, 수많은 광장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엄기호는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2018)에서 고통은 절대적이기에 소통할 수 없으나 고통의 당사자가 고통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곁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그 곁을 지키는 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곁’이자, ‘곁의 곁’이 되었다. 그리고 광장은 또 다른 ‘곁’으로 이어진다. 끝나지 않는 복수의 광장들, 그리고 평등을 향한 페미니스트 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시 만난 세계들’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30) 고나린. 2025. “기록하는 시민 ‘말빛’이 꼽은 광장의 ‘빛나는 말들.’ 〈한겨레〉. 2025.3.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85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857.html) [검색일: 2025.6.15.]

## 5. 청년 여성의 주체화와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 연구는 지금까지 늘 광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이 2024년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면에서 어떻게 탄핵 광장의 정치적 주체로 출현했는지, 그 조건과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여성들의 경험과 행위를 분석하고, 공적 영역으로서 ‘광장’과 소수자 정치로서 ‘출현’으로 개념화했다. 아렌트의 공적 영역과 출현,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청년 여성의 출현이 일회적인 사건이나 우연이 아닌 실존적이고 수행적인 행위였음을 밝히고, 복수성의 정치를 통해 광장을 바꾸며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이번 탄핵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 세력으로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계기와 단계가 있다. 비상계엄 철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 여의도-남태령-한강진(한남동)-광화문으로 이어진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은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국면을 돌파해 나갔다. 광장이라면 깃발 들고 나서서 구호를 외치고 민중가요나 아침이슬 정도를 부르는 것이 전부였던 기성세대에게 청년 여성들은 매우 다른 태도와 행동으로 광장의 문화를 새롭게 바꿔나갔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청년 여성들의 수적 참여와 적극성이다. 10대 부터 30대까지 청년 여성들은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고 수도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가시화되었다. 그들의 밝은 얼굴과 쾌활한 태도는 40-60대 중년층이 주를 이뤘던 탄핵 이전의 광장과는 다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탄핵 광장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응원봉은 광장의 풍경을 바꿔냈다.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이 철회된 후 처음 열린 탄핵 결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나간 뒤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부결되자 여의도 광장에는 분노와 실망감, 비통함이 몰아닥쳤다. 실망한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광장을 떠나려 할 때, 어둠이

내린 겨울 저녁 청년 여성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꺼내 들었고 광장은 순식간에 불빛으로 빛났다. 청년들은 눈물 대신 응원봉을 들고 익숙한 K-POP을 부르며 광장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갔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들의 헌신과 분투 의지가 두드러졌다. 남태령 대첩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길이 기억될 한 장면이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들어서는 농민들을 경찰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막으려는 국가 권력에 맞서 청년 여성들이 농민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한 사건이다. 한국의 시민들에게는 몇 해 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생명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에 남태령의 밤은 고통과 불면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 12월 동짓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 여성들은 SNS에서 남태령 농민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읽은 후 발걸음을 돌렸고 남태령의 험한 벌판에는 청년 여성들의 외침이 크게 울렸다. 이들의 외침을 듣고 정치인과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경찰이 퇴진한 다음 날 농민들은 무사히 남태령을 넘을 수 있었다. 자칫하면 공권력과 농민이 맞닥뜨려 인명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청년 여성들은 노래와 응원봉, 따뜻한 연설로 막아냈다. 이후 한강진에서는 급기야 키세스 군단까지 등장하며 눈 내리는 한 겨울의 한파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민주주의를 지켰다.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을 ‘응원봉 연대’라고 부르는 것은 광장의 주역들이 청년 여성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4개월에 걸친 탄핵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은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실업자, 학생, 성판매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광장에는 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탄핵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사회적 소수자와 무권력자, 비주류의 존재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청년 여성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연대해야 할 동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탄핵 광장은 청년 여성의 출현, 즉 광장에 선 다양한 집단들 앞에 청년 여성들 역시 ‘발견’된 공간이지만, 청년 여성들 역시 페미니스트로서 연

대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2024-25년 탄핵 광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장이 아니라 불안정성과 차별적 프레카리티에 맞서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장이었다. 청년 여성들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며, 광장의 민주주의와 시민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페미니스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평등하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응답과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며, ‘페미니스트 시민되기’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해갈 수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요 언론 매체 인터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서울집회 경험이 중심이 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의 광장과 청년 여성들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청년 여성과 광장을 프레카리티와 출현의 정치로 개념화하고, 불안정성에 저항하며 연대를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권창규. 2025. “광장 정치의 역사 쓰기.” 『동학학회』 73: 623-653.
- 권순정. 2013.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통해서 본 ‘젠더.’” 『철학논총』 72: 215-240.
- 공병혜. 2017. “탄생철학과 아렌트의 시작의 의미.” 『철학탐구』 46: 95-127.
- \_\_\_\_\_. 2019.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과 21세기 생명정치.” 『범한철학』 95(4): 149-174.
- 김민수. 2025. “한나 아렌트의 ‘의식적 파리아’와 정체성의 정치.” 『문화와 정치』 12(1): 33-59.
- 김보명.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118: 100-138.
- 김선옥. 2001.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67: 221-239.
- 김희정. 2008. “한나 아렌트의 공적 영역과 페미니즘.” 『사회과학논집』 39(1): 159-179.
- 남 응. 2025. “일상을 여는 투쟁.” 『황해문화』 126: 311-318.
- 박병준. 2014. “한나 아렌트의 인간관-[인간의 조건]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탐구.” 『철학논집』 38: 9-38.
- 박은주. 2023. “한나 아렌트, 복수성(plurality)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연구』 45(3): 1-27.
- 버틀러, 주디스 지음, 김응산·양효실 옮김.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서울: 창비.
- 신경아. 2018. “구술사의 이해와 연구 방법.” 한국문화사회학회(편). 『문화사회의학의 관점으로 본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휴머니스트. 256-285.
- \_\_\_\_\_. 2019. “노동의 불안정성과 젠더: 시론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19(1): 173-206.
- 아렌트, 한나. 2019. 『인간의 조건』. 이진우(역), 파주: 한길사.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엄기호. 2018.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서울: 나무연필.
- 양창아. 2021. “‘말하기’와 ‘듣기’에 관한 사회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 104: 215-233.
- 양창아. 2023. “관계성의 사유: 한나 아렌트와 주디스 버틀러의 사유 개념.” 『철학논총』 114(4): 139-162.
- 유현미·김이선·김정환·장진범·박상은. 2025. “광장에서 만난 세계: 윤석열 퇴진

-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 『경제와 사회』 146: 153-193.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자료, 2024.12.11.
- 이혜리. 2025. “‘응원봉-남태령-키세스’ 2030 여성들의 탄핵연대.” 『철학과 현실』 144: 82-93.
- 이혜정. 2025. “응원봉 여성 청년의 민주주의와 학교교육.” 『교육비평』 57: 54-99.
- 조현준. 2017. “하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와 주디스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학: 몸의 정치학과 윤리적 의무.” 『비교문화연구』 48: 361-389.
- 정고은. 2025. “훤걸과 말걸: 초대장에 응답 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121: 116-132.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114: 17-51.

## (2) 국외문헌

- Butler, Judith. 2004. *Precarious Life*. London: Verso.
- \_\_\_\_\_. 2009. *Frames of War*. London: Verso.
- \_\_\_\_\_. 2011. “For and Against Precarity.” Tidal: *Occupy Theory, Occupy Strategy* 1: 12-13.
- Butler, Judith & Frédéric Worms. 2023. *The Livable and the Unlivabl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 1999.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Habermas and Public Sphere*, ed. by Calhoun, Craig.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MIT PRESS.
- Young, Iris Marion.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3) 신문기사

- 고나린. 2025. “기록하는 시민 ‘말빛’이 꼽은 광장의 ‘빛나는 말’들.” 〈한겨레〉. 2025.3.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85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857.html)  
[검색일: 2025.6.15.]
- 나수진. 2025. “20대 여성이 주도한 탄핵집회, 20대 여성이 외면한 10·27 집회.” 〈NEWS&JOY〉. 2025.1.9.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42>  
[검색일: 2025.6.15.]
- 박성민. 2025. “우리 안의 모든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시사IN〉. 2025.3.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28> [검색일: 2025.7.15.]
- 박소영. 2025. “‘남태령 대첩’ 2030 여성의 힘...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50억 채

- 왔다.” 〈한국일보〉. 2025.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813480005286?did=NA> [검색일: 2025.8.15.]
- 박주연. 200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 신다운. 2024. “10인10색 ‘남태령 대첩’ 출전 동기”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한겨레21〉. 2024.12.28.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632.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632.html) [검색일: 2025.9.15.]
- 심미섭. 2024. “촛불소녀가 돌아왔다, 광장의 주인이 되려.” 〈경향신문〉. 2024.12.9.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2037035> [검색일: 2025.6.10.]
- 오동욱. 2025. “‘화합은 원래 ‘얼룩덜룩한 풍경’...광장을 만들고, 지키고, 기록한 2030 여성 4인의 이야기.” 〈경향신문〉. 2025.4.2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80600091> [검색일: 2025.6.20.]
- 오세진 · 손고운. 2024. “2024 탄핵 광장, 다양한 동료시민 목소리 쏟아져.” 〈한겨레21〉. 2024.12.2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 [검색일: 2025.7.15.]
- 우혜림 · 박채연. 2025. “광장이 말했다 “고립 · 은둔 청년도 괜찮아”...“나중애가 없는 세상 바라.” 〈경향신문〉. 2025.4.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10600021> [검색일: 2025.6.15.]
-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 이 재. 2025. “광장 지키는 미조직 여성 ① 밀리고 밀려도 “안전한 광장을 위해 집회에 가요.” 〈매일노동뉴스〉. 2025.2.1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65> [검색일: 2025.6.15.]
- 이혜리. 2025.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의 광장에 보이지 않았을까.” 〈경향신문〉. 2025.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40900031> [검색일: 2025.5.30.]
- 임현지. 2008. “촛불 시위의 순수성(?)의 아이콘이 된 여성들.” 〈한국여성민우회〉. 2008. 9.18. <https://womenlink.or.kr/archives/?bmode=view&idx=85744425&utm> [검색일: 2025.10.15.]
- 최나현. 2025. “탄핵 집회 참가자가 전장연 시위에도 열심히 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25.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530](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530) [검색일: 2025.6.15.]

- 플랫폼. 2025. ““매일 비상계엄같은 삶 사는 사람들 아직도...” ‘술집 여자’ 시민의 호소.” (FLAT). 2025.4.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1521001> [검색일: 2025.7.15.]
-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12.13.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검색일: 2025.9.15.]
-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내란범 윤석열 탄핵 전국 긴급행동(12/3)”.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12.13. <https://kwwnet.org/recent/?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t9&bmode=view&idx=133152952&t=board> [검색일: 2025.10.28.]
-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12.9. <https://women21.or.kr/notice/25793>. [검색일: 2025.10.15.]
- 향연. 2025. “남태령 투쟁을 겪으며 느꼈던 점 |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넓히는 사람들.” <플랫폼.c>. 2025.2.9. <https://platformc.kr/2025/02/review-of-the-namtaeryeong-struggle> [검색일: 2025.5.15.]

Abstract

## Young Women in the 2024–25 Square for Impeachment – Precarity and the Politics of Appearance

Lee, Euna  
(Ewha Womans University)

Shin, Kyung-ah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young women, who had always been present in the square but remained invisible, emerged as new political subjects in the impeachment square following the 2024 martial law crisis, and to clarify the conditions and meanings of this appearance. Using media interview materials, the study analyzed the square experiences of young women. Young women have embodied precarity in their everyday lives, sharing over the past decade experiences of structural insecurity and gender-violence, which became the condition of their emergence for democracy. Their appearance also transformed the square from a space of exclusion and hierarchy into a more equal and democratic arena, realizing square democracy through the practice of “square-style self-introduction,” that is, speaking and listening to minority identities. In particular, the Namtaeryeong confronta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with diverse marginalized groups and to generate multiple squares that continued beyond the immediate moment. The 2024-25 impeachment square, therefore, was not simply a site of regime change, but a square in which young women, confronting structural insecurity and precarity, created a new democratic square and emerged as political subjects through solidarity with other minority groups.

**Key words:** square for impeachment, young women, precarity,  
politics of appearance, feminism

-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6일

# 동아시아 ‘위안부’ 서사의 탈민족주의적 재현과 화해 전략 연구

- 『춘자의 남경』과 『벚꽃』을 중심으로

타이페이한\*

## | 목차 |

1. 들어가며
2. 동아시아 ‘위안부’ 여성의 탈민족주의적 재현
  - 1) 별거벗은 생명으로써의 ‘위안부’ 여성
  - 2) 동성애적 여성 유대 구축 및 여성의 성적 몸
3. 사랑으로 미봉된 낭만적 화해의 불가능성
4. 나가며

## | 초록 |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안부’ 서사는 오랫동안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왔으며,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가해자(일본)와 피해자(점령지 국가)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가해’와 ‘피해’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인 ‘위안부’는 점차 공적 서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국가 또는 민족의 피해 이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위안부’ 경험에만 서사가 집중되었고, 그 외 지역 여성의 유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조선족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김혁의 『춘자의 남경』(2019)과 대만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장영민의 『벚꽃』(2022)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이 ‘위안부’ 역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혁신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민족 중심의 서사 구조를 넘어서 여성 간의 윤리적 유대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화해의 상징으로 제시함으로써 ‘위

---

\* 부산대학교 taipeihan@pusan.ac.kr

안부' 문제가 내포한 구조적 폭력과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해결을 감정화, 개인화로 환원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춘자의 남경』과 『벚꽃』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이 '위안부' 역사를 어떻게 서사화하고 대응하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문학적 재현의 윤리적 한계와 서사 전략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군 '위안부', 조선족 문학, 대만 문학, 일본인 '위안부' 여성, 전후 화해

## 1. 들어가며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조선 하층민 여성들 중 일부는 친부모에 의해 '수양딸'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팔려가, 결국 화류계에 내몰려 기생이나 여급 등의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애국' 선전에 따라 이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애국부인회에 가입하고, 전선에 나가 일본군을 '위안'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나 여공에 지원했으나, 취업 사기를 당해 만주, 중국 관내, 대만, 동남아 등지로 끌려가 결국 '위안부'로 전락하였다. 더 나아가 어떤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해 배나 기차에 태워져 타국으로 이송된 후, 각지의 위안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은 조선인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만주,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는 물론, 일본 내지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안부' 서사는 오랫동안 국가주어나 민족주의 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왔으며,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

---

1) 종군위안부,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왔으나, 각각 문제적 함의를 지닌다. 종군위안부와 정신대는 자발성을 전제하는 뉘앙스를, 위안부는 일본군의 시각을 반영한다. 실제 피해 경험은 강제적 성노예에 가깝지만, 성노예라는 명칭은 2차 가해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관련 다른 논의를 참조해서 따옴표를 붙인 '일본군 위안부'로 하겠다.

래했다. 첫째, 가해자(일본)와 피해자(점령지 국가)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가해’와 ‘피해’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인 ‘위안부’는 점차 공적 서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국가 또는 민족의 피해 이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위안부’ 경험에만 서사가 집중되었고, 그 외 지역 여성의 유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다.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일전쟁 기간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가장 많은 수의 위안소를 설치함에 따라(蘇智良, 2020: 4), 전시기부터 중국 문학에는 ‘위안부’를 다룬 서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황문개(黃文凱)의 지적처럼, 이러한 작품들은 ‘위안부’ 문제를 반전 서사, 영웅주의 서사, 정욕 서사 등 기존의 문학적 틀 속에 배치하며 특정한 재현 양상을 보인다. 우선 반전 서사에서는 ‘위안부’가 전쟁의 부당성과 비인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이로 인해 인물의 도식화와 기호화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영웅 서사에서는 ‘위안부’가 항일 영웅의 기질을 지닌 민족적 상징으로 형상화되며, 국가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 거대 서사에 통합된다. 또한 정욕 서사에서는 ‘위안부’가 남성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서사의 중심이 전쟁 폭력에서 성적 욕망으로 이동함에 따라 ‘위안부’는 성애화되고 낭만화된 방식으로 재현된다(黃文凱, 2021: 170-171). 즉, 이러한 서사에서 ‘위안부’는 구조적 도구로서 기능하는데, 이는 일본군의 잔혹성과 전쟁의 비인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민족의 고통과 저항 정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혹은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다.

대만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일본 남진 정책의 핵심 전초기지로서 대만은 동남아로 진출하는 일본군의 군사 거점이자, 위안소의 인력 공급지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정리한 ‘위안부’ 증언집에도 대만으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게 등장하며, 대만 내에서 조직된 ‘위안부’ 모집 체계(朱德蘭, 2012: 283)<sup>2)</sup>도 상당히 광범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회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

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만의 대표적 '위안부' 문제 연구자 주덕란(朱德蘭)은 저서 『대만의 위안부』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차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유사한 ‘위안부’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체로 무관심했고, 일부는 ‘그녀들은 원래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던 여성들이며,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朱德蘭, 2012: 1-2) 이처럼 학계의 무관심은 문학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만 문학에서 ‘위안부’를 핵심 주제로 다룬 작품은 극히 한정적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예로는 진천무(陳千武)의 「수송선」(1967), 「엽녀범」(1976)을 들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영평(李永平)의 『망향』(2002), 장영민(張英珉)의 『벚꽃』(2022) 등이 있다. 그 외의 작품에서도 ‘위안부’가 간혹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묘사에 그치거나 주변 인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서사의 중심축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조선족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김혁의 『춘자의 남경』(2019)과 대만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장영민의 『벚꽃』(2022)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이 ‘위안부’ 역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혁신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춘자의 남경』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최병우의 논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조선족 문학을 연구해 온 최병우는 그의 논문에서 『춘자의 남경』을 비롯한 김혁의 여러 작품을 분석하였다. 『춘자의 남경』에 대해 그는 하루코와 종혁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회와 화해에 이르는 서사적 과정을 통해 “진실 규명과 진심오린 사과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과거사의 극복의 유일한 방안”(최병우, 2018: 412)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민족 문제로 환원하고, 남녀

2) 1. 군부계통, 2. 대만총독부계통, 그 밑으로는 총독부가 투자한 대척국책회사와 하급 지방정부가 있다.

간의 사랑을 민족 간 화해의 은유로 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자체를 감정적 화해의 틀 속에서 봉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음으로 『벚꽃』에 대한 연구에서 이숙연(李淑娟)은 이 작품을 대만에서 이전에 발표된 ‘위안부’ 관련 문학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위안부’의 신체적 트라우마, ‘위안부’들 사이의 정신적 연대, 그리고 ‘장렬미학’을 해체함으로써 드러나는 반전(反戰) 사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숙연은 『벚꽃』이 ‘위안부’ 경험을 다층적으로 포착하며 전쟁과 여성 피해의 복합적 양상을 포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李淑娟, 2023). 그러나 동시에, 작품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춘자의 남경』과 『벚꽃』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작가들의 창작 입장에서 볼 때, 두 작가 모두 ‘위안부’ 문제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역사와 연결시켜, 주류 역사 서술에서 종종 소외되어온 지역의 ‘미시사’를 작품의 기점 또는 전환점으로 설정하려는 지역적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김혁은 조선족 문단의 중견 작가로서, 그는 작품에서 언제나 “민족적 사명감을 안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김은자, 2019: 63)하며, 조선족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sup>3)</sup>. 『춘자의 남경』에서 그는 1920년 일본군이 간도 지역 조선인을 학살한 ‘경신참변’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처럼 주변화된 역사 사건을 소설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한편, 장영민은 대만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으로, 오랫동안

3) 첫 장편소설 『마미꽃, 응달에 피다』(2003-2004)은 조선족 소년들의 시선을 통해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억을 담아낸다.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2003-2005)는 한 조선족 여성이 도시와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서사화한 작품이다. 최근작인 『춘자의 남경』은 조선인 ‘위안부’가 경험한 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지금까지 김혁은 연변작가협회 김학철문학상,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진달래문예상, 한국문인협회의 해외문학상 등 국내외 문학상을 30여 회 수상하며 조선족 문단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 대만 역사 속에서 간과되거나 잊혀진 사건들에 주목해 왔다<sup>4)</sup>. 그는 『벚꽃』에서 '대만공전'이라는 사건을 소설의 핵심 전환점으로 설정하며 '위안부' 서사의 전개를 위한 지역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안부'를 다룬 다수의 문학 작품들은 특정 국가 출신 '위안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춘자의 남경』과 『벚꽃』은 모두 조선인 '위안부'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일본과 대만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출신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서술한다. 이러한 탈민족적 서사 방식은 '위안부' 집단이 공통적으로 겪은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민족의 여성들 간에 가능한 유대와 공감을 모색함으로써 '위안부' 역사에 대한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시각을 부여한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가능한 해결안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두 작품 모두 '사랑'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역사 문제를 낭만화하고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예컨대 『춘자의 남경』은 할머니가 '위안부'였던 조선족 청년과 그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위안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생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설은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면서 마무리된다. 『벚꽃』에서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특공대원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들의 전사의 애절한 감정과 전후의 재회를 그리고 있다. 소설 말미에는 '위안부' 여성이 일본 병사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와 영혼결혼식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4) 첫 장편소설 『Rio Douro』(『황금의 강』)는 화롄 리우우시(立霧溪) 유역의 금 채굴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아상(阿翔)』은 대만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진 '조산사'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조산사 아상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다. 『오랑우탄 히데오(猩猩輝夫)』는 대만 원주민 대적일본병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그는 금종상, 금정상, 구가 연간소설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시보문학상, 타이페이문학상, 임영산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장편소설 작품은 종자정문학상, 대만역사소설상, 성운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민족 중심의 서사 구조를 넘어서 여성 간의 윤리적 유대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화해의 상징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안부’ 문제가 내포한 구조적 폭력과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해결을 감정화, 개인화로 환원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춘자의 남경』과 『벚꽃』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이 ‘위안부’ 역사를 어떻게 서사화하고 대응하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문학적 재현의 윤리적 한계와 서사 전략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 2. 동아시아 ‘위안부’ 여성의 탈민족주의적 재현

『춘자의 남경』은 작가 김혁이 2015년부터 1년간 『연변문학』에 연재한 소설로, 2018년에는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이 출간되었고, 2019년에는 중국어판, 2022년에는 영어판이 각각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1920년 ‘경신참변’<sup>5)</sup>부터 1937년 ‘남경대학살’에 이르는 동안, 주인공 춘자가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가 겪는 비참한 삶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사 구조상, 손자 종혁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매개적 인물로 설정된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청년으로, 일본인 여성 하루코(漢字로는 ‘春子’, 춘자와 동명)를 사랑하게 된다. 봄방학 동안 하루코와 함께 연길로 귀향하여 가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할머니가 과거에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반면 후반부에서 하루코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과거 중국 침략에 가담한 일본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가족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복잡한 역사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1920년 10월부터 1921년 5월까지 일본군이 간도 지역에서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조선인 마을과 독립군 거점을 파괴하고,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킨다. (조원기, 2012)

작품의 결말에는 두 인물이 이러한 무거운 역사를 극복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암시한다.

『벚꽃』은 2018년 대만 국가문화예술기금회<sup>6)</sup> 장편소설 창작 발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창작 보조금을 받았으며, 2022년에 정식 출판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를 주인공으로 하여, 취업사기를 당한 후 대만에 설치된 위안소 '학송옥(鶴松屋)'으로 강제 이송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위안소에서 노영주는 반정부 가문 출신의 일본인 비행사 사사키를 만나 점차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두 사람은 같이 탈출을 도모하지만 오해로 인해 계획은 끝내 무산된다. 이후 사사키는 전쟁에서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동료들을 보호하다 실종되며 생사는 확인되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도 서사를 연결하는 매개적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위안소에서 잡무를 하는 대만인 하야시(小林)이다. 그는 전시에는 노영주와 사사키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전후에는 TV를 통해 노영주가 '위안부'로서 증언하는 보도를 접한 뒤 먼저 연락을 취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대만에서 재회하게 된다. 이후 그는 사사키의 유품을 노영주에게 전달하고,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춘자의 남경』과 『벚꽃』의 주인공은 모두 조선인 '위안부'이지만, 두 작품은 다양한 국가와 민족 출신 '위안부'의 경험 또한 폭넓게 조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본인 '위안부'의 재현과 관련해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피해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공적 서사 안에서도 이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주변화 되어왔으며, 대부분 모호하거나 평면적인 방식으로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우익 세력이 오랫동안 '위안부'를

6) 재단법인 국가문화예술기금회(國藝會)는 1996년 1월에 설립된 예술, 문화 분야의 재단법인으로, 중화민국 정부의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국예회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 활동에 유리한 전시,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장려하며, 예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예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cafroc.org.tw/about.html>를 참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일본 근대의 공창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전 차금을 받고 유곽에 들어가는 사창제를 금지하고, 그 대신 국가가 관리하는 매춘 제도로 전환하여 ‘자유의지’, ‘자유로운 창업과 폐업’, ‘15세 미만 소녀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공창제를 확립하였다(오성숙, 2018: 232-233).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점차 변질되어, 매춘 여성의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억압적 제도로 전락하였다. 또한, 일본의 법률상 여성의 해외 도항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과 중국 등지에는 예외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이나 중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 매춘 여성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들은 흔히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이라 불렸다.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공창제는 조선, 대만, 만주 등 식민지로도 이식되어 확산되었다.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은 ‘위안부’를 기존 공창제 하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유 의지’를 지닌 종업자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식민 맥락, 그리고 국가 폭력은 은폐되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은 이미 ‘위안부’ 문제를 민족문제로 전환시켜, 이를 민족 정체성 구축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위안부’ 역사를 민족주의와 결합시켜 그녀들을 민족의 희생자로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방식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그녀들이 본국 사회 내에서 겪은 내부적 폭력을 희석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 민족주의’ 서사는 ‘위안부’라는 역사적 타자를 민족사의 중심으로 재포섭하고 이에 가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한다. 일본인 ‘위안부’가 오랜 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들이 민족 공동체 내부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인식과 지지의 부재 속에서, 이들의 발화와 기억은 필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국가로서, 일본 사회에서 성과 성

폭력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동정보다는 의심과 비난의 시선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토 시오리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는 2017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자신이 겪은 강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거센 공격과 비난을 받았고, 언론의 적대감은 막대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치심과 침묵으로 지배적인 담론을 구성하는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일본인 '위안부'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뿌리 깊은 성별 편견과 사회적 차별 메커니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일본인 '위안부'가 지닌 이중적 정체성이다.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여성은 '군국의 어머니', '군국의 아내'로서 전쟁 동원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일정한 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그녀들이 식민과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웠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胡澎, 2005). 일본 군부와 경찰, 애국부인회 등의 조직적 동원에 따라 수많은 일본인 기생, 예기, 여급, 그리고 일부 일반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취업 사기 등의 방식으로 위안소에 유입되었다(千田夏光, 1996). 또한, 종군 간호사와 같은 경우에도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성폭력사태가 많이 발견된다. 더불어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점령군을 위한 '특수위안시설협회(RAA)'를 설치하고 일본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上野千鶴子, 1999: 8).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신분은 일본인 '위안부'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그녀들은 '피해자'로서의 공감과 유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명확한 책임 범주에서도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역사 서술에서 이중적 소외를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춘자의 남경』에 등장하는 일본인 ‘위안부’ 시오노와, 『벚꽃』에 등장하는 사나에, 고자와 등의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입체적 재현은 중요한 텍스트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 1) 벌거벗은 생명으로써의 ‘위안부’ 여성

우선 『춘자의 남경』에서 시오노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재현된다. 한편으로 그녀는 취업 사기의 방식으로 춘자를 위안소로 유인한 가해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 총동원 체제 하에서 ‘여자애국봉사대’에 동원되어 만주로 파견되었다가 결국 ‘위안부’가 된 피해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시오노는 군국주의의 공모자이자 동시에 그 피해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 소설에서 이러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의 정체성 전환은 그녀의 외모 변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소설에서 춘자가 시오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외모 묘사를 살펴보자. 춘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이모의 집을 찾아가지만, 문 앞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중 시오노와 처음으로 마주한다. 외태머리를 한 춘자는 파마머리를 한 시오노를 보며, 자신이 촌스럽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그녀에게 부러움과 동경을 품게 된다. 시골에서 자란 춘자의 눈에 시오노의 외모와 복장은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부각된다.

그날도 이모의 려인숙 앞 길목에서 춘자는 발끝으로 땅을 호비작거리고 섰다. 오늘날만은 얼굴에 두툼한 철판을 깔고 이모에게 한번 졸라볼 생각이었다..... 그렇게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춘자를 누군가 불렀다. “아이고 이빠라.” 한껏 멧을 부린 녀인 하나가 뽀죽 구도 소리를 자지리지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다가왔다. 다가오며 멀리서부터 말을 걸었다. 솟아오른 광대뼈에 하관이 뻗, 얼굴은 회가루라도 뒤집어쓴 것처럼 분화장을 한 40대의 녀인이었다. 눈실난실 걸어오는 녀인은 투피스 차림에 손에 핸드백을 들고 서있다. 무엇보다 강굴강굴 웨이브진 파마머리가 춘자의 시선을 잡아갔다. 춘자는 자신의 외태머리를 부끄럽게 매

만졌다. 녀인이 징 박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한발 더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춘자는 현실감을 다잡기 위해 멧쟁이 녀인을 정면으로 햇빛을 쳐다보듯 눈부시게 바라보았다. 녀인이 핸드백에서 종이 쪽박을 끄집어내어 춘자 앞에 내밀었다..... 최면이라도 된 듯 토박토박 읽었다. 끝없이 말의 보파리를 터치면서도 그녀의 눈길은 한시도 춘자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일신을 훑는 녀인의 그 적나라한 눈길에 외려 춘자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녀인이 말하면서 춘자의 기색을 살폈다. 움썩한 눈확 속의 동공이 춘자를 움켜쥐기라도 할 듯 팽팽하다. (金華, 2018: 139-141)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춘자의 이모가 운영하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처음 만난다. 이 여인숙은 “회막동(도문)에서 조선의 온성으로 가는 길목”(金華, 2018: 139-141)에 위치해 있는데, 도문은 간도와 조선을 연결하는 국경 도시로서, 일본의 만주 이민 정책 하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던 접경지대였다. 특히 1932년 만주국이 신경과 도문을 연결하는 경도선 철도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문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북조선 3항(청진, 웅기, 나진)의 배후 도시, ‘중계 국경역’으로 발전하였다”(최낙민, 2017: 195). 다시 말해, 두 사람이 마주한 도문의 거리는, 철도 건설과 인구 이동에 의해 형성된 근대적 도시 공간이었던 것이다.

근대 도시 공간 상상 속에서, ‘거리’는 전형적인 공공 공간으로서 종종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모더니즘의 태동에 대한 열정적인 묘사에서 주로 찬양하는 도시의 공적 영역은 바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다. 대로와 카페, 거기에다 술집과 사창가는 전부 남성을 위한 곳이었다.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은 그러한 남성들의 소비의 대상이었다”(Massey, 2016: 420). 즉, 근대 도시의 젠더화된 구조 속에서 남성은 행위의 주체이자 자유로운 배회의 권리를 부여받는 존재인 반면, 여성은 타자로서 규율되고, 응시와 소비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진다.

시오노와 춘자가 처음 마주하는 장면에서, 만주의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주체로서 시오노는 분명한 능동성과 주체성을 드러낸다. 그

녀는 거리 위를 걸어다니면서 춘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먼저 말을 건넨다. 회사 업무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눈길은 한시도 춘자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고”, “움푹한 눈확 속의 동공이 춘자를 움켜쥐기라도 할 듯 팽팽하다.” 이 장면에서 시오노는 근대 도시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부여되었던 응시자의 위치를 차지하며,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반면 춘자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타자로, 객체로 전락한다.

이러한 응시와 피응시의 관계 속에서, 시오노의 세련된 외모와 옷차림은 한편으로는 춘자를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며, 그녀의 가해자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위장과 가상이기도 하다. 시오노의 화려한 복장 아래에는 춘자와 다름없는 벌거벗은 몸이 숨겨져 있다. 시오노가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소로 데려온 후, 처음에는 그녀가 관리자로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위안부’ 인원수가 부족해지자 시오노 역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수십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된 그녀는 병세가 악화되자 군인들로부터 버림받기에 이른다.

1) 수은을 찌고 시오노는 벌거벗은 몸 위에 군용담요 한 장을 걸치고 누워있었다. 담요 밖으로 드러난 시오노의 몸은 잘게 쪼갠 장작개비처럼 말라있었다. 성병이 육신을 파고들어 온몸 군데군데가 종가자국이었고 입술도 풀썩이 배인 듯 파랗게 질려있었다. (金革, 2018: 200)

2) 오늘 시오노는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자신을 깡그리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어찌 보면 역시 란마에 든 그의 운명이 저 상처투성이 몸뚱아리 같이 처연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金革, 2018: 205)

인용문에서 시오노는 침대 위에 던져진 채 형클어진 머리와 지워진 화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과거에는 근대적 외양을 지닌 채 식민 질서 속에서 하위자를 관리하던 매개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제 제도에 의해 버려진 신체일 뿐이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 몸뚱아리’로 환원되며, 더

이상 어떤 권력의 대리인도 아닌, 춘자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폭력에 노출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춘자는 위안소라는 극단적 공간 안에서 시오노 역시 자신과, 그리고 다른 '위안부'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벌거벗은 생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감벤(Giorgio Agamben)은 그의 저작에서 '예외상태'라는 개념을 “법률의 적용은 정지되지만, 법률 자체는 효력을 갖는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Agamben, 2009: 65).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법적 규범의 보호 밖으로 배제되면서도, 동시에 주권 권력의 질서 안에 포섭된 존재가 된다. 위안소는 바로 이러한 '예외상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곳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무질서의 공간도 아니며, 법적 보호를 받는 합법적 공간도 아니다. 그 대신, 법률과 권력의 경계가 흐려진 채, 주권이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특수한 영역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벌거벗은 생명'이란, 예외 상태 속에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살아 있음'만이 허용된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위안소에서는 강제로 '위안부'가 된 춘자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매개자나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오노 역시 주권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지배되고, 이용되며, 폐기될 수 있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한다. 시오노는 단정한 복장과 현대적인 화장을 통해 겉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 위치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녀의 '주체성'은 애초부터 불안정하고, 일종의 위장이나 가상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성병에 감염되어 버려지고, 들것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화장과 복장이 모두 벗겨진다.

『춘자의 남경』에서 작가는 일본인 '위안부' 시오노의 외양이 화려함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군국주의 권력 체계의 '매개자'로서 그녀가 수행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드러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로서 그녀가 겪은 고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선인 '위안부' 춘자와 일본인 '위안부' 시오노 사이에는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여성 유대가 형성된다. 그녀들은 제국 내에서 서로 다

른 위계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위안소라는 ‘예외공간’에 포섭되어 주권 폭력의 통제 하에 놓인 ‘벌거벗은 생명’이 된 것이다.

## 2) 동성애적 여성 유대 구축 및 여성의 성적 몸

『춘자의 남경』과 마찬가지로, 『벚꽃』 역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의 두 측면에서 일본인 ‘위안부’ 사나에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벚꽃』에서 일본인 ‘위안부’ 하세가와와 대만인 ‘위안부’ 후지 사이의 동성애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세가와는 훗카이도 출신으로, 오빠가 입대한 뒤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자 부모는 딸로 하여금 정부의 소집에 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모집’은 사실상 ‘위안부’ 모집이었으며, 하세가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만으로 오게 된다. 대만인 ‘위안부’ 후지는 원래 고산족 출신이었지만 다섯 살 때 일본 경찰에게 입양되었다. 전황이 악화되자 양부모는 도쿄로 귀환하고, 후지만 대만에 남게 되는데,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와 마찬가지로, 후지 역시 취업 사기에 속아 ‘위안부’가 된다. 소설은 하세가와와 후지 사이의 여성 동성애적 관계를 정신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함으로써, ‘위안부’ 제도 하에서 여성들 사이의 복잡하고 심층적인 감정적 유대를 보여준다.

『벚꽃』에서 일본군인 오카모토는 학송옥의 관리자로서, 극히 특수한 처벌 방식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위안부’ 중 한 명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모든 ‘위안부’를 소집하여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이른바 ‘면타(面打)’라는 방식이다. 하세가와와 후지는 매번 이 ‘면타’ 시간에 서로를 짝으로 선택하곤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영주는 이 두 사람이 항상 함께 붙어 다니며 좀처럼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점을 점차 눈치채게 된다. 더 기묘한 일은, 어느 날 저녁 오카모토가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위안부’들에게 모두 벗은 채 면타를 하라

고 명령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볼 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주저 없이 후지 앞에 다가가 뺨을 때리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다가오는 고통에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숨길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모습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영주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張英珉, 2022: 97). (필자 번역, 이하 생략).

‘면타’는 두 가지 뚜렷한 규율 기능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위안부’들에게 수치스런 폭력을 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신이 종속적이고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굴욕 속에서 도망이나 저항의 의지를 점차 상실하게 한다. 둘째, ‘위안부’들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조성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과 유대의식을 해체하고, 상호 고발과 감시를 유도함으로써 통제를 내면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하세가와와 후지에게는 이러한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극심한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은 “다가오는 고통에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숨길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 사이의 감정적 유대는 오명과 고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탱하게 했으며, 위안소라는 억압적 공간 속에서도 내적 주체성을 일정 부분 보존할 수 있게 했다.

하세가와와 후지는 정신적 유대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차원에서도 동성애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하세가와가 후지 후지코와 입을 맞춘 뒤, 손끝으로 서로의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지고 다시 한 번 입을 맞춘다. 두 사람의 얼굴이 맞닿으며 부드럽게 스친다. 똑같이 피부가 닿는 것이지만, 그 촉감은 전혀 달랐다. 군인의 피부는 대부분 거칠고, 햇볕과 비에 노출되어 젊은 병사들조차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며, 입술도 늘 갈라져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여성을 억지로 입맞출 때면, 그 거친 입술이 여성의 입술을 찢을 듯 아프게 만들곤 했고, 여성들은 이를 견디며 감내해야 했다. (張英珉, 2022: 98).

인용문은 하세가와와 후지 사이의 성적 접촉과 군인과의 성적 접촉을 대비시키며,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자율적인 관계라면, 후자는 국가가 주도한 성 지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강제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이다.

일본의 전시 이데올로기 속에서 ‘현모양처’의 규범, 즉 이성애를 전제로 한 성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다.<sup>7)</sup> 이러한 젠더 질서에서 여성의 핵심적 기능은 국가에 복무하는 데에 있었으며, 제국 군인을 출산함으로써 국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성욕을 충족시켜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여성의 신체는 이중적으로 규제된다. 즉, 여성은 ‘군국의 어머니’이자 ‘군국의 아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여성의 신체를 전시 자원의 일부로 인식하고, 출산과 성욕을 통치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신체적 실천을 억압한다.

따라서 하세가와와 후지 사이의 여성 동성애적 신체 실천은 비록 처음에는 현실을 도피하고 생존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전시 일본의 이성애 중심적 젠더 질서를 교란하고 흔들었다. 이들 사이의 육체적 실천은 ‘출산 도구’나 ‘성적 자원’이라는 국가의 논리에 편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나고 이를 거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서 논의한 감정적 실천과 마찬가지로, 하세가와와 후지의 육체적 실천 역시 전시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소설에서 하세가와는 성병에 감염된 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보내지면서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일본으로 귀환한다. 귀국 후 그녀는 처음에는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했지만, 과거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자 곧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 한 공장에서 오래 일할 수 없는

7) 肥留間由紀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性同性愛の(發見)」, 『解放社會學研究』 17, 2003. 25-28쪽. 하혜주, 「소설과 영화에 재현된 전시기 일본 여성의 욕망 연구」, 『아시아 영화연구』 18, 2025, 108-109쪽에서 재인용.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존을 위해 그녀는 결국 미군을 위해 설립된 '특수위안시설협회(RAA)'에 들어가 다시 미군 '위안부'가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거리에서 한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전후에 이르러 이전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하세가와를 가엾게 여겼지만, 과거 '위안부'와의 기억을 얘기하면서 그녀를 기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진짜 더럽지 않아?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전염될 수 있단 말이야.” 전시의 경험이 소문으로 퍼지지만 하면, 남자들은 그녀를 희롱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느 상사는 근무 중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일도 있었다. “어차피 예전에 '위안부'였잖아. 이런 거 익숙하겠지?” 상사는 이렇게 말했고, 하세가와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일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張英珉, 2022: 364-365).

인용한 부분은 하세가와의 '위안부' 경험이 공장 동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녀가 성희롱과 기묘한 시선을 겪게 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묘사는 하세가와의 신분이 '위안부'에서 '노동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이 여전히 '위안부'의 몸으로 간주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은 “몸이 사회적 실천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표면”이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존재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McDowell, 2010: 96)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신체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기능성과 의미를 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보자면, '위안부'였을 때 하세가와의 몸은 '성적 몸'으로 기능했으며, 공장에서 일할 때 그녀의 몸은 '노동의 몸'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료들은 '노동의 몸'으로서의 하세가와가 아니라, 과거 '성적 몸'으로서의 하세가와에 머물러 있다. 맥도웰은 또한 권력 지배와 여성의 몸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피지배 집단은 오직 몸을 통해 정의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몸속에 가두어진 것으로 정의되는 반면, 기본적으로 백인과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 집단은 눈

에 띄지 않는 중립적, 보편적, 비체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몸의 구분은 특정 집단을 열등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잡혀 있으며 부적당한 몸동작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자'로 정의된다(McDowell, 2010: 9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몸은 일반적으로 중성적이고 보편적인, 비체현적인 몸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의 몸, 특히 군사적 젠더 체계에 편입된 여성의 몸은 종종 성의 범주에 고착된다. 하세가와의 몸은 이러한 '성적 몸'의 틀 안에 갇혀 지배받는 존재, 즉 타자로 위치 지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착과 지배는 그녀의 죽음까지 지속된다.

하세가와는 골목 안에 쓰러진 채, 목이 졸려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된다. 새벽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아무도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비가 그친 뒤에 야한 마리 개가 피냄새를 맡고 골목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길을 지나던 아이가 그 소리에 이끌려 다가갔을 때, 하세가와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거리 한구석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가슴이 반쯤 드러난 상태였으며, 가슴 위에는 칼로 찢른 뚜렷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張英珉, 2022: 366).

하세가와는 미군을 상대하러 가는 도중 한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한다. 그녀가 살해당한 장면은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가슴이 반쯤 드러난 상태”로 거리 위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 위에는 칼로 찢른 뚜렷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묘사는 하세가와가 결국 ‘한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적 몸’으로서 죽은 것임을 드러낸다. 이는 곧 전후 일본 사회가 여성의 몸에 지속적으로 가해온 젠더 폭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후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sup>8)</sup> 등지에서는 미군

8) 대만 본토에는 대규모 미군 주둔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대만은 미군의 해외 휴양지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을 방문하는 미군수가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술집과 빠걸(bar girl)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학 작품으로는 黃春明의 『小寡婦』(1975), 王禎和의 『玫瑰玫瑰我愛你』(1984) 등이 있다.

을 위한 공영 위안시설이 설치되었고, 그에 따라 '양공주', '팡팡걸', '빠걸'과 같은 존재들이 생겨났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여성들의 몸은 제국주의, 국가주의, 남성중심주의의 다층적 억압 속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초국가적, 초지역적인 피억압 경험은 전후 동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사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 3. 사랑으로 미봉된 낭만적 화해의 불가능성

『춘자의 남경』과 『벚꽃』이라는 두 작품의 제목에는 모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춘자의 남경』에서 '춘자'는 조선인 '위안부' '춘자'를 가리키는 동시에, 일본 여성 '하루코'이기도 하다. "춘자의 남경"은 과거 간도에서 남경까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의 역사적 고통을 의미하는 한편, 현재 연결에서 남경으로 향한 일본 여성 하루코의 여정을 상징하며, '위안부' 역사를 마주한 그녀의 자기 성찰과 내면의 변화를 드러낸다. 『벚꽃』에서 '벚꽃'은 위안소에서 노영주의 일본식 이름 '사쿠라코(櫻子)'를 의미할 뿐 아니라, 벚꽃처럼 짧게 피어 사라진 일본 특공대 비행사 사사키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목의 이중성은 두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여준다. 『춘자의 남경』은 '위안부'의 역사 재현과 일본 민중의 반성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벚꽃』은 비판의 초점을 전쟁 그 자체에 맞춘다. 즉, 강제로 위안소에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 여성이나 강제로 징용된 일본인 비행사 남성 모두가 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서사 전략에서 두 작품 모두 '사랑'이라는 서사 장치를 공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넘는 유대의 매개로서든, 반성과 화해의 상징적 경로로서든 '사랑'은 이 두 소설에서 '위안부' 기억 구축과 역사적 책임 요구의 핵심적 서사 도구가 된다.

우선 『춘자의 남경』에서, 연길로 돌아온 종혁과 하루코는 ‘위안부 문제 대책 협의회’(이하 ‘대책회’)가 춘자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것을 통해 그녀가 과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하루코는 종혁 및 대책회 일행과 함께, 춘자가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했던 곳을 방문한다. 남경에서 취재하던 중, 그들은 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연길로 돌아간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하루코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채 춘자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일본어로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한다.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사과’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어긋남을 드러낸다. 작품에서 종혁과 하루코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주요 갈등은 조부모 세대의 역사적 대립에서 비롯된다. 하루코의 할아버지는 과거 남경대학살에 직접 가담했던 일본군이었다고, 종혁의 할머니는 남경대학살을 직접 겪은 ‘위안부’ 생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일본어로 사과를 전하는 사람은 전쟁에 실제로 가담했던 하루코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루코 자신이다. 오히려 소설의 말미에서도 하루코의 할아버지는 전쟁을 미화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코의 사과는 춘자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대상의 부재로 인해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발화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소설 속에서 춘자는 ‘정형화된 ‘위안부’ 서사’만을 말하는 도구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으며, 타인의 사과를 거부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루코의 할아버지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미화하는 장면은 춘자의 죽음과 교차하며, ‘사과’라는 윤리적 행위를 근본적인 전도 상태에 빠뜨린다. 결국 이 사과는 전달될 수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말로 남게 된다.

그리고 『춘자의 남경』에서 하루코는 반복적으로 사과와 죄책감을 표현

했지만, 이는 역사적 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전환되지 못했다. 그녀는 춘자와 다른 '위안부' 생존자들의 역사를 알게 된 후 강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결국 남경대학살기념관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발걸음을 멈췄다. 다시 말해, 하루코의 죄책감은 역사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회피로 귀결된다. 나아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하루코는 종혁에게 이별을 고한다.

사실 중국에 사는 조선족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남경대학살, 위안부와 같은 문제들을 본의 아니게라도 꼭 떠올려 생각해봐야 했어요. 위안부문제에서 일본이 왜 책임을 면할 수 없는지,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전 후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으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찾아봤어요. 종혁씨 몰래 말이에요. 사실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매일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전에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종혁씨를 만나기 이전까지는.....그리고 이번 걸음에 나는 이 질문에서 더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의 일원임을 깨닫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군 위안부의 자손이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 여자와 사랑한다는 게...그게 가능할가요? (金革, 2018: 255-256)

하루코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닌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한 후, 자신이 이 역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면의 죄책감에 의해 종혁에게 이별을 고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개인적 감정으로 대체하는 논리를 드러낸다. 야감벤은 전후 독일 개신교회가 "우리 국민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 자비한 하느님 앞에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힌 공개 선언에 대해 비판하며, "이 책임에 있어 불가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비의 하느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느님이다"(Agamben, 2012: 143)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독일 교회는 반유대주의 범죄를 정당화한 목사들을 처벌해야 했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을 민족 전체의 죄로 확대시켜 구체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물음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와 마

찬가지로, 하루코의 반성 역시 사적 차원의 도덕적 감정에 머무를 뿐, 공적 차원의 실천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로써 사과와 행동 사이의 단절이 드러난다. 사과는 반복적으로 말해지지만, 정의 실천은 여전히 부재한 것이다. 스즈키 유코(鈴木裕子)는 주권자인 일본 시민이 ‘위안부’ 문제에서 해야 할 일은 “일본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회복, 정의회복을 위해 한시라도 빠른 조치와 시책을 펼치도록 하는 것”(鈴木裕子, 2010: 206)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죄책감이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설은 성급하게 종혁과 하루코의 ‘재회’라는 결말을 배치한다. 이는 두 인물의 사랑이 다시 이어졌음을 암시하며, 상징적인 ‘화해’의 서사를 구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화해가 필요한 당사자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화해가 유효한 것인가?

『춘자의 남경』에 비해 『벚꽃』에서는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와 일본인 비행사 사사키 두 주인공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설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을 공통적으로 전쟁의 피해자로 묘사한다. 여기서 작가가 소설 속에서 두 인물에 대한 등식을 구성하려는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 사사키가 처음 위안소에 들어갈 때, 노영주의 방으로 안내받고, 그녀가 몰래 숨겨둔 가위를 발견한다. 그의 추궁 끝에, 노영주는 자신의 출신 배경과 위안소에 끌려오게 된 과정을 털어놓게 된다.

노영주는 떨리는 입술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침내 긴장된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 저는 부산에서 ‘간호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대만으로 보내질 줄은 몰랐어요…… 장교님, 저는 속아서 온 거예요……”

“속아서?” 사사키는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노영주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럼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

“나를 무서워하지 마…… 전쟁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불타지도 않았을 거고, 가족들도 죽지 않았을 거야…… 나도 군인이 된 건 너랑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었어…… 군인이 되어야만 살 수 있었거든.”

눈앞의 남자가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에 노영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역시 슬픈 사연을 지닌 채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것일까? 더 놀라운 것은, 사사키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는 점이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을 지나 다다미 위로 푹푹 떨어졌다. (張英珉, 2022: 111-112).

작가는 여기서 노영주와 사사키를 전쟁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고 수동적으로 동원된 하층민으로 설정하며, 두 인물 사이에 일종의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소설 속에서 사사키의 아버지는 평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학과 교수로, 공개적으로 중일 전쟁에 반대했다가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힌 인물이다. 그는 결국 극단적 군국주의자에 의해 살해당하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며, 사사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이러한 경험은 사사키로 하여금 군국주의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게 만들었다. 그러나 징병령이 다가오자, 사사키는 더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전장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 육군이나 해군에 편입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고 생존 확률도 높은 비행사가 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 이에 그는 대학 입학에 포기하고 비행학교에 지원하여 비행사가 된다.

이처럼 사사키는 비록 반정부 가문에서 자라났고 가족 모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 비행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노영주는 조선 농촌 출신으로, 약 6년 정도의 공학교<sup>9)</sup> 교육(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을 받은 것이 전부였으며, 기본적

9) ‘공학교(公學校)’는 일제시대 대만의 초등 교육 기관으로,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

인 일본어만을 구사할 수 있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교육 제도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황민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교육 내용은 ‘국어(일본어)’와 농공업 기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곽진오, 2011: 260-262). 이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는 값싼 노동력을 생산하려는 데에 있었다.

다음으로 사사키는 비록 강제로 징병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행학교에 지원하여 비행사가 됨으로써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는 위안소 출입 자격과 비행사로서의 급여도 포함된다. 반면, 노영주는 사기를 당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으며,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위안소에 들어간 후에는 장기간 동안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었다. 또한 군인이 위안소에 출입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위안부’들이 받은 보수는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종이표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비록 작가는 사사키와 노영주를 모두 전쟁에 휘말린 하층민으로 형상화하려 했지만, 두 인물이 처한 환경은 실질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두 사람의 사랑도 소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사회 하층에 속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하층민이라는 위치에 차이는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의 사랑 관계 역시 대등하지 않다. 소설은 사사키가 노영주에게 품는 감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당한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이 4 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도 달라졌다. 소설에서 “노영주는 올해 17 살…… 지금은 1943년(23쪽)”라는 서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1926년생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2차 조선교육령(1919-1938) 시행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조선 초등 교육 기관 명칭은 ‘보통학교(普通學校)’였으며, 학제는 6년이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공학교’라는 명칭은 작가가 일제시기 조선의 교육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이며, 식민지 대만의 교육 기관 명칭인 ‘공학교(公學校)’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키에게 있어서 그는 점점 노영주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어쩌면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노영주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안전하게 털어 놓을 수 있었고, 어쩌면 오직 이처럼 협소한 공간 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충성하고 유능한 제국 군인이라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그저 원래의 자신, 대학을 거의 마칠 나이인 스물두세 살의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다. 입대한 후 줄곧 군인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왔던 사사키는 오직 노영주 앞에서만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말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한편으로 노영주가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위안소란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일 뿐이며, 군인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들이고, 설령 위안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張英珉, 2022: 149).

소설의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키가 노영주에게 감정을 품게 된 이유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충성하고 유능한 제국 군인”이라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안부’가 군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사키에게 노영주는 마음 놓고 감정을 토로하고 내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다른 군인들이 ‘위안부’를 통해 육체적 욕망을 해소했다면, 사사키는 노영주를 통해 정신적 욕망을 해소한 것이다.

동시에 사사키는 군인과 ‘위안부’ 사이에 뚜렷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위안부’의 말은 군인의 눈에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녀들의 임무는 군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기에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적 색채가 짙은 ‘사랑’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구조는 처음부터 불균형적이었다. 이 관계에서 노영주의 감정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전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로 강요된다.

소설에서 사사키는 전세가 악화될 것을 예측했고, 자신의 유품을 미리

하야시에게 맡기며 이를 노영주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전시의 혼란 속에서 하야시는 이 약속을 지키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하야시는 TV에서 노영주가 ‘위안부’ 생존자로서 공개 증언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대만에서 재회하고, 하야시는 마침내 사사키의 유품을 전달한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노영주는 사사키와의 상징적인 ‘영혼 결혼식’을 완성한다. 이처럼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 군인의 사랑은 이 소설의 핵심 서사 중 하나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항상 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오카 마리(岡真理)는 타자 기억에 관한 분석에서 일본군과 ‘위안부’ 사이의 사랑 경험을 다룬 두 텍스트를 비교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의 『기대와 회상』으로, 한 일본군 병사가 자신이 ‘위안부’와 함께 보낸 짧은 한 시간을 ‘사랑’이라 부르며, 이를 따뜻하게 회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두 번째는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집이다. 이 증언집에서 한 생존자는 과거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일본군 병사를 여러 번 언급하며 그와의 기억을 자세히 설명한 뒤, 갑자기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곳은 위안소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었어.”라고 했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기억의 재현 과정에서 일본군과 ‘위안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의 기억 속에서 ‘사랑’은 전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미화하거나 위안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위안부’의 기억 속에서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역설이자, 치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며, 끊임없이 부정해야만 하는 위험한 감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그 순간이 그녀에게 부정하기 힘든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녀는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岡真理, 2024: 107).

따라서 『벚꽃』에서 일본 군인과 ‘위안부’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국적을 초월한 ‘사랑’으로 그려낸다고 해도, 이러한 감정은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즉,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도 과연

사랑이 가능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감정이 발생한 공간 자체가 강제성과 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난 '사랑'은 결국 부정되어야 할 기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4. 나가며

이 글은 김혁의 『춘자의 남경』과 장영민의 『벚꽃』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두 작품이 각각 조선족 문학과 대만 문학에서 '위안부'를 주제로 한 최초의 장편소설로서, '위안부' 역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획기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2장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위안부' 여성의 초민족적 맥락 속에서의 복합적 경험을 드러낸다. 《춘자의 남경》은 조선인 여성의 고통뿐만 아니라 일본인 여성의 처지까지 입체적으로 묘사하며,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 그녀들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다층적 신분을 보여준다. 한편, 《벚꽃》은 여성 간 동성애적 실전을 서사화함으로써, 위안소라는 '예외상태' 공간 속에서 여성들이 극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체성과 상호 연대를 유지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3장은 두 작품에서 다루어진 전후 '위안부' 문제의 화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두 작품 모두 '사랑'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으나, 권력 관계의 불평등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사랑은 오히려 화해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춘자의 남경』에서 일본인 여성 하루코의 사과는 주체와 대상 간의 전도를 보여주며, 개인적 감정을 역사적 책임 위에 위치시킨다. 『벚꽃』에서 작가는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와 일본인 군인 사사키를 전쟁의 피해자로 묘사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강제성을 내포하며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로 인해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인 사이의 소위 '사랑'은 역사적 기억 속에서 부정되어야 하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김혁이 『춘자의 남경』을 창작하기 전인 2012년 중일 간의 다투오/센카쿠를 둘러싼 영토권 분쟁이 고조됨과 함께 중국 내 ‘위안부’ 관련 보도 역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중국 언론은 ‘위안부’ 문제를 다투오 사건과 관련하여, “그 이면에는 일관된 일본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야심이 관통하고 있다”(宋少鵬, 2016: 144)고 보도하였다. 2014년에는 중국 정부가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9월3일)’과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기추모일(12월13일)’을 설립하고, 같은 해 3월에는 ‘남경대학살’과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위안부’ 관련 보도가 정점에 달했다(류탕기나, 2021: 70). 2014년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부정, 2015년 교과서 내 ‘위안부’ 서술 수정 및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등 일련의 사건은 한일 간의 감정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다시 말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이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한일, 중일 간의 적대감정이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위안부’는 민족 희생의 구현으로서 이 시기 언론 보도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대만에서는 2018년 일본 극우 인사가 타이난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을 발로 걷어찬 사건이 일어났다. 『자유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위안부’ 관련 보도 건수는 총 198건으로, 2019년 75건, 2017년 139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수를 기록하였다.<sup>10)</sup> 또한 2018년 중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는 대만과 일본 간 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언론은 이러한 관계 변화를 “관계 둔화”(中國社科院台灣研究所, 2019), “지속적인 냉각”(BBC NEWS 中文網, 2018), “퇴조가 뚜렷하고 진퇴양난”(華夏經緯網, 2019) 등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김혁은 『춘자의 남경』의 말미에 조선족 청년과 일본 여성 간의 사랑을 설정하였으며, 대만 작가 장

10) 『자유시보』 홈페이지 참조.

영민 역시 『벚꽃』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비행사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했다. 이와 같은 재현은 한중일대 간의 복잡한 역사 관계에 대한 두 작가의 아름다운 상상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아물지 않은 역사적 상처와 여전히 변화하는 정치 현실의 맥락 속에서, 적대적 기억을 넘으려는 사랑은 민족 간 화해에 대한 작가들의 기대가 드러난다. 비록 그러한 기대는 다소 이상주의적이고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 참고문헌 |

- 金革. 2018. 『춘자의 남경』.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張英珉. 2022. 『櫻』. 台北: 九歌出版社.
- 곽진오. 2011. “일제와 조선 교육정책: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0: 260-262.
- 김은자. 2019.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에 나타난 도시 주변부의 삶과 도시 발견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73: 63.
- 류탕기나. 2021.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중 미디어 프레임 분석.”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0.
- 박정애. 2022.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
- 오성숙. 2018. “제국주의와 성 - 일본인위안부의 표상 -.” 『일본언어문화』 42: 232-233.
- 조원기. 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 최낙민. 2017. “현경준의 작품을 통해 본 국경 도시 도문.” 『중국학』 61: 195.
- 최병우. 2018. “김혁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72: 412.
- 하혜주. 2025. “소설과 영화에 재현된 전시기 일본 여성의 욕망 연구.” 『아시아 영화연구』 18: 108-109.
- 宋少鵬. 2016. “媒体中的“慰安婦”話語.” 『開放時代』: 144.
- 李淑娟. 2023. “台灣「慰安婦」敘事研究—以「輸送船」、「獵女犯」、「望鄉」、「櫻」為中心.” 『中國學』 83.
- 黃文凱. 2021. “關於她的痛苦—論中國當代文學“慰安婦”題材小說.” 『南方文壇』: 170-171.
- 도린 매시. 2016.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린다 맥도웰.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서울: 한울.
- 스즈키 유코. 2010.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서울: 나남.
- 아감벤. 2009.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 오카마리. 2024. 『기억 서사』. 서울: 교유서가.
- 우에노 치즈코. 1999.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출판사.
- 조르조 아감벤. 2009.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 \_\_\_\_\_. 2012. 『아우슈비츠에 남은 자들』. 서울: 새물결.
- 蘇智良 외. 2020. 『日軍慰安婦問題調査与研究1』.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朱德蘭. 2012. 『台灣慰安婦』.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千田夏光. 1996. 『隨軍慰安婦-慶子』. 北京: 群衆出版社.

胡澎. 2005. 『戰時體制下的日本婦女團體: 1931-1945』.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中國社科院台灣研究所. 2019. “2018年台日關係情況回顧.”

[http://its.taiwan.cssn.cn/cgzs/xz/z/dwgx/201905/t20190507\\_4875169.shtml](http://its.taiwan.cssn.cn/cgzs/xz/z/dwgx/201905/t20190507_4875169.shtml)

[검색일: 2025.6.20.]

BBC NEWS 中文網. 2018. “中日關係暖化：台日關係持續審慎「冷卻」.”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46001215> [검색일: 2025.6.20.]

華夏經緯網. 2019. “王鍵：当前台日關係態勢辨析.”

<https://www.huaxia.com/c/2019/02/26/525110.shtml> [검색일: 2025.6.20.]

Abstract

Post-Nationalist Representations and Strategies of  
Reconciliation in East Asian ‘Comfort Women’ Narratives  
– Focusing on Chun-ja’s Nanjing and Sakura

TAI PEIHAN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East Asia, narratives concerning “comfort women” have long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nationalist and ethnonationalist discourses, producing two notable outcomes. First, within the binary framework of perpetrator (Japan) and victim (occupied territories), Japanese “comfort women,” who occupy a liminal position between perpetration and victimhood, gradually disappeared from public narratives. Second, in emphasizing the victimhood of particular nations or ethnicities, narrativ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comfort women from specific countries, while the similar experiences of women from other regions have been relatively marginalized or overlook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Kim Hyeok’s *Chunja’s Nanjing* (2019), the first full-length novel in Korean-Chinese literature to center on comfort women, and Chang Yingmin’s *Sakura* (2022), the first Taiwanese full-length novel addressing the comfort women issue. The paper examines how these two works depict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highlighting both their innovative approaches and inherent limitations. Both novel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ttempt to move beyond ethnocentric narrative frameworks to construct ethical solidarity among women. However, by employing “love” as a symbol of reconciliation, they also risk diluting the structural violen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nherent in the

comfort women issue, reducing its resolution to an emotional or individualized domai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hun-ja's Nanjing and Sakura, this study explores how East Asian literature narrativizes and responds to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while reflecting on the ethical limits and narrative strategies of literary representation.

**Key word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Chinese literature, Taiwanese literature, Japanese “comfort women,” postwar reconciliation

-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2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4일

#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의 내면화 양상\*

전지원\*\*

## | 목차 |

- |                             |                                    |
|-----------------------------|------------------------------------|
| 1. 머리말                      | 형상화                                |
| 2.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과<br>규방가사의 위치 | 1) 여성노동의 구체적 묘사<br>2) 고통 토로와 놀이 권유 |
| 3.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 4. 맺음말                             |

## | 초록 |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형상화를 분석하고, 이를 여성 생애자료와 교차 검토함으로써 여성노동 담론의 내면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여성의 노동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윤리 담론과 결합하여 강력한 당위성을 획득하였으나, 그 수용 과정은 단순한 규범의 주입이 아니라 현실적 체험과 감정 그리고 실천적 조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에 수록된 규방가사 전편을 대상으로 하여 계녀가류·자탄가류·화전가류를 각각 45편 내외씩 분석하고, 사족 남성인 여성의 생애를 이상화한 哀祭文·碑誌文·傳狀類와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규방가사는 여성노동의 구체적 행위와 절차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노동을 추상적 윤리가 아닌 일상적 실천으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윤리가 생활 속에서 체화되는 내면화의 과정을 드러냈다. 동시에 노동의 고단함과 피로, 놀이와 자유에 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326)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jw1015@pusan.ac.kr

한 욕망이 함께 표출되어 내면화가 단순한 규범 수용이 아니라 갈등과 조율을 내포한 복합적 과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생애자료는 노동을 여성의 희생과 미덕으로 이상화하며 여성노동을 도덕적 의무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규방가사를 유교적 질서와 여성의 현실적 삶이 교섭하며 새로운 생활 윤리를 형성한 실천적 담론의 장으로 조명하였다. 여성노동 담론의 윤리적 당위, 신체적 고통, 그리고 욕망의 긴장이 교차하는 내면화의 양상을 해명함으로써 규방가사 연구와 여성노동사 연구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규방가사, 여성노동, 내면화, 여성생애자료, 유교적 질서, 생활 윤리

## 1. 머리말

본고는 전근대 사회의 여성노동 담론이 형성·확산되는 과정의 일면을 규명하기 위하여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여성노동 담론이 여성의 일상에 침투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규범화되었으며, 노동은 그 핵심을 이루는 일상이었다. 여성은 다양한 생산노동을 통해 가부장제와 사족 계층, 나아가 조선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떠받치는 주체였으나, 그들의 노동은 언제나 윤리적 의무이자 당연한 책임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여성노동 담론은 외부의 규범적 강요에 그치지 않고, 여성 스스로의 내면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자율적 수용과 실천의 윤리로 작동하였다.

그동안 규방가사 연구는 주로 여성 주체의 윤리 실천과 유교적 질서의 내면화 과정을 문학적·정서적 차원에서 조명해 왔다(성무경, 2003; 최규수, 2008; 이민규, 2017; 정기선, 2022). 이들은 계녀가류 가사를 중심으로 규범의 전파와 여성의 수용 과정을 밝혔지만, 노동의 구체성과 그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의 역동성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였다. 한

편, 여성노동을 사회경제적 구조나 일상적 실천의 문제로 접근한 연구들(김석희, 2005; 박경주, 2012; 하운섭, 2013; 손영화, 2015; 이상원, 2018)은 여성노동의 현실적 의미를 심화하였으나, 개별 작품 중심의 분석을 위주로 함으로써 규방가사 전반의 서사 구조와 정서적 내면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여성노동의 윤리적 당위와 현실적 고통, 규범과 감정의 긴장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내면화되었는지를 동시에 포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방가사와 더불어 사족 남성이 여성의 사후에 작성한 哀祭文·碑誌文·傳狀類(이하 ‘여성생애자료’)를 교차 검토한다. 여성생애자료는 사족 남성이 서술 주체로서 여성상을 이상화한 기록으로, 남성 중심 사회가 기획한 여성노동 담론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면 규방가사는 남성과 여성 작자가 공존하되 여성의 일상과 생활 경험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동일한 담론을 현실적 실천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장르의 비교를 통해 ‘남성에 의해 기획된 여성노동 담론’과 ‘여성에 의해 내면화되고 재구성된 노동 담론’이 어떤 접점과 괴리를 형성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내면화’는 이 두 자료군의 성격에 따라 다층적으로 이해된다. 여성생애자료에 나타나는 내면화는 남성 지식인이 기획한 여성노동 담론이 여성의 삶의 규범으로 전이되어, 그 가치와 윤리가 그대로 흡수된 결과를 뜻한다. 반면 규방가사에서 드러나는 내면화는 이러한 담론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위와 현실의 간극 속에서 이루어진 실천적 조율과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성 화자들은 노동을 윤리적 의무로 자각하면서도 그 수행의 고통과 감정적 갈등을 언어화하고,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규범을 능동적으로 변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전 21권, 아세아문화사, 2005)에 수록된 전 작품을 1차 자료로 삼아, 여성노동을 중

심으로 한 誠女歌類·自歎歌類·花煎歌類를 각각 45편 내외씩 분석하였다. 규방가사는 내용적 측면에서 연구자에 따라 분류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계녀가류·자탄가류·화전가류로 구분된다. 특히 계녀가류는 여성을 윤리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한 교훈적 텍스트로서 “事舅姑→事君子→睦親戚→奉祭祀→接賓客→胎教→育兒→御奴婢→治產→出入→恒心”의 구조를 가지며, ‘태교’와 ‘항심’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여성노동을 전제한다. 자탄가류와 화전가류 또한 노동이 지배하는 여성의 일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규방가사를 ‘여성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창작 시기와 작자층이 상이하나, 그 이질성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서사적 구조와 정서적 관습은 전근대 여성노동 담론의 보편적 형성과 확산을 드러내는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는 규방가사를 단순한 윤리 전파의 매체로 한정하지 않고, 유교적 질서와 여성의 현실적 삶이 교섭하며 새로운 실천 윤리를 구성해 나간 능동적 장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 2.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과 규방가사의 위치

조선 후기는 사족 여성의 일상이 ‘노동’을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사족 여성의 일상은 근본적인 전환을 겪는다. 그 이전에는 사족 여성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노비를 감독하는 治產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다양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하였던 반면, 그 이후에는 노동이 여성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윤리적인 책무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반영뿐만이 아니라, 유교적 이념에 기반하여 이상적인 여성상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소학』을 비롯한 몇 종의 여성교육서가 여성노동의 당위성을 강

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한다. 재생산노동으로써의 가사노동이 윤리의 외피를 덮어쓰면서 여성노동에 당위성이 부여되고 상층 여성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며 경제 환경에 따라 노동의 층위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었다. 그것은 여성생애자료를 통해 반복된다. 여성노동을 유형화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많은 여성 개인의 삶이 기록되어지고 여성들에게 향유됨으로써 여성노동 담론이 내면화·확산될 수 있었다.(전지원, 2022: 17-116)

규방가사 또한 이러한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이 반영된 문학 장르로, 당대 여성들이 가정에서 향유하고 재생산한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었다. 여기에서는 규방가사에서 여성노동 담론이 구체적으로 작동된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규방가사의 장르가 가지는 의미·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 『열녀전』과 「내칙편」, 「가언편」과 「선행편」의 들은대로 본대로 대강만 기록하네<sup>1)</sup>
- 『열녀전』을 훑어보고 「효행록」을 배우고서<sup>2)</sup>
- 「내칙편」, 『열녀전』을 낭랑하게 외워내니<sup>3)</sup>
- 옥엽처럼 길러낼제 「효경편」과 「내칙편」을 글자 하나하나 가르치니<sup>4)</sup>

규방가사에서는 『열녀전』, 『예기』 「내칙」, 『소학』 「가언」·「선행」, 『효경』 등 유가 경전을 학습하고 낭송하며 기록한 흔적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독서 행위는 유교적 여성 윤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율적

1) 「규문전회록」, 『한국가사문학학주해연구』 권2, 아세아문화사, 2005, 552면. “열녀전과 내칙편, 가언편과 선행편의 들은대로 본대로 대강만 기록하네”(이 글에서 인용문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번역하였다. 또한 인용문의 출처가 모두 같으므로, 이후에는 「작품제목」, 위의 책, 권수, 쪽수, “원문”의 방식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2) 「규범가」, 위의 책 2, 566쪽. “열녀전을 훑어보고 효행록을 배우고서”

3) 「해조사」, 위의 책 19, 510쪽. “내칙편, 열녀전을 낭랑이 외워내니”

4) 「춘흥화전가」, 위의 책 17, 438쪽. “옥엽같이 길러낼제 효경편과 내칙편을 자자이 가르치매”

으로 내면화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규방가사의 향유층이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여성상을 스스로 구성하고 확산시켜 나갔음을 시사한다.

- (1)-① 어화세상 사람들아, 이글 저글 살펴보고  
선악을 자세히 보아 개과천선하여라<sup>5)</sup>
- (1)-② 아이야, 들어보거라<sup>6)</sup>
- (2) • 이 세상에 태어난 남녀들이여 이 가사를 읽어보거라  
특별히 여자에게 두어말 이르고자 하노라<sup>7)</sup>
- 악착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 글 보아 알 것이라<sup>8)</sup>
  - 이 가사 익숙하게 보거라 後生의 여자들아<sup>9)</sup>
  - 우리집안 부녀들아 이 내말씀 들어보소<sup>10)</sup>
  - 며느리야 며느리야 이 내말씀 들어보소<sup>11)</sup>
  - 규중심처 봉우님들이여 이 내말씀 들어보소<sup>12)</sup>

작품 속 화자는 (1)-①, ②에서처럼 독자를 아주 넓게 상정하기도 하지 만 대체로 (2)에서처럼 ‘여성 전체’, ‘작자보다 어린 여성’, ‘가문의 여성’, ‘며느리’, ‘여성 지인’ 등을 독자로 상정하며, 규방가사의 독자층이 명확히 여성 중심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규방가사에는 낭송과 필사, 교정과 재창조에 대한 언급도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이 이 장르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부화부순장」, 위의 책 8, 394쪽. “어화세상 사람덜아 이글저글 살펴녀어/선악을 주세보와 기과천선 하여서라”

6) 「계녀가」, 위의 책 1, 235쪽. “아해야 드러바라”

7) 「경계사라」, 위의 책 1, 253쪽. “이세상에 나온남녀 이가사를 읽어보라/특별히 여자에게 두어말 이르고저 하노라”

8) 「직녀가」, 위의 책 16, 185쪽. “악착할사 여자들이 이글보아 알것이라”

9) 「창회가」, 위의 책 17, 365쪽. “이가스 익게보아 후싱의 녀즈드라”

10) 「팔부가」, 위의 책 18, 373쪽. “우리집안 분어들아 이니말씀 드러보소”

11) 「춘즈부가」, 위의 책 17, 225쪽. “며느리야 며느리야 이니말씀 들어보소”

12) 「춘흥화전가」, 위의 책 17, 437쪽. “규중심처 봉우님네 이 내 말삼 들어 보소”

- (1) 때때로 명절에 늘 적에 동무 모아 책보기  
뒤쪽으로 가지 말고 소리 좋게 읽어보소  
 동산의 모임에서 길게 말아 긴 담뱃대 잡수는 것은  
 노부녀가 할 일이요 종종걸음 굿 보기는  
 홀애비의 형색이라 (중략)  
 두어 명의 동자들이 나의 말 좋게 들어  
거듭 열독 하거라 착한 일은 본을 받고  
못한 일은 회개하여 명심해야 할 일을 조심하라<sup>13)</sup>
- (2) 헤어진 뒤에 다시 언제 얼굴을 보게 될까 규방의 바른 가르침 서로 읽어  
주고 받으며 읊으니 師友의 麗澤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나마 다시 함께 모여 논의하니 이를 기록으로 남겨 전해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나겠는가.<sup>14)</sup>
- (3) 장황하고 번잡하여 이것으로 그치니  
이 가사를 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 싫어하지 마시고  
妄談이나 失言이 있으면 부디 고쳐주십시오<sup>15)</sup>

(1)에서는 함께 모여 규방가사를 낭송하며 향유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반복적인 독서를 통해 그 내용을 깊이 내면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2), (3)에서는 규방가사가 집단 창작물로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자신들의 가사를 서로 주고받고 논의하며 완성도를 높여갔고 자신의 초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 필사자가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13) 「규중행실가」, 위의 책 2, 582쪽. “시시명절 놀을 적에 동무 모아 책보기/남의 뒷전 가지 말고 소리 좋게 읽어보소/동산 회중 길게 말고 긴담뱃대 잡숫기는/노부녀의 할 일이요 동동걸음 굿 보기는/호부래비 형색이라 (중략)/두어자 동자들이 내 말삼 조히 들어/재삼속독하였어라 착한일을 본을 보고/못한일을 회개하여 명념일을 조심하라”

14) 「규방정훈」, 위의 책 2, 563쪽. “별후면목 어디런고 규방정훈 서로볼어/주고바다 풍영흐니 수우이틱 이계로다/그나마 다시상양 전기로 바라노라/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나겠는가”

15) 「계여가」, 위의 책 1, 529쪽. “장황하고 다사하여 이만하고 굿치노니/이가사 보시나니 남익문적 혐의말고/망담실언 잇기되면 교정하여 주옵소서”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삶이 노동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규방가사는 유교적 여성관을 내면화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문학적 기제로 기능했다. 규방가사의 향유층은 유교 경전을 학습하며 유교적 가부장제가 생산한 여성(노동) 담론을 내면화하고 실천했다. 동시에 규방가사라는 장르를 통해 ‘여성’을 명확한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낭송과 필사, 논의를 거쳐 작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며 집단 지성을 형성했다.

이처럼 규방가사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생산한 여성(노동) 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동적 매개체가 아니라, 이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윤리 실천의 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여성노동 담론은 사족 남성들이 형성한 규범적 서사와 이를 실천적으로 수용한 여성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산된 복합적인 문화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담론이 규방가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 3.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형상화

#### 1) 여성노동의 구체적 묘사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혼인 전과 후로 구분될 수 있다. 혼인 전의 시기는 향후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로, 여성은 이 시기 동안 婦道와 女工, 즉 순종적 태도, 욕망과 쾌락의 절제, 검약한 소비 습관, 그리고 다양한 여성노동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보조자로서 수행되지만, 어머니가 병석에 있거나 부재할 경우 딸은 그 공백을 온전히 메워야만 했다.

혼인 이후에는 시가의 생계(경우에 따라 친정의 생계도 포함), 자녀 교육, 가족의 건강 등은 물론 혼·상·장·제례 등의 의례 수행과 손님 접대 역시 여성의 주요 역할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가산을 유지하고 증

식하기 위한 생산과 재정 관리의 책임, 그리고 여성노동을 보조하는 노비의 노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노동은 사족 여성의 전 생애를 관통하며 지속되는 일상적 실천이었다.(전지원, 2022: 43-98)

규방가사에서는 여성노동의 실제 수행 방식과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혼인 전 여성노동의 교육과 실습 단계, 그리고 奉祭事·接賓客의 실무, 가사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노동이 두드러지게 형상화된다. 이러한 구체적 재현은 여성의 일상에서 윤리적 질서가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손녀를 대상으로 작성된 가사에서는 하루 일과의 전개를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동방이 밝아오거든 눈을 씻고 일어나거라

옷을 입고 자리를 정리하고 방을 쓸고 깨끗하게 하거라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치마끈을 바짝 졸라매라

각 방에 문안을 드릴 때는 소리를 나지막이 하거라

어른의 가르침대로 진심을 다해 몸에 익히거라

(중략)

아침 밥상이 들어오거든 손을 잡고 일어나라

어른께서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먼저 먹지 못하는 법이니라

음식이 적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맛있는 반찬을 생각하지 마라

아이가 음식을 탐내는 모습은 남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여자의 식탐이 심한 것은 어느 곳에서도 쓸데가 없느니라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마루를 닦는 일은 네가 하려무나

밖에 나갈 생각은 하지 말고 대문 안에서 종일 일해라

자애로운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으면 심부름이 어찌 적겠느냐

바늘도 꿰어드리고, 실타래도 찾아드려라

어머니 방에서 아이를 보고 곡식 창고에서는 닭을 쫓아라

자잘한 심부름을 하는 틈에도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인 바느질을 어찌 배우지 않겠느냐

숨을 고르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것이 길쌈의 시작이고

주머니를 짓고 버선 깬는 것이 바느질의 시작이니라<sup>6)</sup>

기상 시간, 신체 및 방 정돈, 아침 식사 시의 예절, 식사 후 마루 청소, 어머니의 의생활노동 보조, 가축 관리, 그리고 양잠·침선 등 여성노동의 전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례들은 다양한 작품에서 반복되며, 작품마다 연령이 상이하기는 하지만<sup>16)</sup> 여성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가내 활동으로 생활 반경을 제한하고 반찬 만들기, 제기 관리, 제사 준비, 술 빚기, 의복 제작 등의 노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눈을 씻고 일어나라.,” “방을 쓸고 깨끗하게 하라.,” “어른께서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라.,” “식사를 마친 후 마루를 닦아라.,” “어머니 방에서 아이를 보고 곡식창고에서는 닭을 쫓아라.,” “숨을 고르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라.” 등 이러한 구체적인 서술은 노동을 추상적인 덕목이 아니라 시간적 질서에 따라 반복되는 신체 행위로 전환시킨다. 동시에 여성의 일상적 행동이 유교적 질서와 결합하여 규율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윤리를 실천하게 되는 내면화 과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규방가사는 추상적 윤리의 교화를 강조하기보다 노동의 구체적 실천을 시간적·신체적 행위로 재현함으로써, 윤리가 일상 속에서 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생애자료에서는 여성노동이 대체로 결과 중심으로 형상화된

16) 「녀손훈사」, 위의 책 4, 518면. “동방이 발가거든 눈씻고 이러느셔/옷닙고 자리것고 방쓸고 소세하라/웃것슬 바루염우이고 치마끈을 줄라미라/각방의 문안호오되 소리를 나직이하라/어른의 교훈되로 진심하여 익히거라(중략)아춤상이 드러오니 손길잡고 이러서라/어른이 하저히기전의 문져먹지 못호느니라/자근음식 투정말고 맛는반찬 싱각마라/아희덜 양큰거슨 남의게 붓그러음이오/녀즈의 입놓흔거슨 어니곳에 쓰잔말고/진지상 물닌후의 마루걸네 네호여라/나갈싱각 두지말고 디문 안희셔 종일하라/자모슬호의 피셔안져 신부름인덜 저글소나/바늘도 췌여주고 실픽도 츠져주라/부인방의 아희보고 곡석그릇세 닭쏘차라/잔신부름 하는틈의 녀공인덜 아니빅우라/면화고루고 고치말기 길삼의 시작이오/쭈치짓고 보션김기 침선의 시작이라”

17) 5-6세에 女工을 배운다는 경우도 있고(「복선화음록」, 위의 책 8, 259쪽; 「홍규권장가」, 위의 책 20, 123쪽 등), 14세에 침선 등을 배운다는(「효부가」, 위의 책 20, 441쪽)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 혼인 전 여성의 일상에 대해서는 혼인 후의 삶을 대비하고 주로 어머니의 보조자로서 노동을 수행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서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어머니가 아프거나 부재할 시 그 공백을 온전히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 서술이 다소 자세하다.

몇 해 전부터 떡을 만드는 일을 배웠는데, 하루는 어린 여중이 공에게 만두를 올리면서 “여러 따님들께서 같이 만드셨는데 유독 이 소저께서 만드신 것이 가장 예쁩니다.”라고 하니 문득 그 여중을 꾸짖으며 “네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나?”라고 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장단을 비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8세에 여공을 배웠는데 막힘없이 꿰뚫어 알았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편지를 쓰면 어머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9세에 병이 들었는데 그 때 공께서는 연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마마인가 염려하여 공에게 알리려 하자 극구 말리며 “아버지께 염려를 끼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더니 다음날 병이 나았다. 그 때 어머니가 숙환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대신해서 맡았는데 여유 있게 잘 하였다. 어머니가 오랜 병으로 좋아하고 성내는 것이 간혹 중도를 잃을 때면 반드시 조용히 화해롭게 풀어서 여중들이 벌 받는 것을 많이 면할 수 있었다.<sup>18)</sup>

송시열이 김수항의 딸에 대한 생애를 서술한 「孺人金氏墓誌銘」의 서문 중 일부이다. 이 글은 병든 어머니를 대신하여 노동을 수행하며 살림을 꾸린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구체적 과정보다는 공백을 잘 메웠다는 덕성의 표상으로 요약된다. 이는 여성노동이 현실적 실천이 아니라 윤리적 상징 자원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의례 수행과 접빈객 노동 역시 여성의 일상 노동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18) 송시열, 「孺人金氏墓誌銘」, 『宋子大全』 187. “自數年前, 已能學粉糰搏糝之事, 一日小婢奉進饅頭於公曰: ‘諸少主共爲之, 而獨此小姐所造善好矣.’ 輒呵叱其婢曰: ‘汝何敢爲此言? 蓋嫌其長短於諸嫂也. 八歲, 學習女紅, 灑然通曉, 代母氏酬酢書札, 無不稱意. 九歲, 有疾, 時公奉使燕山. 家人慮其爲痘, 欲因遞報於公, 則亟止之曰: ‘母恐貽嚴親遠慮也.’ 翌日而瘳, 時母氏宿患沈綿, 故代幹家務, 綽然有裕. 母氏喜怒因久疾或失中, 則必從容和解, 故婢使多免罪罰焉.”

차지한다. 특히 조선 후기 사족 가문에서의 상·장·제례는 가문 구성원의 정체성과 위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실천이었고, 이에 필요한 상복 제작, 제수 준비, 손님 접대 등은 여성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규방가사에서는 특히 접빈객 노동의 형상화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른께서 오시거든 문밖에 서서 맞이하거라  
 온화하고 순한 모습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공손하고 정중하게 말하기를 요사이 뵈지 못하여  
 오래되어 저희집 어른께서 궁금해하셨는데  
 다시 오시니 황송하고 감사하다고 하거라  
 곁에서 안부를 여쭙어본 후에 자제분들의 안부를 자세히 물어보거라  
 담배를 빼서 앞에 놓고 화로의 불을 잘 살피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음식을 준비할 때는  
 밥을 되게 짓지 말고 국그릇을 뜨겁게 하며  
 어찬, 육찬, 채소 반찬 등을 양념 갖추어 장만해라  
 손님상은 앞에 들고 주인상은 뒤에 들고  
 각각 앞에 놓은 후에 극진하게 권하는 말로  
 모처럼 와 계신데 마침 반찬이 없어  
 변변치 못한 음식을 드리니 죄송하고 무안하오나  
 부족한 죄이오니 미천하다 여기지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시고 손님과 주인이 서로 즐겁게 노시다가  
 며칠 더 머무신 후에 본택으로 가시기를  
 저녁까지 바라오니 부디 평안히 머무시라고 하려무나  
 다 마친 상을 들여놓은 후에 밥상을 다시 내어놓고  
 손님과 주인께 담배를 담아 두 손으로 올린 후에  
 〈효행가〉를 내어놓고 글자 하나하나 배워라  
 어른께서 떠나실 때는 사립문 밖까지 따라나가  
 공손하게 작별을 고하고 수줍게 여쭙어라  
 이후에 제가 저곳에 가서 다시 인사 올리겠다고<sup>19)</sup>

손님을 마중할 때 태도와 안부를 묻는 방법, 담배 준비, 음식 구성과 반찬 종류, 식사 권유, 배웅 절차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묘사는 접빈이 단순한 예절 수행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관리하는 전략적 노동이었음을 드러낸다. 여성생애자료에서도 여성의 접빈객 역할이 강조되지만 형상화되는 방식은 다소 다르다.

손님이 찾아오면 비록 반찬거리가 없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집안에 어른이 있고 또 자녀가 있는데 유독 손님만 없겠습니까?”하면서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집안은 알 만하다고 했다. 이공 때부터 자식들 2대에 이르기까지 원근에서 유학하며 찾아와 머물렀는데,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다. 유인은 먹을 것을 장만해 대접하고 곁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그다지 이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에게 고하니 다들 고맙게 여겼다.<sup>20)</sup>

연안 김씨(1710~1784)의 사례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빈객을 기꺼이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남편과 아들의 학맥으로 인한 빈번한 손님 접대가 김씨에게는 큰 노동 부담이었음에도, 이는 결국 빈객들이

19) 「계여가, 위의 책 1, 526면. “어룬이 오시거던 문밧기 석나서서/화순한 형용으로 허리를 굽히면서/관고하기 말을하되 요사이 못뵈압기/오래되압기로 제집에 어룬게서 궁거워하시던이오/날헝차 다시오니 황공감사 하오이다/겨테문후 사른후의 슬허안부 자기못고/담뵈책서 압히눗코 화로불 단송하고/이러나서 밧기나가 음식공기 흐울적익/밥을되기 짓지말고 국그릇슬 담기하며/어찬눅찬 칠헌등속 약념것 좌 장만하야/손오상은 압히들고 듀인상은 뒤인들고/압압히 드러눅고 극진하기 권한마리/모초롬 와겨시나 적시의 반찬업서/소찬을 드리오니 죄롭고 무안하나/공괴한 저죄오니 미겨한 것 같지말고/진지만니 잡수시고 뒤직분니 노시다가/슈일유련 하신후의 본칙으로 가시기를/직녀시 바리오니 부디평안 유하소서/숙상그럭 들인후의 밥상을 너여노코/쥬직디인 담뵈담아 두손으로 올인후이/효헝가 너여노코 귀귀자자 빅을지라/어룬이 췌나실췌 삼작박기 팔라나가/공근하기 빅별하고 수연이 엿자오디/일후이 저기가서 회사를 흐오리라”

20) 황윤석, 「孺人延安金氏行狀」, 『頤齋遺藁』20. “賓客之至, 雖無饌物, 亦不嘖聲曰: “家有長者, 重有子女, 獨不有賓客乎? 賓客不至, 其家可知. 自李公至諸子兩世, 遠近游學來留者, 亡論冠童, 不止時日, 而供餽梳櫛, 略不持難, 其人歸以告其父母則舉懷感.”

돌아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전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빈객의 방문 여부가 사족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접빈객은 여성에게 중대한 노동 영역으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여성생애자료는 접빈객 노동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 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여성생애자료에서는 접빈객 행위를 미덕으로 추상화한 데 반해, 규방가사는 그것을 체계적 훈련과 반복적 실천의 영역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성노동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가산을 유지·증식하기 위한 재물 관리 노동이 있다. 규방가사에서는 이 노동 역시 세부적인 방식으로 서술되며 가난의 책임이 여성, 특히 며느리에게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분한 마음 깨끗이 없애고 治産에 힘쓸 것이니  
 이 부자, 김 부자가 본래부터 부자였던가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나인들 잘살게 되지 않겠는가  
 오색의 당사실과 가는 실을 울울이 뽑아내어  
 유향색의 긴 베틀에 한 필, 두 필 자아내며  
 아들의 옷감인 割藍紬와 朝服을 만드는 명주실, 사위에겐 용복을 짜고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짜서 치장하고 푸른 삼베로 만든 옷과 소박한 연한  
 색깔의 옷,  
 어린아이의 색동옷과 팔십 노인의 여름옷을 짓네.  
 원앙을 수놓은 베개와 봉황을 새긴 비단에 수를 놓으니  
 낮에는 두 필이요 밤에는 다섯 가지 일을 하네  
 빵을 따서 누에를 치고 밭을 얻어 농사를 지으며  
 때를 맞춰 힘쓰니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는구나  
 고운 의복을 던져두고 몽당치마를 돌려 입고  
 채소밭을 가꿀 때는 가지 밑을 굵게 키우네  
 장에 가서 팔아 오고 개울을 치고 닭을 키워  
 장에 가서 팔아 오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고  
 새벽에는 밥을 일찍 지어 알뜰하게 해 먹고  
 푼푼이 모아내니 그것이 兩이 되어 貫이 되고  
 貫이 되어 百貫이 되더라<sup>21)</sup>

이같은 「복선화음가」류의 작품에는 혼례복과 상복 제작·침구 마련·양잠업을 통한 수익 창출, 농토 확보, 채전과 가축 사육 등 구체적인 생산 노동의 실천이 상세히 묘사된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노동 지침으로 기능하며 대체로 노동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여성생애자료의 서술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규방가사에서 노동은 단순한 근면의 미덕이 아니라 가문의 경제적 재생산을 위한 실천적 지식 체계로 의미화된다. 이는 여성생애자료의 ‘여성노동의 윤리화’와 구별되는 ‘여성노동의 실천화’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은 단순한 윤리의 전파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서술함으로써 윤리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은 여성의 몸을 규율하는 실천이자 가문의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동시에 작동하였다. 그러나 노동의 구체성이 세밀하게 드러날수록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겪는 피로와 부담을 더욱 생생히 체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규방가사 내부에서 노동의 고단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의 억압을 잠시 벗어나려는 욕망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정서는 다음 절에서 살필 여성노동의 ‘고통의 언어’와 ‘놀이의 권유’로 이어지며, 유교적 노동 담론의 내면화가 단순한 수용이 아닌 갈등과 조율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21) 「복선화음곡」, 위의 책 8, 260면. “분한 마음 썩쳐먹고 치순범절 힘술이라/니부즈 김부즈난 계가근본 부즈런가/쥬야□ 힘셔흐면 닐들아니 건딜손가/오식당스 가는 실을 울울이 조아너야/유황기 긴베틀이 필필 짜아너야/할남쥬셔 조복춘□ 명슈스익 융복츠며/늑이홍상 처여치장 청삼복쓴 소연의복/어린아히 식웃시며 팔십노인 하웃시며/원앙침이 슈노키와 봉황단이 문노키을/나지면 두필이요 밤이면 닷섯가지/썩을싸셔 누이치기 전답어더 농스하긔/씩을차차 힘셔하니 가업니 유족하다/고은의복 더져두고 몽당치마 둘러입고/칙전을 갖골격이 가지위를 굴씩기라/장이가셔 파라오며 기을치고 닥을쳐셔/장이가셔 파라오고 전역에 등불켜고/식벽밥을 일죽지여 알알이 흐여먹고/푼푼이 모아너니 양이디여 관니디고/관이디여 ���니된다”

## 2) 고통 토로와 놀이 권유

전근대 시기 여성은 의식주 중심의 생계노동을 중심으로 가족의 생계와 의례 수행,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부양·의례·접빈객노동, 재물과 노비의 관리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노동의 종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여성의 일상은 과중한 노동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삶 전체가 노동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의 당위성은 『소학』과 같은 여성 교육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며, 남성 작자의 여성생애 서술에서도 여성은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그것이 덕성과 미덕의 실현으로 형상화되었다. 규방가사 역시 이러한 윤리적 노동담론을 여성 독자에게 내면화시키는 매체로 기능하였고, 여성에 의해 수용되고 실천되며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 해당 담론은 사회적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나 규방가사 내부에서는 여성노동이 항상 기꺼이 수용되고 무비판적으로 수행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정황 또한 포착된다.

### (1) 草野 閑士의 부인이 되어 가난마저 심하구나

아침저녁으로 끼니를 챙기고 버선을 깎는 일이 괴롭기 그지없네  
 규방에 매여 있어 온종일 기다리기만 하다 겨우 보니  
흑산도 유배 생활이 이보다 더하겠는가<sup>22)</sup>

### (2) 동지섣달 긴긴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3·4월의 긴긴 해에는 해가 지도록 일을 하니  
 일도 일도 이리도 많구나 결혼을 위한 바느질 일도 참으로 많구나  
 한다고 했지만 마음 편히 쉬는 것이 어렵더라  
 밤인 줄도 모르고 버선을 깎고 품삯 받을 옷을 만들 때에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실수가 될까 걱정하네  
 남의 성품도 모르는 내가 이토록 많은 바느질을

22) 「녀주탄」, 위의 책 4, 524면. “초야한스 부녀되어 가난조차 심홀시고/조석반감 보 선깎기 괴롭기 그지없다/규등의 밧이어서 영일만 겨보보이/흑산도 유리안치 이에 서 더홀손가”

겨우겨우 끝나치고 옷장 문을 열어보니  
 할 일이 또 새로 있네 명주와 비단 같은 고운 옷감을  
 누비는 일은 언제 하며 백토와 황토로 염색한 옷감들을  
 다듬이질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봄·가을 옷을 누비질할 때에는  
 열 손가락이 모두 헐고 여름·겨울 옷을 다듬이질할 때는  
 두 팔이 쇠약해지는구나 귀찮고도 괴롭구나<sup>23)</sup>

제시된 두 작품은 여성 노동의 과중함과 그로 인한 피로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에서는 ‘草野 閑士의 부인’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고, 끝없는 가사노동을 “괴롭기 그지없다”고 직접적으로 토로한다. 이는 여성노동이 당위적 덕목으로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수행이 낳은 신체적 고통과 피로의 감각은 완전히 억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규방가사는 이러한 감각적 체험을 서사적 언어로 드러냄으로써 윤리 담론이 현실의 경험과 충돌하는 지점을 가시화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흑산도 유배 생활”과 동일시하면서 노동의 피로와 여성의 고립된 처지를 극단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에서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열 손가락이 모두 헐고”, “두 팔이 쇠약해지는” 등의 구체적인 묘사는 노동의 물리적 고통을 여과 없이 전달한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을 단순히 의무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감정을 훼손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이 여성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감정적 갈등과 불만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규방가사는 유교적 담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현실의 고통을 인식하고 심리적 해

23) 「석별가」, 위의 책 10, 248면. “동지서달 긴긴밤에 밤새도록 잠못자고/삼사월 긴긴 해에 해지도로 일출한이/일도일도 그리만타 신행견일 하도만타/하노라고 하여내도 마음쉬기 어렵드라/밤모르고 보선집고 품모르고 큰옷할재/이리하면 마자질가 저리하면 실수필가/남예성품 내모르고 허다한 바느질을/근근이고 그진하고 농문을 열고본이/할 일도 새로있네 명주비단 고운김을/누비질을 은재하며 백토황토 장찬감을/푸애다듬 누가할고 춘추복을 누비할재/열손가락 다파이고 동하복을 싸듬할재/두팔이 회절인다 귀찮고도 괴러워라”

소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내면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이러한 노동 중심적 삶에 대한 고통의 토로와 함께 유년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혼인 이전의 놀이 시간을 권유하는 서술이 병존한다는 사실이다.

- 열대여섯 즈음 되는 처녀들아, 젊은 시절을 잘 누리거라  
어릴 적에 함께 놀지 못하면 어른이 된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sup>24)</sup>
- 온갖 꽃과 향기로운 풀이 가득한 화원에서 봄 경치를 구경하고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이 비추는 옥 같은 규방에서 달빛도 구경했네  
새롭고 별미인 다과상도 입맛이 없어 다 먹지 못하고  
원앙을 수놓은 비단 이불과 베개가 있는 붉은 규방에서 책자도 구경하며  
명절과 삼복더위 같은 좋은 때에는 쌍륙 놀이도 해보고  
눈처럼 희고 옥처럼 고운 몸종들과 투호도 던져보면서  
즐겁게 지냈더니 열다섯 살 나이가 차서  
고르고 다시 골라 멀고 먼 江湖로 出嫁하는구나<sup>25)</sup>

대체로 15~16세를 전후하여 혼인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결혼 전 시기는 일정 수준의 자유가 허용되는 유일한 시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에서 “젊은 시절을 잘 누리거라”라고 직접적으로 권유하기도 하고, “어릴 적에 놀지 못하면 어른이 된 후 후회하게 된다”는 표현을 통해 결혼 후에는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2)에서는 혼인 전 삶의 풍요와 안락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出嫁’한다는 전환을 통해

24) 「석별가, 위의 책 10, 248면. “이팔삼오 처녀들아 녀이부대 잘노아라/아해씨 못아 놀면 성인된후 녀한이다”

25) 「紅閨勸獎歌, 위의 책 20, 123면. “백화방초 화원상에 춘경도 구경하고/청풍명월 옥규중에 달빛도 구경하고/신신별미 다담상도 입맛없어 못다먹고/원앙금침 홍규중에 책자도 구경하고/세시복랍 좋은때에 쌍륙도 던져보고/설양옥비 대비들과 투호도 던져보고/즐거이 지내더니 15세라 연광차니/고르고 다시골라 강호에 출가하니”

곧 이러한 자유와 유희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혼인 전 시기를 놀이와 유희의 시기, 혼인 후를 노동과 의무의 시기로 명확히 분리하며 결혼 전 시기가 여성의 생애에서 자유가 허용되는 유일한 시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규방가사가 여성의 삶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생애자료에서는 여성노동의 구체적 과정보다 노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가 강조된다. 여성은 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시간·신체를 희생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이러한 자기희생은 윤리적 미덕으로 이상화된다.(전지원, 2022:104-108) 예컨대 윤광소의 모친 양성 이씨는 남편의 과거 공부를 돕기 위해 비녀와 귀고리를 팔아 살림을 꾸렸고<sup>26)</sup>, 이종휘의 아내 해주 최씨는 친족의 상례를 위해 사유재산을 기꺼이 내어주었다<sup>27)</sup>. 이처럼 여성에게 허용된 한정된 사유재산조차 가문과 남편을 위해 환원되는 것이 미덕으로 제시되었다. 나아가 일부 기록에서는 수면과 식사 등 기본적 욕구를 억제하거나, 병든 가족을 위해 斷指·割股·斷髮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26) 윤광소(尹光紹, ? - ?)는 尹仁教의 손자이자 尹東輅(1684 - 1768)와 양성 이씨(1686 - 1752)의 아들로, 후일 할아버지의 형 尹智教의 아들 尹東奎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윤광소가 작성한 묘지문은 모친 이씨의 사망 4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씨가 남편 윤동로의 과거 준비를 위해 한양으로 이주할 때 자신의 패물(비녀와 귀걸이)을 처분하여 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는 조선 후기 여성에게 유일하게 인정된 사유재산인 혼수품을 남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해 희생하는 행위가 윤리적 미덕으로 이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윤광소, 「生妣貞夫人李氏墓誌」, 『素谷先生遺稿』12)

27) 이종휘(李種徽, 1742 - 1823)의 아내 해주 최씨(? - 1776)는 16세에 당시 14세였던 이종휘와 혼인하였다. 이종휘가 작성한 제문에는 남편이 열아홉 살이던 해, 인척의 상례를 돕기 위해 부인이 간직해 둔 사유재산數緡之藏을 주저 없이 내어놓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여성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유재산마저 가문의 의례비용으로 희생하는 행위를 미덕으로 형상화한 사례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사적 소유가 아닌 '가족 공동체의 의무 수행'에 귀속되는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의 단면을 보여준다.(이종휘, 「祭亡室文」, 『修山集』9)

유인이 전염병에 걸려 위태롭다가 회복되었다. 뒤이어 남편도 병이 났고, 병난지 10일 만에 위독해지자 유인은 울면서 “병이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니 내 차마 남편의 병 때문에 남편 곁을 떠나 나 혼자 몸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또 내가 들은 옛날에는 자기 몸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밝고 밝은 하늘이 어찌 바르지 않을까보나?” 라고 하였다. 어두운 밤에 몸을 깨끗이 하고 뒤뜰로 나아가 북극성을 향하여 절하고 빌었다. 자기 자신으로써 남편의 운명을 대신케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병은 더 더욱 심해졌고 유인은 목숨까지 바쳤다. 그때 남편은 아침저녁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도 유인이 죽고 나자마자 홀연히 약을 쓰지 않고도 조금 나아져갔고 마침내 좋은 의원을 얻었다. 모두들 말하기를 “반드시 신이 도와주신 것이다.”라고 했고 듣는 사람마다 기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 예부터 부인들의 순절은 거의 애꿎음을 견디지 못하여 따라 죽었다. 죽음은 진실로 매서운 것이니 또한 남편의 죽음에 보탬이 전혀 없다. 지금 유인은 남편을 위하다가 먼저 죽었고 그 죽음이 능히 하늘의 마음을 움직여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였다. 그 의리의 지극히 괴롭고 어려운 일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다.<sup>28)</sup>

이 같은 완산 최씨의 사례는 자기희생의 극단을 보여준다. 그녀는 전염병에서 회복된 직후 병든 남편을 간병하던 중, 스스로의 생명을 대신 바쳐 남편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작자는 이를 “하늘이 감동하여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서술하며, 남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를 의리의 지극한 완성으로 찬미하였다. 이는 남편의 죽음을 따라 자결하는 열녀 서사를 넘어, 남편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는 희생이 보다 고결한 덕목으로 이상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여성생애자료 속 여성의 자기희생은 노동과 부양의 연속선상에서 극

28) 이영익, 「表姪女李氏婦哀辭」, 『信齋集』2. “孺人遭厲, 危而蕪. 夫子繼病, 病十日革, 孺人泣曰: ‘疾已不可爲, 吾不忍遷己病於君子而身獨全. 且吾聞古有以身代死者, 昭昭之天, 豈無格乎? 昏夜澡潔, 出後庭, 拜祈北辰, 蓋祈以己之死贖夫命. 其翌日疾益甚, 孺人乃致命, 時夫子將不能听夕, 纔孺人死, 忽不藥而少間, 竟獲安醫. 皆謂必有神畀, 聞者莫不異之. …… 自古婦人殉節, 率不堪其毀而從死. 死固烈, 亦無益夫子之死. 今孺人爲夫先死, 死有能動天心, 而挽其生命. 其義之至苦至難, 古未有也.’”

대화된 형태로, 여성의 생명까지도 가족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 편입하는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의 한 극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은 여성노동을 현실적 행위가 아니라 가부장제 윤리를 입증하는 상징적 희생의 서사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즉, 여성생애자료의 세계에서 여성노동은 그 수행의 과정보다도 자기희생을 통해 완결되는 도덕적 이상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규방가사와 여성생애자료는 모두 전근대 여성의 삶을 노동 중심적 질서 속에서 형상화했으나 그 구체적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규방가사는 여성노동의 과중함과 피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단순한 윤리적 미덕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토로하였다. 나아가 혼인 이전의 자유로운 시간을 긍정적으로 회상하거나 놀이와 유희를 권유하는 서술을 병치함으로써, 노동 중심적 삶의 억압성과 갈등을 인식하고 해소하려는 정서를 드러냈다. 반면 여성생애자료는 노동 수행의 고통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성의 사유재산, 시간, 신체적 수고,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하는 행위를 미덕으로 이상화하며, 여성노동을 남성 및 시가를 위한 당위적 의무로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규방가사가 여성노동을 단순히 윤리적 덕목으로만 내면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고통과 놀이의 욕망을 함께 드러낸 기록이었다면, 여성생애자료는 여성의 무한한 희생을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규범화한 자료였다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전근대 사회의 여성노동 담론이 형성·확산되는 과정을 규명하고, 그 내면화의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을 윤리적 의무로 이상화한 여성생애자료와 노동의 현실적 체험과 감정이 언어화된 규방가사를 교차 검토함으로써 남

성 중심의 규범 담론과 여성 주체의 실천적 언어가 교섭하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 결과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은 단순히 유교 윤리를 전파하거나 근면의 미덕을 강조하는 윤리적 교화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 행위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윤리가 생활화되는 과정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사 내부의 구체적인 서술은 노동을 추상적 윤리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재현함으로써 윤리가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규방가사는 노동의 고단함과 신체적 피로, 그리고 놀이와 유희에 대한 욕망을 병치함으로써 윤리적 담론의 내면화가 결코 일방적인 수용의 과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 화자들은 노동을 덕목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수행 과정에서 겪는 피로와 불만을 토로하고 잃어버린 자유를 회상하거나 잠시의 유희를 갈망함으로써 내면화 과정 속에 내재한 감정적 균열과 조율의 실천적 역동성을 언어화하였다. 따라서 규방가사는 윤리의 수용과 감정의 저항이 공존하는 복합적 정서 구조를 드러내는 장르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규방가사와 여성생애자료를 아우르는 여성노동 담론의 복합성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첫째, 규방가사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계녀가류·자탄가류·화전가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 관습과 정서 구조의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이 단순한 윤리의 수용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과 감정의 언어로 재구성된 과정을 규명하였다. 둘째, 여성생애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남성 지식인이 구성한 이상화된 여성노동 담론과 여성 주체가 생활 속에서 이를 조율한 실천 언어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유교적 질서의 내면화와 변용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규방가사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형성한 윤리 담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여성의 일상·정서·신체적 경험을 통해 그 담론을

현실적 실천으로 재구성한 생활 윤리의 장이었다. 여성들은 노동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그 수행의 고통과 욕망을 언어화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의미화하는 주체로 자리하였다. 본 연구는 규방가사를 윤리의 실천과 감정의 언어가 교차하는 복합 담론으로 조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여성노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 송시열. 「孺人金氏墓誌銘」. 『宋子大全』 187.
- 윤광소. 「生妣貞夫人李氏墓誌」. 『素谷先生遺稿』 12.
- 이영익. 「表姪女李氏婦哀辭」. 『信齋集』 2.
- 이종휘. 「祭亡室文」. 『修山集』 9.
- 황윤석. 「孺人延安金氏行狀」. 『頤齋遺藁』 20.
- 임기중. 2005.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20. 서울: 아세아문화사.
- 김석희. 2005. “우산본 복선화음가의 가문서사 양상과 그 여성사적 함의.” 『고전문학  
과 교육』 10: 169-194.
- 박경주. 2012.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 - 여성들의 노동과 놀이  
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151-182.
- 백순철. 2010.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의미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문  
화연구』 36: 173-206.
- 성무경. 2003.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화사연구  
22: 81-110.
- 손영화. 2015.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조선조 여성의 현실대응양상 고찰- 부부관  
계와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36: 173-206.
- 이민규. 2017. “규방가사에 나타난 분노의 성격과 남성 인식.” 『이화어문논집』 45:  
5-30.
- 이상원. 2018. “순천김씨의 〈노부탄〉과 김약련의 〈답부사〉.” 『한국시가문화연구』 42:  
185-212.
- 전지원. 2022. “조선 후기 사족 여성 생애자료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기선. 2022.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수. 2008. “〈석별가〉에 나타난 처녀들의 이중 욕망과 ‘철들다’의 문제.”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16: 319-350.
- 하운섭. 201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 『한민족어문학』 63:  
215-249.

Abstract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Women's Labor  
Discourse in *Gyubang gasa*

Jeon, ji-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women's labor in *Gyubang gasa* (inner-chamber verse) of the late Joseon period and analyz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discourse of women's labor was internalized and disseminated in premodern Korean society. By comparing *Gyubang gasa* with biographical writings about women—such as epitaphs, memorials, and funerary texts written by male scholars—this study explore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male-constructed normative discourse of Confucian patriarchy and the practical language through which women negotiated and reinterpreted that discourse in everyday life.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Gyubang gasa* does not merely function as a medium for moral instruction but represents the process by which ethical norms were embodied through concrete acts of labor. Through the detailed depiction of daily tasks—ranging from domestic chores and household management to ritual and guest reception—these texts reveal how Confucian ethics were assimilated into women's bodily and temporal routines. At the same time, the coexistence of depictions of fatigue, physical strain, and longing for leisure or play illustrates that such internalization was not a passive acceptance but a dynamic negotiation involving emotional tension and practical adjustment. In contrast, male-authored biographical writings idealized women's labor as moral virtue and self-sacrifice, thereby reaffirming the patriarchal order. By analyzing *Gyubang gasa* as a site where ethical ideals and lived

experience intersect, this study highlights the complexity of women's labor discourse in late Joseon Korea. It argues that women appropriated the Confucian ethics of labor as both a moral obligation and a lived practice, articulating their sense of agency within the constraints of patriarchal society. This approach contributes to a mor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Gyubang gasa* and the cultural history of women's labor in premodern Korea.

**Key words:** *Gyubang gasa*, women's labor, internalization, women's biography, Confucian ethics, everyday ethics

- ▮ 투 고 일 : 2025년 8월 31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1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7일

# 청년 레즈비언 ‘부치’ 수행의 해석\*

송우인\*\*

## | 목차 |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 1) 톰보이와 부치  
: 여성의 남성성의 역사적 맥락
  - 2) ‘바지씨’와 ‘부치’  
: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속 여성의 남성성의 계보
  - 3) 젠더 수행성과 여성의 남성성
  - 4) 연구대상 및 방법
3.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의 부치 경험
  - 1) 부치의 수행적 구성  
: ‘애티튜드’와 관계적 실천
  - 2) 부치의 경계 작업
  - 3) 부치의 존재론적 재배치  
: 원본 없는 남성성
4. 나가며

## | 초록 |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떠한 의미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탐구한다. ‘부치’를 단순히 ‘남성적인 레즈비언’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실제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유통되는 언어와 실천은 훨씬 더 다층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본 연구는 서구와 한국에서 레즈비언 공동체 속 여성의 남성성이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1960~70년대 ‘바지씨’라는 호명에서부터 1990년대 이후 서구적 용어 ‘부치’의 도입,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세분화된 명칭의 등장까지를 역사적·

\*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려 깊은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sowooiny@snu.ac.kr

문화적 맥락 속에서 추적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커뮤니티 담론의 재편을 경험한 20~30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명명 체계가 등장하고, '한남 부치' 비평이 형성되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집단적 협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치 수행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 결과, 부치다움은 짧은 머리카락이나 남성복과 같은 외형적 표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외형적 요소를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 관계의 장면 속에서 발휘되는 배려·안심·존중의 태도, 즉 '애티튜드', 그리고 상대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존재로서의 윤리인 '깍'을 통해 '부치처럼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기여를 제시한다.

첫째, 부치다움은 외형적 표상이나 스타일에 의해 고정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감각되고 구성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애티튜드'와 '깍'은 젠더 수행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각임을 드러낸다.

둘째, '한남 부치' 담론은 레즈비언 공동체가 남성성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돌봄의 윤리와 결합된 대안적 남성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셋째, '꾸러기 부치', '긴머부' 등의 명명 실천을 통해 레즈비언 공동체가 정체성과 관계를 조직하고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의는 부치를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외형·수행·느낌·관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며, 한국 레즈비언 문화 속 젠더 규범 전복과 자기명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학계에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레즈비언 공동체에 자기 정당화의 언어를 돌려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부치, 레즈비언 하위문화, 젠더 수행성, 한국 레즈비언, 여성의 남성성

##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온라인 콘텐츠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여성 코미디언 엄지윤이 유튜브 채널 〈엄지렐라〉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보인 이른바 '엄지훈남' 콘텐츠다. 그는 짧은 머리와 단정한 안경, 도시적 세련

미가 묻어나는 의상을 갖추고 시스젠더 남성의 이미지를 패러디한다. 특히 여성을 과잉보호하거나 대신 계산하는 등 이성애 관계에서 기대되는 배려, 그리고 근육을 드러내는 신체적 과시 등 과장된 남성성을 연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면은 희화적 효과를 낳으면서도 동시에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호감과 설렘을 이끌어냈다. 실제 온라인 반응 속에는 “설렌다”, “부치 같다”와 같은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도우리, 2025, 한겨레21), 이는 레즈비언 공동체를 넘어 대중들 또한 여성의 특정한 남성적 태도와 스타일을 ‘부치’와 연결짓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엄지훈의 연기는 남성성이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전유 가능한 수행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엄지훈남’이라는 캐릭터는 남성성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문화적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엄지훈남’ 캐릭터를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부치(butch)’ 개념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여성의 몸을 매개로 남성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래된 질문을 제기한다: “부치란 무엇인가?” 부치라는 존재는 단순히 ‘남성적인 외모를 한 레즈비언’을 가리키는 협소한 정의만으로는 결코 충분히 포착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적 층위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읽힌다.

그렇다면 엄지훈남의 어떤 제스처와 태도가 수용자들로 하여금 ‘부치 같다’고 느끼게 만든 것일까? 나아가 ‘부치’라는 이름은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해석되며, 실천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단지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젠더 규범의 교란, 욕망의 구조, 그리고 감각적 경험의 장면에 걸쳐 있는 질문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부치가 어떻게 재현되고 실천되는지를 탐구하면서, 이를 단일한 정체성 범주로 환원하지 않고 그 수행적·정동적 차원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떠한 의

미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떠한 의미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부치다움은 어떻게 외형적 표상을 넘어 관계적 감각으로 수행되는가?

둘째, '한남 부치' 담론은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윤리적 재구성을 만들어 내는가?

셋째, 새로운 명명들은 부치 정체성의 감각과 수행 방식을 어떻게 재조직하는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부치'를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관계적 윤리와 감각의 실천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를 부치로 정체화하거나 부치로 인식되는 이들의 살아 있는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부치 수행이 외형적 표지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의 장면 속에서 드러나는 배려·안심·존중의 태도, 즉 '에티튜드'와 '깍'의 윤리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탐색한다.

연구 참여자는 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담론적 변화를 경험한 20~30대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명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했던 세대로, 그들의 말하기에는 자신을 어떻게 '부치'로 부르거나 부르지 않을지를 둘러싼 성찰과 망설임의 서사가 스며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부치'를 정체성의 이름이자 동시에 수행적·정동적 장면으로 사유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감각되고, 명명되고, 다시 변주되는지를 다층적으로 탐색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부치가 단순히 남성을 '흉내 내는' 존재가 아니라, 젠더 규범을 교란하고 재구성하는 실천의 장을 열어가는 주체임을 밝히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 1) 톰보이와 부치: 여성의 남성성의 역사적 맥락

서구 사회에서 톰보이(tomboy)와 부치(butch)는 여성의 남성성을 둘러싼 서로 다른 맥락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자리해 왔다. 우선, 톰보이는 16세기 영국에서 이미 “버릇없는 소녀”라는 부정적 뉘앙스로 쓰였으며,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는 소녀”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Abate, 2008).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톰보이는 활달함, 장난스러움, 스포츠 참여 등 소녀기의 일시적 남성성을 설명하는 긍정적 기표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동기·청소년기에 한정된 수행으로만 용인되었으며, 성인 여성에게 지속되는 남성성은 규범적으로 금지되었다. 다시 말해, 톰보이는 잠시 허용된 소녀기의 남성성 수행을 지시했을 뿐, 결국 ‘여성다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부치는 20세기 초 미국 속어에서 butcher boy의 줄임말로 ‘터프한 아이’를 뜻하거나, 짧은 스포츠형 머리인 butch cut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Faderman, 1991).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부치는 노동자 계급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을 지시하는 은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도시의 바(bar) 문화 속에서 부치는 펌(femme)과의 관계적 위치성을 통해 공동체적 정체성을 구성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치 - 펌 관계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네슬(Nestle, 1987)은 1950년대 미국 레즈비언 바 문화에서 부치 - 펌 관계가 욕망, 돌봄, 경제, 안전을 조직하는 관계적 체계였음을 강조한다. 부치는 펌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먼저 계산하고, 바깥세상의 위협을 감당했다. 이는 단순히 남성 역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억압적 사회 질서 속에서 친밀성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실

천이었다. 다시 말해, 부치로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안전과 돌봄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톱보이가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소녀기의 남성성’을 지시했다면, 부치는 ‘성인 여성 하위문화 속에서 관계적으로 수행된 남성성’을 가리켰다. 즉 여성의 남성성은 연령과 계급, 공동체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의미화되었다.

1950년대 미국의 레즈비언 바(bar) 문화에서 부치 - 웹 관계는 공동체의 기본 틀로 기능했다(Cartier, 2005). 다만 페이더먼(Faderman, 1991)은 이러한 바 문화가 레즈비언 하위문화의 전부는 아니며, 인종·계급·세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음을 지적한다. 부치 - 웹 관계는 복합적 성격을 지녔다. 네슬(Nestle, 1987)은 부치의 스타일을 단순한 남성 모방이 아니라 “본능적 끌림에 따른 재현”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자발적 욕망의 표현이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페이더먼(Faderman, 1991)은 당시 레즈비언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시성을 얻고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부치 - 웹이라는 인식 가능한 틀을 따라야 했다고 지적한다. 즉, 부치 - 웹 관계는 개인의 욕망과 친밀성을 조직하는 공동체적 유대인 동시에, 일정한 규범적 압력을 동반한 체제이기도 했다.

## 2) ‘바지씨’와 ‘부치’: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속 여성의 남성성의 계보

한국에서 ‘부치(butch)’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이전, 남성적 레즈비언들은 주로 ‘바지씨’라 불렸다. ‘바지씨’란 말 그대로 바지를 입고 사회적으로 남성 혹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한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전해성(1996)은 1960~70년대 전국적 규모의 모임 <여운회> 기록을 통해 ‘바지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한다. 당시 바지씨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는 등,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닷페이스 영상에서 윤김명우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요즘 애들은 누가 가장이니 이런 거 안 나뉘.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런데 우리(바지씨)는 100% 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 설거지는 치마씨가 해야 하고.” (윤김명우, 닷페이스, 2019.10.30.)

또 다른 증언자 영수(가명) 역시 당시 직업 선택의 제약 속에서 운전이나 주방일이 주요 생계수단이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직장) 구해봤자 직장 갖기도 힘들었어, 그때는. 아주 곤란했어. 그래서 운전 아니면 할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면 어디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하거나.” (영수, 닷페이스, 2019.10.14.)

이러한 증언들은 바지씨가 단순히 ‘바지를 입는다는 외형적 표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제적·실천적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정의되었음을 보여준다.

루인·정희성(2019)은 이처럼 ‘여자의 몸으로 바지를 입는 행위’ 자체가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불온한 행위였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르지 않고 ‘바지씨’라 칭했기에, 오늘날의 트랜스젠더·젠더퀴어 개념과 구별되는 1970년대 특유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치(butch)’와 ‘펍(femme)’이라는 서구의 용어가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이해솔(1999)은 이러한 개념이 서구의 페미니즘 및 레즈비어니즘 이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1990년대 초부터 함께 등장했다고 본다. 한국 레즈비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정치화·이론화하며 새로운 범주와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한채운(2009)은 잡지 《레인보우링》에서 ‘부치’와 ‘펍’이라는 용어의 등장을 직접 다루었다. 그는 1991년 주한 외국인 레즈비언 모임 ‘사포(Sappho)’와 그 후속인 1993년 〈초동회 草同會〉 결성을 계기로 외국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부치·펍이라는 언어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외국인 레즈비언과의 교류를 통해 서구적 정체성 용어가 한국에 유입되었고,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치’와 ‘펍’이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는 것이다. 비록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와 경로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리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부치'와 '팸'이 PC통신과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널리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젠더 수행성과 여성의 남성성

본 연구는 한국 부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적 젠더 구성론, 수행성 이론, 그리고 감각과 감정의 층위를 다루는 이론을 통합한 틀을 마련한다. 먼저 남성성은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젠더에 대한 문화적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성'이 항상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성은 여성성과의 대비 속에서 의미를 얻으며, 관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적으로도 18세기 이전 유럽에서 여성은 남성과 구분되었지만, 그 차이는 미완성 혹은 열등한 특성으로 규정되었다(코넬, 2013).

이러한 전제 위에서 버틀러(Butler)의 수행성 이론은 젠더를 본질이 아니라 반복적 수행의 효과로 본다(Butler 1990; 1993). 젠더는 “내면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인용(citation)하고 반복(iteration)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이는 효과다. 다시 말해 젠더는 단발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옷차림, 몸짓, 말투, 관계 맺기 등 일상적 실천의 축적을 통해 물질화(materialization)되는 규범의 산물이다(Butler 1993). 이 관점에서 남성성 역시 남성의 신체에 자연적으로 부착된 속성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행적 결과다. 수행은 규범적 남성성과 같아 보이지만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그 간극은 규범의 자연성을 의문에 부치게 한다. 특히 여성의 남성성은 규범을 인용하되 어긋나게 반복함으로써(mis-citation), 남성성의 소유·기원·자연성에 질문을 던진다(Butler 1990; 1993).

헬버스탐(Halberstam)은 『여성의 남성성』(2015)에서 '남자 없는 남성

성', 곧 여성의 남성성을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그는 여성의 남성성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남성성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울효과로 설명한다(Halberstam, 2015). 우리가 ‘남성성’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한 기원이나 단일한 소유자를 갖지 않고, 다양한 신체와 맥락 속에서 증식(proliferation)한다. 이 점에서 여성의 남성성은 주변부가 아니라 남성성의 구성적 일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성의 남성성은 무시되거나 지워져 왔으며, 이러한 무관심은 남성성을 권력과 지배에 결합시키려는 사회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남성성은 꾸준히 존재해왔고, 근대적 남성성 형성에도 기여했다. 특히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부치 - 펠 관계는 욕망, 돌봄, 경제, 안전의 분배를 조직하는 관계적 배치였으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부치의 남성성은 단일한 양식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실천으로 변주되어 왔다(Halberstam, 2015).

러빈(Rubin)은 이러한 논의를 공동체 내부의 언어와 경험 속으로 끌어온다. 그는 부치를 “여성적 코드보다 남성적 젠더 스타일과 정체성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을 위한 레즈비언 어휘”로 정의하며, 때로는 선천적 정체성 범주로 작동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Rubin, 2015). 러빈은 부치가 젠더 위화감을 지닌 여성들에게 생득적인 레즈비언 범주이기도 함을 포착한다. 또한 그는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에 늘 존재하는 긴장과 차이에 주목하며, ‘여성으로 동일시하는 여성’이라는 정치적 미덕만을 앞세울 경우 이러한 차이가 억압·배제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여성들의 성애와 섹슈얼리티가 지워지고, 단순히 ‘여성 간 사랑’이라는 담론만이 강조될 위험이 있다(Smith, 1989). 따라서 러빈은 부치가 폭넓은 젠더 변주를 아우르며 다양한 방식의 남성성을 재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단일한 여성 범주나 레즈비언 범주가 설정될 때 경계적 존재나 이행하는 존재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ubin, 2015).

세지윅(Sedgwick)의 이론은 이러한 수행이 어떻게 체감되고 인지되는지를 설명한다. 『Touching Feeling』(2003)에서 그는 경험과 현실의 일부

는 명제적·언어적 진술로만 포착되지 않으며, feeling(감각/감정)의 층위에서 접촉과 반응으로 성립한다고 말한다. 세지윅에게 쿼어함은 고정된 동일성이 아니라 경계와 범주를 교란하는 위치이며, 언어적 선언 이전의 느낌의 조직 속에서 드러난다. 이런 느낌은 개인의 심리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무대 배치, 시선의 흐름, 말 걸기 방식, 목소리 톤, 손의 위치 등 관계적 장면의 형식 속에서 공유된다. 따라서 ‘부치’는 “나는 부치다”라는 동일화 발화가 없어도, 복식·몸짓·대화법·배려의 기술이 만들어내는 설렘, 안심, 존중감의 구조를 통해 ‘부치처럼 느껴지는’ 자리로 경험된다(Sedgwick 2003). 세지윅의 “주변-수행(periperformative/around the performative)” 개념은 명시적 수행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발화·몸짓·응시·배치가 수행 효과를 받쳐주고 때로는 혼들며 증폭·변주하는 현상을 지시한다. 즉, ‘부치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발화 그 자체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타이밍, 먼저 계산하는 제스처 같은 주변 형식의 얽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부치 실천은 모방이나 결핍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젠더 규범을 창조적으로 인용하고 변주하는 관계적 수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치는 고정된 명사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반복을 통해 가시화되는 효과이며, 누가, 언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감각과 의미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3장에서 분석할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의 부치 경험—명명의 정치학(‘머 짧이’ vs ‘부치’), 관계적 실천(‘애티튜드’와 ‘깁’), 경계 설정(‘한남 부치’ 비판)—을 해석하는 렌즈로 작동한다.

---

1) ‘머리가 짧은’의 줄임말. 부치 - 펌 구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외형만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

#### 4) 연구대상 및 방법

이처럼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용어가 자리 잡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차용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 범주의 형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치’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치로 정체화하거나 부치로 패싱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원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용어가 자리 잡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의 차용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 범주의 형성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를 경험한 세대는 ‘부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치’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분기점으로 온라인 페미니즘이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20~3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명의 50대 참여자를 포함하여 세대 간 비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차 지점에서 레즈비언 정체성과 젠더 규범을 둘러싼 격렬한 담론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세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의 말하기에는 “왜 나는 부치라고 부르는가/부르지 않는가”, “부치와 다른 명명은 무엇이 다른가”와 같은 자기 성찰적 질문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으며, 이러한 발화는 정체성을 둘러싼 세대적 감각과 언어적 실천을 드러낸다.

연구자는 개인 SNS(X, 구 트위터)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리트윗 기능을 통해 모집 공고가 확산되면서 총 10명이 자원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레즈비언 공동체에 속한 경험이 있으며, 부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접은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회당 1~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대면 면접은 총 8명과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학교·직장 인근 스터디룸에서 실시되었고, 2명은 연구자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줌(Zoom)을 통한 원격 면접으로 참여하였다.

면접 질문은 레즈비언 공동체 참여 여부, 부치 정체성, 젠더 표현, 정체화 과정, 커뮤니티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부치의 특징과 여성의 남성성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일반 특성

	이름	만 나이(2022년 기준)	정체화 범주	연구참여방법
사례1	스콘	30	부치/레즈비언	대면
사례2	수키	26	레즈비언	대면
사례3	숙자	26	퀘스처너리	대면
사례4	서아	32	레즈비언	대면
사례5	강	27	젠더퀴어	대면
사례6	이서	22	레즈비언	대면
사례7	망고	25	부치	비대면
사례8	개비	26	부치/레즈비언	대면
사례9	인성	26	부치/레즈비언	대면
사례10	지안	52	티부/레즈비언	비대면

### 3.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의 부치 경험

#### 1) 부치의 수행적 구성: ‘애티튜드<sup>2)</sup>’와 관계적 실천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짧은 어구로 환원하기에는, 오늘날 부치라는 표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재현된다.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 20~30대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부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수행되며, 어떤 명칭과 감각의 체계를 통해 구분·소통되는지를 살핀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치 - 펌 구도가 규범적 남성성/여성성을 답습한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부치’라는 용어 사용을 기피하거나 금지어로 지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예: B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명명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기에, 사용자들은 정체성 범주를 우회하는 스타일 표지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대안이 ‘머짧’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에서는 ‘머짧’을 “머리가 짧은 스타일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티부와는 의미가 다르며, 부치와 펌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적고 있다. 즉 ‘머짧’은 외형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욕망·역할·관계의 맥락은 의도적으로 비워둔 표식이다.

연구 참여자 망고는 ‘머짧’이 “부치와 단지 머리가 짧은 레즈비언을 구분하기 위한 말”이며, 그 뒤에는 ‘여자’라는 공통 범주를 전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뭐 그게 저는 약간 머짧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물론 잘 팔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성 사회에 속하고 싶어서 그러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여성 주류사회, 여성 호모소셜 나는 여전히 속해 있어. 나는 머짧이지만 여전히 그런 주류사회에 속해 있고 나도 되게 친한

2) 애티튜드(attitude): 수행 이전의 의식적 결정보다는, 몸의 기억과 습관으로 자리한 몸의 경향성에 가깝다.

여자친구들 많아 이런 느낌으로. 나 되게 남자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어필해야 되나 싶고 그리고 저도, 저는 여성 주류사회에 못 섞였었어요. 그래서 부치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나는 부치고 여성 사회에 못 섞였어. 그리고 너네 아마 그 펌들의 여성 호모소셜에도 못 섞일 거야라는 걸 일부러 강조해서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더 편하고 저를 이해시키기가. 머짧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머리 길이 말고는. 저의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머짧 가지고는.” (망고)

망고의 진술은 ‘머짧’이 비정치적 스타일 표지로 기능하면서, ‘부치’가 갖는 역사·욕망·관계의 맥락을 삭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더 나아가, 부치를 “여자 밖의 존재로 상상”하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스스로 부치라고 명명하여 갈등을 조기에 가시화·정리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는 ‘머짧’이 안전하고 무마적인 자기표현으로 소비되는 반면, ‘부치’는 경계·차이·역사를 호출하는 자기명명임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머짧’은 부치-펌 정치학의 직접적 논쟁을 우회하면서 여성 범주 내부에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부치’라는 자기명명은 역사·욕망·관계 규칙을 호출하며, 충돌과 경계를 수반하면서도 정체성의 두께를 보존한다. 이러한 명명의 정치학은 버틀러(1993)가 말한 ‘호명(interpellation)’과 ‘재명명(renaming)’의 긴장을 보여준다. ‘머짧’은 기표를 최소화함으로써 규범적 여성 범주 안에 머물려는 시도이며, ‘부치’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의미망을 적극적으로 인용(citation)함으로써 레즈비언 하위문화의 계보를 가시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긴머부3’<sup>3)</sup>, ‘티부4’<sup>4)</sup>, ‘꾸러기 부치5’<sup>5)</sup>와 같은 세분화된 명칭의 등장은

- 
- 3) ‘긴 머리의 부치. 외형적 젠더 표현(긴 머리)과 정체성(부치)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 전통적으로 부치=짧은 머리 공식을 해체함.
  - 4) ‘티 나는 부치. 이성에 규범적 맥락에서 즉시 식별 가능한 부치. 짧은 머리, 남성복 등 전통적 표지를 전면화함.
  - 5) 권위적이거나 마초적이지 않은, 발달하고 순한 스타일의 부치를 지칭. 2010년대 후

헬버스탐(1998/2015)이 강조한 여성 남성성의 ‘증식(proliferation)’을 한국적 맥락에서 예증한다. 헬버스탐은 여성의 남성성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실천으로 분기한다고 보았는데,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는 외형 규범(짧은 머리)과 수행 규칙(애티튜드)을 분리함으로써 부치 범주의 내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언어화하고 있다. 이는 부치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실천적 범주임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강은 최근 20대 초반 층에서 ‘부치의 스타일은 좋아하지만 정체성은 밝히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관찰하며, 그것이 ‘머쭈’의 확산과 연결된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머쭈 펌들은 울겠네”라는 농담을 덧붙이며, ‘머쭈’이라는 외형 표지만으로는 부치 - 펌 의 관계적 의미망을 충분히 기술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머리 길이로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으며, 외형 표지의 동일성 아래 다른 관계 규칙과 느낌의 구조가 공존한다.

강은 또한 ‘긴머부’라는 용어를 예로 들며, 오늘날 부치가 외형 규범을 유연하게 전유함을 강조한다.

“부치를 좋아하지만 티 나면 안 되는 벽장 상황이면, 긴머부를 만나는 선택지도 있죠. 요즘은 그런 식으로도 부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강)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치=짧은 머리’ 공식을 흔드는 긴 머리 부치는 비가시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취급되었다. 2011년 『레인보우링』 시즌3 2호의 「머리 긴 부치의 구인 광고」는 다음과 같이 쓴다.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이 모두 부치는 아닌 것처럼, 모든 부치가 머리카락이 짧아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이 이상한 공식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당연시되어 ‘머리카락이 길면 어떻게 긴 머리카락으로 부치를 하느냐’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중략)

당신이 내게 반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머리카락이라는 장애물은 걷어차고 어서 내게로 달려오라, 나는 여기서 당신을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으니.”

(레인보우링, 2호, 2011)

이 텍스트는 당시 '긴머부'가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긴머부'가 선호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꾸러기 부치'처럼 권위적·마초적 클리셰를 벗어난 새로운 미감과 태도의 수식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부치는 짧은 머리카락 재킷 같은 정형화된 외양을 넘어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등장한 명칭이 바로 '티부(티 나는 부치)'다. '티가 난다'는 말은 이성애 규범의 배경에서 즉시 식별되는 퀴어함을 가리킨다. 오늘날 '부치'가 반드시 남성적 외모와 결부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짧은 머리·남성복·낮은 목소리 톤 등 전통적 표지를 전면화하는 유형을 별도로 지칭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즉, 부치라는 범주는 더 이상 외형 중심의 단일 규범이 아니다. 다양한 스타일, 관계 기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장면 연출을 통해 분기해 왔다. 그 과정에서 머짧, 긴머부, 티부, 꾸러기 부치 등 세분화된 명칭이 생겨났고, 이는 감각의 미세한 차이를 표기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긴머부', '티부', '꾸러기 부치'와 같은 세분화된 명칭의 등장은 헬버스탐(1998/2015)이 강조한 여성 남성성의 '증식(proliferation)'을 한국적 맥락에서 예증한다. 헬버스탐은 여성의 남성성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실천으로 분기한다고 보았는데,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는 외형 규범(짧은 머리)과 수행 규칙(애티튜드)을 분리함으로써 부치 범주의 내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언어화하고 있다. 이는 부치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실천적 범주임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머짧'은 부치 - 펌 정치학의 직접적 논쟁을 우회하면서 여

성 범주 내부에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부치’라는 자기명명은 역사·육망·관계 규칙을 호출하며, 충돌과 경계를 수반하면서도 정체성의 두께를 보존한다. 나아가 ‘긴머부’나 ‘티부’ 같은 파생 명칭은 오늘날 부치가 단순한 외형 규범이 아니라 ‘부치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통해 인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성을 남성의 전유물로 보지 않는 수행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으며, 부치를 표지 목록이 아니라 수행 - 느낌 - 관계의 교차점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 (1) 부치들의 ‘애틀튜드’: 선제적 배려의 수행

오늘날 부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일한 외양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 다수는 부치의 정체성을 특유의 애틀튜드(attitude), 즉 여성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곧 수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서 포착된다고 진술하였다. 표준적 의미의 ‘태도’를 넘어,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말하는 애틀튜드는 상대 여성과 마주치는 장면에서 즉시 작동하는 수행적 규칙을 포함한다.

먼저, 참여자 스콘은 부치 인지를 “애틀튜드의 감지”로 설명하며, 이는 후천적 기술이라기보다 “타고나는 속성”에 가깝다고 서술한다.

“저는 부치는 진짜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을 만났을 때 느낀 건,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스콘)

스콘의 진술은 외양 우선의 분류를 뒤집는다. 자신이 더 남성적 외형을 지녔음에도, 상대의 애틀튜드가 더 ‘부치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부치니스가 보이는 것의 목록이 아니라 상황 반응의 일관된 양식으로 인지됨을 시사한다.

자신을 긴머부로 정체화한 참여자 이서 역시 외형보다 습관화된 배려의 실천에서 부치다움을 설명한다.

“여성분이 넘어지려 하면 허리를 붙잡고 ‘괜찮아요?’라고 묻거나, 옆에

흠어진 옷가지를 정리하는 걸 저는 자연스럽게 해요. 친구들은 그게 되게 부치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서)

여기서 애티튜드는 의도적 과시가 아니라 “손에 뺨 매너”로 묘사된다. 세지웁(2003)은 수행이 명시적 발화문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몸짓·응시·침묵·타이밍을 통해 증폭된다고 본다. 이서가 “허리를 붙잡고 ‘괜찮아요?’라고 묻는” 장면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손의 위치와 목소리 톤, 타이밍의 주변-수행적 앙상블이다. 이 앙상블이 ‘부치처럼 느껴지는’ 정동적 효과를 생산한다.

참여자 숙자도 같은 점을 지적한다.

“애써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부치 아닌가?” (숙자)

요컨대 ‘애티튜드’란 배려의 마음가짐이 즉각적인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장면의 안정화를 낳는 일종의 관계 설계 능력을 가리킨다. 스콘은 이를 더 나아가 “위험·무거움·수고를 먼저 감당하는 것”이라는 규칙으로 확장한다.

“다른 여자는 나보다 약할 것이라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제가 들고, 망치질 같은 위험해 보이는 일은 제가 해요. 멋부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나와요.” (스콘)

이 진술은 부치 애티튜드가 장면의 위험과 노동을 선제적으로 인수해 상대방에게 안심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직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는 이성애 규범의 남성성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안전과 존중을 우선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스콘은 재생산과 임신처럼 흔히 ‘가장 여성적인 행위’로 분류되는 영역까지도 “힘든 일은 내가 한다”는 원칙으로 포섭한다.

“임신이 가능하다면 부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든 건 부치가 한다는 태도 때문이죠. 그게 가장 여성적인 행위라 하더라도요.” (스콘)

이처럼 부치 애티튜드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본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책임과 배려의 분배 방식으로 재조정한다. 핵심은 역할의 성별화가 아니라 수행 규칙이다.

성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반복된다. 지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부치들은 (성관계에서) ‘내가 먼저 가라고 해요. 나는 나중에 가도 된다고. 그래서 편안하고 안심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지안, 보조사례)

지안의 진술은 부치가 여성을 욕망하면서도 그것이 곧 도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대 우선’의 윤리를 전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일부 시스젠더 이성애 남성들이 보여주는 ‘나 먼저’ 규칙과 선명히 대비되며, 부치 애티튜드를 배려·안심·존중의 감각으로 완결한다.

정리하자면, 부치의 애티튜드는 세 가지로 구조화된다. 첫째, 위험·수고·결제·동선 조율을 먼저 인수하는 선제적 배려. 둘째, 과시가 아니라 습관화된 매너로 드러나는 과시의 배제. 셋째, 친밀하거나 성적 장면에서 상대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상대 우선의 원칙이다. 이때 외형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와 수행이야말로 ‘부치처럼 느껴지게 하는’ 장면의 표면으로 작동한다. 즉, 부치다움은 보이는 표지들의 합이 아니라 관계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하느냐에 의해 인지된다. 이는 젠더가 반복적 수행의 효과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누가, 언제, 어떤 관계 속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각과 의미가 산출됨을 보여준다.

## (2) 관계적 ‘주기’의 윤리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는 ‘깁’, ‘텍’, ‘깁애크’이라는 은어가 사용된다. 이는 각각 영어 단어 give(주다), take(받다), give and take(주고 받다)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용어로, 보통 동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다. 깁은 ‘주는 사람’ 혹은 ‘주는 행위’를, 텍은 ‘받는 사람’ 혹은 ‘받는 행위’를, 그리고 깁애크은

주고 받음을 동시에 선호하는 자를 지칭한다. 여성 간 성관계 맥락에서 삽입하는 위치에 있는 자는 성적 자극을 직접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삽입을 받는 자가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깍'은 단순히 성적 행위로서의 삽입이라기보다 "즐거움을 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이는 부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부치와 깍의 속성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개비는 "아무튼 부치라고 함은 이런거죠.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뭔가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온택부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따르면 형용모순 아닌가. 온택부치? 그런 거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며, 부치가 상대의 만족을 통해 기쁨을 얻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연구자가 "부치니스하고 섹스 포지션에서 주는 역할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라고 질문하자, 지안은 "아주 많이. 그래서 실제로 펌 분들이 이렇게 부치들을 볼 때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기대하지 않을까요"라고 답하며, 펌들이 부치에게 '깍'을 기대하고 욕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치가 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일 뿐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수키 또한 "깍엔틱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펌은 당연히 틱을 좋아하잖아요. 부치는 깍을 좋아하고 물론 깍엔틱을 모두 한다 해도 어떤 것 이든 깍이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부치를 '깍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깍'이라는 개념을 성적 위치뿐 아니라 "그 어떠한 형태"의 주는 행위로 확장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깍'을 성관계에서의 삽입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해 사용하였다. 강은 "근데 여자친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깍 잘 주잖아. 전반적인. 그러니까 섹스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해주고"라고 진술하며, 깍이 삶 속 전반에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키는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깎’이라는 표현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어느 한쪽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한쪽이 논리를 정리해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깎’은 성적 맥락을 넘어 배려·매너·인지적 도움까지 포괄하는 ‘주는 존재’의 특성을 함축하며, 부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 범주로 자리 잡는다.

## 2) 부치의 경계 작업

### (1) 윤리적 남성성의 기준 설정

그러나 부치 정체성이 ‘주는 성질’과 ‘특유의 스타일’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부치가 공동체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피의 대상이 되며, 부치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돌출된 존재로 호명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남 부치’ 혹은 ‘가부장 부치’라는 낙인이다. 이들은 레즈비언 공동체 안에서조차 마치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차별적이고 반페미니즘적인 태도를 재현한다고 인식된다. 다시 말해, 부치가 남성성을 전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가부장적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부치다움’은 긍정이 아니라 거부와 배제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의 등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규범화되어 왔는가와 긴밀히 맞물린다. 한국에서의 헤게모니 남성성은 단순한 성별 수행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성에 남성이라는 국가적 위치와,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가상의 역할이 결합된 형상으로 구축되어 왔다(김엘리, 2014). 다시 말해, 군사적 남성성과 경제적 남성성이 중첩되며 ‘정상적 남성성’의 기준을 형성해온 것이다(김엘리, 2020).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10년대 중반에 온라인에서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은 가부장적 남성을 비판적으로 거울 삼아 ‘한남’이라는 용어를 확산시켰고,

이는 곧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 남성성을 지시하는 유효한 언어가 되었다. '한남 부치'라는 명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남성성 규범을 부치의 맥락 안에서 전유·모방할 때 발생하는 긴장과 비판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남'이라는 명칭이 정착하기 전, 유사한 성격의 부치들은 '왕부치'라 불렸다. "강부치 = stone butch = 왕부치: 집에 도착했을 때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여자가 이상형인 부치"(레인보우 링, 5호, 2011)라는 정의는 이들이 지닌 가부장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후 '한남'이라는 용어가 확산하면서, 부치 중에서도 헤게모니 남성성을 모방하거나 여성혐오적 태도를 내보이는 이들이 '한남 부치' 혹은 '가부장 부치'로 명명되었다. 이들은 여성을 위하는 듯 보이거나 실제로는 여성숭배나 성녀/창녀 이분법에 기대어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연구 참여자 수키는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치가 남성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제가 그 남성성을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 중에 남성성이라는 변명으로서 행해지는 범죄까지 안 가도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남성성을 특권화하고 디폴트화하고 그 남성 집단 안에서 사용하고 남용하고 남성성 남용. 그리고 남성성이 저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부치성은, 저는 레즈비언이 남성을 답습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만약 그렇게 그게 사실일 수 있어도 그게 그 지향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부장 부치 같은 그런 한남 부치 같은 쪽으로 절대 가면 안 되고 저는 그리고 그런 저는 당연히 남자랑 진짜 한남 부치와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나봤을 때 사람을 둘 다 만나본 사람으로서 진짜 달라요"라고 진술하였다. 수키는 남성성 자체를 해로운 성질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부치의 남성성은 반드시 '해로운 남성성'을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해로운 남성성이란 여성을 과도하게 대상화하거나 소유물로 전유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데이트 폭력은 특정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연인 간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하예지·서미경, 2014)으로 정의되는 만큼 레즈비언 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레즈비언 사회에서는 이러한 수평적이지 못한 관계를 비판하기 위해 ‘한남’ 혹은 ‘가부장’이라는 부정적 수식어가 사용된다. 이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부장제 속 남성의 성차별적 행위에 빗대어 경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이서는 이러한 부정적 낙인을 강조하기 위해 ‘한남 가부장 부치’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일화 속 ‘한남 가부장 부치’는 스스로를 남성 가부장의 위치에 놓고 상대 여성을 종속된 소유물처럼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실제 남성-여성 관계가 아니라 레즈비언 연인 관계이며, 따라서 ‘한남 가부장 부치’는 실제로 남성 가부장의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한남 가부장 부치’는 가부장적 남성을 패러디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실패하는 패러디로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레즈비언 공동체 내에서도 비판받는 특정 행위양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한 개인이 부치의 수행적 특징과 스타일을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부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스콘은 ‘한남 부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는 사실 자체가 부치와 한남 부치를 분리된 존재로 구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그는 “그런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한남 부치는 있지만 한남 부치라는 말이 생겼다는 게 원래 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개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소수의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치라는 존재와 개념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라고 말하며, 오히려 부치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자정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헬버스탐(1998/2015)은 여성의 남성성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남성성의 구성적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남성성이 권력·지배와 결합할

때의 위험성도 경계한다. ‘한남 부치’에 대한 공동체의 비판은 헬버스탐이 말한 “윤리적 남성성(ethical masculinity)”의 기준을 적용한 자정 작용으로 읽을 수 있다. 즉, 레즈비언 공동체는 남성성을 전유하되 “돌봄·취약성·비지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 (2) 부치 규범의 위반

부치가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치가 특정 한 규범을 따라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반과 협상을 통해 실천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비롯한 ‘스톤 부치’는 반드시 펌을 욕망하며, 잠자리에서의 애무를 거부한다는 특징을 지녔다고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의 부치는 이러한 견고한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위반을 통해 자신을 실천한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 망고는 스스로를 ‘가짜 부치’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타인이 기대하는 전통적 부치 규범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가 좀 뭐랄까 근데 저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를 좀 가짜 부치라고 소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치한테 기대하는 걸 제가 좀 못해줘서.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펌들이 뚜껑을 따줄 정도로 제가 힘이 약하거든요. 음. 어. 그냥 제가 먼저 가짜 부치예요 라고 속이고 들어가는 게 그 부치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의고 부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흔히 부치에게는 다른 여성을 극진하게 대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기대되지만, 망고는 자신의 친절은 연인에게만 한정하고 싶으며 모든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버겁다고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부치임을 자각하면서도, ‘가짜’라는 접두사를 덧붙임으로써 전통적 규범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성 또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부치 규범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는 “근데 뭐지 그래서 되게 약간 처음에 시장에 내던져졌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컸어요. 그 바이섹슈얼로 정체화를 했을 때도 뭔가 그러니까 나는 작고 마른 체형이니까 폼으로 포지셔닝하는 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이렇게 단발 이렇게 하고 화장도 좀 이렇게 하고. 아주 아주 여자 옷을 입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부치인 파트너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하지만 그런 걸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제가 난 부치구나 부치로 충분히 받아들여지는구나. 꾸부라는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꾸부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꾸부리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저는 꾸부였던 거죠. 스냅백 이렇게 뒤로 쓰고 남자 아이돌 춤추고, 으르렁 추고 엑소 으르렁 추고 스냅백 이렇게 진짜 제가 스냅백 환장해가지고 그때 엄청 모으고 그랬었던데요. 난 꾸부네. 나는 확실히 나를 포지셔닝했어”라고 진술하였다. 인성은 처음에는 자신이 부치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꾸러기 부치’라는 용어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충분히 부치로 인식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수키 역시 꾸러기 부치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설명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좀 약간 순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고 좀 배려도 그냥 딱 적당히 하는. (중략) 근데 좀 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꾸러기 부치들은. (중략)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저는 꾸러기 부치가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좀 순한 게 좀 있죠”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주도적이거나 강한 리더십을 갖기보다는 ‘순하고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성향’을 지니기에, 발랄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는 꾸러기 부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느낀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전통적인 ‘스톤 부치’ 규범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위반되고 변

주된다. 다시 말해, 부치는 고정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균열과 위반 속에서 실천되는 수행적 정체성임이 드러난다.

### 3) 부치의 존재론적 재배치: 원본 없는 남성성

부치가 흔히 '남자를 따라하는', '남성적인 레즈비언'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의를 단순히 모방의 패러디로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남자가 없는 남성성, 즉 남성과 동일시되지 않는 남성성을 전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남성성의 원본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부치를 개인적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신지?”라고 질문했을 때, 인성은 “근데 정말 돌고 돌아 돌고 돌아서 다시 그냥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진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고 돌아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돼서 지금은 부치? 남성적인 레즈비언 남자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 오히려 제일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부치=남자 역할, 펌=여자 역할”이라는 설명은 이성애중심적이고 뻣은 설명”이라고 거부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그때 진짜 남성적인 남자를 보면은 진짜 부치다. 진짜 참부치다”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성은 결국 부치가 남성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부정확해 보이더라도,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남성성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정의라고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 인성에게 부치는 남성을 모방하는 패러디가 아니라, 남성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이해된다.

망고 또한 유사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부치식인 펌들은 남성적인 레즈비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부치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 주류사회에 저를 어필하거나 설명할 때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들이 어떻게 부치다운 여자라는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저도 이십대 초반에는 적합한 단어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애썼는데. 적합한 단어라는 게 있나? 제 여친이 언어학 전공인데요. 그냥 듣다 보니, 언어학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적합한 단어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제일 순위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날 이해시키기 제일 쉽고. 그렇다면 그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망고에게 '부치'라는 단어만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하며 효과적인 설명이 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정의를 통해서조차 남자가 원본이 아닌, 남자 없는 남성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는 부치가 단순히 남성을 모방하는 패러디적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여성의 몸 위에서 재구성되는 독자적 남성성임을 보여준다. 부치는 남성성의 원본을 남성에게 두지 않고, 수행적으로 창출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 4. 나가며

본 연구는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떻게 형성·재현·수행되는지를 탐구하였다. 1960~70년대 '마지씨'에서 1990년대 '부치-뽀'의 정착,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 '긴머부', '티부', '꾸러기 부치'와 같은 세분화된 명명의 등장까지를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치 수행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치는 단순히 '남성적인 외모를 한 레즈비언'이라는 협소한 정의로 환원될

수 없으며, 외형적 표지를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적 실천과 감각의 층위에서 구성되는 복합적 범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증언은 부치다움이 외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부치처럼 느껴지게 하는' 수행으로 인지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짧은 머리카락이나 남성복 같은 외형적 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손 내밀기', '위협과 수고를 선제적으로 감당하기', '상대의 안심을 보장하기'와 같은 관계적 기술, 즉 '애티튜드'가 부치다움을 결정하는 더 큰 요소로 작동했다. 이러한 태도는 성적 관계에서도 '깍'의 윤리, 즉 상대의 만족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이어지며, 과시적이거나 도구화하는 일부 이성애 남성성과 뚜렷이 대비되는 대안을 제시한다. '긴머부'의 존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외형적으로는 전통적 부치 표지를 갖추지 않았지만, 애티튜드와 깍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부치로 인식되고 정체화된다. 역으로, 짧은 머리카락과 남성복을 갖췄더라도 '한남 부치'로 비판받는 경우는 가부장적 태도 때문이다. 즉, 외형은 부치를 인지하는 하나의 단서일 수 있으나, 그것이 부치다움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부치다움은 외형과 태도가 함께 작동하되, 태도가 더 결정적일 때 성립한다.

또한 '머쭈' vs '부치' 논쟁은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의 최전선임이 드러났다. '머쭈'는 부치 - 썸 정치를 우회하며 여성 범주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전략인 반면, '부치'를 고집하는 것은 역사·욕망·관계성을 호출하며 차이를 긍정하는 선택이다. '긴머부'의 등장은 외형 규범을 유연하게 만들고, '한남 부치' 비판은 가부장적 남성성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명명의 분화는 부치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정의되는 살아있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이론적 기여를 한다. 첫째, 젠더 수행성 이론을 외형 중심에서 관계 설계 중심으로 확장했다. 버틀러(Butler, 1990; 1993)는 젠더가 반복된 수행의 효과라고 말했으나, 주로 외형적 표지(옷, 몸짓, 말투)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한국 부치 사례를 통해, 외형적 수행도 중요하지

만 “관계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하느냐”가 젠더 인식에서 더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에티튜드’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위협을 선제적으로 인수하고 상대의 안심을 보장하는 관계적 기술이며, ‘깁’은 성적 행위를 넘어 인지 노동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돌봄의 윤리다. 이는 세지윅(Sedgwick, 2003)의 ‘touching feeling’ 개념, 즉 젠더가 언어적 선언이 아니라 느낌의 구조로 작동한다는 통찰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부치다움은 “나는 부치다”라는 발화나 짧은 머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안심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장면 연출의 효과다.

둘째, 레즈비언 공동체가 남성성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가 남성성을 선별적으로 전유함을 보여준다. ‘한남 부치’리는 낙인은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어떤 남성성은 안 되고, 어떤 남성성은 되는가”를 집단적으로 정의하는 경계 작업(boundary work)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거부한 것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태도, 과시적 권위주의, 여성혐오적 호모소셜이며, 지향한 것은 배려와 존중의 에티튜드, 상대 우선의 윤리, 비과시적 케어였다. 이는 헬버스탐(Halberstam, 1998/2015)이 제시한 여성의 남성성 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헬버스탐은 여성의 남성성이 남성의 남성성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성적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본 연구는 여성의 남성성이 단지 남성 남성성의 거울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재구성된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치 공동체는 “좋은 남성성”을 실험하는 장이며, 이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남성성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한 방식의 남성성이 문제인가?” 부치의 에티튜드와 깁의 윤리는 남성성이 권력과 지배가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셋째, 온라인 시대 퀴어 공동체의 명명의 미시정치학을 실시간으로 포착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긴머부’, ‘티부’, ‘한남 부치’ 등이 등장한 것은 단순한 신조어 유행이 아니다. 이는 정체성을 둘러싼 집단

적 협상의 흔적이며, 각 용어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대표한다. '머쭈'은 부치 - 펴 정치를 우회하며 여성 범주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전략이고, '부치'를 고집하는 것은 역사·욕망·관계성을 호출하며 차이를 긍정하는 선택이다. '긴머부'의 등장은 외형 규범을 유연하게 만들고, '한남 부치' 비판은 남성성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한다. 이는 단순한 용어 사전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정체성 재구성의 정치학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명명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은, 디지털 시대 레즈비언 공동체의 자기 조직화 방식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레즈비언 공동체에 자기 정당화의 언어를 제공한다. 부치는 오랫동안 "남성 모방", "이성에 모방"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 반박을 제공한다. 부치는 모방이 아니라 관계 설계의 윤리이며, 남성성의 해로운 측면을 제거하고 재구성하는 대안적 실천이다. 또한 '머쭈' vs '부치' 논쟁, '한남 부치' 비판 등 공동체 내부 갈등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둘러싼 정당한 입장 차이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치 정체성이 유연하고 다층적임을 보여줌으로써, 획일적 규범에서 벗어나게 한다. '긴머부', '꾸러기 부치' 등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며, 이는 부치 정체성을 고정된 틀이 아니라 창조적 실천의 장으로 만든다. 본 연구는 부치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외형·수행·느낌·관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의 자명명 전략과 젠더 규범 재구성의 방식을 함께 드러내며, 여성의 남성성이 꾸준히 삭제·주변화되어온 젠더 질서에 균열을 내는 가능성을 포착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와 부치 정체성의 경계, 펴의 목소리와 욕망, 그리고 계급·지역·세대에 따른 부치 경험의 차이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엘리. 2014. “불확실한 삶에서 움트는 신군사주의.” 『창작과비평』 165: 38-54.
- \_\_\_\_\_.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제36권 1호, 139-173.
- 루인, 정희성. 2018. “퀴어와 공간의 관계 재구성.” 『공간과사회』 28(1): 194-226.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이해솔. 1999.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 Butler, Judith. 1988.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40(4): 519-531.
- Smith, Elizabeth A. 1989. “Butches, Femmes, and Feminists: The Politics of Lesbian Sexuality.” *NWSA Journal* 1(3): 398-421.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artier, Marie. 2005. “A Theology of Corporeality Embodied in the Butch Femme Bar Culture of the 1950s and 1960s.” The Continuum Publishing Group Ltd.
- 코넬, R. W. 2013. 『남성성/들』. 안상욱·현민(역). 서울: 이매진.
- 헬버스탐, 주디스. 2015. 『여성의 남성성』. 유강은(역). 서울: 이매진.
- Rubin, Gayle. 2015. 『일탈: 게이 루빈 선집』.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운(역). 서울: 현실문화.
-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3. *Bodies That Matter*. New York: Routledge.
- Sedgwick, Eve Kosofsky. 2003.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Abate, Michelle Ann. 2008. *Tomboys: A Literary and Cultural Hist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Faderman, Lillian. 1991. *Odd Girls and Twilight Lovers: A History of Lesbian Lif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estle, Joan. 1981. “Butch-Fem Relationships.” 『Heresies』 12.
- 레인보우링 기획단. 2009. 『레인보우 링』 5호. 서울: 한국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
- \_\_\_\_\_. 2011. 『레인보우 링 시즌3』 2호. 서울: 한국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

전해성. 1996.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다양성.” 『또 다른 세상』 3호.

한채윤. 2009. “우리가 몰랐던 바지씨, 치마씨 그리고 부치와 팸의 어원.” 『레인보우 링』 5호.

닷페이스. 2017.7.21. “우리가 몰랐던 성소수자 여성의 역사 - 영화 〈불온한 당신〉 감독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llWvDQW\\_9Y](https://www.youtube.com/watch?v=llWvDQW_9Y) [검색일: 2025.8.30.]

\_\_\_\_\_. 2019.10.14. “70대 레즈비언 모임에 따라가 보았다.”

<https://youtu.be/JQt6I83b6uA> [검색일: 2025.8.30.]

\_\_\_\_\_. 2019.10.30. “옛날 레즈비언은 어떻게 살았을지 기록하는 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gd\\_c1ZitIsc&t=248s](https://www.youtube.com/watch?v=gd_c1ZitIsc&t=248s) [검색일: 2025.8.30.]

요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25. “이쪽 용어 총망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웹진. <https://lgbtpride.tistory.com/1068> [검색일: 2025.8.30.]

한겨레21. 2025.8.19. “엄지훈 이 남자의 등장, 무척 반갑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56.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56.html) [검색일: 2025.9.1.]

Abstract

## Interpreting “Butch” Performances among Young Korean Lesbians

Song, Wo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ategory of butch is constituted through its meanings and performances in contemporary Korean lesbian culture. Reducing butch to the notion of a “masculine lesbian” is overly narrow, as the languages and practices circulating within lesbian subcultures reveal a much more layered complexity. The study first examines how female masculinity within lesbian communities has been represented in both Western and Korean contexts—from the naming of *bajissi* (a term used in the 1960s - 70s), to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butch’ terminology in the 1990s, and to the emergence of more differentiated labels in the mid-2010s. Research participants were primarily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experienced the discursive reconfiguration of lesbian communities and online feminism during the mid-2010s—a period marked by new naming practices and collective negotiations over identity, including the emergence of the critique of the “han-nam butch.” An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shows that butchness cannot be determined solely by external markers such as short hair or masculine clothing. While appearance plays a role, butchness is more fundamentally produced through attitudes and relational ethics enacted in specific encounters—embodied in the gestures of care, reassurance, and respect known as attitude and give, which together generate the “felt effect” of feeling butch. This study makes three theoretical contributions. First, it demonstrates that butchness is not fixed by appearance or style but is a lived practice

sensed and enacted within relationships. Attitude and give reveal that gender performance operates not as a visible form but as an affective and ethical interaction. Second, the discourse of the “han-nam butch” shows that the lesbian community does not simply imitate masculinity but actively constructs an alternative masculinity grounded in the ethics of care. Third, the naming practices surrounding kkureogi butch (playful butch) and ginmeobu (long-haired butch) illuminate how queer communities organize and negotiate identity and relationality through language. These discussions suggest that butch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fixed identity but as a complex field where appearance, performance, affect, and relation intersect. Ultimately,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insight for academia and offers the lesbian community a language of self-legitimation and redefinition.

**Key words:** Butch, Lesbian subculture, Gender performativity, Korean lesbians, Female masculinity

-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4일

#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관계

-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신현우\*\* · 양난미\*\*\*

## | 목차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이론적 배경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연구절차
  - 3) 측정도구
  - 4) 자료 분석 방법
3. 연구결과
  - 1) 집단 간 차이분석
  - 2)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3) 측정모형 검증
  - 4) 구조모형 검증
4. 결론 및 함의

## | 초록 |

최근 대학생들은 학업과 장애 등 다양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통제력 저하와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417부(남자 대학생 207부, 여자 대학생 2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여자 대학생이, 자기통제력은 남자 대학생이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경상국립대학교 shinhw32@naver.com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behelper@gnu.ac.kr

유의하게 높았다. 수면의 질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는 남자 대학생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셋째,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거쳐 수면의 질에 이르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여자 대학생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수면 관리 및 상담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별,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면은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수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7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8% 부족하였다(동아일보, 2025).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에 따르면 수면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20년 약 65만 명에서 2024년에는 약 78만 명으로 약 20% 증가하였다. 성인 중 특히 대학생의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성인의 31.6%가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였지만(최윤희, 2022), 대학생의 66.3%가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박영주·이춘엽, 2023). 또한 대학생의 수면 장애 분포에서 정상은 0%, 중등도 92.72%, 심한 수면 장애 7.28%로 상당 부분이 중등도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김강토 외, 2021). 이러한 수치는 대학생의 수면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수준의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 자율성과 독립심, 정체

성 형성, 진로탐색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아넷(Arnett), 2000). 그러나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졸거나 학습의 유지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발달과업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노효련, 2017). 따라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대학생들의 적절한 발달과업의 달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학생의 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우울, 불안, 걱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김희영·이창현, 2023; 김지영, 2024; 홍은경, 2024), 소음, 조명, 온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박세현 외, 2021; 조민은·황선경, 2021; 조영신·정선애, 2023)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 중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는 생리적 각성을 촉진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데(도그람지, 그로왈 & 마르코프(Doghramji, Grewal and Markov), 2009), 특히 대학생은 환경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인간관계,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김성혜, 2016) 대학생할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초기 수면 장애는 종종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유발되거나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성 불면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행동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포함된다(옹(Ong), 2017). 즉, 수면 문제는 단일요인이 아닌, 심리적·행동적 요인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수면문제의 행동적 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3.1%로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20~5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이나 20대의 경우 33.2%로 다른 성인기에 비해 과의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취

침 전 사용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이나연 외, 2014)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침 전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사용은 신체적·생리적 각성을 유발하여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케인 & 그라디사르(Cain and Gradisar), 2010). 또한 취침 전 밝은 빛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의 시작이 억제되고, 분비 지속시간이 단축된다(굴리 외(Gooley et al.), 2011). 대학생은 거의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비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현실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용숙·이수현, 2019). 이처럼 대학생은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과의존의 위험이 높고(윤주영 외, 2011), 이로 인해 수면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대학생의 수면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이 행위 중독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중독의 시작, 유지, 재발의 위험을 증가시키며(르미외 & 알압시(Lemieux and al'Absi), 2016),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진다(고더스(Goeders), 2003).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SNS 중독, 도박 중독, 음식 중독과 같이 행동 중독의 문제를 겪기도 하며(김희영, 2025), 스마트폰 과의존 또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대처 중 하나로 평가된다(김동희, 2016). 이처럼 대학생활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방안을 불러 일으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통제력은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조, 김 & 박(Cho, Kim and Park), 2017).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이 중독은 자기통제나 자기조절의 실패로 인한 증상으로(김교현, 2006)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행위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강현임·이영란·황

주희, 2017)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무너지며, 더 과민해지거나 감정적이게 되고, 과식이나 약물 남용 등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바우마이스터 & 헤더튼(Baumeister and Heatherto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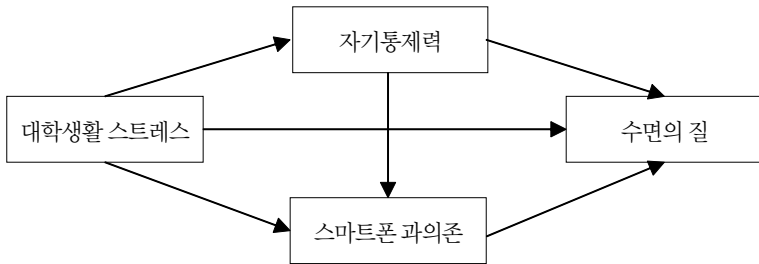
자기통제력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향상되지만, 대학이라는 환경적 변화와 학업·사회적 요구의 증가는 자기통제력 발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초기동안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모일라넨 외 (Moilanen et al.), 2021). 따라서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통제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자기통제력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다. 인 외(Yin et al., 2024)는 자기통제력이 수면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신체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자기통제력은 삶에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어(탕니, 바우마이스터 & 분(Tangney, Baumeister and Boone), 2004), 삶의 필수 요소인 수면과 자기통제력의 관련성을 가정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변인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김인수, 2023).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추구와 정서 중심적 대처를, 남성의 경우 문제 중심적 대처와 자기위로를 선호하였다(이상희, 2018).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이 높았다(김혜경, 2024).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여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접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추연기·배원식·김

해인, 2022). 셋째, 수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웅 외(2017)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면잠복, 수면방해, 수면약물복용 등 수면의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남녀의 대처전략 차이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과 행동양식을 반영한 차별화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대학생의 수면의 질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기통제력의 저하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방해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에 차별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는 변인들 간의 각각의 매개 효과만을 다루었을 뿐,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 네 가지 변인을 통합한 구조적 모델을 검증하고, 모델의 작용 메커니즘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수가 50만 명을 넘는 등(조선일보, 2025)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현재 대학생들의 학업과 장래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안주아, 2024; 정다영 외, 2022) 대학생활 스트레스 중 학업과 장래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대학생활 스트레스 특히, 학업과 장래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구조적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면의 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의

관련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차별화된 치료적 개입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져 수면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관계

스트레스란 개인의 능력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개인과 환경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되며(라자루스 & 포크만(Lazarus and Folkman), 1984), 스트레스는 생리적 활성화 및 각성 상태로 수면을 방해한다. 히포크레틴, 프로락틴, 모노아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거나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하여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상하부, 청반, 편도체, 내측 전두엽피질과 같이 다양한 뇌 영역은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수면-각성에 영향을 미친다(샌포드, 수체키 & 메일로(Sanford, Suchecki and Meerlo), 2014).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영은·권정혜(2012)는 스트레스를 받은 개인이 이와 관련된 생각을 억제하고자 할 때 오히려 각성을 불러 일으켜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강토 외(2021)에서 수업, 공부, 시험과 같은 학업스트레스가 수면장애와 연관이 있었으며, 김진애(2024)에서 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빴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자·이유미, 2020). 따라서 대학생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생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 (2)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의 질의 관계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에 실패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취침 전 스마트폰의 사용은 멜라토닌 합성과 지속을 억제시키고(굴리 외(Gooley et al.), 2011), 결국,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세희·민지원·박부경, 201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침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수면잠복기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민 외, 2020).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학업지연과 학업소진으로 이어졌다(김영은·박기환, 2023). 김희정(2023)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학업에 대한 무기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임영숙·노기옥(2020)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 상태와 정신건강 상태가 나빴으며, 윤미은 외(2024)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의 대학생이 일반군보다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불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 문제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수면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높은 스트레스 지수는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마하 & 하위(Samaha and Hawi), 2016). 대학생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박영식·김순희, 2022), 구혜경(2021)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을 낮추었지만, 소극적인 대처방안은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준호·서미아(2023)에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게 되었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김종임, 2020),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중독이 높아졌다(최형준·김진숙, 2020). 이처럼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을 야기해 또 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박혜경·권재한, 2019).

### (4) 자기통제력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의 관계

자기통제력은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 상황적·사회적인 요구에 따르 스스로 행동을 제지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다(코프(Kopp), 1982).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는 즉각적인 보상을 유도하는 특성의 영향을 강화하고, 장

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촉진하는 뇌 영역의 효능을 감소시켜 자기통제 결정을 저해한다(마이어, 마크와나 & 헤어(Maier, Makwana and Hare), 2015).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충동성의 절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적절히 발휘되지 못해 사이버 불링과 같이 일탈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설필란 · 이성희, 2021).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충동구매와 같은 일탈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김자숙 · 박아영 · 김중혁, 2023).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기통제력이 낮아져 학업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유미 · 최가희, 2020). 반면에 스트레스를 덜 느낄수록 자기통제력을 더 잘 발휘하여 대학생활이 보다 적응적이라고 예측하였다(김진희, 2016).

한편,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의 가능성이 높았고, 심지어 사이버 범죄의 가능성도 증가하였다(이성식 · 류수민 · 임수경, 2022). 반면에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쉽게 빠지지 않고 현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이영주 · 박주현, 2014). 실제 연구에서 여러 변인 중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숙영 · 유성모 · 양현정, 2025). 이처럼 자기통제력이 부족할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기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양현주, 2021). 특히 스마트폰은 휴대하기 편하고 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사용자의 통제력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반추나 수면장애와 같은 심리적 · 신체적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우 외(Liu et al.), 2018). 또한, 자기통제력은 취침 전 스트레스 관리 및 편안한 수면 환경 유지를 통해 수면의 질에 직

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수면 전 걱정과 자극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활동을 피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린 & 청(Lin and Chung), 2022). 자기통제력이 고갈되면 피로와 유사한 특성 때문에 더 이른 취침시간과 더 긴 수면 시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으며, 동시에 TV시청을 통해 수면을 이루는 경향을 증가시켜 더 늦은 취침시간과 더 짧은 수면 시간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엑셀만스 & 반 덴 볼크(Exelmans and Van den Bulck), 2018).

### (5) 성별에 따른 차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 모두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인다. 진로 스트레스와 학업 소진의 탈진에서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세진·이신동, 2020), 김지영(2024)에서도 여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과 회피적인 대처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태은·이유리, 2015).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높았다. 남학생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기에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았지만, 여학생은 의사소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이 높았다(홍은경·이혜림, 2018). 정준수 외(2019)에서도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중독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박순주 외, 2014), 남자 대학생과 달리 여자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을 때 소셜네트워크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우울을 덜 경험했다(전신현, 2012).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여러 변인들을 통해 잠재집단으로 나눈 이채연 외(2020)에서 성별과

학년만이 집단을 나누는 요인이 되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중간 수준 학업스트레스와 스마트폰 몰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면 시간이 더 짧거나 긴 수면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살사고도 높았다(홍영경 · 이무식, 2020).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수면잠복기 문제와 야간 각성 빈도가 많았으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차이 & 리(Tsai and Li), 2004).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가 높았으며, 이로 인한 수면부족 역시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훈, 2019).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신적 · 신체적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지만, 남학생의 경우 운동여부가, 여학생의 경우 음주여부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정 · 정미영, 2018).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휴학 증으로 응답한 35부를 제외하고 남자 대학생 207부(49.6%)와 여자 대학생 210부(50.4%)로 총 417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남자 대학생 207명의 평균 연령은 23.04세(SD=2.64)였다. 학년분포는 1학년 40명(19.3%), 2학년 33명(15.9%), 3학년 50명(24.2%), 4학년 76명(36.7%), 5학년 이상 8명(3.9%)이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49명(23.7%), 자연과학계열 24명(11.6%), 예체능계열 11명(5.3%), 공학계열 67명(32.4%), 농학계

열 10명(4.8%), 사범계열 10명(4.8%), 상경계열 26명(12.6%), 보건계열 10명(4.8%)이었다. 지역은 수도권 71명(34.3%), 경상도 94명(45.4%), 전라도 12명(5.8%), 충청도 21명(10.1%), 강원도 8명(3.9%), 제주도 1명(0.5%)이었다.

여자 대학생 210명의 평균 연령은 21.74세(SD=2.29)였다. 학년분포는 1학년 41명(19.5%) 2학년 34명(16.2%), 3학년 43명(20.5%), 4학년 81명(38.6%), 5학년 이상 11명(5.2%)이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78명(37.1%), 자연과학계열 29명(13.8%), 예체능계열 14명(6.7%), 공학계열 29명(13.8%), 농학계열 5명(2.4%), 사범계열 6명(2.9%), 상경계열 28명(13.3%), 보건계열 20명(9.5%), 기타 1명(0.5%)이었다. 지역은 수도권 65명(31.0%), 경상도 106명(50.5%), 전라도 7명(3.3%), 충청도 24명(11.4%), 강원도 6명(2.9%), 제주도 2명(1.0%)이었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G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GIRB-A22-Y-0036)의 승인을 받은 후,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한 320명, 구글 웹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31명, 오프라인 설문조사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2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1차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온라인 리서치회사를 통해 5일간 이루어졌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가 최소 200이상 이어야 하지만(배병렬, 2014), 남녀 각각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1차 조사에서 표본크기를 충족시키지 못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 연구자의 직접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12일간 이루어졌다. 1차 표집은 성별에 따른 할당표집이었고, 2차 표집은 지역(경상권)내 접근 가능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이었다.

### 3) 측정 도구

#### (1) 대학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경구·김교현·이준석(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중요도와 경험빈도를 파악한 뒤 문항이 제작되었으나 연구 대상자들이 중요도와 경험빈도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는 이지영(2007)의 연구를 근거로 중요도를 제외한 경험빈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로 '취업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는 이성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수관계,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총 8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문제, 장래문제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0.89이었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학업문제 0.85, 장래문제 0.85이었다.

#### (2)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바이시 외(Buysse et al., 1989)가 개발한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손 외(Sohn et al., 201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수면의 질 척도(Korea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평소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점수는 0~21점으로 6점 초과일 경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poor)으로 분류한다. 원 척도에서는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잠복기, 수면시간,

수면효율, 수면방해, 수면제 약물 복용, 주간 기능장애 총 7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0.56이었다. 하위요인 중 문항 수가 충분한 수면방해의 Cronbach's  $\alpha$ 는 0.69이었다. 수면잠복기 Cronbach's  $\alpha$  0.79, 주간 기능장애 Cronbach's  $\alpha$  0.54이나 두 요인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하위요인은 단일문항 또는 계산식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신뢰도를 산출하지 않았다.

### (3)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6)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총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0.89였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조절실패 0.92, 현저성 0.82, 문제적 결과 0.71이었다.

### (4)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탕니, 바우마이스터 & 분(2004)이 개발한 단축형 척도(the Brief Self-Control Scale, BSCS)를 최화영(2015)이 번안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나는 유혹을 잘 견딘다.'와 같은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0.85이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7과 AMOS22를 사용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이상치를 살펴보았다. 웨스트, 핀치 & 커랜(West, Finch and Curran, 1995)의 왜도 절대값 2 이상, 첨도 절대값 7 이상이 아닌 경우 추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하기에 앞서 단일 요인인 자기통제력을 러셀 외(Russel et al., 1998)의 제안에 따라 3개의 문항 꾸러미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하위요인이 많아 모델핏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질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다섯째, 모형검증을 위해 앤더슨 & 거빙(Anderson and Gerbing, 1988)이 제안한 2단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는 1단계에서 측정모형을 추정한 뒤,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배병렬, 2014).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간명도, 해석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GFI, CFI, TLI, RMSE)를 확인하였다. 적합도를 검토한 뒤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최종모형에 대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슈라우트 & 볼저(Shrout and Bolger, 2002)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집단별 원자료에서 각각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5,000개의 표본 추정치를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의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찬(Chan, 2007)이 제안한 팬텀변수를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1) 집단 간 차이분석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간에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 대학생활 스트레스( $t=-2.64, p<.01$ ), 자기통제력( $t=2.74, p<.01$ ), 스마트폰 과의존( $t=-3.6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수면의 질( $t=-0.09, p>.05$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고, 자기통제력이 낮았다. 수면의 질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1>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간 차이분석

(N=417)

	남자 대학생(N=207)		여자 대학생(N=210)		t	p
	M	SD	M	SD		
1. 대학생활 스트레스	1.21	.64	1.37	.62	-2.64	.009**
2. 자기통제력	3.02	.63	2.85	.62	2.74	.007**
3. 스마트폰 과의존	20.54	6.00	22.67	5.92	-3.64	.000***
4. 수면의 질	6.90	2.81	6.92	2.80	-0.09	.927

\*\*  $p < .01$ , \*\*\*  $p < .001$

#### 2)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에 관한 기술통계와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 $r=-.46, p<.0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r=.47, p<.001$ ), 수면의 질( $r=.31, p<.001$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r=-.55, p<.001$ ), 수면의 질( $r=-.28, p<.0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의 질( $r=.35, p<.001$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 $r=-.41, p<.0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r=.26, p<.001$ ), 수면의 질( $r=.28, p<.001$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r=-.51, p<.001$ ), 수면의 질( $r=-.18, p<.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의 질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왜도와 첨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두 성별 모두 측정변수의 값이 왜도 절대값 2이상, 첨도 절대값 7이상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분포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웨스트, 핀치 & 커랜, 1995).

<표 2> 성별에 따른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417)

	1	2	3	4	M	SD	왜도	첨도
남	1. 대학생활 스트레스	1			1.21	.64	.47	-.43
	2. 자기통제력	-.46***	1		3.02	.63	-.18	.11
	3. 스마트폰 과의존	.47***	-.55***	1	20.54	6.00	.11	-.55
	4. 수면의 질	.31***	-.28***	.35***	1	6.90	2.81	.10
여	1. 대학생활 스트레스	1			1.37	.62	.18	-.67
	2. 자기통제력	-.41***	1		2.85	.62	.25	.06
	3. 스마트폰 과의존	.26***	-.51***	1	22.67	5.92	-.12	-.16
	4. 수면의 질	.28***	-.18**	-.023	1	6.92	2.80	.56

\*\*  $p < .01$ , \*\*\*  $p < .001$

〈표 3〉 성별에 따른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

(N=417)

	1	2	3	4	5	6	7	8	9	10	M	SD	왜도	침도
남	1	1									1.13	.74	.40	-.63
	2	.60***	1								1.29	.70	.34	-.40
	3	-.32***	-.33***	1							3.01	.66	-.18	.04
	4	-.42***	-.45***	.76***	1						3.01	.74	-.05	-.05
	5	-.39***	-.38***	.74***	.74***	1					3.04	.66	.04	.03
	6	.35***	.31***	-.42***	-.43***	-.42***	1				7.31	2.58	-.20	-.76
	7	.34***	.35***	-.43***	-.45***	-.36***	.69***	1			6.57	2.21	.27	-.52
	8	.39***	.37***	-.44***	-.44***	-.37***	.44***	.57***	1		6.66	2.33	.82	.12
	9	.22**	.18*	-.79**	-.13	-.16*	.16*	.19**	.18**	1	3.52	1.46	.28	-.63
	10	.29***	.28***	-.30***	-.27***	-.27***	.33***	.34***	.31***	.57***	1	3.38	1.71	.17
여	1	1									1.24	.70	.29	-.67
	2	.49***	1								1.51	.73	.12	-.70
	3	-.37***	-.31***	1							2.86	.64	.13	-.23
	4	-.30***	-.27***	.64***	1						2.84	.73	.22	-.10
	5	-.31***	-.35***	.73***	.71***	1					2.86	.74	.21	-.17
	6	.22**	.23**	-.46***	-.33***	-.44***	1				8.50	2.52	-.56	-.25
	7	.19**	.17*	-.45***	-.34***	-.44***	.74***	1			7.32	2.33	.11	-.57
	8	.15*	.16*	-.28***	-.31***	-.37***	.41***	.55***	1		6.84	2.16	.80	.83
	9	.22**	.18**	-.10	.03	-.11	-.03	.38	-.19**	1	3.43	1.45	.58	-.08
	10	.22**	.20**	-.24***	-.20**	-.78*	.06	.07	.00	.51***	1	3.50	1.76	.52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 학업문제, 2. 장래문제, 3. 자기통제력 A, 4. 자기통제력 B, 5. 자기통제력 C, 6. 조절실패, 7. 현저성, 8. 문제적 결과, 9. 수면의 질 A, 10. 수면의 질 B

### 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각 변인을 측정변수들이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측정모형 검증에 앞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일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GFI = .973, TLI = .971, CFI = .981, RMSEA = .052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 간 비교 가능한 표준 모형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성별을 나누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남자 대학생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 = .965, TLI = .981, CFI = .988, RMSEA = .043으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잠재변수별 요인부하량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표 5). 여자 대학생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 = .948, TLI = .941, CFI = .962, RMSEA = .071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잠재변수별 요인부하량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표 5).

〈표 4〉 성별에 따른 측정모형 적합도

(N=417)

구분	CMIN	df	p	GFI	TLI	CFI	RMSEA
남	40.130	29	.082	.965	.981	.988	.043
여	59.828	29	.001	.948	.941	.962	.071

〈표 5〉 성별에 따른 측정모형 요인부하량

(N=417)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B	β	S.E.	C.R.	p	B	β	S.E.	C.R.	p	
대학생활 → 학업문제	1	.77				1	.71				
스트레스 → 장래문제	.96	.77	.124	7.685	***	1.01	.68	.176	5.718	***	
자기 통제력	→ 자기통제력 A	1	.86			1	.83				
	→ 자기통제력 B	1.15	.88	.073	15.823	***	1.07	.78	.085	12.539	***
	→ 자기통제력 C	.99	.85	.066	15.036	***	1.25	.90	.087	14.381	***
스마트폰 과의존	→ 조절실패	1	.78			1	.81				
	→ 현저성	.95	.86	.085	11.216	***	1.05	.92	.089	11.823	***
	→ 문제적 결과	.76	.66	.084	9.092	***	.62	.58	.073	8.470	***
수면의 질	→ 수면의 질 A	1	.58			1	.70				
	→ 수면의 질 B	1.48	.98	.339	4.356	***	.95	.73	.245	3.880	***

\*\*\* p < .001

#### 4)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를 통해 수면의 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각각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자 대학생 집단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GFI = .965, TLI = .981, CFI = .988, RMSEA = .043으로 자료가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활 스트레스에서 수면의 질로 가는 경로, 자기통제력에서 수면의 질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했다(표 6).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beta=.24$ )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beta=.19$ )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고, 자기통제력과 수면의 질( $\beta=.12$ )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표 7).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을 거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거쳐 수면의 질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거쳐 수면의 질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했다(표 8).

〈표 6〉 남자 대학생 구조모형 경로계수

(N=207)

			B	$\beta$	S.E.	C.R.	P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통제력	-.60	-.58	.10	-6.33	***
	→	스마트폰 과의존	.89	.32	.29	3.05	**
	→	수면의 질	.10	.19	.06	1.64	.100
자기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1.14	-.42	.26	-4.35	***
	→	수면의 질	-.02	-.04	.05	-.43	.668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05	.29	.02	2.34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남자 대학생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N=207)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통제력	-.58***	-	-.58***
대학생활 스트레스	→ 스마트폰 과의존	.32**	.24**	.56***
대학생활 스트레스	→ 수면의 질	.19	.19**	.38***
자기 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42**	-	-.42**
자기 통제력	→ 수면의 질	-.04	-.12*	-.17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29*	-	.2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8〉 남자 대학생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N=207)

경로				Estimate	Lower	Upper	P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 통제력	→ 수면의 질		.013	-.052	.093	.583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 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686	.377	1.125	**
대학생활 스트레스	→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048	.011	.139	**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 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037	.008	.090	**

\*\*  $p < .01$

여자 대학생 집단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GFI = .948, TLI = .941, CFI = .962, RMSEA = .071로 자료가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으로 가는 경로,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로 가는 경로,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만 유의했다(표 9). 간접효과를 살펴 보았을 때,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beta=.30$ )만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표 10).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을 거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만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고,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을 거쳐 수면의 질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남자 대학생은 <그림 2>와 같고, 여자 대학생은 <그림 3>과 같다.

<표 9> 여자 대학생 구조모형 경로계수

(N=210)

		B	$\beta$	S.E.	C.R.	P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통제력	-.57	-.54	.11	-5.15	***
	→ 스마트폰 과의존	.03	.01	.26	.11	.911
	→ 수면의 질	.28	.41	.10	2.73	**
자기 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1.33	-.56	.26	-5.07	***
	→ 수면의 질	-.08	-.13	.09	-.92	.359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05	-.20	.03	-1.73	.084

\*\*  $p < .01$ , \*\*\*  $p < .001$

<표 10> 여자 대학생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N=210)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통제력	-.54***	-	-.54***
대학생활 스트레스	→ 스마트폰 과의존	.01	.30***	.32**
대학생활 스트레스	→ 수면의 질	.41**	.01	.42***
자기 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56**	-	-.56**
자기 통제력	→ 수면의 질	-.13	.11	-.01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20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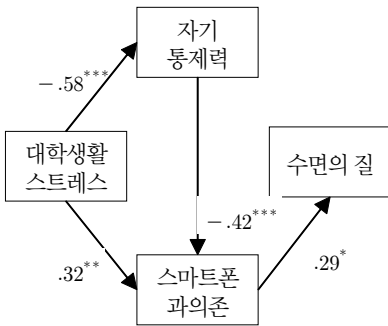
\*\*  $p < .01$ , \*\*\*  $p < .001$

〈표 11〉 여자 대학생 개별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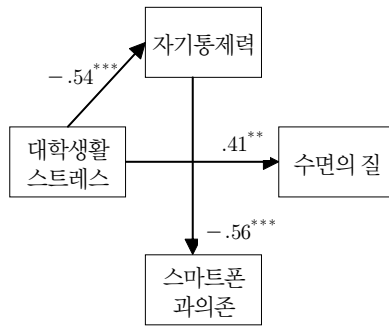
(N=210)

경로			Estimate	Lower	Upper	P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 통제력	→ 수면의 질	.046	-.096	.180	.360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 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765	.454	1.255	***	
대학생활 스트레스	→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002	-.062	.028	.673	
대학생활 스트레스	→ 자기 통제력	→ 스마트폰 과의존	→ 수면의 질	-.041	-.133	.009	.127

\*\*\*  $p < .001$



〈그림 2〉 남자 대학생 결과 모형



〈그림 3〉 여자 대학생 결과 모형

####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수면의 질과 연관된 변인들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면의 질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은 여자 대학생이, 자기통제력은 남자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이상희, 2018; 박세진·이신동, 2020; 이채연 외, 2020; 김인수, 2023; 김지영, 2024; 김혜경, 2024)와 일치하며, 여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남학생보다 낮았다는 연구(최영아·김희화, 2011)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오진실·임정하(2023)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의 질이 단순한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스트레스 수준, 개인의 내적 특성, 스마트폰 사용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에 이르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달랐다는 점은 수면의 질 자체에는 남녀 차이가 없더라도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메커니즘은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남자 대학생의 구조적 모형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통제력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기통제력 고 같이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엑셀만스 & 반 덴 불크(201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자기통제력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 기존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범죄, 흡연, 중독, 알코올과 관련성을 확인했다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면과 같은 인간의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자기통제력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른 변인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순차적

으로 거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정선희·박종, 2013; 강현임·이영란·황주희, 2017; 김지연·최승미, 2019; 박정훈, 2019; 설필란·이성희, 2021; 린 & 칭 2022). 여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순차적으로 거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은 증가하였으나,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박마리·정구철(2021)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몇 가지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수면의 어려움에 대한 성별 차이일 수 있다. 양난미·김보경·정나희(2024)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을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질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수면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남성의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 변수는 커피, 낮잠, 스마트폰 중독 그룹에 속함 등이었던 반면에 여성의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 변수는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 흡연, 스트레스 등이었다(장 & 최(Chang and Choi, 2016). 둘째,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콘텐츠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주로 게임 및 오락의 목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지만, 여자 대학생의 경우 소셜네트워킹,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적 접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전신현, 2012; 박순주 외, 2014; 홍은경·이혜림, 2018; 추

연기·김해인·배원식, 2022), 인터넷 게임 중독과 휴대폰 중독은 수면 부족에 영향을 미쳤지만, SNS는 수면 부족과 상관이 없었다(김보연·서경현, 2012). 남자 대학생의 경우 높아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게임, 오락과 같은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학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낮아진 자기통제력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어져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으로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기보다 자기통제력의 저하로 인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접촉을 위한 SNS의 활용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류설리·공용배·장예빛, 2014). 사회적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SNS, 채팅, 통화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지속적인 이용시간의 증가는 곧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전호선, 장승옥, 2014). 또한 SNS상의 행복한 타인의 모습과 반대로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자괴감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김정애·조의영, 2016). 이러한 결과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보다는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가중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기대나 역할 규범에 의한 차이일 수 있다. 남성에 대한 성역할 기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제연화·심은정, 2015). 이로 인해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대학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지지망과 정서적 교류를 활용해 완충효과를 얻을 수 있다(전신현, 2012).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직장 내 성차별과 같은 구조적 요인은(연합뉴스, 2025) 장래를 준비하는 여자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

로 작용하여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이, 여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다름을 보여주며, 향후 연구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 자기 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봤을 때,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거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단순한 충동억제 능력을 넘어 수면과 같은 생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의 관계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과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자기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입방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통제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 중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권은정·장승욱, 2016). 이에 따라, 남자 대학생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자기통제력 부족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 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변화시키는 상담 개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이정화·손정락,

2008). 여자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반응성 및 대처방식의 차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조절보다는 회피적 대처에 의존하는 경향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수용전념치료(ACT)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지 않고 수용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회피를 인식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 및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유화경·손정락, 2016). 다만 이러한 개입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내담자의 개별적 상황과 경험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1, 2차 설문은 시기와 표집방법에 차이가 있다. 1차 설문은 방학 중 성별에 따른 할당표집으로 모집되었으며, 2차 설문은 학기 중 연구자가 직접 접근 가능한 지역의 편의표집으로 모집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적 편중은 대학생의 생활환경이나 스트레스 요인, 수면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표집방법을 일치시키고, 동일 대상을 동일 시점으로 나누어 검사-재검사를 통해 학기 중과 방학에 느끼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학년 분포에서 남녀 모두 4학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졸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년 간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전공 분포에서도 남학생은 공학계열, 여학생은 인문사회계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공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을 수 있다. 아울러 본 연

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음주 및 카페인 섭취, 우울 수준 등 잠재적 교란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과 전공을 보다 균형 있게 표집하고, 주요 생활 습관 및 심리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과의존에 대해서 측정하였을 뿐,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스마트폰은 메신저, 영상, SNS, 게임, 인터넷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 성별에 따라 사용목적과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은 게임이나 영상 시청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가 많아(김보민 외, 2020) 이로 인한 각성 상태가 유발되어 수면의 질이 방해 받을 수 있는 반면, 여학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가 사회적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중심으로 활용할 경우 정신적 안정감에 기여하여(전신현, 2012; 정신철, 2025)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 주된 콘텐츠가 무엇인지, 어떻게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가 달랐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에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유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는 문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수면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스마트폰을 작성한 인원이 남자 대학생의 경우 9명이었지만, 여자 대학생의 경우 2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생각이 많음, 고민이나 반추를 작성한 인원이 여자 대학생의 경우 14명이었지만, 남자 대학생의 경우 4명에 불과했다. 응답한 인원이 적지만, 남녀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고, 특히 여성이 반추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이동훈 외, 2017)에 따라 여자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1) 국내문헌

- 강현임, 이영란, 황주희.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2): 1-23.
- 고유미, 최가희. 2020.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1(3): 91-116.
- 구혜경. 2021. “코로나19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와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관계: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문화기술의 융합』 7(4): 591-597.
- 권은정, 장승욱. 2016.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자기통제력 증진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55(1): 87-122.
- 김강도, 남주희, 박규병, 방희정, 임지훈, 김지혁. 2021.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수면장애의 상관관계.” 『대한건강과학회지』 18(1): 1-10.
- 김교현. 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 김기웅, 정은교, 박해동, 김갑배, 강준혁, 노지원, 서희경. 2017. “전자제품 제조업 교대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과 피로도 차이.”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7(2): 138-148.
- 김동희. 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스트레스研究』 24(2): 57-64.
- 김보민, 김지은, 김희진, 문소연, 문재민, 송지원, 양다경, 이서연, 정유담, 허혜빈, 배성희. 2020. “대학생의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의 질 간의 관계.” 『이화간호학회지』 54: 57-74.
- 김보연, 서경현. 2012. “고등학생의 폰 중독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 스트레스 반응: 수면부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385-398.
- 김성혜. 2016.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研究』 24(3): 103-113.
- 김세희, 민지원, 박부경. 2019.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4): 112-120.
- 김영은, 박기환. 2023.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과 학업지연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 705-718.
- 김인수. 2023.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목표성향과 노력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

## 240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수면의 관계

- 국체육교육학회지』 28(3): 163-174.
- 김자숙, 박아영, 김종혁. 2023.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1(10): 81-89.
- 김정애, 조의영. 2016.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16(3): 187-201.
- 김종임. 2020. “간호대학생의 사회성,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4): 100-108.
- 김지연, 최승미. 2019.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불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6(3): 361-380.
- 김지영. 2024.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수면의 질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18(1): 205-212.
- \_\_\_\_\_. 2024. “흡연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6(1): 47-58.
- 김진애. 202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학업소진,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보건상담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16. “대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적응의 관계: 자기 통제력과 건강강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17(1): 81-100.
- 김혜경. 2024.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및 정서표현억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8): 653-663.
- 김희영, 이창현. 2023. “지각된 스트레스와 수면 간의 관계: 경험회피와 걱정의 순차 이중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1): 1637-1652.
- 김희영. 2025. “대학생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행동중독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20(2): 295-301.
- 김희정. 2023.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6(2): 210-217.
- 노효련. 2017.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수면 유형, 수면의 질 간의 관계 분석: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1011-1024.
- 류설리, 공용배, 장예빛. 2014. “대학생 집단의 SNS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성격, SNS 이용행태, SNS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2(3): 23-40.
- 박마리. 정구철. 2021. “청소년들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반추

- 사고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1): 216-222.
- 박민정, 정미영. 2018.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과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6(9): 187-195.
- 박세진, 이신동. 2020.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사회부와 완벽주의 및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245-1264.
- 박세현, 최영호, 유수타카 바바, 선상원, 이창제, 곽태수, 김경옥, 김형호. 2021. “주변 온도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산유체역학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45(11): 597-604.
- 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289-297.
- 박영식, 김순희. 202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1-11.
- 박영주, 이춘엽. 2023.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수면의 질 관련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6): 211-219.
- 박정훈. 2019.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시간과 수면부족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9): 311-320.
- 박혜경, 권재환. 2019.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6(2): 131-148.
- 배병렬. 『2014.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백준호, 서미아. 2023. “대학생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5): 136-149.
- 서형석. 2024.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필란, 이성희. 2021.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사이버불링 경향성과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576-585.
- 안주아. 2024.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11): 768-775.
- 양남미, 김보경, 정나희. 2024. “청년 직장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우울의 관계: 수면어려움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젠더와 문화』 17(1): 249-280.
- 양현주. 2021.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분리, 자기통제력, 학교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

- 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7(4): 85-93.
- 오진실, 임정하. 2023. “대학생의 수면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30(2): 79-92.
- 유화경, 손정라. 2016. “수용전념치료(ACT)가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자기 조절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415-426.
- 윤미은, 강병용, 박은비, 김선희, 김수진, 윤선미, 이금선. 202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생활습관, 우울, 그리고 수면의 질.” 『비즈니스융복합연구』 9(4): 241-248.
- 윤주영, 문지숙, 김민지, 김예지, 김현아, 허보름, 김재언, 정선이, 정지은, 정현지, 이은하, 최정혜, 홍서영, 배정어, 박현주, 홍희정. 20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3(2): 92-104.
- 이나연, 송연주, 전상은, 이수경. 2014. “청소년의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수면의 질과의 관련성.” 『간호와 보건과학』 18(2): 1-14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성별에 따른 외상사건 경험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227-253.
- 이상희. 2018.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3(1): 11-17.
- 이성식, 류수민, 임수경. 2022. “낮은 자기통제력의 스마트폰중독을 통한 사이버범죄 영향의 매개과정 모형구성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401-411.
- 이숙영, 유성모, 양현정. 2025.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메타 분석적 경로분석: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 931-945.
- 이영주, 박주현. 2014. “이용 동기와 자기 통제력 및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8): 459-465.
- 이용숙, 이수현. 2019. “삶의 중요한 일부로서의 스마트폰: 직장인·대학생 대상 설문 조사와 여자대학생 대상 현장연구.” 『비교문화연구』 25(1): 211-267.
- 이정화, 손정라. 2008. “게임중독 고등학생의 중독 수준과 자기통제력, 우울감 개선을 위한 집단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스트레스연구』 16(4): 409-417.
- 이지영. 2007.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관한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연, 엄정호, 강한별, 이상민. 2020.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따른 잠재집단탐색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 221-235.
- 임영순, 노기욱. 2020.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6(2): 57-64.
- 전경규,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전신현. 2012.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소셜네트워크의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와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3(4): 5-25.
- 전호선, 장승욱. 2014. “스트레스와 우울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103-129.
- 정다영, 손한울, 임윤희, 문채원, 이해운, 오유경, 김민재, 김주이. 2022.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용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12): 474-484.
- 정선희, 박종. 2013.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8(2): 345-353.
- 정신철. 2025 “SNS 이용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 4(1): 48-59.
- 정은자, 이유미. 2020. “간호대학생들의 피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관계.” 『문화기술의 융합』 6.(4): 311-316.
- 정준수, 최은혜, 현예린, 김지예, 김봉년, 박수빈, 박민현. 2019. “성별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수면 양상의 차이.” 『사회정신의학』 24(2): 58-66.
- 제연화, 심은정. 2015. “2/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31-952.
- 조민은, 황선경. 2021. “백색소음이 입원 환자의 수면에 미치는 효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성인간호학회지』 33(1): 44-55.
- 조영신, 정선애. 2023. “중환자실 환자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계적 고찰.” 『중환자간호학회지』 16(2): 1-14.
- 조영은, 권정혜. 2012. “불면증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지과정의 통합 모형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135-150.
- 최영아, 김희화. 2011.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자

- 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9): 285-308.
- 최윤희. 2022. “수면 개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매의도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51(9): 985-996.
- 최태은, 이유리. 2015. “대학생활스트레스, 회피대처, 정신건강의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6(2): 63-88.
- 최형준, 김진숙. 2020.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매개효과와 대인불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4): 781-796.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 기호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연기, 김해인, 배원식. 2022.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성별 차이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관련 주요 요인 분석.” 『대한통합의학회지』 10(2): 135-143.
- 홍영경, 이무식. 2020. “우리나라 성인에서 수면시간이 정신증상,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5): 372-383.
- 홍은경, 이혜림. 2018.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와의 관련성.”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16(3): 1-10.
- 홍은경. 2024.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범불안장애 심각도에 따른 수면 시간의 차이.”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22(2): 29-39.

## (2) 국외문헌

-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umeister, R. F. and Heatherton, T. F. 1996. “Self-Regulation Failure: An Overview.” *Psychological Inquiry* 7(1): 1 - 15.
- Buysse, D. J., Reynolds III, C. F., Monk, T. H., Berman, S. R. and Kupfer, D. J. 1989.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 new instrument for psychiatric practice and research.” *Psychiatry research* 28(2): 193-213.
- Cain, N. and Gradisar, M. 2010. “Electronic media use and sleep in school-aged children

- and adolescents: A review.” *Sleep Medicine* 11(8): 735-742.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2): 326-346.
- Chang, A. K. and Choi, J. 2016. “Predictors of sleep quality among young adults in Korea: gender differenc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7(12): 918-928.
- Cho, H. Y., Kim, D. J., and Park, J. W. (2017). “Stress and adult smartphone addiction: Mediation by self control,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Stress and Health* 33(5): 624-630.
- Doghramji, K., Grewal, R. and Markov, D. 2009.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insomnia in the psychiatric setting.” *Focus* 7(4): 441-454.
- Exelmans, L. and Van den Bulck, J. 2018. “Self-control depletion and sleep duration: the mediating role of television viewing.” *Psychology & health* 33(10): 1251-1268.
- Goeders, N. E. 2003. “The impact of stress on addiction.”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13(6): 435-441.
- Gooley, J. J., Chamberlain, K., Smith, K. A., Khalsa, S. B. S., Rajaratnam, S. M. W., Van Reen, E., Zeitzer, J. M., Czeisler, C. A. and Lockley, S. W. 2011. “Exposure to room light before bedtime suppresses melatonin onset and shortens melatonin duration in humans.”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96(3): E463-E472.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azarus, Richard S. and Susan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 Comp.
- Lemieux, A. and al'Absi, M. 2016. “Stress psychobiology in the context of addiction medicine: from drugs of abuse to behavioral addictions.” *Progress in Brain research* 223: 43-62.
- Lin, S. Y. and Chung, K. K. H. 2022. “Chronotype and trait self-control as unique predictors of sleep quality in Chinese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sleep hygiene habits and bedtime media use” *PLoS One* 17(4): e0266874
- Liu, Q. Q., Zhou, Z. K., Yang, X. J., Kong, F. C., Sun, X. J. and Fan, C. Y. 2018. “Mindfulness and sleep quality in adolescents: Analysis of rumination as a

- mediator and self-control as a moder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2: 171-176.
- Maier, S. U., Makwana, A. B. and Hare, T. A. 2015. “Acute stress impairs self-control in goal-directed choice by altering multiple functional connections within the brain’s decision circuits.” *Neuron* 87(3): 621-631.
- Moilanen, K. L., DeLong, K. L., Spears, S. K., Gentzler, A. L., and Turiano, N. A. 2021. “Predictors of initial status and change in self-control during the 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3: 101235.
- Ong, J. C. 2017. *Mindfulness-based therapy for insomni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ssel, D. W., Kahn, J. H., Spoth, R. S. and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maha, M. and Hawi, N. S. 2016.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21-325.
- Sanford, L. D., Suchecki, D. and Meerlo, P. 2014. “Stress, arousal, and sleep.” *Sleep, neuronal plasticity and brain function* 379-410.
- Shrout, P. E. and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hn, S. I., Kim, D. H., Lee, M. Y. and Cho, Y. W. 201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leep and Breathing* 16(3): 803-812.
- Tangney, J. P., Baumeister, R. F. and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Tsai, L.-L. and Li, S.-P. 2004. “Sleep patterns in college students: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6(2): 231 - 237.
- West, S. G., Finch J. F. and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R. H. Hoyle(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56-75.

Yin, Z., Yang, C., Liu, T., Yu, J., Yu, X., Huang, S. and Zhang, Y. 2024.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sleep q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chain-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mobile phone addiction." *PloS One* 19(12): e0315930.

### (3)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지역별 정신질환·불면증 진료현황(2020~2024년)>.

김정훈. 2025. "쉬었음' 청년 50만 명 넘어서... 청년 고용률 49개월 만에 최대 낙폭." <조선일보>. 2025.3.1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12/RYNZ7HLF3JCOJKSPPE4VJMSTEE/](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12/RYNZ7HLF3JCOJKSPPE4VJMSTEE/) [검색일: 2025.10.20.]

이진한. 2025. "OECD 평균보다 18% 부족한 한국인 수면시간...수면 건강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동아일보>. 2025.3.12.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50312/131189250/1> [검색일: 2025.4.5.]

최원정. 2025. "직장인 70% '女임원 되기 힘든 사회... 성차별 조직문화 D등급." <연합뉴스>. 2025.10.12.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2015000004?input=1195m> [검색일: 2025.1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6.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 <https://library.nia.or.kr/library/10110/contents/7055382> [검색일: 2022.03.0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tblIdx=65914](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tblIdx=65914) [검색일: 2024.12.13.]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Sleep Quality by Gender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Shin, HyeonWo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Yang, NanM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students today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academic demands and future career concerns, which may lead to decreased self-control,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poor sleep quality. However, research that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is limited.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life stress, self-control,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sleep quality, and to identify gender differences in these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from 452 male and female students enrolled in four-year universities, and a total of 417 responses (207 male and 210 female studen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college life stres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while male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elf-control.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was found in sleep quality.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sleep quality was significant only among male students. Third, in the male student group, a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 was observed in which college life stress influenced

sleep quality through self-control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However, this sequential mediating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the female student group.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athways through which college life stress affects sleep quality differ by gender.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need for gender-specific approaches to sleep management and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was discussed.

**Key words:** gender, college life stress, self-control,  
smartphone overdependence, sleep quality

- ┃ 투 고 일 : 2025년 8월 29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11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8일



# 횡단하는 물질과 여성의 몸 궤적

- 초기 성인기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

추지현\*\*

## | 목차 |

1. 문제 제기: 약물, 신체, 여성의 관계
2. 이론적 자원과 연구 방법
  - 1) 이론적 자원  
: 횡단-신체성과 몸 궤적
  - 2) 연구 자료 및 방법
3. 약물에의 이끌림과 몸의 경향성
  - 1) 젠더화 된 고통의 침습  
: “나도 모르게” 몰두한 재미
  - 2) 노동과 유희 사이  
: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
4. 약물의 배치
  - 1) 약물의 불확정성과 이성애 섹스
  - 2) 의료용 약물과 의료 지식
5. 약물의 이탈적 작용능력과 새로운 몸 궤적 출현
  - 1) 약물 경제의 남성중심성  
: “꼬마(로) 잡히기”
  - 2) 긴장 속의 쾌락과 몸의 이탈  
: 성적 낙인과 거부
6. 결론

## | 초록 |

본 연구는 여성의 몸을 다양한 물질, 제도, 담론이 가로지르고 변화하는 횡단-신체성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를 분석했다. 여성의 몸에 축적된 기억과 습관 등 몸 궤적이 약물을 둘러싼 비/인간 행위자들의 배치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했다.

여성폭력의 피해, 반복된 성/노동으로 인한 고통의 침습은 외로움과 무료함을 위무할 이성애 파트너십과 즉각적 자극 추구, 긴장과 각성에 익숙해지는 몸의 경향성을 만

\* 이 논문은 2025년도 서울대학교 SNU 10-10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임.  
연구수행을 도와주신 회복공동체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chooja2@snu.ac.kr

들었다. 이러한 몸은 유흥과 의료의 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배치에 따라 약물의 쾌락을 상이하게 만들어냈다. 하지만 남성중심적 약물 경제와 섹슈얼리티 질서는 여성들에게 긴장을 야기했고, 이를 통해 약물로부터 이탈하려는 새로운 몸 궤적이 출현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몸 궤적과 약물의 횡단 과정에 주목할 때, 약물은 인간의 통제 대상 혹은 약리적 효과로 환원되는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을 소환하는 능동적 행위자가 된다.

**주제어 :** 약물, 몸, 궤적, 횡단-신체성, 나르코-페미니즘

## 1. 문제 제기: 약물, 신체, 여성의 관계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대응을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25년 1월 발표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은 투약 사범에 대한 사범-치료-재활 연계의 활성화, 대상별 맞춤 교육 및 관리 강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때 인간은 처벌과 교육을 통해 약물<sup>1)</sup>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 혹은 의료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약물에 정복된 신체로 조망된다. 이 맞춤형 개입 대책에서는 젠더화된 몸 역시 보이지 않는다.<sup>2)</sup> UNODC가 여성의 마약류 사용이 남성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독의 여성화(feminization of addiction)’ 상황을 문제화하고 있음에도 말이다(UNODC, 2024:58).<sup>3)</sup>

1)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2., 법률 제20878호, 2025.4.1. 일부개정)에 따른 “마약류”란 ①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의 마약, ②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서 향정신성의약품, ③대마를 일컫는다. 반면 “약물”(drug)은 이와 같이 불법 약물로 정의된 “마약류”(narcotics) 이외에도 진통, 수면 효과를 가진 일반의약품이나 알코올, 니코틴 등 신경활성을 일으키는 물질(ps psychoactive substance)을 포괄한다. 이하에서는 그 용례를 따른다.

2)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대상은 수용자, 외국인 및 군인으로 구획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젠더중립적 외양의 약물 규제 정책이 가져온 효과를 설명해왔다. 1960년대 이래 금지주의 약물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온 영미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여성에 대한 전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약물 규제는 여성의 몸에 대한 더 넓은 감시와 통제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Gelthorpe, 2010; Castillo, 2019; Nagel & Johnson, 1994; Britton, 2011). 예컨대 크랙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그 위험 집단으로 타겟팅된 것은 임신 부들이었고(Nagel & Johnson, 1994), 약물 사용을 어머니 노릇의 실패로 바라보는 관점은 낙태, 아동학대 등을 명분으로 여성에 대한 감시와 입건을 확대했다(Britton, 2011). 형사절차 진행이나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여성들의 몸이 약물 검사나 신체 검사의 대상으로 놓이는 상황의 확장은 생식권과 모성에 대한 생명정치적 감시로 평가되고 있다(Campbell, 2002; Campbell & Ettore, 2011; Paltrow & Flavin, 2013; Herzberg, 2009).

그래서 약물 사용 여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나르코 페미니즘(Narco-feminism)은 처벌과 의료 중심의 정책이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면화한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약물 유통이 폭증하고 형벌 중심의 강력한 금지주의 정책이 시행되어 온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상황을 앞서 경험해 온 영미권의 여성들과 함께 약물 정책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약물이 성애화 된 존재로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 맺기나 자기 돌봄(self-care)<sup>4)</sup>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주류 페미니즘조차 약물 사용시 여성들이 느끼는 쾌락이 무엇인지 외면하는 도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여성의 비율은 2배 이상, 그 인원은 남성의 1.5배보다 훨씬 많은 7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했다(대검찰청, 2025).

4) 남성 및 이성애 중심의 현행 젠더 관계에서 약물 사용을 통한 섹슈얼리티 실천을 통해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온 쾌락 추구가 해방적이고 타자와의 관계를 긍정하는 자기 돌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Clay, 2024).

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몸에 대한 자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Dennis et al., 2023; Chang, 2023; Eleonoradotter, 2024; Chang, 2019).

약물 사용을 둘러싼 지식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규명하려는 이른바 비판적 약물 연구(Critical Drug Studies)들은 여성 약물 사용자들의 쾌락을 간과하는 것이 여성들의 취기(intoxication)를 성적 수치와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약물 사용이 가져오는 쾌락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고 여성의 약물 사용이 문제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Walker, 2021).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들의 약물 사용이 폭력 피해의 트라우마, 빈곤 및 양육 부담,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주변화, 의료 접근성 제약 등 젠더 불평등을 통해 야기되고 있음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개진되고 있다(Coppel & Perrin, 2024; Buer et al, 2016; Covington, 2007; Ettore, 2007). 한국의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3년간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형이 확정된 사건 대상자 554명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졸피뎀, 케타민, 프로포폴, 디아제팜 등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에 기능이 있는 약물을 남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다(전영실 외, 2017). 약물에 대한 첫 특성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최면진정제, 향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오남용에 취약한 여성들의 삶을 보고하고 있고, 동시에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의 처방을 권하는 젠더화 된 몸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김새롬 외, 2024). 그 밖에도 기지춘을 포함한 성매매 현장에서 그 사용을 강요당하거나 성노동을 견디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게 된 여성들의 상황(김지선 외, 2014; 이재임, 2025), 술이나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물뽕”) 등 약물 이용 성폭력 피해의 문제(김정연, 20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일찍이 리사 마허는 약물 사용 여성을 젠더와 교차하는 인종, 계급 등 사회 구조의 피해자로서만 조망하는 관점은 물론 여성의 행위성과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관점 모두 구체적인 약물 경제의 공간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Maher, 1997). 영국의 페미니스트 범죄학자인 피오나 미샴 역시 여성들에게 약물 사용은 그저 젠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협상적 실천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연출이 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쾌락을 불온하게 여기는 젠더 규범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doing drug)은 젠더를 수행하는 것(doing gender)이라 주장하기도 했다(Measham, 2002).<sup>5)</sup>

약물을 여성의 쾌락 추구와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접근은 여성의 약물 사용이나 중독을 도덕적 방종이나 수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규범적 프레임을 넘어서 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동시에 여성의 약물 사용을 이끈 젠더 불평등을 강조하는 접근은 약물 사용을 젠더중립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약물을 적극적 쾌락 추구 혹은 고통으로부터의 자가치료라는 인간의 합목적적 행위 수단으로만 바라볼 경우, 약물이라는 물질이 여성의 신체라는 또 다른 물질과 만나고 서로 변화하는 과정은 간과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성과 담론적 틀을 통해 자신의 약물 사용 경험을 해석하고 대응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때 느낀 몸 감각에 따라 그 물질의 생리적 효과는 달리 나타나며 이것은 인간과 약물, 이성과 몸이 이미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Dennis, 2017; Dennis & Farrugia,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약리적이고 생리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고정된 물질로만 바라보면 약물 사용자를 도덕적 의식이나 자기

---

5) 이러한 미샴의 테제는 여성들의 약물 사용을 젠더 불평등에 따른 고통과 자가치료를 환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젠더 규범의 산물로, 반대로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난받는 클러버들의 실천을 여성성으로 환원함으로써 결국 여성이 행한 것은 여성성이라는 토틀로지를 생산하고 여성의 남성성 수행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비판, 즉 그 실천의 배치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Miller, 2014).

통제에 결함이 있는 주체 혹은 약물로 인한 뇌의 변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신체로 환원하는 지배적인 의학적, 신경과학적,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을 답습할 수 있다(Gomart, 2002; Moore, 2010; Moore & Fraser, 2006). 약물과 인간 신체가 만나는 역동적 과정을 중심으로 젠더의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본 연구는 인간과 약물, 주체와 객체, 이성과 몸,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항 대립을 넘어설 때, 여성들의 약물 사용을 보다 정치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인간의 몸을 물질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지식, 담론, 또 다른 비/인간 신체가 서로를 횡단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스테이시 앨리모의 횡단-신체성의 관점에서 약물 사용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자원과 연구 방법

### 1) 이론적 자원: 횡단-신체성과 몸 궤적

앨리모는 사회적 관계를 체현하는 동시에 이를 이탈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인간 신체의 다중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때 몸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신체의 투과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주체와 타자의 경계 안팎을 서로 넘나드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화학물질복합과민증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몸, 독성물질로 중독된 몸은 그녀가 설명하는 횡단-신체적 공간의 대표적인 예다. 화학물질은 카펫과 소파처럼 걸보기에는 불활성적인 물건들로 보이지만 그것이 야기한 기침, 피부 발진, 이에 대응하려는 외과 수술의 주사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몸 사이를 횡단하고 있다. 또한 이 물질은 그러한 신체 반응을 인간의 예민한 심리적 성

격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환경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문명에 대한 고발로 독해하려는 지식 사이도 횡단한다. 앨리모는 이 사례를 통해 물질이 사회, 경제적 영역을 횡단하며 지식과 자아의 심리적, 정치적 실천 등을 분리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적극 인용되는 것은 물질이 불변이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항들의 특정한 내부 작용(intra-action)을 통해 출현한 것이라 설명하는 바라드의 논의, 생물학적 신체와 또 다른 물질의 분리불가능한 결합을 강조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은유다. 앨리모는 이들의 논의를 통해 인간 몸이나 비인간 물질의 속성 모두 이를 둘러싼 배치에 따라 불확정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 인간 신체의 취약성은 '이미' 함께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앨리모, 2010).

인간이 언제나 그리고 이미 예측 불가능한 물질 세계의 일부라는 횡단 신체성에 대한 앨리모의 주장과 그녀가 인용하고 있는 라투르, 해러웨이, 바라드의 논의는 인간의 약물 사용이라는 사건의 출현적(emergent)이고 관계적인 존재론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을 통해 개진되고 있다. 예컨대 나르코-페미니스트인 아즈벨은 인간 경험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능동적 힘을 강조하면서 COVID-19 봉쇄가 클럽이 아닌 집으로 여성들을 모이게 했고, 그때 파티를 위한 조명과 공간 연출, 타인의 신체를 활용한 약물 사용 등이 여성들에게 친밀성과 섹스에 대한 비규범적인 정체성을 수행하는 퀴어 신체성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Azbel, 2023). 딜케스-프레인은 호주 20대 백인 남성 대학생이 음악 축제에서 MDMA를 일시 소비하는 사건을 예시로 호주의 청년 하위문화나 정부의 단속 정책처럼 구체적 시공간을 초월한 구조적 맥락이 아니라, 그의 전일제 학생 신분, 경제적 자원, 지역의 교통망 등 사건의 역동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요소들을 발견한다.

인간의 몸을 물질과 관계하는 탈인간중심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약물에 취한 상태라는 사건의 출현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얽힘에 주목하는 것은 물질의 역동성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인간 행위

자들의 공시적 연결에만 주목하면 약물 사용자인 여성들의 주관적 해석과 인간 몸이 가진 역사성이라 할 과거의 경험과 몸에 축적된 습관, 기억 등의 시간성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고(Anderson & Wylie, 2009; McCormack, 2010; Massumi, 2014), 여성 주체의 몸 경험이 가진 연속성과 지속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약물을 둘러싼 비/인간 행위자들과 담론, 지식의 횡단 경로를 추적함에 있어 시간성을 적극 고려하고자 몸 궤적에 주목한다. 제인 베넷은 인간 신체를 포함한 물질의 생기를 “그들 고유의 궤적, 성향, 경향성을 가진 준-행위자 혹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물질로서 인간 신체가 가진 생기란 인간의 의지와 의도를 때로는 흘뜨리고 차단하지만 자신만의 경향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행위자에게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과 약물이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건의 발생이란 과거에 형성된 것이 새롭게 실현되어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실현 방식에는 몸에 축적된 기억, 의도, 습관 등의 경향성(tendencies)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베넷, 2020). 마수미는 이 몸의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고 멈추기도 하기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몸에 궤적(trajectores)을 남김으로써 향후 변화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Massumi, 2009). 딜케스-프레인과 더프는 마수미가 언급한 몸 궤적을 몸이 가진 경향성이 사건 속에서 물질적, 정동적으로 표현되는 경로로서 개념화 한다. 몸의 경향성을 통해서는 시간 속에서 축적된 결과로서 주체의 연속을, 몸 궤적을 통해서는 그것이 다르게 실현되는 출현의 과정과 주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Dilkes-Frayn & Duff, 2017). 본 연구는 단일하지 않고 불확실하면서도 과거와 맞물려 출현하는 몸 궤적이 사건 속에 얽혀 있는 역사를 포착하기에 보다 용이하다고 보고 여성의 몸과 약물이 서로를 횡단하는 과정을 몸 궤적의 변화 중심으로 살펴본다.

## 2) 연구 자료 및 방법

여성들을 약물 사용으로 이끈 몸의 경향성, 그것이 약물을 둘러싼 또 다른 신체, 물질, 담론과 얽혀 여성들의 몸 궤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 보기 위해 약물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생애사 면접을 진행했다. 생애사 구술은 여성의 장기적인 삶의 전개 과정은 물론 여성들이 현재 어떠한 위치와 조건에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재구성하는지, 그 의미화 방식까지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희영, 2005)에서 몸에 축적된 경험과 해석, 실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했다.

첫 면접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 말해주세요”를 시작 질문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제한하지 않고 우선 들었다. 이후 초기 이야기를 통해 파악되지 못한 것, 예컨대 약물을 접하게 된 과정, 구체적인 약물의 사용 방법과 그 시·공간, 몸의 느낌, 약물 사용 이후 삶의 변화, 단약을 위한 시도들과 주변의 반응을 물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시간적 순서로 배열한 생애 이력, ‘살았던 생애사’, 면접 과정에서 생산된 서사의 형태로서 ‘이야기된 생애사’<sup>6)</sup>를 정리하여 현재 과거와 미래의 자신을 위치짓는 서사 방식인 생애사적 관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에게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경험됐는지 해석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하는 공동체를 통해 만났다. 한국 최초 약물 중독 치료 자활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는 이곳은 1997년 서울에서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31개

6) 로젠탈은 생애 데이터에 대한 연속적 분석으로서 ‘살았던 생애사(a life as lived), 텍스트 특성과 주제 분석으로서 ‘이야기된 생애사(a life as told), 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구성되는 ‘체험된 생애사’(a life as experienced)로 분석 수준을 구분하고 있고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한 이희영(2005)의 분석 방법을 따랐다.

의료기관 중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병상수를 갖고 있는 병원<sup>7)</sup>과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해당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지원 활동을 해 온 연구자를 통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2024년 9월부터 해당 공동체의 자조 모임, 예배당, 흡연구역, 복도, 회식 등 일상에 참여했다. 면접은 약물 사용 당사자는 물론 활동가, 당사자의 어머니와 아내 등 10명과 진행됐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당사자에 한해 생애 구술을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데 성별 이외에 고려한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령, 계층, 학력은 물론 생애 여성폭력의 피해 경험, 구치소 수감 경험 여부도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 등 초기 성인기에 마약류 사용이 시작됐다는 점,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하면서도 “강성 마약”인 필로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 출산 경험이 없다는 점은 공통됐다. 이 공동체는 신앙을 통한 회복을 도모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모두 단약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면접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까지 그들이 일상을 보내는 회복 공동체 및 집 근처에서 이뤄졌고 회당 평균 두시간 가량, 개인별 평균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특징<sup>8)</sup>은 아래와 같다. 약물의 구체적 종류는 물론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몸 경험과 약물을 둘러싼 배치 역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특정한 약물 사용 경험을 가진 한국 여성의 일부일 뿐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7) 2024.1.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현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79721&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79721&tag=&nPage=1)

8)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구 참여자가 특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 출생연도, 혼인상태, 학력 등의 기재는 생략하고 맥락 해석에서 불가피할때만 본문에 노출했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번	이름 (가명)	사용 기간 (년)	사용 약물(시간순)	회복 공동체 참여 기간	구속 경험	단약 여부	면접 일자
1	희정	25	본드, 부탄가스, 러미날, 루바인, 날부핀, 대마, 졸피뎀, 필로폰	25년	있음	해당 (12년)	24.10.23. 24.11.14.
2	인희	9	케타민, 대마, 합성대마, 필로폰	1년	있음	해당 (1년)	24.10.30. 24.11.14. 24.12.09.
3	아정	9	티지, 필로폰, 대마, 자낙스, 펜터민, 쿠에토피	3년	있음	비해당	24.11.22. 24.12.05. 25.02.26.
4	정인	6	수면제(쿠에타핀, 달마돔), 프로포폴,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펜터민, 필로폰, GHB, LSD	1년	없음	비해당	24.12.09.
5	준희	4	자낙스, 스틸녹스, 대마, LSD, 캔디, 블랙페퍼, 필로폰	1년	없음	해당 (1년)	25.01.22. 25.02.26.

회복공동체 참여 기간, 구속 수감 경험 유무, 단약 여부는 최종 면접일 기준

### 3. 약물에의 이끌림과 몸의 경향성

#### 1) 젠더화 된 고통의 침습: “나도 모르게” 몰두한 재미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피해 경험은 여성들의 약물 사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Dawkins, 2001; Engstrom, 2002).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모두 약물 사용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 할 때, 그 경험이 어떠한 기억, 습관 등 몸의 경향성을 만들어 내어 약물로 이끌리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인희, 아정, 정인은 유년기 성폭력 및 아버지에게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왜 자신이 중독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경험은 이들의 약물 사용과

직결되어 해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피해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섭섭함과 외로움으로 의미화 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시작된 “방황”은 가족을 벗어나 게임, 도박, 절도, 캐주얼 섹스 등을 통해 일상의 재미를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인희는 초등학교 1학년때인 1998년, 교회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2학년때는 주거침입 강간을 당했다. 이 사실들은 아직도 부모님들이 알지 못한다. 13살때에는 엄마의 동거남에 의한 강간 피해도 경험했는데 당시 가해자는 신고하면 강간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며 엄마와 인희를 협박했다. 가해자가 기껏해야 3년 남짓의 실형을 살고 나와 보복할 것을 생각해보라며 신고를 말리는 경찰관의 말에 엄마는 고소를 취소했다. 인희는 당시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았던 엄마의 대응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 사춘기때에는 그 마음을 드러냈다가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미안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떠한 행동도 부모님이 용인 해야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이후 인희는 결석, 절도, 자퇴를 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게임과 앱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난 남성들을 통해 케타민, 대마를 접하게 되었다.

약물 사용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인희에게 초기 약물 사용은 캐주얼 섹스에 수반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25세 때인 2015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만난 한 남성이 정신이 맑아진다고 투약을 해주었고, 당뇨병 약인가 싶었던 그것은 이후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다. 인희는 알지 못하는 그 약물이나 주사기, 남성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격이 “회피” 중심이고 당장의 유희와 재미에 빠지기 바빴던 것을 그 이유로 말했고 이전의 절도, 자퇴, 게임 몰입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흥적 재미”인 캐주얼 섹스와 약물 사용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다는 인희의 이야기는 피해와 침묵 이후 자극 추구에 익숙해진 경향성을 만들어 낸 신체의 작용 능력(베넷, 2020)을 보여준다.

마약류 통계를 생산하는 법무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인희의 약물 사용 “동기”는 “호기심”, “유혹” 등의 항목으로 분류될지 모른다. 하지만 인희에게 게임, 낚시 약물 사용, 캐주얼 섹스와 같이 “당장”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는 것을 재미로 만든 것은 그 반대의 상황, 즉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눈치 보고 참으며 유예되고 지연된 시간들이었다. 국내의 한 연구는 위험추구 성향이 약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준홍·조정인, 2012). 이는 여성들에게 자극 추구 성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요한다. 인희에게 그것은 자신의 폭력 피해를 묵인하려는 가족들, 심지어 자신 때문에 동거남과 헤어지게 된 엄마를 살피 반응해야하는 딸 노릇 수행으로부터의 탈주였다.

피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시도가 “일탈”로 이어진 것은 아정 역시 마찬가지다. “숨기며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생애사적 관점이 보여주듯, 아정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그 분노는 “집 밖에서 판데로 터져” 나왔는데, 중학교때부터 시작한 술과 담배, 절도가 대표적이다.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불만을 표출하면 그것을 이유로 아빠의 폭력은 오빠나 남동생이 아닌 아정에게 집중됐다. 이때 엄마는 자신이 참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며 아정을 나무라고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런 마음의 “응어리”로 고등학교때부터 아정의 가출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25세때 약물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아빠로부터 조력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아정에게 생존의 자원은 이성애였다. 고등학교 3학년때 집을 나온 후 2살 연상의 “동네 오빠”와 연애를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며 그가 권한 대마초와 합성마약(TG)를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게 됐다. 그가 투약 혐의로 구속됐을 때에는 또 다른 남성과 생활하며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과 대마를 피우고 도박을 했다. 여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묵인, 그것

에 대한 분노가 가족 밖 이성애 관계 구축이나 당장 “기분” 좋아지는 자극에 익숙한 몸의 경향성을 만들어낸 것은 인희와 마찬가지로였다.

## 2) 노동과 유흥 사이: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몸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폭력의 피해와 그 고통의 침습에 국한되지 않았다. 1976년생 희정은 중학교 2학년때의 두번째 가출에서 동네 또래들과 본드와 부탄가스를 마셨고 그것이 첫 약물 경험이다. 또래 문화를 통해 약물을 접했다는 것은 야정이나 인희와 다를 바 없지만, 희정의 잦은 가출은 단지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놀다 이뤄진 것일 뿐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로봇같이 살아오다 다른 행복을 찾은 나”가 생애사적 관점일 정도로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청개구리”처럼 일탈을 해도 부모는 나무라지 않았다. 희정은 이후 이어진 가출과 “노는 문화” 속에서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들과 러미날, 루바인, 날부핀, 대마초 등을 투약했다. 그저 또래들의 “놀이”로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약물들이 주는 몽롱한 느낌이 유쾌하지도 않았다. 당시 스스로 약물 사용을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다.

그런 희정이 적극적으로 약물을 찾기 시작한 것은 성매매를 하면서부터다. 가출이 반복되던 와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룸싸롱에서 간헐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돈을 버는 입장에 놓이자 그 제야 부모님이 25번의 이사, 수퍼 및 미용실 운영 등 20개의 직업을 가질 정도로 힘들게 일해왔음을 깨닫게 됐다. 그때부터 “밤생활”은 가계를 돕기 위한 주업이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로봇” 같이 살았다. 이즈음 함께 “놀던 동네 오빠”로부터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희정에게 필로폰은 다음날 숙취 없이 혹은 밤 늦은 시간까지 즐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만 희정은 그 효과를 의도해 필로폰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날이면 그 짜증을 “핑계”로 필로폰을 찾곤 했었다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자신의 “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준 필로폰이 좋았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그 “강박”을 사소화하고 약물 중독은 자신의 책임일 뿐이라 했다. 희정의 이러한 해석 과정에는 중독을 자기통제 실패의 결과로 여기는 지배적 담론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Gomart, 2002; Moore, 2010; Moore & Fraser, 2006), 그녀의 “강박”이 “핑계” 이상으로 강력했다는 것은 단약 과정에서 드러난다.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시자 희정은 더 이상 자신이 애써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물건을 사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필로폰은 더 이상 끌리지 않았다. 자신이 투약으로 구속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탄 원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면회를 오던 사랑하는 아빠를 십수년간 보면서도 이뤄지지 못했던 단약이었다. 희정은 가족 부양에 대한 “강박”을 떨치고 나서야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로 생각해온 “몸 팔고 웃음 파는” 성매매가 싫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은 성매매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는 몸의 경향성이었다.

희정에게 성노동이 감수 “습관”을 만들었다면, 현재까지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인에게 “밤일”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우스 파티나 클럽에서의 유흥과 다를 바 없이 이야기됐다. 1995년생 정인은 1997년생 아정처럼 폭력적인 아버지와 어린 시절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아빠의 폭력을 피해 기출을 반복하던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술을 먹고 만취해 정신을 잃은 후 모텔에서 낯선 남자 3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정인의 엄마는 인희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지어 자신 몰래 합의를 해주었다. 이후 정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흡연, 섹스, 낙태 등의 “사고”를 치기 시작했고 암 투병을 하던 아빠가 사망한 25살 때까지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았다. 이 시기, 자신처럼 학교를 중퇴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의 소

개로 정신과와 피부과 병원에서 디에타민,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아 오남용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망 후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정인은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지만 정인은 “밤일”을 하면서 다양한 약물들을 구입하느라 자신의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인 엄마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다 썼다.

그녀는 병원을 통해 처방받아 오남용한 것과 아닌 약물들을 구분하고 후자를 “마약”으로 지칭했다. 첫 “마약”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다른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의 파티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음료에 타 마셨던 그 알약은 이후 알고보니 “엑스터시”(MDMA)였다. 2년여간 유흥업소 일을 한 이후에는 클럽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다 그의 지인들,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클럽을 가던 오빠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대여섯이 한 집에 모여 며칠씩 함께 투약을 했고 남자 친구가 구속되자 약물을 얻기 위해 다시 유흥업소에서 나가기도 했다. 거기서 만난 “상선”을 통해 텔레그램을 통한 약물 취득 방법을 배웠고, 그렇게 코로나 시기부터 2년여간 매일 같이 합성마약을 사용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즉, “밤일”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약물을 얻고 사용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정인은 약물을 “외로움을 충족해주는 친구”라 말했는데, 그 외로움은 돈을 버느라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부모에 대한 감정 중심으로 이야기됐다. 성폭력 피해 이후 처음으로 수면제를 대량 복용하고 응급실에 입원했고 그제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엄마를 보며 기분이 좋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엄마는 이를 거부했다. 정인이 학교를 중퇴하고 “노는” 친구들과 “사고”를 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정인은 지금도 외로움을 달래려 약물을 사용하고 취한 채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마약”은 많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놀면서 사용한다. 가족으로

부터의 소외가 약물 사용으로 이어진 것은 다른 연구참여자와 다를 바 없지만, 그녀에게 약물은 주로 부모의 경제력을 통해 직접 구매와 소비가 가능한 병원 혹은 또래의 유흥 문화와 연결돼 있었다는 점에서 섹스를 매개로 약물을 얻어야 했던 다른 이들과 차이가 있다.

#### 4. 약물의 배치

##### 1) 약물의 불확정성과 이성애 섹스

약물의 힘은 본질적이고 자명하기보다 그것을 둘러싼 배치에 따라 상이한 행위성을 드러냈다(Azbel, 2023). 정인은 “밤일”을 하는 동안 다이어트약(디에타민, “나비약”)도 늘 먹었다. 살을 빼기 위해서나 성 노동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취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식욕억제제 복용은 젠더화 된 외모 관리의 기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곤 하지만(여성가족부, 2024), 정인에게 그것은 병원에서 투약한 프로포폴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한 합성마약과 다를 바 없는 이완제였다. 정인은 집, 파티룸, 호텔, 룸싸롱 등 약물이 유통되는 성매매의 다양한 공간이 강남, 수원, 인천 등 지역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때 약물 사용이 주로 이뤄지는 “약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들려줬다. 정인이 이야기한 성산업의 “약방”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지인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했던 원룸, 이후 정인이 마련한 집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인은 코로나 기간 2년여간 합성마약에 중독된 이후 어떠한 약물과도 멀어지겠노라 결심하고 약물을 구할수 있었던 병원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강남을 떠나 이사를 했다. 아랫집에는 수면제에 중독된 친구가 정인과는 정반대, 핑크색의 커튼과 침구, 소리 없는 조명 등 잠을 불러일으키는 정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정인은 유흥업

소에서 일할 때 경험한 “약방”이나 클럽, 파티룸과 마찬가지로 조명과 스모그, 큰 소리의 음악을 24시간 켜두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GHB, 펜터민 등을 사람들과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정인에게 약물을 “외로움을 충족해주는 친구”로 만든 것은 약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과 함께 한 사람들, 음악과 조명, 스모그 등의 배치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노는 문화”를 즐기려던 정인과 달리 캐주얼 섹스에 몰두했던 인희 역시 정인이 사용했던 약물, 케타민과 합성 마약을 남성들로부터 받아 사용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다. 반면 필로폰은 소극적이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던 인희에게 “위험을 무릅쓰는” 대담한 기분을 가져다주었다. “몸이 가벼워지고”, “내가 아닌게” 되는 느낌과 함께 평소와는 달리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섹스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좋았다. 약에 취한 상황에서는 여러 명과 섹스를 하는 것이나 자신의 성향에 맞추길 요구하는 남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즉, 약물과 함께 한 섹스는 단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기 통제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쾌락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Dennis et al., 2023; Clay, 2024). 인희가 대마, 펜타닐 등 환각성 약물을 사용하는 이들의 재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케타민으로 투약을 시작했으면 중독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다. 즉, 인희의 섹스의 즐거움은 피부나 신체의 자극, 약물이 주는 신경학적 흥분, 어린 시절 성적 피해의 트라우마나 일상의 무료함으로부터의 해방감 그 어느 것 하나로 환원되지 않았다.

섹스에 대한 감각 차이 역시 필로폰을 둘러싼 배치에 따라 상이했다. 인희와 달리 아정의 첫 필로폰 사용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아정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었던 당시, 자신의 상태를 안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 자신이 원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를 반복했다. 그가 마약 사범인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났지만 돈이 급하니 일단 만

나본 후 판단하지는 마음으로 그를 만났다가 투약을 하게 되었다. 그가 꺼내 든 주사기를 보고 30분을 실랑이하다 이미 자신에게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상황을 받아들여지게 됐다. 아정은 이 순간부터 일주일의 세상을 살며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 약물에 취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기분이 들었던 것은 인희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그렇게 2박 3일동안 모텔에서 투약, 섹스, 정신 없기를 반복한 후 집으로 돌아와 점점 취기에서 깨어나면서 “현타”가 왔다. 옷이 다 벗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공포가 컸다. 주사기와 섹스는 카드 빚, 현금, 마약 전과자와 배치되면서 역겨움으로 다가왔다.

반면 희정에게 첫 필로폰은 아정처럼 두렵거나 불쾌하지도, 인희처럼 섹스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즐거움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평소 또래 하위 문화에서 “노는 오빠”들을 통해 다양한 약물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기에 알지 못하는 그 약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필로폰을 건넌 그는 성관계를 원하는 눈치였으며, 희정은 그 약물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좋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가 원하는 섹스를 했다. 즉, 섹스와 필로폰의 교환은 아정의 사례처럼 그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희정이 유흥업소에서 하고 있던 “몸을 파는” 것과도 달랐다.

즉, 이들이 필로폰을 처음 사용하면서 가져던 느낌의 차이는 섹스에 대한 기대, 돈과 교환된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과 해석, 과거의 몸 경험 등 약물이 여성의 몸 껍질과 함께 배치된 방식에 따라 달랐다. 이것은 인간과 약물, 이성과 몸이 이미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으며 약물의 힘을 약리적 효과나 본질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Azbel, 2023; Dennis, 2017; Dennis & Farrugia, 2017).

## 2) 의료용 약물과 의료 지식

약물을 둘러싼 배치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섹스, 유흥산업,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공생하고 있는 피부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병원이었다.

준희는 여성폭력의 피해나 성매매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사례다. 생애 사적 관점이 “애매하게 살기 싫은 나”일 정도로 무엇이든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크고, 반대로 성공할 승산이 없는 일은 포기한다. 공부, 음악,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 등에서 “완벽”했던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엄마의 교육열과 생활 통제에 지쳐 가출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초등학생이던 준희를 타 지역의 시골 학교로 전학시켰다.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준희는 친구들과 격차가 커져버린 자신의 학업 능력을 깨닫고 자퇴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학을 가는 만큼이나 빨리 돈을 벌어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을 다니며 악성 자격증을 따다. 엄마를 포함한 남들 앞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 늘 긴장상태였다던 그 즈음, 자신도 모르게 집에 있던 배탈약 등 상비약들을 전부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를 계기로 정신과에 가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준희의 “약을 털어 먹는 버릇”은 이때부터 심화됐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까지 한번에 먹기 시작했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반복될때마다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이는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 좋기도 했다. 약물에 취해 다음날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죄책감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자낙스,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검색하고 처방을 쉽게 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녔다.

준희가 2021년부터 2년간 수면제를 구한 병원은 서울 천호동, 수원 인계동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들에 소재했다. 이곳 병원들이 약물을 쉽게 처방해준다는 것을 알고 직장도 옮겨 다녔다. 정인의 경험처럼 유흥업

소 주변에 여성들의 피부 및 몸매 관리나 정신적 어려움을 다루는 병원들이 즐비했고 프로포폴, 디에타민 등 긴장 이완을 위한 약물 처방이 방만하게 하고 이뤄지고 있었다. 유흥산업과 의료산업의 공간적 연결은 30여년 전 성매매 집결지 인근 약국에서 진해거담제인 리미널(“땅콩”)을 구입해 사용했던 희정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마약류 사용이 빈곤지역에 집중된 외국과 달리 유흥가가 그 중심인 특징이 지적되고 있으며(공정배 외, 2023:52), 정인이 사용했던 케타민과 프로포폴 역시 한국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문제화되고 있다(대검찰청, 2024). 하지만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유흥업으로 분류된 비율은 1.6%에 그치고(대검찰청, 2024:72), 준희처럼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 역시 이 지역의 병원들을 이용한다. 유흥업소 종사자 개인이 아니라 여성들의 약물 사용과 외모 관리를 촉진하고 긴장을 야기하는 성산업의 남성중심성, 이것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 산업, 여하한 고통을 개인화하며 약물 처방을 해법으로 권하는 정신의학적 담론의 제도화 과정을 문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데이비스, 2024).

하지만 의료 산업은 정작 여성들의 몸 경험을 반영한 지식 생산이나 치료 기술의 갱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심지어 중독 치료를 표방하며 확장되고 있었다. 준희는 필로폰 사용의 지속과 함께 점점 이상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엄마는 준희를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 준희는 이곳을 통해 약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곳에서는 약물 사용자들이 약물 이야기를 반복하는 “말뼉”이 난무했을 뿐이었다. 약물을 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갈망약을 먹는 이들을 보면서 준희는 “이건 평생 끊을 수 없는 거구나” 싶었다. 퇴원 후 남자친구와 다시 투약한 뒤에는 자신이 병원에서 본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자괴감에 빠졌고 가족의 관심을 받으려던 약물 오남용은 그때부터 숨겨야하는 것이 됐다.

준희는 다양한 약물 사용과 이때 수반된 강렬한 섹스 이후 간 섬유증,

비대증, 피부와 팔의 상처, 갑성선 수치의 문제와 질 하혈 등을 반복해 경험했지만 중독 치료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말할 기회도 없었고 스스로 말하지도 못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약물 사용 여성의 신체 건강에 대한 정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인희에게도 약물 중독 치료 병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병원장은 중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지만 이곳의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나 약물과 동반됐던 섹스가 가져온 쾌락과 고통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었다. 의료 기관의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방만한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도입되고 급여 의약품의 처방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준희와 정인은 이후로도 의료용 약물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오남용했다.

구치소 및 교도소의 약제실 역시 약물 사용에 익숙해진 여성의 몸 궤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2022년 첫 구속으로 들어간 구치소 “뽕방”에서의 6개월은 오히려 아정이 또 다른 약물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곳 약제실에서는 항갈망제 등 마약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해주지는 않았지만 약물 사용자들의 분노 조절이나 우울 호소 등 “급발진” 문제에 대응해 불안 및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한 쿠에타핀, 졸피뎀, 디아제팜, 루나팜, 자나팜 등을 처방해주었다. 필로폰을 통해 각성 상태를 즐겨왔던 아정은 그와 반대로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이 약물들의 재미를 알게되었고 이를 통해 답답한 구치소 생활을 버렸다. 무언가를 먹는다는 투약 행위의 “습관”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완의 몸 느낌에 익숙해지면서 출소 이후 필로폰을 구하지 못할 때에는 케타민을 포함한 의료용 약물을 대체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5명의 연구참여자들 모두 필로폰과 같은 “강성 마약”보다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료용 약물의 중독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아정은 그 대표적인 예로 ADHD나 조현병에 처방되는 쿠에타핀을 꼽았다. 아정에게 처음 필로폰을 건넸던 남성은 청소년기 ADHD

진단을 받은 후 이 약물을 축적해 오남용했고 교도소 수감을 통해 대용량 처방과 사용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이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한다.

쿠에타핀 등 더 많은 약물을 규제 대상인 “마약류”로 지정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것이 해법일까. 각성 효과를 가져오는 필로폰에 익숙했던 아정에게 이완제가 즐거움이 되게 만든 것은 무료한 구치소의 일상이었다. 필로폰 사용시 감각되는 빠른 시간의 속도와는 정반대였고 그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흘러보내는 것이 필요했다. 아정은 연구자와의 면접 과정에서 이뤄진 수다를 통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고, 애견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당장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것과는 다른 시간성을 상상했다. 지금 아정은 과거 입건된 형사 사건들로 인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상태다. 그곳을 통해 또 다시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약리적 치료가 무용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준희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강박과 조울증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무료함을 떨치게 해주었던 필로폰의 취기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신기한” 몸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역시 그 처방 약물의 효과라 단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약물도 “한번에 털어 먹는” 대상이 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준희에게 정해진 시간의 꾸준한 복용, 그 규칙적 일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회복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한 간식, 숙제, 수다와 청소 등의 시간이었다.

## 5. 약물의 이탈적 작용능력과 새로운 몸 궤적 출현

### 1) 약물 경제의 남성중심성: “꼬마(로) 잡히기”

약물은 집의 상비약, 응급실과 엄마, 파티의 조명, 카드 빛, 구치소의 “뽕빙” 등 다양한 물질들뿐만 아니라 섹스 파트너의 신체와 배치되기도 했

고 이때 매개된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실천과 담론은 여성의 신체를 투과하고 변형시키고 있었다.

필로폰이 가져오는 취기를 적극적 섹스의 즐거움으로 경험했던 인희는 점차 섹스보다 필로폰에 몰두하게 됐지만, 섹스 없이 필로폰을 구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SNS를 통한 취득은 경찰의 위장수사로 검거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인희는 안전하게 약물을 확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랜덤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배운 은어를 기반으로 그 상대가 약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식별한 뒤 약물-섹스의 관계로 나아갔다. 그러다 만난 한 남성은 인희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인희가 도망을 치려하면 경찰에 투약 사실을 신고 하겠다거나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인희는 그 상황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제공해 주는 약물을 포기하기도 어려웠다. 약물을 구하기 위해 또 다시 낯선 남자들을 만나고 탐색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싫었다. 그렇게 인희에게 자유로운 섹스와 자신감을 가져오던 필로폰은 점차 인희의 몸을 약물 유통 권한을 가진 남성의 통제 대상, “비위를 맞춰”야 하는 섹스를 감수하도록 만들었다. 이때부터 인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과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팔목에 남아있는 한 뼨 길이의 칼자국 두 줄은 남들에게 들킬까 부끄러운 흔적이다. 결국 가족들에게 중독 사실을 알리고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와의 관계는 종료됐다.

인희는 “호기심”으로 약물을 먼저 찾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대다수 여성들은 약물 사용과 취득, 유통에 대한 정보를 가진 남성들을 통해 약물 사용을 권유받고 서서히 중독되면서 이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여성들의 약물 사용이 파트너 등 주변 남성에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지만(Grella & Joshi, 1999; Kaufman, 1994), 이러한 연구들이 약물을 매개로 여성의 몸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상황을 보고해 온 것은 아니다. 마약류 사용자들의 특성을 통계분석한 국내 한 연구는 마약류 사용을 자기 통제를 결여한 충동

의 산물로 바라보는 지배적 담론과 달리 남성들은 계획적이고 자기 통제  
의 범위 내에서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여성들과 대비되는 특성임  
을 지적하고 있다(김준홍·조정인, 2012). 마찬가지로 약물, 이를 둘러싼 배  
치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그 효과를 상이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약물 유통의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성에 대  
한 성적 지배와 통제를 용인하는 남성중심적인 이성에 질서다.

준희와 아정 역시 자신의 몸이 약물을 둘러싼 섹슈얼리티 질서와 연결  
돼있다는 것을 간파하며 몸에 대한 회고록(앨리모, 2018)을 만들었다.  
필로폰을 찾는다는 준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 온 남성은 공짜로  
그리고 직접 집 앞에 찾아와 주사를 놔 주었고 이후로도 그의 제안은 지속  
됐다. 준희는 그가 필로폰 제공의 대가로 섹스를 요구하려 했던 것이라 처  
음부터 직감했다. 평소 깎듯하게 존댓말을 쓰던 그는 이 거래가 시작되자  
말을 놓으며 점차 자신을 “쉽게”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전  
화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는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해왔고 취기의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던 준희는 그토록 “역겹게” 여긴 그와의 섹스를 통  
해 약물을 또 다시 얻었다. 약물 제공을 미끼로 상대를 중독시킨 후 그것  
을 갈구하는 상대를 “노예”의 위치로 만드는 것을 약물 사용자들은 상대를  
아무 것도 모른채 따르는 꼬마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에서 “꼬마 잡는  
다”고 표현한다. 준희는 여성들이 꼬마 잡히는 상황에는 늘 섹스가 수반된  
다고 주장했다. 아정 역시 돈이 궁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찾아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은 약물을 투약시킨 후 섹스를 한 남성이 결국 자신을 약물  
을 갈구하는 “을”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했다. 이후 만난 남자친구에게 약물  
을 건네주던 “상선” 역시 필로폰을 주면서 아정에게 섹스를 요구했다. 남  
자친구가 투약은 자신과만 함께 하자고 말했던 이유였다.

필로폰, MDMA, LSD, 대마초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강성 약  
물”의 불법성은 남성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  
었다. 인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만난 남성들은 이전에 만났던 이

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약물을 제공하고 섹스를 요구했다. 경찰에 신고해 실형이 집행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협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과 약물의 관계는 약물 이용 성폭력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김새롬 외, 2024), 약물 취득을 위해 원치 않는 섹스를 용인하기도 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성폭력이라는 범주로 포섭되지 않았다. 아정, 준희, 인희는 약물과 분리불가능한 남성과의 섹스가 불쾌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이 원해서 시작된 관계이거나, 그들의 강압적 요구는 무시할 정도로 사소했거나, 투약으로 인한 “블랙아웃”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흥분되고 좋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기에 그것을 성폭력이라 생각지 않았다. 그녀들이 약물과 함께 느낀 섹스의 쾌락은 상대방과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불쾌와 공존했다. 이러한 현실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약물 경험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2) 긴장 속의 쾌락과 몸의 이탈: 성적 낙인과 거부

위와 같이 여성들에게 약물이 주는 감각은 과거의 몸 경험, 약물을 둘러싼 사람과 사물의 배치, 취기 이후 도래할 상황에 대한 해석 속에서 쾌락, 고통, 역겨움, 자괴감 등의 복합적 감정으로 경험된다. 페이 데니스는 이러한 상황을 ‘긴장 속의 쾌락’이라고 명명한다(Dennis, 2019). 그런데 여성들에게 긴장을 야기한 성적 지배나 굴욕감은 약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즉 약물의 기존 횡단 경로를 이탈하는 힘을 가져왔다.

희정은 첫 구속으로 수감됐던 “여자 빵방”을 “인간 지옥”이라 말한다. 자신에게 필로폰을 처음 권했던 남성과의 관계를 사랑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곳의 여성들은 희정이 그저 마약 사용 남성의 “노리개감”이었고, 희정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빵 사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희정에게 필로폰을 건넸던 그는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희정을 포함한 공동 투약자들을 신고하면서 석방됐고 그로 인해 희정이 체포됐다. 하지만

희정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약물을 얻기 위해 관계를 불문하고 섹스를 하는, “상도덕”은 커녕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희정은 그곳에서 “염산보지”라는 어휘가 공유 될 정도로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염산류 약물 사용 여성이 성적 방종과 문란함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도했다. 한편으로는 자신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게 비취질 수 있겠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때부터 약물을 동반한 섹스는 치욕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출소 직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활 공동체를 찾게 된 이유다. 이후 단약에 실패하고 네 번의 구속이 반복되었지만 단약의 기간은 점차 길어졌다. 약물의 판매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어 혼자 모텔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물 사용의 방법도 변화했다.

약물과 수반된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 약물로부터 이탈하려는 새로운 몸 껍적을 가져온 것은 인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물을 위해 섹스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섹스를 위해 약물을 용인할 정도였던 인희는 약물을 공급해 준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협박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약물에 이끌리는 자신이 “역겹”게 느껴졌다. 인희는 희정처럼 여성의 성적 실천에 대해 “상도덕”과 같은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해의 흔적은 그녀에게 약물 섹스가 죽음을 무릅쓸 정도의 일인지 의구심을 가져왔고, 결국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중독 치료병원과 회복 공동체를 찾게 됐다. 그런데 인희는 퇴원 직후,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엄마의 동거남으로부터 갑자기 섹스를 요구 받았다. 입원 당시 병원장이 엄마와 그에게 한 말, “마약 중독 여자들은 약을 하려고 몸도 판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신에게 그런 접근을 했던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약물과 동반된 섹스로 성병 치료를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의사가 보인 태도 역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젠더 불평등을 느끼게 만들었다. 의사는 임질이라 진단하며 인희를 경멸하듯 쳐다보았지만 당시 섹스 파트너인 남성은 모텔의 비위생 상태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의 몸이 남성과 달리 평가되는 현실을 절감했다.

이처럼 약물 사용 여성들에 대한 성적 낙인과 통제가 강고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몸을 또 다른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형사사법과 의료의 연결망에 자신을 배치시키는 것이었다. 아정은 자신을 “꼬마”로 만드는 남성을 “이겨 먹을 수” 있는 응징 수단으로 자수를 택했다. 이를 통해 아정은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소변검사, “뽕 방” 수감을 경험해야 했다. 아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자수 대부분이 이러한 이성애 섹슈얼리티에 대한 분노로부터 촉발된다고 평가했다. 물론 그 분노가 곧장 단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아정은 약물에 취해 체포의 두려움, “쭈리”가 왔을 때에는 CCTV나 전기 콘센트, 조명을 뜯다 감전되기도 했다. 그럴수록 친구나 가족들은 통제되지 않는 약물 사용자인 아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립되면서 아정은 “진짜 죽을 것 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정에게 죽음은 신체의 소멸은 물론, 그 신체가 상호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망 속에 더 이상 놓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의미했다(해러웨이, 2021). 그 두려움은 단약의 의지를 불러내고 있었다.

## 6. 결론

오늘날 한국에서 약물은 이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의 방종과 자기 통제 결핍, 혹은 인간 신체를 지배하는 약물의 약리적 효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물질, 이성/신체의 구획과 전자를 통해 후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근대적 관념은 강고하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할 때 인간이 느끼는 쾌락과 불쾌는 피부와 냄새, 취기 몸에 축적되어 온 느낌, 마음, 감정, 여기에 관여하는 문화적 해석과 담론 등이 ‘이미’ 서로 함께 작동한 결과로서 신경전달물질로서 약물 그 자체의 효과로 환원할 수 없다. 이때 젠더는

여성을 약물로 이끈 몸의 경향성, 약물과 여성의 몸을 둘러싼 배치 속에 작동했다.

여성 폭력의 피해, 반복된 성/노동으로 인한 고통의 침습은 외로움과 무료함을 위무할 이성에 파트너십과 즉각적 자극 추구, 긴장과 각성 상태에 “습관적”이게 익숙해지는 여성의 몸의 경향성을 만들었다. 사회적 지지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자원이 부재했던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여성들에게 이성에는 정서적 안정과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이 관계를 통해 만난 약물은 여성들에게 긴장 이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성적 쾌락의 추구, 고된 성노동과 외로움에 대한 위무 등 젠더화 된 존재로서 살아온 자신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약물 사용 여성에 대한 도덕적 평가 대신 여성들에게 약물 사용을 쾌락으로 경험되게 만드는 몸의 경향성, 그 형성 과정에 작동하는 폭력과 성산업, 빈곤과 고립 등의 현실 자체에 대한 개입이 요청되는 이유다(Chang, 2023; Eleonorasdotter, 2024; Chang, 2019).

약물의 사용 방식, 함께 사용한 사람들, 공간과 음악 등 약물을 둘러싼 배치에 따라 동일한 약물도 여성들에게 달리 경험됐다. 그 중 유흥산업과 의료산업은 여하한 약물이 여성들의 몸에 가닿기 용이한 조건을 함께 창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 지식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몸 경험과 신체화된 증상을 독해하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한 성적 낙인과 소외를 재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약물과 여성의 몸을 매개하는 이성에 섹스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성에는 여성들에게 안전하게 약물을 취득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했지만, 약물 경제의 남성중심성, 약물과 여성의 몸을 교환하는 성적 거래 관계의 불평등은 원치 않는 약물 사용과 그로 인한 중독, 약물 제고를 빌미로 한 강압적 섹스와 폭력 피해, 성적 낙인과 굴욕감을 가져왔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형사절차 혹은 남성중심적인 가족 등 기존의 통제 관계에 재배치시키는 것을 감행하면서까지 단약을 시도하는 새로운 몸 궤적을 출현시켰다. 즉, 횡단-신체성과 몸 궤적의 변화

에 집중할 때 여성의 약물 사용은 현행 정책 접근처럼 의학적 치료나 규제, 처벌 대상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성적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 질서와 규범의 문제를 소환한다.

자신의 몸이 약물을 둘러싼 의학과 형사처벌, 유흥의 세계, 섹슈얼리티 질서와 연결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몸의 회고록'은(앨리모, 2010) 인간 신체를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과 절단하고 개인 책임을 묻는 지배적 지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이 단히 몸의 자족적 실체가 아니라 물질과 흐름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듣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물질과 함께 변형되는 몸이라는 장소와 그 궤적 변화에 집중했기에 여성들이 사용한 구체적 약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 유통되어 여성의 몸에 이르렀는지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조건을 설명하지 못했다. 약물이 여성의 신체와 얽히는 시공간성과 경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더 많은 몸의 회고록이 작성되길 바란다. 약물 사용자들의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감각과 경험을 삭제한 지식은 그들을 다시 소외시키며 발화를 제약하고 처벌과 의료를 넘어선 개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Campbell & Herzberg, 2017; Walker, 2021).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공정배 · 김정인 · 유현우 · 장광호. 2023. “마약 범죄에 대한 공간적 영향요인 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3(3): 31-62.
- 김새롬 외. 2024. 『생활제감형 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여성가족부.
- 김정연. 2024.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9(2): 281-306.
- 김준홍 · 조정인. 2012. “성별집단별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위험 집단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재전략의 모색.” 『대한의사협회』 55(1): 84-96.
- 김지선 외. 2014. 『2013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24. 『마약류범죄백서』.
- 테이비스, 제임스. 2024. 『정신병을 팝니다』. 이승연 역. 서울: 사월의책.
- 베넷, 제인. 2020.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역. 서울: 현실문화.
- 앨리모, 스테이시. 2018. 『말, 살, 흡: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 · 김종갑 역. 서울: 그린비.
- 이재임. 2025. “기지촌정화운동에서의 마약 및 습관성의약품 통제(1971-1976년)와 안전메커니즘의 구축.” 『사회와 역사』 145: 307-353.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전영실 · 김지영. 2017.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와 지원 방안 모색』. 「2023년 상반기 여성인권포럼」 자료집(2023.5.10.).
- 해러웨이, 도나. 2021.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서울: 마농지.

(2) 국외문헌

- Anderson, B. & Wylie, J. 2009. “On geography and materi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41: 318-335.
- Azbel, L. 2023. “Narcofeminist ‘chemsex’: Rethinking sexualised drug use in a shifting queer landscape marked by public health emergency.” *The Sociological Review* 71(4): 881-901.

- Britton, D. 2011. *The Gender of Cr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Buer, L. M., Leukefeld, C. G., & Havens, J. R. 2016. "'I'm Stuck': Women's Navigations of Social Networks and Prescription Drug Misuse in Central Appalachia." *North American Dialogue* 19(2): 70-84.
- Campbell, N. 2002. *Using Women: Gender, Drug Policy, and Social Justice*. London: Routledge.
- Campbell, N. & Ettore, E. 2011. *Gendering Addiction: The Politics of Drug Treatment in a Neurochemical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ampbell, N. & Herzberg, D. 2017. "Gender and Critical Drug Studies: An Introduction and an Invitation." *Contemporary Drug Problems* 44(4): 251-264.
- Castillo, T. 2019. "Women Who Use Drugs: Challenges Demand Self-Led Harm Reduction." *Filter Magazine*. <https://filtermag.org> [검색일: 2025.8.12.]
- Chang, J. 2019. "Whose Personal Is More Political: Women Who Use Drugs and the Feminist Movement." *International AIDS Society Blog*. <https://www.iasociety.org> [검색일: 2025.8.12.]
- Chang, J. 2023. "Narcofeminism: A Feminist Auto-Ethnography on Drugs." *The Sociological Review* 71(4): 760-779.
- Clay, S. 2024. "Chemsex as wild self-care." *Sexualities* 28(3): 1330-1346.
- Coppel, A., & Perrin, S. 2024. "Women, Gender and Drugs: Between Research and Action." *Harm Reduction Journal* 21(1): 200.
- Covington, S. S. 2007. *Women and Addiction: A Gender-responsive Approach, Manual*. Hazelden Publishing.
- Dawkins, N. U. 2001. *Responses to partner abuse: Modeling the paths to substance abuse, suicide attempts, and retaliative partner violence*. Emory University.
- Dennis, F. 2019. "Making problems: The inventive potential of the arts for alcohol and other drug research." *Contemporary Drug Problems* 46(2): 127 - 138.
- \_\_\_\_\_. 2017. "Conceiving of Addicted Pleasures: A 'Modern' Paradox."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49: 150-159.
- Dennis, F., & Farrugia, A. 2017. "Materialising Drugged Pl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49: 1-172.
- Dennis, F., Pienaar, K., & Rosengarten, M. 2023. "Narcofeminism and its Multiples: From Activism to Everyday Minoritarian Worldbuilding." *The Sociological*

- Review* 71(4): 723-740.
- Dilkes-Frayne, E., & Duff, C. 2017. "Tendencies and Trajectories: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in an Event of Drug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5(5): 951-967.
- Eleonoradotter, E. 2024. *Women's Drug Use in Everyday Life*. Palgrave macmilan.
- Ettore, E. 2007. *Revisioning Women and Drug Use*. Palgrave Macmillan.
- Engstrom, M. V. 2002. *Childhood Sexual Abuse and Partner Violence among Women in Methadone Treatment: Mediating and Causal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Factors*. Columbia University.
- Gelstrophe, L. 2010. "Women, crime and control,"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0(4):375-386.
- Gomart, E. 2002. "Towards Generous Constraint: Freedom and Coercion in a French Addiction Treatment,"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4(5): 517-549.
- Grella, C. E., & Joshi, V. 1999. "Gender Differences in Drug Treatment Careers among Clients in the National Drug Abuse Treatment Outcome Study,"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5(3): 385-406.
- Herzberg, D. 2009. *Happy Pills in America: From Miltown to Prozac*.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aufman, E. 1996. "Diagnosis and treatment of drug and alcohol abuse in wome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74(1): 21-27.
- Maher, L. 1997. *Sexed Work: Gender, Race and Resistance in a Brooklyn Drug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ssumi, B. 2014. *What Animals Teach Us About Politic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Of Microperception and Micropolitics: An Interview with Brian Massumi," *Inflexions: A Journal for Research-Creation* 3: 1-20.
- McCormack, D. 2010. "Thinking in transition: the affirmative refrain of experience/experiment," Anderson, B & Harrison, P(eds.) *Taking-place: Non-representational Theories and Geography*. Farnham: Ashgate.
- Measham, F. 2002. "'Doing Gender' – 'Doing Drugs': Conceptualizing the Gendering of Drugs Cultures," *Contemporary Drug Problems* 29(2): 335-373.
- Miller, J. 2014. "Ch.2 Doing crime as doing gender? Masculinities, femininities, and

- crime”. *Gender, Sex, and Cr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ore, D. 2010. “Beyond Disorder, Danger, Incompetence and Ignorance: Rethinking the Youthful Subject of Alcohol and Other Drug Policy.” *Contemporary Drug Problems* 37(3): 475-498.
- Moore, D., & Fraser, S. 2006. “Putting at Risk What We know: Reflecting on the Drug-Using Subject in Harm Reductio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62(12): 3035-3047.
- Nagel I. H, & Johnson B, L. 1994. “The role of gender in a structured sentencing system: Equal treatment, policy choices, and the sentencing of female offenders under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5: 181 - 221.
- Paltrow, L, & Flavin, J. 2013. “Arrests of and forced interventions on pregn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1973 - 2005: Implications for women’s legal status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38(2): 299 - 343.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24. World Drug Report 2024: Contemporary Issues.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WDR\\_2024/WDR24\\_Contemporary\\_issues.pdf](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WDR_2024/WDR24_Contemporary_issues.pdf) [검색일: 2025.8.12.]
- Walker, I. 2021. *Pleasure and the new normal of recreational cannabis in the United States*. In D. Corva & J. Meisel(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disciplinary cannabis research*. Abingdon: Routledge
- Walker, I., & Netherland, J. 2019. “Developing a Transformative Drug Policy Research Agenda in the United States.” *Contemporary Drug Problems* 46(1): 3-21.

Abstract

Trans-Corporeality and Women's Bodily Trajectories  
– Life histories of Women on Early Adulthood  
Experiences of Drug Use

Choo, Ji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ceptualizes women's bodies as sites of trans-corporeality and analyzes the life histories of women with experiences of drug use, exploring how their bodies and bodily trajectories are formed through these entanglements. The analysis shows that experiences of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burdens of repeated sexual and labor exploitation shaped bodily trajectories marked by heterosexual partnerships sought to ease loneliness and boredom, the pursuit of immediate stimulation, and habituation to tension and arousal. As these bodies were situated within nightlife and medical industries –through casual sex, parties, pharmaceuticals, and emergency rooms–drugs generated new forms of pleasure, enabling more active sexual encounters and reconfiguring women's positions, for instance from daughters into subjects of attention. At the same time, drugs traversing male-centered drug economies and sexual discourses also produced addiction, coercive sex, victimization, and sexual shame.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se tensions, transformations in bodily trajectories emerged that sought to exit exploitative heterosexual relations.

**Key words:** drugs, body, trajectory, trans-corporeality, narco-feminism

-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7일



#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김민혜\*\* · 유순화\*\*\* · 정애리\*\*\*\*

## | 목차 |

- |         |                   |
|---------|-------------------|
| 1. 서론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 2. 연구방법 |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 1) 연구대상 | 3) 측정모형의 검증       |
| 2) 측정도구 | 4) 구조모형의 검증       |
| 3) 자료분석 | 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
| 3. 연구결과 | 4. 논의             |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A와 B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485부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4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부부친밀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배

\* 이 논문은 김민혜(2023)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2025년 정부재원(교육부 4단계 BK21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부산대학교 kima84@hanmail.net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shyoo@pusan.ac.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0721-@hanmail.net

우자 책임귀인에 대하여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최종 모형에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 기혼여성, 매개효과

## 1. 서론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성인이 된 이후 많은 경우에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 최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나고 남녀 간의 결혼 역시 선택 사항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간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신소희, 김정은, 남영주, 202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가족 중 부부는 가족 체계의 핵심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며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이다(정복자, 2015). 과거의 확대가족이 현대에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부 간의 사랑과 친밀감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부부관계도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로 점차 바뀌고 있다(박민지, 2005; 최화석, 2013).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은 결혼의 안정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Boden, Fischer, & Niehuis, 2010; O'Brien & Peyton, 2002). 부부친밀감이란 부부가 느끼는 인지적, 정서적, 성격 가까움을 의미하는데(이경희, 1995; Moss & Schwebel, 1993), 이는 결혼생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다툼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윤인지, 201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친밀감이 향상될 때 서로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히 하고 부정적 갈등 해결 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혜숙, 1993; 이경희, 1998). 부부친밀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자에게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자신을 개방할 때 배우자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여, 부부생활의 질과 정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켰다(Epstein & Baucom, 2002). 성에 대해서도 부부는 성을 관계를 증진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이 이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성의 역할을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애정과 즐거움을 나누는, 친밀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지, 2016; Litzinger & Gordon, 2005).

반면 부부친밀감의 결여는 부부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선행연구들은 부부친밀감의 저하가 부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과 정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부부관계 만족을 떨어뜨리며 부부 갈등을 유발하여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한기명, 양혜정, 2020; Roberts, 2004). 통계청(2021)은 기혼여성의 혼인 중단 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라고 하였다. Moss와 Schwebel(1993), Waring(1984)도 부부친밀감 결여가 빈번하게 이혼 사유로 거론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친밀감이 부부의 결혼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은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부부관계의 질이나 부부친밀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Beam 외(2018)는 부부관계의 여러 요인들 간 상관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질 낮은 결혼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친밀감이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생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친밀감은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친밀감이 높은 여성이 자녀에게 더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정적이

었다(장선웅, 2008; Petterson, 1984). 최윤경(2015)은 부부친밀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고, 거부·제재하거나 허용·방임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문화에서는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암묵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과 함께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장유나, 윤미리, 홍세희, 20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2)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양육자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의 가사노동을 하며, 돌봄에 남성보다 1.6배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다. 현대 사회는 남녀 모두 맞벌이를 선호하지만, 양육과 돌봄,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며, 특히 여성은 돌봄의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남성에 비하여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자녀와 가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혼 여성의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선행연구들은 기혼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길영란, 2012; 이지영, 권석만, 2010). Gam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은 인지적 처리 과정이 행동보다 선행한다고 하면서 행동적 정서조절 전략보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정보를 인지나 사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부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개념 중 결혼 만족도와 함께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친밀감은 결혼 만족도의 핵심적인 요소로(Patrick et al, 2007),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김정희, 2019; 박희정, 변상해, 2017; Patrick et al., 2007),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의 관계 역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만족도는 결혼생활의 전반

적인 점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반면 부부친밀감은 부부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상호성과 공유성을 나타내므로 결혼 만족도보다 부부친밀감이 부부관계의 질을 묻는 개념으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이경희, 1995).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였고(김두길, 유영달, 2015; 김성미, 이수림, 2018; 송종원, 김두길, 2017),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외의 경우에도 관련 주제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 매우 제한적이었다(Hamedanil & Jahromi, 2019).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나뉘는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쾌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사건을 덜 심각하게 해석하도록 하며,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구자윤, 2021; 김소희, 2004). 이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 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여준다(임전옥, 장성숙, 2003; King et al., 2006).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생활 스트레스를 낮추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설정훈, 박수현, 2015), 자신의 정서 상태를 지각하게 하여 부적응적인 정서와 강화된 부정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idges & Grolnick, 1995; Halberstadt, Dunsmore, & Denham, 2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쾌한 정서를 축적하고 악화시키는 전략이다(이지영, 권석만, 2010).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속 몰두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도록 만든다(구자윤, 202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안(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우울(하혜신, 김은정, 2007), 자살생각(최우경, 김진숙, 2014) 등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김소희, 2004). 사람이 정서를 인지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

정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목표와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불쾌한 정서를 유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Joormann & Siemer, 2011).

이러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친밀감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1998). 정서조절은 개인내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발달과제로서, 부부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다양한 감정을 주고 받는 대인관계임을 고려할 때,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그 사용에 따라 부부친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김희경, 이완정, 2022)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한기명, 양혜정, 2020).

개인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실패하면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상대방의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파국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길영란, 2012).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귀인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다(Kimmes & Durtschi, 2016). 부부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소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나 신뢰감, 이전 경험의 기억들 때문에 상황과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구아영, 2000; L'Abate, 1999). 부부가 상황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은 '귀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정문경, 2020).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귀인은 인과귀인과 책임귀인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Baucum, Sayers, & Duhe, 1989; Fincham & Bradbury, 1987). 인과귀인이란 자신이나 상대에게 일어난 사건 혹은 행동의 원인을 지각할 때 그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Weiner, 1985), 책임귀인이란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Fincham & Bradbury, 1990).

부부와 같은 친밀한 양자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인과귀인보다 책임귀인이 더 적합한데(정문경, 2020; Fincham & Bradbury, 1992; Shaver, 1985),

인과귀인은 부부의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반면 책임귀인은 부부관계의 맥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곽성정, 우정희, 김남이, 2018; 최수영 2020). 인과귀인이 배우자 행동의 원인을 단순히 내적, 외적 요인으로 밝히는 것이라면(이경성, 한덕웅, 강혜자, 1995; 이경성, 한덕웅, 2001), 책임귀인은 자신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을 칭찬 또는 비난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Fincham, Beach, & Nelson, 1987).

배우자 책임귀인의 평가 기준은 상대방 행동에 대한 의도성(intent), 이기적인 동기(selfish motivation), 비난받을 만함(blameworthy)으로 구성되어 있다(Fincham & Bradbury, 1990). 아내가 남편에게 책임귀인을 하면 남편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비난받을 만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Fincham & Bradbury, 1992).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높은 적대감과 분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폭력성이 커질 수 있다(양동욱 외, 2012; 정이랑, 2013). 또한 아내는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우성범 외, 2009; Bradbury et al., 1996; Miller & Bradbury, 1995)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켜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Fincham & Bradbury, 1987). 아내가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후에도 상대방이 유사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부부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경성, 한덕웅, 2001; Kimmes & Durtschi, 2016). 즉 부부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책임귀인하는 것은 부부친밀감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부부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김지현, 2006; 안수진, 1997; 우성범 외, 2009; 유소영, 2000; 정문경, 2020; Fincham & Bradbury, 199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따라 부부친밀감과 배우자 책임귀인이 달라졌으며, 배우자 책임귀인을 할수록 부부친밀감이 낮아졌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

은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배우자 책임귀인을 경유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끼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나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이라는 세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부부친밀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토하여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배우자 책임귀인의 역할을 확인하여 부부친밀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부부를 상담할 때, 실제적인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부부친밀감 간의 상관관은 어떠한가? 둘째,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A, B시에 소재한 20~60대의 기혼여성 485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혼여성이 많이 방문

하는 카페에서 카페 사장님의 동의하에 실시되었으며, 주변 지인의 도움을 통해 그들의 직장, 교회, 교육기관, 동호회에서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이전에 참여자들에게 설문 목적, 참여자의 권리,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이 적힌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지면의 방법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된 응답지는 총 485명이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하였다고 판단한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83부의 설문조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83)

구분	항목	빈도(%)
연령	20대	4(8)
	30대	144(29.8)
	40대	260(53.8)
	50대	68(14.1)
	60대	7(1.4)
자녀수	현재 없음	67(13.9)
	1명	138(28.6)
	2명	224(46.4)
	3명 이상	54(11.2)
결혼기간	1년 미만	10(2.1)
	1~5년	68(14.1)
	6~10년	145(30.0)
	11~15년	113(23.4)
	16~20년	64(13.3)
	21~25년	38(7.9)
	25년 이상	45(9.3)
합계		483(100)

## 2) 측정도구

### (1)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안현의, 이나빈과 주혜선(2013)이 한국판(K-CERQ)으로 타당화한 것(K-CERQ)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이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수용, 해결중심사고, 균형있게 바라보기, 긍정적 재초점, 긍정적 재평가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인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현의, 이나빈과 주혜선(2013)의 연구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수용 .69, 해결중심사고 .84, 균형있게 바라보기 .63, 긍정적 재초점 .89, 긍정적 재평가 .89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전체 신뢰도는 .92였으며, 하위요인은 자기비난 .83, 타인비난 .87, 반추 .76, 파국화 .79 였다. 본 연구에서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전체 신뢰도는 .85였으며, 하위요인은 수용 .67, 해결중심사고 .61, 균형있게 바라보기 .66, 긍정적 재초점 .83, 긍정적 재평가 .81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전체 신뢰도는 .84였으며, 하위요인은 자기비난 .70, 타인비난 .74, 반추 .68, 파국화 .84로 나타났다.

〈표 2〉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수용	어떤 경험, 사건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 없이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	3 .67
	해결중심 사고	앞으로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음에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4 .61
	균형있게 바라보기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성을 강조하거나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덜도록 관점 전환을 돕는 것	4 .66
	긍정적 재초점	실제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즐겁고 유쾌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	4 .83
	긍정적 재평가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 측면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생각을 하도록 돕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촉진하는 것	4 .81
전체		19	.8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자기비난	어떤 경험이든 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을 하는 것	4 .70
	타인비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잘못된 점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4 .74
	반추	부정적 사건과 연관된 감정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관련된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도록 만드는 것	4 .68
	파국화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최악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	4 .84
전체		16	.84

## (2)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경희(1995)가 개발하고 이경희(1998)가 수정·보완하여 타당화 한 후 정문경(2020)이 사용한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부친밀감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문경(2020)의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지적 친밀감 .82, 정서적 친밀감 .81, 성적 친밀감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0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인지적 친밀감 .81, 정서적 친밀감 .75, 성적 친밀감 .90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부친밀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인지적 친밀감	배우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결점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	5	.81
정서적 친밀감	배우자에게 언어적 표현이 없어도 느끼는 심리적 밀접함의 정도	5	.75
성적 친밀감	성적 욕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며 이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정도	5	.90
전체		15	.90

### (3) 배우자 책임귀인

본 연구에서는 Fincham과 Bradbury(1992)가 기존에 친밀한 관계의 귀인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역동적인 척도(The Dynamic Attribution Inventory: DAI, Baucom, Sayers & Duhe, 1989)와 부부 귀인양식 질문지(Marital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MASQ, Fincham, Beach & Nelson, 1987)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관계귀인 질문지(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RAM)를 인수진(1997)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과귀인 3차원과 책임귀인 3차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책임귀인 3차원만 사용하였다. 척도는 긍정적인 사건 2개, 부정적인 사건 8개의 10가지 문항에 대해 상대방 행동의 의도성, 이기적인 동기, 비난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 30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을 전체 귀인점수로 사용하였고, 긍정적 사건 2개의 비난성 차원의 경우에는 역으로 채점하였다. 정문경(2020)의 연구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였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의도성 .87, 이기적인 동기 .92, 비난성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5였으며, 하위요인 신뢰도는 의도성 .85, 이기적인 동기 .93, 비난성 .87로 나타났다.

〈표 4〉 배우자 책임귀인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의도성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였는지 실수로 행하였는지에 대한 차원	10	.85
이기적인 동기	발생한 것이 행위자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차원	10	.93
비난성	행위자가 비난받아 마땅한지에 대한 차원	10	.87
전체		30	.95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 귀인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주요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각 요인의 왜도 값은 0.58~0.35, 첨도 값은 0.85~1.31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West, Finch와 Curran(1995)에 의하면, 다변량 측정 변인의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은 경우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정규 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5>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치

(N=483)

척도	하위요인	M	SD	왜도	첨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수용	3.70	0.60	0.40	0.71
	해결중심사고	3.98	0.54	0.55	1.31
	균형있게 바라보기	3.57	0.54	0.28	0.67
정서조절 전략	긍정적 재초점	3.30	0.74	0.06	0.15
	긍정적 재평가	3.71	0.69	0.50	0.36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자기비난	3.00	0.67	0.05	0.42
	타인비난	2.76	0.67	0.35	0.44
	반추 파국화	3.34 2.74	0.68 0.74	0.23 0.31	0.27 0.22
부부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3.65	0.64	0.58	0.62
	정서적 친밀감	3.39	0.79	0.41	0.30
	성적 친밀감	3.19	0.87	0.43	0.10
배우자 책임귀인	상대방 행동의 의도성	2.73	0.94	0.34	0.31
	이기적인 동기	2.83	1.19	0.23	0.85
	비난성	3.04	1.05	0.02	0.78

##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 $r = -.10, p < .05$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배우자 책임귀인 ( $r = .35, p < .01$ ),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 ( $r = -.41, p < .01$ )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경우, 부부친밀감 ( $r = .28, p < .01$ )과는 상관을 보였으나 배우자 책임귀인 ( $r = .00, p > .05$ )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서영석(2010)이 언급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나타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을 변인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6>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2-1	2-2	2-3	2-4	3	3-1	3-2	3-3	4	4-1	4-2	4-3
<b>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b>	-													
<b>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b>	.05	-												
2-1. 자기비난	-.16**	.65**	-											
2-2. 타인비난	-.05	.59***	.02	-										
2-3. 반추	-.18**	.78**	.50**	.21**	-									
2-4. 파국화	.13**	.85**	.37**	.46**	.54**	-								
<b>3. 배우자 책임귀인</b>	.00	.35**	.19**	.28**	.21**	.33**	-							
3-1. 의도성	.01	.34**	.17**	.26**	.20**	.33**	.90**	-						
3-2. 이기적인 동기	.00	.35**	.19**	.27**	.21**	.32**	.96**	.84**	-					
3-3. 비난성	.01	.30**	.18**	.23**	.18**	.27**	.91**	.69**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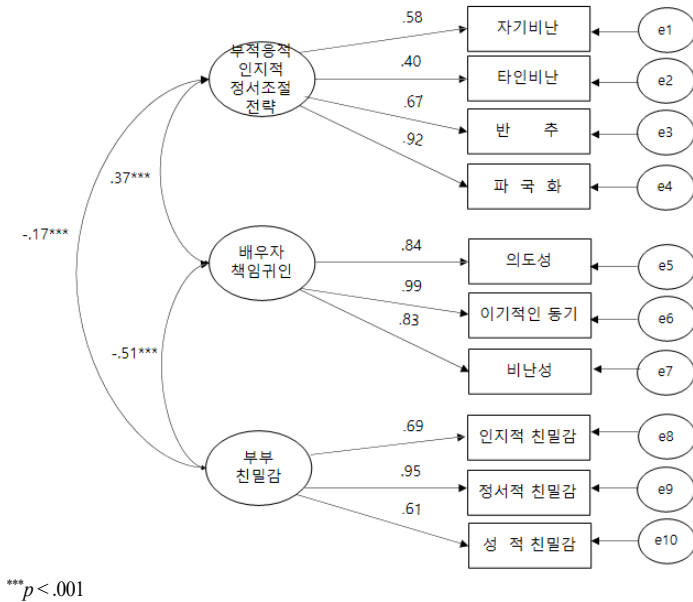
	1	2	2-1	2-2	2-3	2-4	3	3-1	3-2	3-3	4	4-1	4-2	4-3
<b>4. 부부친밀감</b>	<b>.28**</b>	<b>-.10*</b>	-.02	-.05	.03	-.20**	<b>-.41**</b>	<b>-.33**</b>	<b>-.41**</b>	<b>-.38**</b>	-			
4.1. 인지적 친밀감	.37**	-.12**	-.01	-.07	.03	-.24**	<b>-.35**</b>	<b>-.33**</b>	<b>-.34**</b>	<b>-.30**</b>	.80**	-		
4.2. 정서적 친밀감	.18**	-.13**	-.02	-.10*	-.00	-.19**	<b>-.48**</b>	<b>-.42**</b>	<b>-.48**</b>	<b>-.43**</b>	.88**	.64**	-	
4.3. 성적 친밀감	.20**	-.02	-.03	.04	.05	-.09*	-.22**	-.12**	-.23**	-.24**	.84**	.45**	.57**	-

\*p<.05, \*\*p<.01

### 3)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해당되는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세 가지의 잠재변인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을 구성하였으며,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부부친밀감은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배우자 책임귀인은 상대방 행동의 의도성, 이기적인 동기, 비난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 간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측정모형의 절대 적합도 지수는 <표 7>과 같이  $\chi^2=165.06(df=32, p<.001)$ 으로 유의미하였다.  $\chi^2$ 의 값은 표본크기, 관찰 변수의 개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chi^2$ 의 값이 유의미하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며 간명성이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지수들은 NFI=.93, TLI=.92, GFI=.93, CFI=.94로 .90이상이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09로 .08~.10에 해당하기에 모형의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11; 한다솜, 김동일, 2022; Browne & Cudeck, 1992). 측정모형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 $N=483$ )

모형	$\chi^2$	$df$	NFI	TLI	GFI	CFI	RMSEA
측정모형	165.06	32	.93	.92	.93	.94	.09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인비난을 제외한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8~.99로 나타나 .5 이상이라는 적합도 기준을 만족한다(우종필, 2015). 타인비난의 요인부하량은 .4지만 Regression Weights의 P값이 유의하므로 .3미만이 아

나라면, .5 미만이 나왔더라도 약간이나마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성은 외, 2018).

또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측정변인들의 잠재변인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 측정모형에서 이들 3요인으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R. 값은 모두 6.00 이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값을 통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은 각각의 측정변수에 의하여 잘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관측변인	Estimate		S.E.	C.R.
		B	$\beta$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 자기비난	0.57	.58	.05	11.51***
	→ 타인비난	0.40	.40	.05	8.17***
	→ 반추	0.67	.68	.05	13.05***
	→ 파국화	1.00	.92		
부부 친밀감	→ 인지적친밀감	0.82	.69	.07	12.53***
	→ 정서적친밀감	1.41	.95	.11	12.90***
	→ 성적친밀감	1.00	.61		
배우자 책임귀인	→ 상대방행동의의도성	1.00	.84		
	→ 이기적인 동기	1.50	.99	.05	29.42***
	→ 비난성	1.10	.83	.05	23.6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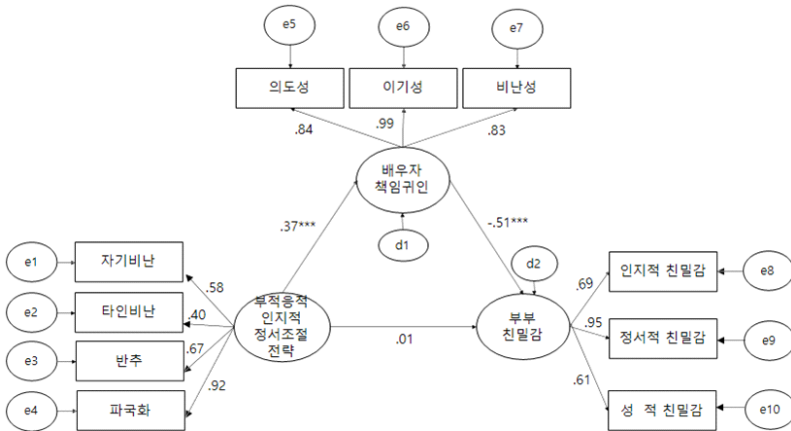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는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R.)를 검증하여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평균분산추출지수는  $.91 \leq AVE \leq .96$ 으로 .5 이상이었고, 개념신뢰도는  $.97 \leq C.R. \leq .99$ 로 .7 이상이었기에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의 잠재변인은 각각의 측정변수들에 의하여 잘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와 개념신뢰도

잠재변인	관측변인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개념신뢰도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 전략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주 파국화	.92	.98
부부 친밀감	인지적친밀감 정서적친밀감 성적친밀감	.91	.97
배우자 책임귀인	상대방행도의의도성 이기적인동기 비난성	.96	.99

4) 구조모형의 검증

최종모형의 직접 효과크기와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고, 그림에 기재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 $p < .01$ , \* $p < .05$

〈그림 2〉 최종 검증된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계수 및 유의도는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beta=.01, p>.05$ ), 배우자 책임귀인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쳤고( $\beta=.37, p<.001$ ), 배우자 책임귀인 역시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부적영향( $\beta =-.51, p<.001$ )을 미쳤다. 이를 통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직접적으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하여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

경로		B	S.E.	C.R.	$\beta$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43	.06	7.24	.37***
배우자 책임귀인	→ 부부친밀감	-.35	.04	-8.52	-.5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 부부친밀감	.01	.04	.30	.01

\*\*\* $p<.001$

### 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신뢰구간 95%에서 검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김수영, 2016). 또한 최종모델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누어 추정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효과분해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 결과는 <표 11>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01, p>.05$ )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 $\beta=.19, p<.05$ )와 총효과( $\beta=.18, p<.05$ )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효과분해 및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관계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eta$	95% CI(BC)	$\beta$	95% CI(BC)	$\beta$	95% CI(BC)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배우자 책임귀인	.37*	(.28, .45)			.37*	(.28, .46)
배우자 책임귀인	→ 부부 친밀감	-.51*	(-.57, -.43)			-.51*	(-.59, -.43)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전략	→ 부부 친밀감	.01	(-.09, -.13)	-.19*	(-.24, -.13)	-.18*	(-.27, -.08)

\* $p<.05$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배우자 책임귀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그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배우자 책임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배우자 책임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진다고 밝힌 여러 선행연구(길영란, 박미란, 이지연, 2016; Gurman & Fraenkel, 2002; Tashiro & Frazier,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기혼여성이 자신의 불쾌한 정서를 축적하고 악화시킬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과 왜곡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의 행동을 더 의도적이며 이기적이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귀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희경, 이완정, 2022; 한기명, 양혜정, 2020). 이와 같은 결과는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결점까지 이해하며 수용하는 정도가 낮고, 배우자와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으며, 성적 욕구의 만족이나 노력 정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여성의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도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내의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진다고 밝힌 선행연구(정문경,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길영란, 박미란과 이지연(2016)은 배우자 책임귀인이 결혼만족과 부적상관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결혼만족의 핵심요인이 부부친밀감이기예(Patrick et al., 2007) 길영란, 박미란과 이지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 역시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배우자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 부부친밀감을 낮추는 요인일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

친밀감 간의 관계를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 자체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책임귀인을 하도록 만들며 이것이 부부친밀감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수록 배우자 책임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길영란, 박미란과 이지연(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아내의 회피대처행동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한 정문경(2020)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이상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이에 따른 상담적 개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이 결혼생활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책임귀인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배우자를 탓하여 결국 부부친밀감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강혜숙, 김영희, 2008; 우성범 외, 2009; Bradbury et al, 1996). 따라서 상담자는 기혼여성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책임귀인을 하는 인지적 추론 과정을 탐색하고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통해 부부친밀감 향상을 도울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Zuckerman, 1977). 상담자는 기혼여성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배우자를 탓하는 정도를 파악한 이후, 기혼여성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며 책임을 돌리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고, 기혼여성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배우자에게 책임귀인하는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후 기혼여성이 배우자가 보인 행동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이

배우자 책임귀인을 더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쾌한 정서를 축적하고 악화시키며 (이지영, 권석만, 2010)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만든다(구자윤, 2021). 이에 상담자는 기혼여성 내담자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배우자 책임귀인을 줄이도록 도울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Avigail & Matthew, 2017/2020), 내담자가 부정정서를 자각할 때 즐거운 일을 상상하거나 자신이 겪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곽정임, 서미아 2015; 서미아, 2015; 이정애, 2014; Greenberg, 2008; Johnson, 2004).

셋째,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배우자 책임귀인을 줄일 수 있다면 부부친밀감 형성 저해를 막을 수 있다. Berne(1961)은 교류분석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자기긍정(I'm OK)과 타인긍정(You're OK), 자기긍정(I'm OK)과 타인부정(You're not OK), 자기부정(I'm not OK)과 타인긍정(You're OK), 자기부정(I'm not OK)과 타인부정(You're not OK)의 4가지 인생태도를 제시하였다. 타인부정의 인생태도를 취할 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인생태도로 배우자와의 관계와 결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처럼(김경화, 2003; 백은영, 2011; 허조은, 2009), 기혼여성의 인생태도를 자기긍정과 타인긍정으로 변화시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배우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배우자 책임귀인을 줄이고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한다면 부부친밀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배우자 책임귀인을 많이 하고 이는 부부친밀감을 저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을 확인하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

자 책임귀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 책임귀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상담을 통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친밀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연령, 자녀 수, 결혼 기간과 같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간명성을 위하여 통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남예지, 장유나와 홍세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자녀 유무, 결혼 연차, 최종학력, 가사 분담 만족도 등에 따라 부부친밀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 수, 경제 수준, 취업 유무, 교육 수준 등과 같은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책임귀인이라는 인지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가족 분화 경험(김윤정, 양혜정, 2021), 초기 부적응 도식(한기명, 양혜정, 2020), 불안과 회피애착(정은정, 서미아, 2020) 등에 따라 부부친밀감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처방식과 같은 행동적 요인, 개인의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인, 가족 지지나 사회 지지, 원가족 관계의 질, 자녀와의 관계 등 같은 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 봄으로써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국내문헌

-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16(1): 135-156.
- 곽성정, 우정희, 김남이. 2018. “성인여성의 성인애착, 책임귀인, 자아존중감이 친밀한 관계의 심리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75-84.
- 곽정임, 서미아. 2015.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 상담 적용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3: 157-223.
- 구아영. 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이에 대한 부모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윤. 2021. “성인애착 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 자아분화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길영란. 2012.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과 결혼만족의 관계.”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길영란, 박미란, 이지연. 2016.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3(2): 105-129.
- 김경화. 2003.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자아개념 및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두길, 유영달. 2015.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17-191.
- 김성미, 이수림. 2018.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186-201.
- 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중훈, 김과현. 2018.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 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학생활상담』 26: 5-29.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윤정, 양혜정. 2021.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10(2): 227-251.
- 김정희. 2019.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3(4): 57-73.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연세상담연구』 24: 122-142.
- 김희경, 이완정. 2022.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긍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과 부부친밀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아동과 권리』 26(4): 543-562.
- 남예지, 장유나, 홍세희. 2019.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종단적 변화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이중 변화형태 모형의 적용.” 『여성연구』 100(1): 5-34.
- 문혜숙. 1993.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연구-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지. 2005.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정, 변상해. 2017.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36-252.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은영. 2011.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미아. 2015. “이혼위기 부부에 대한 정서중심집단치료 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2): 291-313.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여성가족정책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실정훈, 박수현. 2015.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361-384.
- 송중원, 김두길. 2017.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4(2): 45-63.
- 신소희, 김정은, 남영주. 2021. “기혼남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생애학회지』 11(2): 65-83.
- 안수진. 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책임귀인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773-1794.
-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

- 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7(3): 323-345.
- 우성범, 정미나, 성낙윤, 강충명, 양은주. 2009.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 책임귀인이 연애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79-895.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유소영. 2000. “사랑 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지. 2016. “기혼남녀의 애착안정성, 자기개방, 배우자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용.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41-64.
- 이경성, 한덕용, 강혜자. 1995. “사적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65-84.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국정학회』 33(4): 235-249.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2014. “갈등을 경험하는 신혼기 부부의 정서중심치료.”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10.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95-116.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장선웅. 2008.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77-82.
- 장유나, 윤미리, 홍세희. 2020. “기혼여성근로자의 성역할인식이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아시아여성연구』 59(2): 115-155.
- 정문경. 2020. “부부의 회피대처행동이 책임귀인을 매개로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문화』 32(1): 156-192.

- 정복자. 2015. “부부의 마음챙김, 내외통제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 적용.”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정, 서미아. 2020. “중년기 부부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8(3): 383-403.
- 정이랑. 2013. “거부민감성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영. 2020.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우경, 김진숙. 2014.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25.
- 최윤경. 2015.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친밀감과 부모공동양육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화석. 2013. “중년남성의 성역할 및 부부친밀감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1. “기혼여성의 최근 이혼의 주된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C027&vw\\_cd=MT\\_ZTITLE&list\\_](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C027&vw_cd=MT_ZTITLE&list_)  
[검색일: 2023.5.10.]
- 하혜신, 김은정. 2007. “남녀 청소년에 따른 부적응도식,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268-269.
- 한기명, 양혜정. 2020. “중년기 기혼자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조절 전략에 따른 잠재계층 특성과 부부 친밀감의 차이.” 『복지상담교육연구』 9(2): 209-237.
- 한다숨, 김동일. 2022. “자기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몰입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3(4): 91-109.
- 허조은. 2009. “부부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TA 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국외문헌

- Avigail, L. and Matthew, M. 2020.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수용전념치료』. 천성문, 조용재, 김정화(역). 서울: 학지사.
- Baucom, D. H., Sayers, S. L., and Duhe, A. 1989. “Attributional style and attributional patterns among married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4): 596-607.

- Beam, C. R., Marcus, K., Turkheimer, E., and Emery, R. E. 2018.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marital quality." *Behavior Genetics* 48(3): 209-223.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A systematic individual and social psychiatry*. New York: Grove Press.
- Boden, J. S., Fischer, J. L., and Niehuis, S. 2010. "Predicting marital adjustment from young adult initial levels and changes in emotional intimacy over time: A 2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3): 121-134.
- Bradbury, T. N., Beach, S. R. H., Fincham, F. D., and Nelson, G.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3): 569-576.
- Bridges, L. J. and Grolnick, W. S. 1995.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N. Eisenberg(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rowne, M. W. and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Epstein, N. B. and Baucom, D. H. 2002. *Enhanc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couple: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ncham, F. D., Beach, S. R., and Nelson, G. 1987. "Attributional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3. Causal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s for spous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1): 71-86.
- Fincham, F. D. and Bradbury, T. N. 1987. "Cognitive processes and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ribution-efficac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06-1118
- Fincham, F. D. and Bradbury, T. N. 1990. *The psychology of marriage: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 The Guilford Press.
- Fincham, F. D. and Bradbury, T. N. 1992. "Assessing attributions in marriage: The 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57-468.
- Garnefski, N., Kraaij, V., and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reenberg, L. 2008. "The clinical application of emotion in psychotherapy." M. Lewis, J. M. Haviland-Jones, and L. F. Barrett(eds), *Handbook of Emotion*, NY: Guilford Press.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Gurman, A. S. & Fraenkel, P. 2002. "The history of couple therapy: A millennial review." *In Family Process* 41(2): 199-260.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and Denham, S. A. 2001. "Spinning the pinwheel, together: More thoughts on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1): 130-136.
- Hamedanil, N. F. & Jahromi, R. G. 2019. "Effectiveness of group therapy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TA) 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intimacy of betrayed women."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17(70): 745-753.
- Johnson, S. M. 2004.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2nd ed)*, New York: Brunner-Routledge.
- Joomann, J. and Siemer, M. 2011. "Affective processing and emotion regulation in dysphoria and depression: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cognitive control." *Social and Personality Compass* 5(1): 13-28.
- Kimmes, J. G. and Durtschi, J. A. 2016. "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s of attachment, attributions, and empath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2(4): 645-658.
- King, L. A, Hicks, J. A, Krull, J. L. and Del Gaiso, A. K. 2006. "Positive affect and the experience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79.
- L'Abate, L. 1999. "Taking the bull by the horns. Beyond talk 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y* 7(3): 206-230.
- Litzinger, S. and Gordon, K. C. 2005.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1(5): 409-424.
- Miller, G. E. and Bradbury, T. N. 1995. "Perceived benefit from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6): 1037-1043.

- Moss, B. and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1): 31-37.
- O'Brien, M. and Peyton, V. 2002. "Parenting attitudes and marital intimacy: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2): 118-127.
- Patrick, S., Sells, J. N., Giordano, F. G. and Tollerud, T. R. 2007. "Intimacy, differentiation, and personality variabl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5(4): 359-367.
- Patterson, C. H. 1984.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in psychotherapy: A review of reviews." *Psychotherapy* 21(4): 413-438.
- Roberts, S. 2004. "Till death do us part, or whatever." *New York Times*, 4014.
- Shaver, K. G. 1985. *The attribution of blame: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blameworthiness*. NY: Springer-Verlag.
- Tashiro, T. and Frazier, P. 2007. "The casual effects of emotion on couples' cogni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409-422.
- Waring, E. M.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2): 185-192.
- Weiner, B. 1985. "Spontaneous causal thinking." *Psychological Bulletin* 97(1): 74-84.
- West, S. G., Finch, J. F., and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 Zuckerman, M. 1977. "Development of a situation-specific trait-state test for the prediction and measurement of affective respon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4): 513-523.

Abstract

The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Married Women on Marital Intimacy  
– Mediating Effect of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Kim, Min-Hye  
(Pusan National University)

Yoo, Soon-Hwa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 Ae-R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marital intimac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surveys of married women residing in Cities A and B. A total of 48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fter excluding two insincere responses, 483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marital intimacy were all significantly correlate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marital intimacy.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intimacy. Second, in the final model,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marital intimac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marital intimacy,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

- ▮ 투 고 일 : 2025년 8월 26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10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7일

#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오유라\*

### | 목차 |

- |   |                |
|---|----------------|
| 1. 서론                                   |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
| 2. 문헌고찰                                 | 3) 변수설명        |
| 1) 다양성위원회와 성평등                          | 4. 분석결과        |
| 2) 다양성위원회,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3. 연구방법                                 | 2) 상관관계 분석결과   |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3) 연구모형 분석결과   |
|   | 5. 논의 및 제언     |

### | 초록 |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이 노동시장을 빈번하게 이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별 고용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적 실효성이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4년 여성관리자패널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SPSS Process macro model 4 매개효과로 분석하였다( $N=1,853$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둘째,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셋째,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oura11@naver.com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였으며, 일 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양성위원회,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직장만족도, ESG 경영, 매개효과 모형

## 1. 서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확장과 함께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최선영 외, 2022). 이에 20대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통계청, 2024). 하지만,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요구 받은 여성들이 30대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성별 고용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 경제활동참여 곡선 형태가 상이한데, 여성은 출산과 양육 등의 이벤트로 노동시장을 이탈함에 따라 M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남성은 역 U자 형태를 보인다(김지현, 2023; 조덕상, 한정민, 2024).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고용률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 이탈한 이후 저임금 노동력으로 재진입 함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크다(통계청, 2023). 또한,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과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를 살펴보면, OECD 29개국 가운데 28위에 위치해 있으며(The economist, 2025), 세부적으로 2023년 기준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22.1%, 고위공무원 내 여성 비율 11.7%로 조직 내 여성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

이를 통해 우리사회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업의 조직문화가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법과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기업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아니라면,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마련 뿐 아니라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내 조직문화가 제도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 있다(김태희, 오민지, 2017; 박정민, 최도림, 이순호, 2020; 방진아, 허순임, 2021; 손영미, 박정열, 2014; 임다희, 탁성숙, 이선우, 2018).

우리사회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아닐 경우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뿐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근속연수는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권혜원, 권순원, 2013; 김정우, 김경미, 박현준, 2018; 송종한, 김용순, 2010; 유효정, 2019). 여기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근속연수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에는 직장만족도가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다(홍성훈, 임현주, 장창권, 2021). 관련해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직장만족도가 노동시장 근속연수와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었고(성지미, 안주엽, 2016; 이요행, 방묘진, 오세진, 2005; 전영준, 남태우, 2023; 정윤경, 채정화, 송진, 2021),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직장만족도를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지속가능경영(ESG)’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ESG의 S(Social) 영역에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그리고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이 중요한 가치로 포함되어 있다(이동현, 김보라,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ESG 경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조직 내부의 구조와 문화가 평등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ESG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직으로 다양성위원회(Diversity Committee)가 제시되고 있다. 다양성위원회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포함하여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정교, 국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직 내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고은영, 2024; 김용성, 2019; 성상현, 2022; Arsel, Crockett, Scott, 2022). 이에 다양성위원회는 성평등, 형평성, 포용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설치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 운영을 연계하는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성상현, 2022). 즉, 다양성위원회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구체적 실행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기반으로 기능하며, 일 가정 양립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구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의 다양성위원회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주로 다양성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그 역할과 기능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 해소 및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ESG 경영 차원에서 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고은영, 2024; 김성은 외, 2019; 김용성, 2019; 성상현, 2022; Arsel, Crockett, Scott, 2022; Coleman, Taylor, 2023; Cuellar, 2022). 이 밖에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다양성위원회가 갖는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성별 및 인종별 다양성의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성과가 더 높음을 밝혔고, 이와 함께 다양성과 포용성이 조직 내 의사결정의 질과 협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ourke, Dillon, 2018; Hoch, 2023; Hunt et al., 2020; Minkin, 2023).

종합하면,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화, 유리천장 현상 등에 대한 구조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가 단순히 조직 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국내에서 다양성위원회의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형성시켜 직장만족도로 이어지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가 조직 내에서 성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문헌고찰

### 1) 다양성위원회와 성평등

우리사회 내 다양성위원회와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이는 사회환경 변화와 맞물려 등장한 기구이다. 이렇게 등장한 다양성위원회는 기업의 생산성, 창의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ESG)을 지향하는데 있다(이동현, 김보라, 2023). 이에 국내 기업에서 다양성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도입 및 설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다양성위원회 기구의 필요성이 그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

다. 다양성위원회의 개념 및 목적을 살펴보면, 다양성위원회는 단순히 외형적 인력 구성을 다양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전반에 포용성과 공정성을 제도화하려는 실천적 기구이다(고은영, 2024; 김용성, 2019; 성상현, 2022; Arsel, Crockett, Scott, 2022). 이에 다양성위원회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 내 구조를 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 시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성과 포용성과 관련된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성평등으로, 다양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성평등 실현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인종, 문화 등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포용하는 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으로, 우선적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전략적 기구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국내 대학 기구에서는 다양성위원회가 성평등한 학습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5;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5),

한편, 다양성위원회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다양성위원회 관련 선행연구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양성위원회의 도입 배경 및 제도적 기능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주를 이루며, 다양성위원회가 포용성 증진, 차별 해소, 조직 내 다양성 관리의 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논의한 연구들이다. 두 번째는 다양성위원회 수준이 높은 조직이 재무성과와 혁신성, 의사결정의 질 등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실증 연구들이다. 특히, 성별 및 인종 다양성이 조직 성과로 이어짐을 밝히는 해외 기업 사례 중심의 연구가 많았다. 즉, 다양성

위원회와 관련된 실증연구의 경우 국외 선행연구로, 다양성위원회가 조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에서는 실증 분석보다는 주로 다양성위원회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다양성위원회 도입을 위한 논의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다양성위원회를 통해 인적 자본의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활용을 높일 수 있음을 논의하는 연구들이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 의료 분야, 공공기관 등에서 조직 내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써 다양성위원회 도입을 내세우고 있었다(고은영, 2024; 김용성, 2019; 성상현, 2022; Arsel, Crockett, Scott, 2022). 의학 분야에서도 조직 내 역동성과 협업,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 다양성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김성은 외, 2019). 즉, 조직 내 성별, 연령별, 직무별 각기 다른 상황 등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조직 구성원 개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됨을 기반으로 다양성위원회의 도입을 내세우고 있었다(고은영, 2024; 김성은 외, 2019; 김용성, 2019; 성상현, 2022; Arsel, Crockett, Scott, 2022; Coleman, Taylor, 2023; Cuellar, 2022).

국내에서는 다양성위원회 관련 실증 영향 평가가 부족하였지만, 국외에서는 다양성위원회 도입으로 나타난 영향 평가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딜로이트는 연간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인 고성장 브랜드 기업의 경우 다양성위원회를 통해 주요 성과 지표를 자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제시한 바 있다(Brodzik et al., 2021). 또한, 인종적으로 다양한 경영진을 보유한 기업이 다양성이 낮은 기업에 비해 새로운 시장을 열 가능성이 높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고하였다(Hoch, 2023; Hunt et al., 2020; Minkin, 2023). 이 밖에도 맥킨지는 성별과 인종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 재무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위원회는 의사결정

의 질에 20%, 협업에 20%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Bourke, Dillon, 2018).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성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성평등 구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ESG 경영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관련 지표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다양성위원회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조직 내부의 제도 및 문화와 연결하는 기구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가 성평등 구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다양성위원회,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 노동력의 유입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강이수, 2007; 이성균, 김영미, 2010). 특히, 197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이성균, 김영미, 2010;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으로 인한 성별 역할 분업은 남아있는 채로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이 증가하면서 여성에게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역할 부담이 지워졌다(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2015; 고영우, 윤미례, 이동선, 2019;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이에 국가는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여성경력단절 등에 대한 법과 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생애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시장 재진입 시 저임금 및 비정규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권현지, 김영미, 권혜원, 2015; 윤미례, 김태일, 2015; 최효미, 2014).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제도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 기업 내 조직의 구조적 전환과 함께 맞물려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30대 여성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것은 경제적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지연, 2023; 장보성, 2024). 즉, 일-가정 양립은 단순히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시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쳐, 실제 제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문화를 정비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기업 내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방진아, 허순임, 2021; 손영미, 박정열, 2014; 임다희, 탁성숙, 이선우, 2018). 특히, 손영미와 박정열(2014)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근로자에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유무로 완화되는 것이 아닌 조직문화임을 제시해 준 바 있다. 또한, 김태희와 오민지(2017) 연구도 같은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존재가 아닌 이에 대해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조직문화가 기혼 여성 근로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즉,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문화, 일과 가정을 지원해주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노동시장 이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의 어려움은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가 조직 몰입과 근

속 연수는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권혜원, 권순원, 2013; 김정우, 김경미, 박현준, 2018; 송중환, 김용순, 2010; 유효정, 2019). 여기서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가 근속 연수를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에는 직장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홍성훈, 임현주, 장창권, 2021). 이러한 관점에서 직장만족도가 실제 노동시장 이직 및 근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지미, 안주엽, 2016; 전영준, 남태우, 2023; 정윤경, 채정화, 송진, 2021)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직장만족도를 심리적 만족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이에 성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기업 내 성평등을 비롯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성위원회(Diversity Committee)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성위원회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주로 국내에서는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었고, 국외에서는 조직 성과와 관련해서 실증적으로 이를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성위원회 기구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성위원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의 기구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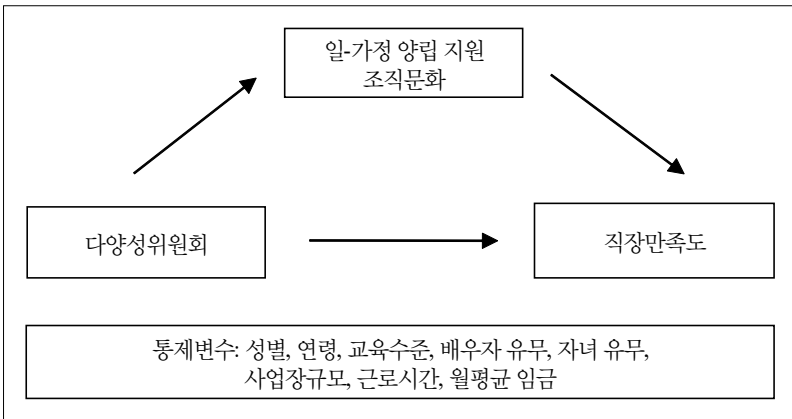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기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조직 내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직장 내 환경과 조직문화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분석자료를 필요로 하여 여성관리자패널 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성관리자패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내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사하는 자료로, 현재 2기 패널 대상자들에게 5차 2024년 조사까지 진행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2기 5차 2024년 자료에 본 연구모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사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연구모형에 모두 응답한 자료 한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모두 응답한 자료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양성위원회의 존재 유무를 비롯하여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853명이 분석대상자로 설정되었다.

####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직 내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에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매개모형은 총 3개의 모델을 검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모델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다양성위원회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 분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4번 매개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 변수설명

#### (1) 독립변수: 다양성위원회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양성위원회로, 분석자료에서 다양성위원회의 유무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다양성위원회란 여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일가정양립위원회 등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

고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조직 내 성장 등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이에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1. 있음”으로, 없는 경우 “0. 없음”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준변수는 다양성위원회가 없는 상태이다.

## (2) 종속변수: 직장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장만족도로, 분석자료에서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총 6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세부 문항은 임금, 근로시간, 일·생활 균형 수준, 승진, 직속상사, 직무였으며, 각 문항별 응답은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5점 리커트로 측정되고 있었다. 이에 총 6개 문항이 동일하게 직장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이 0.859로 6개의 문항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변수의 최소값은 6점이고, 최대값은 30점이다. 마지막으로 직장만족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3) 매개변수: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로, 분석자료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조직문화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다양성 위원회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매개변수를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분석자료에서 직장 내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조직문화를 묻는 총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 각 문항들을 살펴보면, “1. 전반적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다, 2. 눈치 보지 않고 정시퇴근이 가능하다, 3. 유연근무제도 사용자가 자유로운 편이다, 4.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5. 남성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6.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다”로, 이에 대한 응답이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있었다. 이에 총 6개의 문항이 일관된 내용을 묻는 문항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 0.887로 6개 문항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정의하였으며, 해당 변수의 최소값은 6점, 최대값은 30점이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변수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월 평균 임금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변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도현, 송인한, 2021; 윤선민, 주소현, 2025; 정영순, 어윤경, 임유진, 2012). 먼저 성별은 “0. 남성, 1.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연령은 측정된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전문대 졸업, 2. 대학교 졸업, 3. 석사 졸업, 4. 박사 졸업”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0으로, 있는 경우 1로 변환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자녀 유무도 자녀가 없는 경우 0으로, 있는 경우 1로 변환하였다. 사업장 규모는 분석자료에서 측정하고 있는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1. 100~199인, 2. 200~299인, 3. 300~499인, 4. 500인 이상”으로 투입하였다. 이어서 근로시간은 분석자료에서 측정한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여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월 평균 임금의 경우 분석자료에서는 연속형 변수로 만원 단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의 경우 분포의 왜도 및 정규성 분포 가정을 위해 로그화시켜 투입하기에 본 연구 또한 로그화시켰다(김주영 외, 2009).

## 4. 분석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71.02%)이 남성(28.98%)에 비해 높은 비율로 투입되었으며, 연령은 40대(45.17%), 50대(37.61%), 30대(11.66%), 60대 이상(5.56%) 순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53.91%), 전문대 졸업(16.84%), 석사 졸업(15.97%), 고등학교 졸업 이하(7.56%), 박사 졸업(5.72%) 순으로 많았다. 또한, 배우자 유무와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자의 비율이 더 많으며(79.33%), 자녀 또한 있는 자의 비율이 더 많았다(72.10%).

이어서 분석대상자의 직장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장 규모로는 500인 이상(33.84%), 100~199인(30.65%), 200~299인(17.22%), 300~499인(14.57%), 100명 미만(3.72%) 순으로 많았으며, 다양성위원회가 없는 직장(73.12%)이 있는 직장(26.88%)에 비해 많았다. 분석대상자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3.46시간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은 6.10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평균 수준은 22.83점이었으며, 직장만족도 평균은 20.84점이었다.

덧붙여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다양성위원회 유무를 사업장 규모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업장 규모와 다양성위원회 유무 간의 비례적인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100인 미만 기업의 사업장의 경우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비율이 4.35%에 불과하지만, 5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비율이 37.80%라는 점에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성위원회가 있을 경우가 많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유무와 다양성위원회 유무에 따른 직장만족도와 조직문화 평균킴을 비교하면, 자녀가 있는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직장만족도와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수준이 높았다. 더 나아가 자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직장만족도와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수준이 더 높았다.

〈표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N=1,853)

변수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1,316	71.02
	남성	537	28.98
연령	30대	216	11.66
	40대	837	45.17
	50대	697	37.61
	60대 이상	103	5.5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0	7.56
	전문대 졸업	312	16.84
	대학교 졸업	999	53.91
	석사 졸업	296	15.97
배우자 유무	박사 졸업	106	5.72
	없음	383	20.67
자녀 유무	있음	1,470	79.33
	없음	517	27.90
다양성위원회	있음	1,336	72.10
	없음	1,355	73.12
사업장 규모	있음	498	26.88
	100인 미만	69	3.72
	100~199인	568	30.65
	200~299인	319	17.22
	300~499인	270	14.57
주 평균 근로시간	500인 이상	627	33.84
	평균(표준편차)=43.36(5.05), 최소값=16, 최대값=63		
월 평균 임금	평균(표준편차)=6.17(0.33), 최소값=4.38, 최대값=7.31		
	조직문화	평균(표준편차)=22.83(5.05), 최소값=6, 최대값=30	
직장만족도	평균(표준편차)=20.84(4.34), 최소값=6, 최대값=30		

〈표 2〉 사업장 규모별 다양성위원회 비율

(단위: %)

변수	다양성위원회		
	없음	있음	
사업장 규모	100인 미만	95.65	4.35
	100~199인	81.87	18.13
	200~299인	73.98	26.02
	300~499인	73.33	26.67
	500인 이상	62.20	37.80

〈표 3〉 자녀와 다양성위원회 유무에 따른 직장만족도 및 조직문화 평균

(단위: 명, 점)

자녀	다양성위원회	N	직장만족도	조직문화
있음	있음	365	22.37(4.39)	25.46(4.19)
있음	없음	971	20.70(4.31)	22.24(4.95)
없음	있음	133	21.01(4.23)	24.69(4.16)
없음	없음	384	19.71(3.97)	21.18(5.23)

## 2)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 분석 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양성위원회와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는 0.163( $p < .001$ ), 조직문화와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는 0.475( $p < .001$ ), 다양성위원회와 조직문화와의 관계는 0.291( $p < .001$ )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최소값은 -0.125(사업장 규모와 직장만족도), 최대값은 0.476(조직문화와 직장만족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 값을 VIF 값으로 확인한 결과, VIF 평균값 1.23, 최소값 1.06, 최대값 1.59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 3)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직장 내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Model 1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Model 1의 모형 적합도 F 값은 26.916였으며, 모형 설명력은 11.6%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인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Coeff.=.999, p<.001$ ). 이 외의 통제변수들 가운데 연령, 사업장 규모, 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임금도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연령이 높을수록( $Coeff.=.037, p<.01$ ),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Coeff.=.203, p<.01$ ), 주 평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Coeff.=-.1225, p<.001$ ), 월 평균 임금은 높을수록( $Coeff.=2.973, p<.001$ )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 Model 2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Model 2의 모형 적합도 F 값은 40.326였으며, 모형 설명력은 16.5%였다. 주요 변수인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Coeff.=2.598, p<.001$ ). 이 외의 통제변수들 가운데 연령, 교육수준, 사업장 규모, 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임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Coeff.=.074, p<.001$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Coeff.=.354, p<.01$ ),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Coeff.=.151, p<.05$ ), 주 평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Coeff.=-.098, p<.001$ ), 월 평균 임금은 높을수록( $Coeff.=3.094, p<.001$ )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수준을 더 높게 느꼈다.

마지막으로 Model 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양성위원회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Model 3의 모형 적합도 F 값은 65.710이었으며, 모형 설명력은 26.3%였다. 주요 변인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Coeff.=.064$ ). 한편, 매개변수인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는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Coeff.=.360, p<.001$ ). 이를 해석하면, 다양성위원회의 존재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수준을 높여 직장만족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5>를 살펴보면, 총효과는 LLCI와 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하였지만, 직접효과는 LLCI와 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6>을 통해 매개변인인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통계적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Model 3의 통제변인들 가운데에서는 교육수준, 사업장 규모, 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임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Coeff.=-.260, p<.01$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Coeff.=.149, p<.05$ ), 주 평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Coeff.=-.087, p<.001$ ),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Coeff.=1.860, p<.001$ )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4> 직장 내 다양성위원회가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N=1,853)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종속변수 직장만족도		종속변수 조직문화		종속변수 직장만족도	
		Coeff.	t	Coeff.	t	Coeff.	t
독립변수	다양성위원회	.999	4.487***	2.598	10.301***	.064	.308
매개변수	조직문화					.360	19.151***
통제변수	성별	-.313	-1.455	.010	.039	-.317	-1.610
	연령	.037	2.500**	.074	4.424***	.010	.759
	교육수준	-.133	-1.208	.354	2.839**	-.260	-2.584**
	배우자 유무	.014	.051	.009	.028	.011	.044
	자녀 유무	.462	1.732	.232	.768	.378	1.554
	사업장 규모	.203	2.693**	.151	1.767*	.149	2.158*
	주 평균 근무시간	-.1225	-6.448***	-.098	-4.538***	-.087	-5.006***
	월 평균 임금	2.973	8.916***	3.094	8.189***	1.860	6.000***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종속변수: 직장만족도		종속변수: 조직문화		종속변수: 직장만족도	
	Coeff.	t	Coeff.	t	Coeff.	t
<i>R</i>	0.341		0.406		0.513	
<i>R</i> <sup>2</sup>	0.116		0.165		0.263	
<i>F</i>	26.916***		40.326***		65.710***	

\**p*<.05, \*\**p*<.01, \*\*\**p*<.001

〈표 5〉 연구모형 총효과 및 직접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999	.223	.562	1.435
직접효과	.064	.209	-.346	.474

〈표 6〉 연구모형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변인	Effect	S.E	LLCI	ULCI
조직문화	.934	.104	.738	1.142

## 5. 논의 및 제언

우리나라의 성별 고용 격차는 큰 편으로, 이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과 제도의 마련과 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실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김태희, 오민지, 2017; 손영미, 박정열, 2014).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양성위원회가 떠오르며, 다양성위원회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성원의 생애

주기별 다양한 욕구를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성상현, 2022; 이동현, 김보라,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아직 다양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밝히는 국내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직장만족도로 이어지는지를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였다. 셋째,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매개로 직장만족도를 높였다. 즉, 다양성위원회의 존재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직장만족도로 이어졌다. 넷째,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교육수준, 사업장 규모, 월평균 임금이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들과 일치된 연구 결과였다(김도현, 송인한, 2021; 윤선민, 주소현, 2025; 정영순, 어윤경, 임유진, 2012).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조직문화는 직장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양성위원회가 조직 구성원의 성별에 따른 경험 차이를 반영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과업을 조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성위원회가 단순히 성별 균형을 위한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조직 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성위원회가 조직 구성원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다양성위원회가 조직 내 제도적 신뢰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를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를 높이는 분석결과는 조직 내 심리적 만족 차원을 넘어서 근로자의 이직을 낮추고, 근속기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직장만족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근속과 이직의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였다(성지미·안주엽, 2016; 정운경 외, 2021).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과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만족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위원회가 직장만족도라는 단순한 심리적 만족감을 넘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근속 연수를 증가시키는 부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 유무와 다양성위원회 유무에 따른 직장만족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성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와 직장만족도 평균이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고, 다양성위원회 있는 집단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와 직장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다양성위원회가 실제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책임을 지닌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 및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즉, 가족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양성위원회가 더욱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다양성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성위원회를 도입하자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위원회라는 개념 및 기구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만큼 관련 기구의 존재가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다양성위원회

가 없는 기업이 있는 기업에 비해 더 많았다.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았을 때 관련 현황 분석이 정교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다양성위원회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비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비율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35%인데 반해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37.80%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일 경우 다양성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도입 및 시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도 맞물려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사업장일수록 조직 내 포용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시장 내 격차가 단순한 임금이나 고용 형태의 문제를 넘어 복지와 조직문화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박성준, 2022; 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2018), 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이러한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의 제도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다양성위원회의 제도적 확산을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일 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 수준과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현재 다양성위원회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4.35%에 불과하였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다양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거나,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ESG 평가 가점, 세제 감면 등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영세 및 중

소기업의 경우 자원 및 인력의 한계로 기업 내 독립적인 다양성위원회 설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다양성위원회를 통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내실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분석결과, 자녀가 있고, 다양성위원회가 있는 집단에서 직장만족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가족책임을 가진 근로자가 다양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따라서 다양성위원회를 단순히 성별 형평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가족친화적 운영기구로 기능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양성위원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가족친화정책(예: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제도와 복지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수반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애주기와 맞물려 각 시기별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다양성위원회의 논의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성위원회를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 다양성위원회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형식적 기구가 아닌 참여 기반의 내부 기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서 조직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와 목소리 없이는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다양성위원회가 조직 구성원에게 열려 있는 소통 창구로 기능할 때 조직문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성위원회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 채널을 활성화하고, 정기적 의견조사와 내부 포럼, 소규모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

가 있겠다. 더 나아가 수집된 의견과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다양성위원회가 실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라는 비교적 최근 등장한 조직 내 기구가 실제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이를 통해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및 정책적 의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성위원회의 유무로만 살펴보았기에 본인의 가입 유무라든지 또는 다양성위원회의 실제 운영 방식 등 질적인 수준에 대한 영향력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를 한정하지 않고 이를 통제변수로만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정한 상황과 여건에 처한 집단의 상이한 영향력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성위원회의 실제 운영 방식, 조직 구성원의 의견 반영 등 질적인 수준에 대한 고려와 성별에 따른 영향력 차이 등을 보다 섬세하게 확인함으로써 조직 내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이수. 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 연구』 7(2): 1-35.
- 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2015. 여성과 일: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동녘 출판사.
-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5. “위원회소개”.  
<https://diversity.korea.ac.kr/diversity/index.do>. [검색일: 2025.8.31.]
- 고영우, 윤미래, 이동선. 2019. 『성역할 인식과 성별분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2023. 『여성경제활동백서』
- 고은영. 2024. “글로벌 뷰티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9(5): 93-99.
- 권현지, 김영미, 권혜원. 2015. “저임금 서비스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경제와사회』 107: 44-78
- 권혜원, 권순원. 2013.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 관리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후원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3(3): 89-117.
- 김도현, 송인한. 2021.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60(2): 357-382.
- 김성은, 김나영, 박영숙, 김은영, 박선자, 심기남, 박선미. 2019. “대한소화기학회 발전에 있어서 다양성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대한소화기학회지』 74(3): 149-160.
- 김용성. 2019. “다양성위원회,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Korean J Gastroenterol』 74(3): 127-129.
- 김정우, 김정미, 박현준. 2018.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근로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3(2): 75-92.
- 김주영, 조동훈, 이변송, 조준모, 이인재. 2009.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연. 2023.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KDI Feature Article
- 김태일, 윤미래. 2015.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경로와 성역할 인식』.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희, 오민지. 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유효성과 조직문화”. 『현대사회와 행정』 27(4): 147-168.

- 박성준. 2022.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려한 복지·생산체제론적 비교사회연구”. 『사회복지정책』 49(1): 121-156.
- 박정민, 최도림, 이순호. 2020. “일·가정 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문화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262-273.
- 방진아, 허순임. 2021. “근로시간 유연화가 여성 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11(4): 37-66.
-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5. “위원회 소개”. <https://diversity.snu.ac.kr>, [검색일: 2025.8.31.]
- 성상현. 2022. “한국 기업의 다양성관리 현황과 발전 방향”. 『인사조직연구』 30(3): 79-106.
- 성지미, 안주엽. 2016.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의사 및 이직·청년층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2(2): 135-179.
- 손영미, 박정열. 2014.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조직문화와 지원제도의 영향력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9(4): 111-125.
- 송중환, 김용순. 2010. “일·가족문화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2): 387-396.
- 유효정. 2019. “가정친화정책과 가정친화조직 분위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생활균형을 매개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1): 145-171.
- 윤선민, 주소현. 2025.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과 일·생활균형제도에 대한 인식이 여성 관리자의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41(1): 325-359.
- 이동현, 김보라. 2023.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높은 직장을 위한 ‘앨리십(연대감)’의 이해: 직장 내 소외자와 상급자 차원”. 『경영건설링연구』 23(6): 67-81.
- 이성균, 김영미. 2010.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는 남녀임금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학』 44(1): 1-25.
-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 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 이요행, 방묘진, 오세진. 2005.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장만족, 이직의도, 그리고 가정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639-657.
- 임다희, 탁성숙, 이선우. 2018. “조직문화가 일·가정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조직학회보』 15(2): 29-56.

- 장보성. 2024. “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력 축적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KDI 연구  
증기획.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  
x=14874&sel\\_year=2025&sel\\_month=01&pp=20&pg=1](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br/>x=14874&sel_year=2025&sel_month=01&pp=20&pg=1). [검색일: 2025.8.31.]
- 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전영준, 남태우. 2023. “직무일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후생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0(4): 7-30.
- 정윤경, 채정화, 송진. 2021. “방송 연출직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 의사에 관한  
연구: 2차 노동시장 연출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5): 257-285.
- 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2018.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서울: 한국은행.
- 정영순, 어윤경, 임유진. 2012. “취업모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일제  
와 시간제비교”. 『한국사회정책』 19(3): 215-245.
- 조덕상, 한정민. 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KDI FOCUS, 132.
- 최선영, 박종서, 이지혜, 김종훈. 2022. 『여성고용과 출산-선행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 201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 한국노동연  
구원.
- 통계청. 2023.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검색일: 2025.8.3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  
&tblId=DT\\_1DA7012&conn\\_path=I2](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br/>&tblId=DT_1DA7012&conn_path=I2). [검색일: 2025.8.31.]
- 홍성훈, 임현주, 장창권. 2021. “일과 삶의 균형이 직무스트레스, 직무성과,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 대형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1):  
147-159.

## (2) 국외문헌

- Arsel, Z., Crockett, D., Scott, M. L. 2022.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in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A curation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8(5): 920-933.
- Bourke, J., Dillon, B. 2018. “The diversity and inclusion revolution: Eight powerful  
truths”. *Deloitte Review*, 22(1): 83-92.

- Brodzik, C., Cuthill, S., Young, N., Drake, N. 2021. "Authentically inclusive marketing: Winning future customers with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loitte Insights*, 19.
- Coleman, L. R., Taylor, E. D. 2023. "The importance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for effective, ethical leadership". *Clinics in Sports Medicine*, 42(2): 269-280.
- Cuellar, N. G. 2022. "The Importance of a DEI Officer".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33(2): 133-133.
- Hoch, K. 2023.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Competitive Considerations for Marketing".
- Hunt, V., Prince, S., Dixon-Fyle, S., Dolan, K. 2020. "Diversity wins". *McKinsey*.
- Minkin, R. 2023.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the workplace". *Pew Research Center*.
- The economist. 2025. "The Economist's glass-ceiling index"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25/03/05/the-best-places-to-be-a-working-woman-in-2025>. [검색일: 2025.8.31.]

Abstract

The Impact of Diversity Committees on Job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Oh, YouRa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In Korea, women frequently leave the labor market due to reasons such as childbirth and childcare, leading to a persistent gender employment gap. Although variou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to mitigate this issue, their institutional effectiveness may vary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tudy views the diversity committee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fostering a work - family 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examines its mediating effect on job satisfaction. Using Model 4 of the SPSS PROCESS macro, a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from the 2024 Korean Women Manager Panel( $N=1,853$ ).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ence of a diversity committe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job satisfaction. Second, organizations with diversity committees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work - family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Third, diversity committees enhanced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such a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the institutional role and practical functions of diversity committee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work - family 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s within organizations.

**Key words:** Diversity Committee, Work - Family Balance 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 Job Satisfaction, ESG Management, Mediation Model

- ▮ 투 고 일 : 2025년 8월 11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2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7일



## 『여성학연구』 간행규정

###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 (발행)

『여성학연구』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 제3 조 (원고내용)

- (1)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젠더관련 논문이어야 한다.
- (3) 『여성학연구』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특집,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논문 :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
  - ② 기획논문 : 여성연구소 기획 하에 집필된 연구논문
  - ③ 특집 : 대담이나 좌담 등 여성연구소 기획의 결과물
  - ④ 서평 :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제 4 조 (논문의 투고자격)

- (1)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젠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
- (2)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 당 하나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제 5 조 (원고투고 및 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3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2호, 9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1호의 간행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원고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파일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 소 :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715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전 화 : 051) 510-1893

- 이메일 : [pusanwomen@pusan.ac.kr](mailto:pusanwomen@pusan.ac.kr)

- (3) 원고 투고 시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 (4)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5)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6)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

- (1)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가운데서 여성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원고접수
  - ② 심사위원 위촉
  - ③ 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
  - ④ 관련 규정의 제·개정
  - ⑤ 기타 『여성학연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
- (6)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 조 (원고심사절차)

-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여성학연구』의 성

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 8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전개의 논리성
- (4) 문장력
-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 (6) 젠더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 (7) 형태사항의 적절성(원고분량, 도표, 요약 등)

제 9 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
  -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심사결과
3				계재
2	1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계재
1	2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재심
	2		1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2	1	계재 불가
			3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숫자는 심사위원의 수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의 계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심			비고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계재 불가	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명이 모두 계재 판정한 경우 계재 확정. 한 명만이 계재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며,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3자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 (3) 기타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계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 제10조 (수정 및 이의신청)

- (1)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3) 심사결과 “계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 (원고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2) 게재될 원고의 초고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http://mypage.pusan.ac.kr/women>), KCI, KISS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판권)

『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소유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2.10.31.

(5차 개정) 2024.04.30.

##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

『여성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원고 분량 및 구성〉

1.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하며, 200매를 넘을 수 없다.
2. 영어 논문의 분량은 10,000단어 내외로 하며, 15,000단어를 넘을 수 없다.
3. 논문 편집 후, 30쪽을 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4.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이름,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목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6개 내외),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주제어(Key words)(6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요약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300단어 내외로 한다.
5.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6. 원고의 구성은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편집 양식〉

1. 원고는 한글(1997 이후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4.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 쓰기를 한다.
6.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줄표 없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7.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하며, 더 세부적인 목적은 ①로 표기한다.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인용한 문헌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주에서 제시한다.
2.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  
홍길동(1997: 127) 또는 (홍길동, 1997: 127)
  - 2) 전반적인 참고로 페이지 제시가 불필요할 때 :  
홍길동(1997) 또는 (홍길동, 1997)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맥किन( MacKinno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9; 허난설현, 2000)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허난설현 외(2001) 또는 Cornell et al.(1999)

-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허난설현(1992)은...

예) A. Dworkin(1997)과 R. Dworkin(1996)의 차이는...

3. 본문주에서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국외문헌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헌 모두 먼저 간행된 문헌부터 제시한다.
4.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footnote)에서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5.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에 한하며,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 1)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번역문헌 포함)은 저자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둘째, 국외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한다.
  - 2)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 저자의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3)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심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4)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5)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 6)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 국내문헌 -

조혜정. 199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하딩, 샌드라.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서울: 나남출판.

- 국외문헌 -

Andersen, Margaret L. 1988.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N.Y. : Macmillan Pub. Comp.

(2) 정기간행물의 논문

권영자. 1988.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2): 5-33.

Betz, Michael and Lenahan O'Connell. 1989. “Work Orientations of Males and Females.” *Sociological Inquiry* 59(3): 318-330.

(3) 편집한 책의 논문

조옥라. 1985. “사무직 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129.

Huber, John. 1986. “A Theory of Gender Stratification.” Laurel Richardson and Verta Taylor(eds). *Feminist Frontiers II*. N.Y.: Random House. 10-19.

(4) 학위논문

하정화. 2010. “부산 여성기자의 젠더 경험과 여성주의 실천 연구: 지역 여성주의의 가능성 모색.” 부산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5)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 2008. “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 회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 법학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자료집(2008.4.12.).

(6) 신문기사·잡지

진혜민. 2019. “불꽃페미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여성신문>. 2019.7.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7) 통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 인터넷 자료

여성부. 2008. “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진주원. 2019. “김복동 운동가·서지현 검사, 3.8세계여성의날 수상.” <여성신문>. 2019.3.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66> [검색일: 2019.7.5.]

6. 이 원고작성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편집 위원회에서 발행한 <여성학연구> 기존 호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89.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0.09.30.

## 『여성학연구』 연구윤리규정

### 제1 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투고한 필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아무런 명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자는 자신의 원고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 제 4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 5 조 (연구윤리 위원회)

1.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즉시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위원장은 편집 위원장이 겸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4.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5.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 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8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 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9.06.30.

##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36권 제1호 원고모집

『여성학연구』는 1988년 설립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198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로서,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4월 30일에 발행할 제36권 제1호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투고자격 : 석사 이상
- 원고주제 :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관련 논문
- 접수마감 : 2026년 3월 1일
- 심 사 료 : 6만원 (재심사시 심사료가 추가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231-3621-41 부산대 여성연구소  
(게재시 일반논문은 10만원, 연구비 지원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투고방법 : 부산대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논문제출
- 연 락 처 :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51)510-1893, 팩스 (051)581-2478  
홈페이지: <http://women.pusan.ac.kr>  
웹메일: [pusanwomen@pusan.ac.kr](mailto:pusanwomen@pusan.ac.kr)

##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남이(부산대학교 한문학과)
편집위원	기희경(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김경연(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보명(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수정(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애령(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김인선(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문재원(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박미선(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신지은(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안숙영(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주현희(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추주희(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황정미(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기영(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創成科學研究科)
	Nam Yunju (Univ.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편집간사	배병용(부산대학교 사학과)

---

## 여성학연구 제35권 제2호

인 쇄 | 2025년 10월 31일

발 행 | 2025년 10월 31일

발 행 인 | 김남이

발 행 처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051-510-1893)

홈페이지 | <http://women.pusan.ac.kr>

이 메 일 | [pusanwomen@pusan.ac.kr](mailto:pusanwomen@pusan.ac.kr)

인 쇄 처 |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5

ISSN 1598-950X

## Articles

Navigating Layered Precarities

- Legal Status and Gendered Pathways of Marriage Migrant Women  
| Kim, Hyun Mee

Social Adaptation of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in South Korea

- Cases and Implications of Women  
| Yi, Soojeong

Young Women in the 2024-25 Square for Impeachment

- Precarity and the Politics of Appearance  
| Lee, Euna · Shin, Kyung-ah

Post-Nationalist Representations and Strategies of Reconciliation in East Asian ‘Comfort Women’ Narratives

- Focusing on Chun-ja's Nanjing and Sakura  
| TAI PEIHAN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Women’s Labor Discourse in *Gyubang gasa*

| Jeon, ji-won

Interpreting “Butch” Performances among Young Korean Lesbians

| Song, Woo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Sleep Quality by Gender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 Shin, HyeonWoo · Yang, NanMee

Trans-Corporeality and Women’s Bodily Trajectories

- Life histories of Women on Early Adulthood Experiences of Drug Use  
| Choo, Jihyun

The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Married Women on Marital Intimacy

- Mediating Effect of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 Kim, Min-Hye · Yoo, Soon-Hwa · Chung, Ae-Ree

The Impact of Diversity Committees on Job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 Oh, YouRa

ISSN 1598-950X

Women’s Studies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